

연구보고 06-R16

중국 유학 한국청소년의 규모추정과 적응실태

책임연구원 : 김익기 (동국대 교수)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결과요약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1) 현재 일관성 있게 나타나 있지 않은 유학생수를 체계적으로 추정해서 현재 중국에 있는 한국유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2) 현재 중국에 유학한 학생들을 그룹토의(Focus group discussion) 및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하여 이들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 및 적응실태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1) 중국의 기본교육제도;
 - 2) 재중국 한국유학생의 현황;
 - 3) 재중국 한국유학생 대상 교육기관의 종류 및 내용;
 - 4) 재중국 한국유학생수의 파악;
 - 5) 재중국 한국유학생의 적응실태.

3. 연구방법

- 중국의 교육제도 및 유학현황에 관해서는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한국 유학생의 적응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방법과 초점집단연구(Focus Group Discussion)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음.
- 조사응답자 총수는 360명임.
- * 6개의 유학생 집단을 선정하여 초점집단 토론조사를 실시하였음.
- 중국어학원의 중국인 교사 3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토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음.

4. 설문조사결과

-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50.8%가 남학생이고 49.2%가 여학생으로 선정되었음.
- 조사대상자는 고등학생이 26.1%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입시중 합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25.3%), 대학생(20.2%) 및 어학연수생(13.2%)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조사자 가운데 65.6%는 유학오기 전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응답을 했음.
- 응답자의 7.1%는 본인이 매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14.8%는 별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음.
- 응답자의 36.3%가 지난 1년간 무단결석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고 있음.
- 중국에 유학 온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정도를 보면, 전체응답자의 23.9%는 1주일에 한 번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고생의 경우 20.8%가 1주일에 한번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응답자들의 42.3%는 성적에 관해서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40.2%의 응답자는 숙제나 시험에 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하고 있음.
- 언어문제에 관해서는 29.2%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응답자의 과반수인 51.9%가 진로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57.6%가 취업 등에 관해 스트레스가 있다고 답하고 있음.
- 응답자의 14.7%는 중국사회에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고 50.3%는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음.

5. 제언

- 중국으로 유학을 결정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한국에서의 철저한 유학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미래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임.
- * 중국에 올 때 먼저 어느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유학생 특히 한국 유학생을 위한 시스템이 발달한 지역의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학생들은 자기에게 맞는 가장 바람직한 교육운영 시스템은 무엇일까를 고민하여 국제부 수업형태 및 운영주체를 잘 파악해야 할 것임.
- 토론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자기들의 경험에 비추어 대체로 조기유학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음.
- * 토론자들은 유학생이 어릴수록 부모가 함께 와서 생활을 보살펴 주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
- 조기유학의 성공과 실패 사례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학부모들에게 제공하여 학부모들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어 놓아야 할 것임.
- * 정부가 주도하는 유학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도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 질 낮은 유학알선업체에 대한 행정적 조치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임.
- * 한국 유학생이 밀집된 지역에 유학생문제를 전담하는 상담소를 설치하든가 이 지역에 장학사를 파견하여 유학생들의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상담,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처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목 차

I.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문제 및 내용	6
3. 연구방법	7
II. 이론적 배경	11
1. 중국의 기본적 학제	11
2. 유학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	14
3. 재중국 한국유학생 대상 교육기관의 종류 및 내용	22
III. 중국 유학 한국청소년의 규모추정	31
1. 한국유학생의 추세	31
2. 재중국 한국유학생 추이	34
IV. 중국 유학 한국청소년의 적응실태	41
1. 재중국 한국유학생의 적응실태 - 설문조사결과	41
2. 재중국 한국유학생의 적응실태 - 초점집단 토론 결과	73
V. 결론	117
1. 요약	117
2. 성공적 중국유학을 위한 제언	124
부록	133
<부록 1> 중국유학 한국 청소년의 적응실태 설문조사지	135
<부록 2> 초점집단토론 - 가이드라인	149
<부록 3> 중국유학 한국청소년 적응실태에 관한 Focus Group Discussion -요약표	155
<부록 4> 초점집단토론(Focus Group Discussion) - 토론내용	165

표 목차

<표 II-1> 언어반(예비반)입학시 1학기 학비(통학 학생 기준)	20
<표 II-2> 언어반(예비반)입학시 1학기 학비 (기숙사 이용 기준)	21
<표 II-3> 초등학생 로칼반(중국반) 입학시 1학기 학비 (통학학생 기준)	21
<표 II-4> 초등학생 로칼반 입학시 1학기 학비 (기숙사 이용 기준)	21
<표 II-5> 중고등학생 로칼반 입학시 1학기 학비 (통학학생 기준)	21
<표 II-6> 중고등학생 로칼반 입학시 1학기 학비 (기숙사 이용 기준)	22
<표 II-7> 학비 및 기타 비용	22
<표 III-1 > 연도별 조기유학생 수 변화추이	32
<표 III-2> 연도별 초중고 해외 유학생수	33
<표 III-3> 주요 국가별 한국인 해외 유학생수	34
<표 III-4> 중국 성·시별 대학 한국 유학생 현황	36
<표 IV-1> 조사대상자의 학생별 성별 분포	41
<표 IV-2> 조사대상자의 학교별 분포	42
<표 IV-3> 조사대상자 부모의 교육정도	42
<표 IV-4> 조사대상자 가족의 생활수준	43
<표 IV-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4
<표 IV-6> 중국 오기 전에 준비여부	46
<표 IV-7> 중국에 올 때 같이 온 사람	46
<표 IV-8> 유학결정의 중요한 계기	47
<표 IV-9> 성별 학생별 유학결정의 중요한 계기	48
<표 IV-10> 성별 학생별 유학결정의 주체별 유학을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	50

<표 IV-11> 성별 학생별 유학결정의 주체별 중국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	52
<표 IV-12> 조사대상자의 주거형태	53
<표 IV-13> 학생별 중국어 사용의 어려움 여부	54
<표 IV-14> 학생별 이성친구 유무 여부	54
<표 IV-15> 중국어능력별 수업열중도	55
<표 IV-16> 주거형태별 중국에 온 기간별 무단결석	56
<표 IV-17> 학생별 음주 횟수	57
<표 IV-18> 학생별 흡연 정도	58
<표 IV-19> 성별 학생별 유학결정의 주체별 및 중국체류기간별 졸업후 남고자 하는 국가 (%)	59
<표 IV-20>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	61
<표 IV-21> 학생별 주거형태별 및 중국체류기간별 성적 스트레스	62
<표 IV-22> 학생별 언어문제 스트레스	63
<표 IV-23> 중국에 온 기간별 진로문제 스트레스	64
<표 IV-24>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64
<표 IV-25> 동거형태별 외로움 여부	65
<표 IV-26> 성별 학생별 중국어능력별 및 중국체류기간별 중국사회 적응정도 (%)	67
<표 IV-27> 성별 학생별 중국어능력별 및 중국체류기간별 중국생활 만족도 (%)	69
<표 IV-28> 중국어능력별 중국유학결정주체별 중국유학자체평가	70
<표 IV-29> 중국에서 겪고 있는 가장 힘든 일 (주관식 응답)	71

그림 목차

[그림 III-1] 한국인 해외 유학생수의 추세	31
[그림 III-2] 중국 유학 및 연수생 분포추이	3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문제 및 내용
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8년에 중국 북경에서 올림픽이 열릴 것으로 결정되면서 중국경제가 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사회과학원은 ‘2006년 세계정치 및 안전보고’를 통해 세계 10대 주요 국가들에 대한 종합국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은 인력자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자연자원과 외교력에서 일본보다 앞서서 종합국력평가에서 일본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06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이 세계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무역규모에서 3위를 나타내고 있다. 선박수주량도 세계 3위를 나타내고 있고 석유화학시장점유율 및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각각 세계 4위를 점하고 있다. 철강시장점유율 및 합성섬유 시장 점유율은 세계 1위를 점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연구개발 투자순위에 있어서 세계 6위를 나타내는 등의 괄목할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매우 가까워서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중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세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다른 정치체제를 지향했던 한국과 중국은 정치·외교적 관계가 단절되었다. 최근에 한국과 중국이 다시 외교관계를 맺기 전에는 중국과의 일반적인 교류는 물론이고 유학생의 교류도 거의 없었다. 1992년에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에 양국 관계에 급속한 변화가 왔다. 중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성장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교류도 점점 다각화되고 있으며 중국을 알아야겠다는 학문적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중국에 유학하는 한국 유학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중국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 4월 1일 현재 중국내 총 1,683개 대학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입학이 허용된 466개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77,715명 중 31.8%인 24,776명이 한국인이다(북경유학생의 모임 홈페이지, 2004. 10. 22). 한국유학생들이 소속된 대학은 249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한국인 유학생 가운데 어학연수생이 53.9%인 13,35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학부과정 8,719명(35.2%), 석·박사과정 1,648명(6.7%), 일반연수 1,044명(4.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무역협회가 중국 ‘국가유학망’ 자료를 인용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중국 내 한국인 유학생수는 43,617명으로 178개국에서 온 총 유학생 110,834 명의 39.3%로 1위를 기록했다(베이징저널 2005, 12.30-2006.1.5). 이중 어학연수생이 29,153명으로 67.0%를 나타내고 있다. 이 자료에는 2004년의 어느 시점인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만약 후자가 2004년 말의 자료라고 한다고 해도, 앞의 두 자료를 비교해 볼 때 불과 몇 달 사이에 한국인 유학생수가 18,841명이나 늘어났으며 그 중에서도 이 기간 동안에 어학연수생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비율이 13.1%나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믿기 어려운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재중국 한국대사관의 자료를 보면, 이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대사관이 파악한 자료는 2005년 4월1일 현재 재 중국 한국인 유학생수가 314개 대학에서 29,288명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유학생에 관한 자료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대사관에서 파악한 자료는 각 지방 영사관의 자료를 집계한 것이나 특정 지방정부에서는 이에 관한 자료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더욱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위에서 언급한 자료는 장기 어학연수를 포함하여 대학교에 등록된 유학생에 관한 통계이다. 단기로 언어연수를 오는 학생 및 대학에 등록하지 않고 중국어학원에서만 공부하는 학생들에 관한 자료는 조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 중국에 유학하는 학생들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외에도 중 고등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의 숫자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중 고등

학생의 경우는 중국에 있는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로 나누어지는데 중 고등학생 가운데에서도 중국어학원에만 다니는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 유학하는 청소년들은 부모가 중국에 주재원으로 와서 온 가족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부모 중 한 사람(대부분이 모친)이 같이 와서 생활하는 경우 및 개인적으로 학생만 오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로 오더라도 이들에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어린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에 더하여, 중국생활과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고독과 좌절을 겪으며 방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각종 비행과 연관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한 부모가 자식과 같이 올 경우에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이산가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중국에 유학 오는 학생들이 겪는 청소년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 온 대학생의 숫자도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숫자는 전혀 조사되어 있지 않다. 이들이 중국에 와서 겪고 있는 실상에 대한 연구도 전무한 형편이다.

최근에 북경에서 한국에서 유학 온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조선족 개인 가정교사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이 유학생들 가운데 널리 알려 지면서 한국 유학생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면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내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대비책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단지,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급하게 여론이 형성되면서 전전공공할 뿐이다.

본 연구자는 2005년 3월부터 한국 유학생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북경의 우다코(五道口)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한국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간접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 왔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 오면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조사 연구할 필요성을 느껴 왔다. 더욱이 앞으로 중국에 오는 한국의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고, 유학 오는 학생들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조기유학으로 인해 더욱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재중국 한국 유학생들의 현황과 실태조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현재 일관성 있게 나타나 있지 않은 유학생수를 체계적으로 추정해서 현재 중국에 있는 한국유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현재 중국에 유학한 학생들을 그룹토의(Focus group discussion) 및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하여 이들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 및 적응실태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기초적 연구가 장차 중국에 있는 유학생 정책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 연구의 문제 및 내용

가.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 토론조사를 통하여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 대답을 얻고자 하였다.

- 1) 처음 중국에 올 때 언제, 누구와 같이 왔는가?
- 2) 유학을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특히 중국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3) 중국에 오기 전에 중국의 언어나 풍습 등에 대해 충분히 준비를 했는가?
- 4) 현재 어디에서,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는가?
- 5) 현재 중국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가?
- 6) 지난 1년 간 학교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
- 7)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중국에 머무를 예정인가?
- 8) 주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는가?

- 9)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는가?
- 10) 친구관계는 어떠한가?
- 11) 술과 담배를 얼마나 하는가?
- 12) 중국에서 겪거나 행한 비행경험은 어떤 것이 있는가?
- 13) 얼마나 자주 외롭다고 느끼며 외로울 때는 어떻게 외로움을 달래는가?
- 14) 스스로 현재 중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 15) 각종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 16) 현재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 17) 조기유학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18) 중국에 유학 오기를 잘 했다고 생각하는가?

나. 연구 내용

- 1) 중국의 기본교육제도
- 2) 재중국 한국유학생의 현황
- 3) 재중국 한국유학생 대상 교육기관의 종류 및 내용
- 4) 재중국 한국유학생수의 파악
- 5) 재중국 한국유학생의 적응실태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먼저 중국의 교육제도와 유학생 현황 및 실정에 관해서 기본적인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의 적응과 관련한 제반실태를 파악해 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3-5명의 연구대상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이들이 겪고 있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토론을 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는 초점집단연구(Focus Group Discussion)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의 면접대상은 북경에 있는 중국의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 및 중국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로 구분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선정은 정확한 유학생수가 파악되기 어려운 관계로 확률표집보다는 임의표집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임의표집의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다양한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사응답자 총수는 360명이고 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 1) 중·고등학생 (139명, 국제학교 학생 39명 포함)
- 2) 정규 대학생 (72명)
- 3) 대학입학 준비생 (90명)
- 4) 어학연수생 (59명)

한편, 6개의 유학생 집단을 선정하여 초점집단 토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초점집단은 다음과 같다.

- 1) 고등학교 재학 남학생: 4명
- 2) 고등학교 재학 여학생: 4명
- 3) 청화대학 재학 여학생: 3명
- 4) 북경대학 재학 남학생: 5명
- 5) 혼성대학생 (중국에 온지 2년 이하의 대학생): 4명
- 6) 어언대학 재학생 (중국에 온 지 2년 이상 된 대학생): 4명

또한, 한국학생들을 대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객관적인 시각을 파악해 보기 위해 한국유학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중국어학원의 중국인 교사 3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토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중국의 기본적 학제
2. 유학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
3. 재중국 한국유학생 대상 교육기관의
종류 및 내용

II. 이론적 배경

1. 중국의 기본적 학제

중국의 기본적 학제는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고등학교(대학 포함)으로 되어 있고, 학제는 소학교(초등학교) 6년, 초중(중학교) 3년, 고중(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대학원 석사과정 3년, 박사과정 3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김희옥, 1998). 중국은 현재 9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1985년에 제정 공포된 ‘의무교육법’에 의한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교육의 목적이 마르크스의 이론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김성희, 2002). 따라서 중국의 교육목적은 반드시 중국의 사회주의 사회의 성질과 요구에 근거해서 규정되어 나온다. 그리고 중국의 교육방침은 “교육은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반드시 생산 노동과 서로 결합해야 하며 덕육, 지육, 체육이 조화롭게 발달된 건설자와 후계자를 배양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김성희, 2002).

중국의 현행 공교육의 체계는 학교의 성질과 임무에 따라 횡적으로 구분하면 기초 교육체제, 직업기술체제, 고등교육체제, 성인계속교육체제의 4개 체제로 나뉘지만 종적으로 구분하면 유치원 교육인 유아교육, 초등학교 수준인 초등교육, 중고등학교 수준인 중등교육, 전문대학이상 수준인 고등교육 등 4단계 등 한국과 비슷한 학제를 시행한다(김성희, 2002). 그러면, 이에 대한 학제별 특징을 밝혀 보겠다.

1) 중국의 유아 및 초·중등 교육제도

중국은 1986년 <의무교육법> 공포이후 기초교육은 성질과 임무가 다른 두 단계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즉 소학과 초급중학 단계는 의무교육 단계에 속하게 되고, 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고급 중학교 단계는 의무교육단계에 속하지 않게 된 것이다.

(1) 유아교육(유치원)

중국에서 초등학교인 소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는 학전 교육기관으로 탁아소와 유아원이 있다. 탁아소는 1세-3세까지, 유아원은 3세-6세까지의 어린이를 나이별로 구분하여 입학시켜 교육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기관 운영은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맡아서 적격의 소속직원 채용하여 운영한다. 최근에는 사립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유아원에서는 3-4세 아동은 소반(小班), 4-5세 아동은 중반(中班), 5-6세 아동은 대반(大班)으로 들어가는 등 나이에 따라 반을 편성하여 교육시키는데 대체로 한번 입학하게 되면 소학교(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다니게 된다. 그런데 농촌 유아교육 실태를 보면 유아들의 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반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한 반으로 조직되어 교육을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한 반에 1-2명의 유아교사가 배치되어 아동들을 지도한다. 유아원 교육과정(1981.10고시)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위생습관, 체육활동, 사상품덕, 언어, 상식, 계산, 음악, 미술 등 여덟 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육하는 방법은 유희, 체육활동, 수업, 관찰, 노동, 오락 활동을 통하거나 일상 활동 등을 하는 것으로 짜여있다.

(2) 초등교육(소학교)

한국의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소학교는 입학 연령이 6-7세이고 학제는 6년제로 중국 의무교육 9년제의 전 단계 교육기관이다. 한국에서의 정규적인 초등학교 제도와 같은 전일제 소학교는 국가의 교학계획에서 제시한 모든 교과목을 개설교육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학교를 운영한다.

소학교 정규 교육과정<9년 의무교육 전일제 소학교 교육과정계획>에서의 교과목은 사상, 품덕, 어문, 수학, 외국어, 자연, 사회, 체육, 음악, 미술, 노동 등 9-10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연간 34주 수업으로 지정된 각 교과 시간배당 기준에 의하여 교수학습을 하고 있다. 졸업제도는 학생들이 정해진 수업 연한 6년을 마치고 종업시험을 치고 이에 합격이 되면 졸업증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불합격되면 수료증만 수여하는 것으로 시행되고 있다.

(3) 중등교육(초중, 고중)

중등교육은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의 두 단계로 한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같은 학제를 말한다. 초급 중학 단계는 9년제 의무교육의 후 단계로서 학제는 3년으로 되어 있고 고급 중학 역시 3년이다. 이것은 한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교육기관이다. 초급중학과 고급중학은 단독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고 합쳐서 설립할 수 있는데 같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명을 “oo中學校”라고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경우 한국의 중학교 수준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초급중학교는 연간 34주 수업을 하는데 교과목으로는 초급중학에서는 사상 정치, 어문, 수학, 외국어,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체육, 음악, 미술, 노동기술 등 13과목을 25-29시간 가르치도록 되어있고, 특별활동으로 학급단체활동, 체육활동 등 5-8시간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1, 2, 3학년 모두 주당 33시간 수업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입학제도를 보면 도시지역의 초급중학교 신입생 모집은 소학교 졸업시험을 기초로 하여 시행된다. 학적관리규정에 따라서 졸업이 인정되면 호구(호구는 한국에서의 호적에 해당함)가 해당되는 도시 지역에 있는 소학교 졸업생은 원칙상 집에서 가까운 초급중학에 입학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소학교 졸업 때 3호(5%우등생)학생과 특기생(졸업생의 5%)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고급중학교에서는 초급중학 3학년을 마치고 엄격한 선발 시험을 거쳐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물론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그리고 고급중학교 모집방법은 공동지원하고 시험을 거쳐 전체적인 점수 수준에 따라서 학교별로 사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입학시험 과목은 초급중학교의 졸업시험의 과목과 같다.

고급중학교의 현행 일반교육과정 즉 교학계획의 교과목은 정치, 어문, 수학, 외국어, 물리, 화학, 생물, 역사, 지리, 체육이 있고, 여기에 노동기술과

사회실천활동, 과외활동 등 총 36-38시간을 교학하도록 되어 있다.

2) 중국의 고등교육 제도

중국에서의 일반 대학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일반대학, 일반학원, 고등전문학교 등이 있고, 성인교육기관으로서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직공대학, 교육학원, 관리간부학원, 야간대학, 농민대학 등이 있다. 그리고 대학원의 석·박사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연구생원(研究生院)이 있다.

일반대학에는 종합성 대학과 전문성 대학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들 대학은 주로 본과를 위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전문과정생, 진수생, 대학원생 등을 받을 수 있다. 학제는 4-5년이며 개별적인 전공에 따라서 이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국의 대학 학부는 문과, 이과, 법과, 상과, 농과, 공과, 재경과, 사범 등으로 특성화되어 있고, 대학원 과정은 석사학위 과정과 박사학위 과정의 2개 단계가 있으며, 과정 이수기간을 일반적으로 2-3년으로 한다.

중국에는 박사학위과정을 아무 대학에서나 설치할 수 없다. 반드시 ‘박사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만 양성하도록 하고 있다. ‘박사점’은 중국 중앙정부의 국무원학위심사 위원회가 심사를 통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각 대학의 연구능력, 교수의 수준, 학교시설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고 있다. 현재 박사학위를 양성해낼 수 있는 대학이나 전공과목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대학의 호칭을 보면 한국에서의 종합대학교에 소속된 단과 대학을 학원(學院)이라하고, 종합대학교를 대학이라고 부른다. 또 독립 설치된 단과대학도 학원이라고 부르는데 대학과 법률상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

2. 유학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

한국학생이 중국에 유학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게 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를 1세대로 하여 중국 유학의 변화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1세대 (중국유학 태동기) - 90년대 초 한중수교 이후 시작, 극소수 상위권 학생과 대부분의 하위권 학생의 도피유학이 주를 이룸.

2세대 (중국유학 붐 형성시대) - 1997년 , 점차 중위권 학생들의 유학이 붐을 이루기 시작,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조기유학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됨.

3세대 (본격적 중국유학시대) - 2002년, 중국내 대학들의 입시정책 변화로 외국인들의 입시가 점점 어려워 짐, 중국 대학입시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게 됨.

법적으로 유학(留學)이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을 의미하고 있다(김홍원, 2005). 유학은 국비유학과 자비유학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비 조기유학의 경우이다.

조기유학에 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조기유학이란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입학 혹은 재학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나가 현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홍원, 2005). 조기유학은 사유별로 인정유학, 미인정 유학, 자비유학, 파견동행, 해외이주로 구분되고 있다.

- 인정유학 : 자연과학, 예체능 등의 분야에서 특수한 업적을 이룬 자, 특수교육대상자 등으로서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수는 매우 적음.
- 자비유학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지닌 학생이 자비로 유학을 가는 경우.
- 파견동행 : 부모가 직장에서 해외파견 등의 이유로 인해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유학을 가는 것으로 부모 모두 동행하는 경우임.
- 해외이주 : 가족전체가 이민을 가는 경우.

- 미인정 유학 : 유학을 가는 초·중학생으로서 중 위에서 제시한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의 3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유학을 가는 경우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인정 유학임. 파견동행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국내에 남으면 불법이 됨.

과거 유학은 일부 사회계층의 학생과 학교교육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이 주로 갔다. 그리고 조기유학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향상,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외국어 습득과 국제적 경험 습득의 중요성, 입시제도와 같은 우리 학교교육의 문제점 및 증가하는 사교육 비용 등으로 인해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조기유학을 가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조기유학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은 조기유학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합법유학’과 ‘불법유학’으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기유학 전에 ‘불법유학’과 ‘합법유학’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 ‘한국으로 편입학할 경우의 학력인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충분히 인지한 후에 떠날 필요가 있다.

현행 자비유학 자격 법규는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만이 자비유학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초·중학생은 이민, 파견동행(부모 모두 동행),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유학을 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홍원 등(2005)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의 학부모가 조기유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의 미래와 관련하여 불안해하고, 3명 중 1명이 ‘여건만 닿으면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는 2005년에 학부모 3,626명, 교사 555명, 대학생 246명 및 장학사 19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에 응한 학부모, 교사, 대학생 중 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기유학이 신중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조기유학을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하는 비율보다 높았으나,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유학을 찬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사람들이 조기유학을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는 ‘성공보다 실패가능성이 큼’, ‘가족별거에 따른 문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 가중’, ‘사회적 위화감 및 학력의 대물림’, ‘많은 외화유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기유학을 찬성하는 주요한 이유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필요’, ‘외국어 능력 습득에 효과적’, ‘국제경쟁력을 지닌 인재 육성’,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을 국가가 막을 필요 없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은 외국어 및 국제적 경험 습득과 같은 이점도 있지만, 학생 개인, 가정,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수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 개인적으로는 해외학교에서의 부적응과 귀국 후의 부적응,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는데서 오는 정서 발달상의 문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의 문제가 있으며, 가정적으로는 가족 별거에 따른 부부간, 부모-자녀간의 여러 심리적 갈등, 유학비용에 따른 가정경제 부담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 많은 외화 유출, 조기유학을 보내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홍주(2001)는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기유학과 관련된 의식을 조사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기유학에 대한 태도로서 초·중·고등학생들의 조기유학에 대해서는 ‘반대’ 59.3%, ‘찬성’ 33.5%로, 학부모의 다수가 조기유학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조기유학을 보내는 주된 이유로는 ‘외국어 능력, 특기를 키우기 위해’(36.4%), ‘학교 교육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35.5%), ‘과다한 사교육비 때문’(34.0%) 등에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기유학의 가장 큰 부작용에 대해서는 ‘유학생들의 부적응에 의한 탈선 가능성’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과중한 유학비 부담과 외화낭비’(18.5%), ‘가족해체로 인한 가정불안’(17.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생들의 현지 적응 정도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68.9%가 ‘적응하지 못

할 것이다'로, 26.7%가 '잘 적응할 것이다'의 반응을 보여 적응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기유학 증가에 대해 '걱정된다'는 응답이 65.9%로 '걱정되지 않는다'(30.6%) 보다 높게 나타나 조기유학을 증가 추세에 대해 다수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김홍주(2001)는 조기유학을 문제라고 보는 시각과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설명하며 다음의 두 가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라고 보는 시각 : 조기유학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시각임 - 부적응, 가족해체, 과중한 유학비 부담과 외화유출, 가족해체로 인한 가정불안 증가, 도피성 유학 증가, 빈부간 사회적 위화감 증가, 국가의식 및 정체성 상실, 성공가능성 낮음, 국내에서 좋은 대학 가기 어려우면 차라리 외국대학에 나가 대학졸업장을 받아오면 한국에서 대우를 잘 받겠지 하는 기대 증가, 국내교육에 대한 불신 증가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 : 조기유학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임 - 우수인재의 다양한 해외 교육경험 제공, 국제 경쟁력 제고, 외국어 능력 신장, 지식기반사회의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우리 교육의 개선을 자극하며, 민주사회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권장해야 하며, 세계화·개방화시대에 자비조기유학을 규제하는 나라는 극소수 개발도상 국가(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뿐임.

조기유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들이 이를 다루고 있다. 조기유학은 외국어의 빠른 습득, 국제적 경험 및 안목 형성,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경험 등과 같은 장점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강지연, 2002; 최양숙, 2004; 고평옥, 2001; 엄명용, 2002; 조명덕, 2002; 김홍주, 2001). 먼저, 자녀 개인에게는 외국학교에서의 부적응 및 비행, 한국어 미습득,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상실, 귀국 후의 부적응, 중요한 성장기에 가족과 별거함으로서 생기는 심리적, 정서적 장애 등이 지적되고 있다. 가정적으로는 부부관계 변화, 부부간의 별거(기러기 아

빠/엄마) 및 의사소통 단절, 외도, 이혼, 가족해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따른 부모로서의 정체성 상실, 가정경제 부담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외화 유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 증가, 조기유학을 하는 가족과 그렇지 못한 가족간에 있어 부모 세대의 경제적 자본 및 사회 문화적 자본이 자녀 세대에 재생산됨, 조기유학을 보내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조기유학을 가지 못하면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듯한 사회분위기와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조혜영 등(2005)이 미국에 간 조기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조기유학의 동기나 결정계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본인의 의사 주도한 경우: push factor, 한국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경쟁적 친구관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다가 유학 결심, 해외연수경험이 유학으로 이어짐, 단기방문경험과 이모거주, 본인의 미국에서 영어 연수경험과 친척의 방문학자 포지션 활용. 2) 부모의 권유 주도: 진로결정시 유리한 상황모색, 한국에서의 학교 진학 및 장래 진로 가능성, 윗 형제의 유학으로 인한 영향, 친척의 포지션으로 결심, 담임교사의 권유와 엄마친구의 현지 거주, 지인가족의 방문 포지션으로 동반. 3) 부모의 포지션으로 가족 단기 체류 예정이었다가 유학생이 되는 경우, 단기 체류 예정이었으나 미국 학교가 마음에 들어 조기유학으로 전환한 경우 등이 소개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체 유학비용은 2003년도에는 46억 5천만 달러에서 2004년도에는 51억 5천만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홍원, 2005). 그러나, 타국에서 우리나라에 유학을 온 학생으로부터 우리가 벌어들인 돈은 2003년도에 1억 9천만 달러, 2004년도에 2억 6천만 달러에 지나지 않고 있다. 초·중·고 학생의 조기유학만을 보면, 2003년도의 조기유학 경비는 1억 8천3백만 달러이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2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자녀의 조기유학 비용에 관해 조사한 자료(김홍원, 2005)를 보면, 10,000-20,000 \$이 4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0,000-40,000 \$ (23.1%),

40,000- 50,000 \$(13.8%), 30,000-40,000 \$(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학 온 자녀를 위해 1년에 투자된 비용(생활비, 교육비 포함)의 평균은 약 24,000\$로 나타났다. 한편, 조기유학 비용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30%가 26.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11-20%(18.7%), 0-10%(12.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유학비용은 연 평균 가정 수입의 39.8%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중·고등학생 1명이 국제부 허가가 있는 학교에서 유학할 때, 1년간 유학비용을 대략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변상신, 2005).

- 학 비: 40,000 - 60,000 위안(1년)
- 주거비: 30,000 - 50,000 위안 (1년/아파트 방2개)
- 과외비: 20,000 - 30,000 위안 (1년/기본과외)
- 생활비: 30,000 - 50,000 위안 (1년/식비 등)
- 잡 비: 20,000 - 30,000 위안 (1년/의료비, 교재비, 용돈, 활동비 등)
- 기 타: 10,000 - 20,000 위안 (1년/한국왕복항공료 및 여행비용 등)
- 총합계: 150,000 - 240,000 위안이 소요된다. (1위안=120원)

중국에서 유학생 1명에게 소요되는 평균비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변상신, 2005).

<표 II-1> 언어반(예비반)입학시 1학기 학비(통학 학생 기준)

단위: 위안

신청비	학비	교재, 기타잡비	관리비	점심	교복비(1회)	교통비
500	13,000	4,000	5,000	1,200	1,000	2,200
합계	26,000		*도시락지참학생은 간식비 230위안 추가			

**다음학기에 로칼반으로 편입했을 경우, 입학금 10,000위안 있음

<표 II-2> 언어반(예비반)입학시 1학기 학비(기숙사 이용 기준)

신청비	학비	교재, 기타잡비	관리비	입학금(1회)	교복비(1회)	기숙사	식비
500	13,000	4,000	5,000	LOCAL반 입학시	1,000	8,000	2,500
합계	34,000						

** 기숙사 이용 학생이 주말 외출시 교통비는 개인 부담

** 주말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은 4,000위안 추가

<표 II-3> 초등학생 로컬반(중국반) 입학시 1학기학비(통학학생 기준)

신청비	학비	교재기타잡비	관리비	입학금(1회)	교복비(1회)	교통비	점심
500	10,000	3,000	5,000	10,000	1,000	2,200	1,200
첫 입학시 학비합계		32,900		다음학기부터		21,400	
* 도시락 지참 학생은 간식비 230위안 추가				입학금, 교복비 제외			

<표 II-4> 초등학생 로컬반 입학시 1학기 학비(기숙사 이용 기준)

신청비	학비	교재기타잡비	관리비	입학금(1회)	교복비(1회)	기숙사	식비
500	10,000	3,000	5,000	10,000	1,000	8,000	2,500
첫 입학시 학비합계		40,000		다음학기부터		29,000	
* 기숙사학생주말외출시 교통비는 개인 부담				입학금, 교복비 제외			

<표 II-5> 중고등학생 로컬반 입학시 1학기 학비(통학학생 기준)

신청비	학비	교재기타잡비	관리비	입학금(1회)	교복비(1회)	교통비	점심
500	13,000	4,000	5,000	10,000	1,000	2,200	1,200
첫 입학시 학비합계		36,900		다음학기부터		25,400	
* 도시락 지참 학생은 간식비 230위안 추가				입학금, 교복비 제외			

<표 II-6> 중고등학생 로컬반 입학시 1학기 학비(기숙사 이용 기준)

신청비	학비	교재기타잡비	관리비	입학금(1회)	교복비(1회)	기숙사	식비
500	13,000	4,000	5,000	10,000	1,000	8,000	2,500
첫 입학시 학비합계		44,000		다음학기부터		33,000	
* 기숙사학생주말외출시 교통비는 개인부담				입학금,교복비 제외			

- * 주말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은 4,000위안 추가
- * 학생비자 신청비 및 후견인 공중 비용은 개인실비 부담
- * 학생보험은 개인별로 또는 중국에서 해당 보험사에 신청

북경에서 비교적 유명하고 한국학생이 많이 다니는 H중학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비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변상신, 2005).

<표 II-7> 학비 및 기타 비용

구분	한어속성반	학력반	중국학생반	비고
신청비	400 (\$50)	400(\$50)	400(\$50)	신청시1회납부
학비	16,500 (\$2,000)	20,500(\$2,500)	26,000(\$3,175)	한학기교재포함
기숙사보증금	800 (\$100)	800(\$100)	800(\$100)	퇴교시 반환
기숙사비	9,000 (\$1,100)	9,000(\$1,100)	9,000(\$1,100)	한학기 분
교복비	450 (\$55)	450(\$55)	450(\$55)	매년 1회
기타비용	3,300 (\$400)	3,300(\$400)	3,300위안(\$400)	행사,활동,보험등
총비용	\$3,705	\$4,205	\$4,880	

3. 재중국 한국유학생 대상 교육기관의 종류 및 내용

외국학생을 받고 있는 초중고 중국학교는 대부분 국제부가 존재하고 있다. 국제부는 외국학생이 중국의 정규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 것으로서 몇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한국부라고 해도 될 만큼 거의 100% 한국학생으로 채워져 있다(변상신, 2005). 국제부는 외국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된 것으로서 소위 명문학교라 할 수 있는 ‘중점학교’에 그 자격을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많은 학교에서도 외국학생을 받는 추세이며, 이러한

연유로 학력인정에 대한 시시비비가 발생한다. 이는 국제부 허가가 없는 학교에서 졸업자격을 얻으려면 졸업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그 학력을 중국의 대학이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이러한 학교는 국제부 비준만 없을 뿐 중국 교육부의 정식 인가된 학교이므로 학교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내에 있는 초중고의 국제부의 운영과 교육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1) 중국 초중고 국제부(한국부) 운영형태(변상신, 2005)

중국에서는 일본부, 미국부, 유럽부 등은 없으나 각 분야에 한국부를 별도로 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상당수 있는데, 이는 한국인의 대중국 진출이 활발해 지고, 유학 및 여행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호텔, 여행사, 골프장 등 여행관련 분야와 초중고 정규학교의 국제부 안에 한국부 등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중국 조기유학 국제부(한국부) 운영형태 중 첫 번째로, <중국학생과 함께 공부하는 ‘로칼반’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로칼(Local)반’이란 용어는 중국 현지 학교의 중국 학생 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학생과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말인데, ‘그림을 삽입한다’라는 삽화라는 단어처럼, 중국학생 반에 편입한다는 의미로 ‘삽반’(插班) 중국말로로는 ‘차반’(chaban)이라고 발음한다.

외국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국제부 운영자격이 있는 중국의 초중고 학교 중에서 외국학생들을 순수하게 ‘로칼반(차반)’에서 공부를 시키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다. 반면에 로칼반에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 학교를 찾아다니는 한국인 학부모는 점차로 늘고 있다. 북경시에만 수천 개 이상의 학교가 존재하고 있으나 국제부 비준이 있는 학교 외에 수천 개의 중국학교가 외국학생을 받지 않을 뿐더러, 설령 받는다 해도 국제부 운영경험이 없어 외국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

2) 국제부(한국부)를 따로 운영하는 학교

한국부를 따로 운영한다는 것은 한국 학생만의 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정규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커리큘럼은 같은 학년의 중국학생 과정과 같을 수도 있으나, 대개는 한국부만의 커리큘럼을 따로 만들어 수업을 진행한다. 다만 <국제부(한국부)를 따로 운영하는 학교>의 포인트는 이 한국부 자체를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모든 교과과정과 교사가 학교의 소속이라는 것이다. 마치 한국의 사설학원처럼 이렇게 한국 학생만을 별도로 수업시키는 이유를 구태여 말하자면, 좋게 말해서 한국학생의 수준에 맞는 배려라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중국학생과 한국학생을 분리시키려는 것으로 한국학생의 수준이 너무 낮아 중국학생이 피해가 될 수 있다는 학교 측의 심정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대부분 중국학생과 한국학생의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nam으로, 소수의 한국학생을 개별 교사가 신경 쓸 수 없고, 또한 한국학생에 대한 문화와 습관 등을 학교 측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학생을 무조건 로칼반에 입학시키면 중국학생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학교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국제부의 장점은 한국학생 수준에 맞는 교과과정을 운영한다는 것과 이러한 형태의 한국부 운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과정 외에 한국학생에 대한 학업 및 생활관리 부분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로칼반에 입학할 만큼 수준이 되는 한국학생을 중국 학생반에 편입(차반)시켜 주는 규정이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편입되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한 학생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국학생들과 수업 한번 같이 못해보고, 한국학생끼리 수업하고, 수업 끝나면 한국학생끼리 한국말만 쓰는 등의 학교생활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3) 학교 명의로 개인이 국제부(한국부)를 운영하는 학교

국제부 허가가 있는 학교가 한국학생을 모집해서 한국부를 운영하다 보

면, 한국학생과의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고, 한국학생들의 문화나 습관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부득불 한국부 운영에 필요한 한국사람 등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한국의 교육 관련기관 또는 유학원 등과 제휴하여 한국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하게 한다. (사실, 학교 측의 요구보다는 한국 사람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이 경우, 한국부에서 자체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해도, 대부분의 학습은 학교의 중국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한국부에서 일부분의 교과를 자체 교사를 뽑아 담당하게 하거나, 기타 HSK(중국어자격고사) 및 수학, 중국어 등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 등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와 한국부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한국학생 교과과정을 운영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부는 한국 학생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혹 로컬반에서 중요과목을 공부하고 입시에 관련되지 않은 과목 시간에 한국부 별도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경우도 있다.

4) 한국부 자체를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

<한국부 자체를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는 국제부 허가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타인에게 국제부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는 장소와 졸업증을 발급해 주고, 위탁받은 개인 또는 기관이 한국부(학교) 그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교육과정도 스스로 짜고, 교사도 스스로 뽑으며, 시험도, 학생관리도 모두 한국부가 한다. 학비도 스스로 책정해서 받고, 때로는 홈스테이도 한다. 물론 중국학교의 교사가 교육에 참여하기도 하므로 학교가 일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학교의 정규교육이 학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타인에게 유학생교육을 위탁하는 형태이다.

5) 고등학원(대학) 교육

다음으로는 외국인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중국 전체에 약 3천개 이상의 대학이 있다고 한다. 북경에는

약 180여개의 대학이 있다. 그 중에 약 60여 개의 대학이 외국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다. 초중고 중국학교와 마찬가지로 외국학생 입학비준 대학이 별도로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그러나 유학생이 본과에 입학하는 대학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대학은 언어연수를 위주로 학생을 모집한다.

중국은 북경대 등 소수의 종합대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특성화된 단과대학이다. 한국의 대학과는 달리 학교의 특성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대학이 외국인에게 중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설립된 어언대학이다. 이 어언대학에만 현재 한국인 유학생수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통계자료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북경대는 문과가 강세이고, 청화대는 공대, 인민대는 사회과학 분야를 최고로 친다. 그 외의 단과대학의 경우, 중의대, 경제무역대학, 과학기술대학, 우전(우체국)대학, 전영(영화)학원, 광파(방송)대학, 정법대학(법학), 항공항천대학, 석유대학, 무도(댄스)학원 등 각각 특화되어 있고, 졸업생들은 대개 그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중국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어실력이 필수적이다. 보통 HSK 7, 8급이면 무난하다고 생각하지만 9, 10, 11급의 고급 급수 이상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과에 입학하면 이 정도의 급수로도 거의 강의를 이해할 수 없다. 본과시험이 있는 북경대, 청화대 등을 제외하고는 HSK 7, 8급 이상이면 거의 모든 대학에 입학 할 수 있다. 참고로 북경대학의 1인당 1년의 학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보통진수과정: 문과전공: 26,000위안 이과전공: 30,000위안
- 고급진수과정: 문과전공: 30,000위안 이과전공: 34,000위안
- 학부 과정: 문과전공: 26,000위안 이과전공: 30,000위안
- 석사 과정: 문과전공: 29,000위안 이과전공: 33,000위안
- 박사 과정: 문과전공: 32,000위안 이과전공: 40,000위안

중국에는 한국에 없는 진수(연수)생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고급진수생은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보유자로서, 북경대 교수의 지도하에 전문분야의 연구를 하거나 전공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습기간은 1년이며,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학습기간 만료이후에 수료증을 발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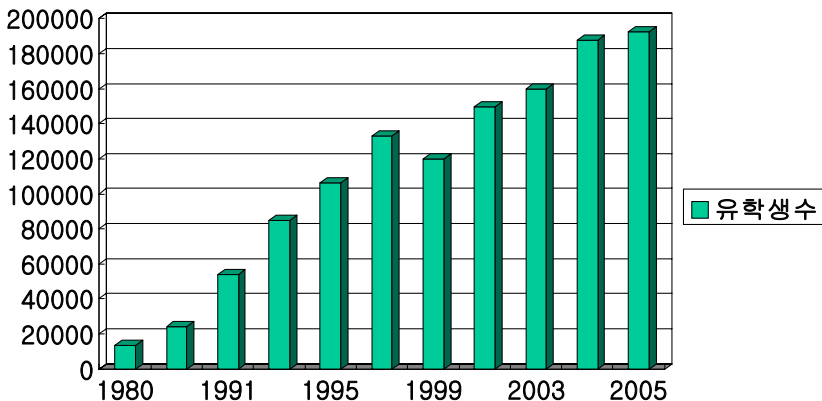
III. 중국 유학 한국청소년의 규모추정

1. 한국유학생의 추세
2. 재중국 한국유학생 추이

III. 중국 유학 한국청소년의 규모추정

1. 한국유학생의 추세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유학생수도 급증하게 되었다. <그림 III-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80년 이래 한국인 유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1980년에 13,302 명에 지나지 않았던 해외 유학생수가 1997년에는 133,249 명으로 늘어 났다가 2005년에는 192,254 명으로 증가하였다. 단지, 한국의 금융위기가 있었던 직후인 1999년에는 약간 줄어들었으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2006. 6. 8

[그림 III-1] 한국인 해외 유학생수의 추세

대체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유학은 대학과 대학원 진학, 영어 연수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초·중·고생 자녀를 둔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조기유학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조기유학생수는 해외 유학생수 중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표 III-1>에 의하면, 초중고 해외 유학생수가 1998년도에 1,562명(전체학생 대비 0.02%)이었던 것

이 2005년도에 20,400명(0.26%)으로 늘어났다. 최근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조기유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전보다 5배 가량, IMF때보다는 10배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그러나, 15-16세 이전의 조기 유학이 완전 자유화가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유학생 수는 통계 수치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I-1 > 연도별 조기유학생 수 변화추이

학년도 (3.1~2월말)	‘98	‘99	‘00	‘01	‘02	‘03	‘04	‘05
유학출국학생수 (초·중·고)	1,562	1,839	4,397	7,944	10,132	10,498	16,446	20,400
전년대비 증감률	-	17.7%	139.1%	80.7%	27.5%	3.6%	56.7%	24.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 2006. 10. 16

초등학생의 조기 유학은 중·고등학생의 경우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III-2> 에 의하면, 1988년에는 초등학생 중 해외유학생이 212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 숫자가 계속 증가하여 2001년에는 2,107명에 이르렀다. 2000년까지는 초·중·고 중 고등학교 유학생의 숫자가 가장 많고 초등학교 유학생의 수가 가장 적었다. 그러나, 2001년에는 중학교 유학생의 숫자가 가장 많았다. 이 추세는 다시 바뀌어서 2002년부터는 계속적으로 초등학교 유학생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의 경우를 보면, 초등학교 유학생수가 8,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유학생 6,670명 및 고등학교 유학생 5,582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III-2> 연도별 초·중·고 해외 유학생수

연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1998	전체학생수	3,834,561	2,011,468	2,326,880	8,172,909
	유학생수	212	473	877	1,562 (0.02 %)
1999	전체학생수	3,935,537	1,896,956	2,251,140	8,083,633
	유학생수	432	709	698	1,839 (0.02 %)
2000	전체학생수	4,019,991	1,860,539	2,071,468	7,951,998
	유학생수	705	1,799	1,893	4,397 (0.06 %)
2001	전체학생수	4,089,569	1,835,897	1,934,647	7,860,113
	유학생수	2,107	3,171	2,666	7,944 (0.10 %)
2002	전체학생수	4,175,731	1,859,265	1,787,541	7,822,537
	유학생수	3,464	3,301	3,367	10,132 (0.13 %)
2003	전체학생수	4,175,626	1,854,641	1,766,529	7,796,796
	유학생수	4,052	3,674	2,772	10,498 (0.13 %)
2004	전체학생수	4,116,301	1,937,818	1,764,520	7,818,639
	유학생수	6,276	5,568	4,602	16,446 (0.21 %)
2005	전체학생수	4,116,301	2,008,230	1,752,107	7,772,403
	유학생수	8,148	6,670	5,582	20,400 (0.26 %)

() 은 전체학생수 대비 비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2006. 10. 16

한편, 국가별 유학생의 분포에도 변화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III-3>에 의하면, 2001년도에는 전체유학생 가운데 미국에 가는 유학생이 39.0%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캐나다(14.6%)로서 북미주에 유학 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전체 유학생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중국(10.9%), 일본(10.0%) 및 호주(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분포가 2003년에는 미국

(30.7%), 중국(11.4%), 일본(10.8%), 호주(9.9%) 및 캐나다(8.8%)의 순으로 바뀌었다. 초창기 유학시절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던 미국과 캐나다 유학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중국에 유학 가는 학생들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1년에 39.0%를 차지하였던 미국 유학생의 비율이 2005년에는 30.1%로 떨어졌고, 캐나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2001년에 14.6%에서 2005년에는 5.9%로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에 유학 가는 학생들의 비율은 2001년에 10.9%에서 매년 상승하여 2005년에는 그 비율이 전체 유학생 가운데 14.8%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I-3> 주요 국가별 한국인 해외 유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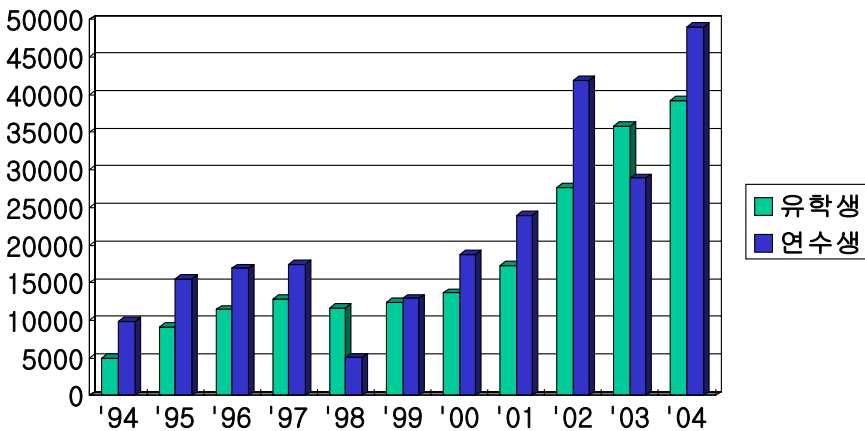
연도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기타	계
2001	58,457 (39.0%)	21,891 (14.6%)	16,372 (10.9%)	14,925 (10.0%)	10,492 (7.0%)	—	27,796 (18.5%)	149,33 (100.0%)
2003	49,047 (30.7)	14,058 (8.8)	18,267 (11.4)	17,339 (10.8)	15,775 (9.9)	9,870 (6.2)	35,547 (22.2)	159,903 (100.0)
2004	56,390 (30.0)	13,307 (7.1)	23,722 (12.6)	16,992 (9.1)	17,847 (9.5)	13,297 (7.1)	46,128 (24.6)	187,683 (100.0)
2005	57,896 (30.1)	11,400 (5.9)	28,408 (14.8)	19,022 (9.9)	15,176 (7.9)	10,306 (5.4)	50,046 (26.0)	192,254 (10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2006. 10. 16

2. 재중국 한국유학생 추이

위에서 제시한 <표 III-3>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중국에 유학 가는 한국인 학생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되었듯이 중국에 유학 가는 한국인 학생수는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위 표에서 제시된 자료는 교육인적부에서 보고 받은 내용에 근거해서 작성된 통계이다. 실제 유학생 수는 통계에서 제시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III-2>는 최근에 북경에 있는 모 사설학원에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다. <표 III-3>에서는 2004년 현재 중국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

이 23,772명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그림 III-2>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같은 해에 유학생 39,246명과 연수생 48,256명 총 87,052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중국내에서 공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에 유학 가는 한국인 유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북경청산학원 제공

[그림 III-2] 중국 유학 및 연수생 분포추이

<표 III-4>는 중국 성·시별로 한국 대학생의 유학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유학생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북경이 9,846명으로 전체 유학생수의 33.6%를 나타내고 있고 다음으로 상해(4,639명), 요녕성(2,453명), 천진(2,310명) 및 산둥성(2,263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북경(33.6%), 상해(15.8%) 및 천진(7.9%)의 3개 도시에 전체 유학생의 과반수인 56.3%가 유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유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전체유학생 가운데 어학연수생이 반수를 약간 상회하는 5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4> 중국 성·시별 대학 한국 유학생 현황

(2005. 4. 1 현재)

성·시별	대학수	전과	본과	석사	박사	어학연수	진수생	계
북경시	55	10	4,297	503	249	4,347	440	9,846
천진시	12	2	1,021	95	31	1,160	1	2,310
하북성	6		59	1	12	83	6	161
하남성	8	1	104	1	2	103		211
산서성	3		1			15		16
강서성	4		9			13	2	24
협서성	10		74	7	1	240	3	325
호북성	12		81	35	4	183	30	333
호남성	6					57		57
청해성	3		3	2		25		30
감숙성	4	8	5	3		39	3	58
내몽고자치구	2		1	2		7		10
서장자치구	1					6		6
신강자치구	6		1			78		79
영하	1		1			10	1	12
상해시	19	80	2,054	176	76	21,08	145	4,639
강소성	19		465	55	50	632	16	1,218
절강성	14	1	173	20	17	508	9	728
안휘성	6		10			60		70
산둥성	21		601	46	25	1,557	34	2,263
요녕성	33		469	49	24	1,845	66	2,453
흑룡강성	9		201	3	2	1,021	12	1,239
길림성	14	6	1,002	67	32	574	94	1,775
광둥성	8		80	15	6	563		664
복건성	5	20	24	2	3	145	11	205
해남성	2					10		10
광서자치구	6		3	2		63		68
중경시	7		30	4	3	24		61
사천성	7		33	10	6	166	2	217
운남성	9		24			160	5	189
귀주성	2					11		11
계	314	128	10,826	1,098	543	15,813	880	29,288

자료: 재중국 한국대사관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최근에 한국의 유학생들이 중국 대학에 입학하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북경에 있는 몇 개의 대학을 보

면 먼저 청화대학의 경우, 2000년에 9명에 지나지 않았던 한국 유학생이 2001년에 17명, 2002년에 40명으로, 2003년에는 63명으로 증가했고 2004년에는 92명으로 늘어났다(북경청산학원 자료, 2006).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체 유학생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경대의 입학상황을 보면, 2005년에 총 외국인 입학생 124명 가운데 한국인이 87명으로 70.1%를 차지하였고 2006년에는 총유학생 119명 가운데 85.7%인 102명의 한국인 유학생이 입학하였다. 인민대의 경우, 2005년에 외국인 입학생 총 250명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이 210명으로서 84.0%를 차지하였고 2006년에는 총유학생 339명 가운데 87.9%인 298명이 한국인 유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중국 유학 한국청소년의 적응실태

1. 재중국 한국유학생의 적응실태
 - 설문조사결과
2. 재중국 한국유학생의 적응실태
 - 초점집단 토론 결과

IV. 중국 유학 한국청소년의 적응실태

1. 재중국 한국유학생의 적응실태 - 설문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상황

<표 IV-1>은 조사대상자의 학생별 성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50.8%가 남학생이고 49.2%가 여학생으로 선정되었다. 학교별로 나누어 보면, 중고생의 경우는 54.0%가 남학생이고 46.0%가 여학생이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48.8%가 남학생이고 51.2%가 여학생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 IV-1> 조사대상자의 학생별 성별 분포

학생	성별		계
	남학생	여학생	
중고생	75	64	139
	54.0%	46.0%	100.0%
대학생	106	111	217
	48.8%	51.2%	100.0%
계	181	175	356
	50.8%	49.2%	100.0%

<표 IV-2>는 조사대상자의 학교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에 유학 온 한국학생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정확한 확률표집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급적 다양한 조사대상자를 표본으로 추출하고자 하였다. 의도한대로 완벽한 표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비교적 다양한 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분포는 고등학생이 26.1%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대학입시를 목적으로 입시종합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25.3%), 대학생(20.2%) 및 어학연수생(13.2%)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자를 중고생 및 대학생

집단(입시준비생 포함)으로 나누어 볼 경우에는 중고생이 39.0%를 차지하고 있고 대학생집단의 비율이 61%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2> 조사대상자의 학교별 분포

학교	빈도 (명)	백분율(%)
중학교	7	2.0
고등학교	93	26.1
국제학교(중학과정)	3	.8
국제학교(고등학교과정)	36	10.1
대학교	72	20.2
입시종합반	90	25.3
어학연수	47	13.2
기타	8	2.2
계	356	100.0

<표 IV-3>은 조사대상자 부모의 교육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아버지의 경우에는 51.3%가 대학을 졸업하고 20.3%가 대학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등 71.4%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나타내어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자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대학교 졸업이 전체의 41.3%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대학원 졸업은 11.1%에 지나지 않고 있는 반면에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35.5%에 이르고 있다.

<표 IV-3> 조사대상자 부모의 교육정도

교육정도	아버지		어머니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무학	-	-	2	.6
초등학교	6	1.7	3	.8
중학교	9	2.6	8	2.2
고등학교	82	23.5	139	38.6
대학교	179	51.3	157	43.6
대학원	71	20.3	40	11.1
기타	2	.6	1	.3
계	349	100.0	350	100.0

<표 IV-4>는 조사대상자 가족의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주관적인 평가이므로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응답 학생들의 10.9%는 자기 가족의 생활수준이 매우 높다고 답하고 있고 35.5%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응답해 거의 반수의 응답자가 비교적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4> 조사대상자 가족의 생활수준

생활수준	빈도(명)	백분율(%)
매우 높은 편임	39	10.9
비교적 높은 편임	127	35.5
보통	148	41.3
비교적 낮은 편임	32	8.9
매우 낮은 편임	12	3.4
계	358	100.0

<표 IV-5>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상황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특히 수치로 된 자료들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19.6세로 나타나고 있고 그 범위는 12세에서 30세에 이르고 있다. 북경에 온 기간은 평균 17.1개월이나 중국에 온 기간은 평균 25.2개월로서 북경에 와 있는 한국유학생들은 평균 8개월을 다른 지방에서 생활하다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 와서 생활한 기간은 1개월에서 거의 12년(141개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앞으로 ‘얼마나 더 중국에 머무를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평균 4.3년을 더 중국에 머무를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0년까지 중국에 더 머무르고 싶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북경에 유학 온 한국학생들은 한 달간 평균 1,975위안(한화 = 237,000원)의 용돈(중위수 = 2000위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학생들이 주거비를 포함하여 한 달간 쓰는 총비용은 평균 6,363위안(중위수 = 5,000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비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생활비가

한화로 계산하여 월 76만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중국의 물가를 고려해 볼 때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경의 물가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중국내 다른 지역에서의 비용은 이 보다는 적게 들 것이다.

<표 IV-5>에 의하면, 한국유학생은 평균 5.2명의 친한 친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는 1명에서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학생들은 중국에 온 이후로 북경이외의 지역에 평균 4.3회 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컴퓨터 사용시간은 1일 평균 70.6분으로서 학생에 따라서 매일 1분에서 6시간에 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사결과 응답자의 88.3%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핸드폰 사용시간은 1일 평균 44분으로서 최저 2분에서 최고 4시간 반까지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체응답자의 36.4%인 129명의 학생이 지난 1년간 무단결석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무단결석한 횟수는 평균 16회이고 많은 경우는 100번까지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두 가지 방식으로 물어 보았다. 하나는 만족도에 관해 5점 척도를 제시하여 본인이 답하게 한 것이고 또 하나는 100점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본인의 만족도가 몇 점에 해당할 것이냐는 질문이었다. 이 만족도의 평점에서 전체응답자의 평균점수는 73.4점이고 중위수는 75점으로 나타났다.

<표 IV-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	북경에 온 기간 (개월)	중국에 온 기간 (개월)	중국에 머무른 년수	한달간 용돈(인민폐)	한달간 총비용 (인민폐)
유효수	359	359	358	337	348	285
평균	19.6	17.1	25.2	4.3	1974.6	6362.8
중위수	19	12	21	4	2000	5000
표준편차	2.8	16.1	19.5	2.6	1205.1	3362.4
최저치	12	1	1	1	150	400
최고치	30	108	141	30	10000	25000

	친구수	중국에서의 여행횟수	1일 컴퓨터 사용시간(분)	1일 핸드폰 사용시간(분)	무단결석 수	중국생활만 족도
유효수	328	321	230	299	92	346
평균	5.2	4.3	70.6	44.4	15.9	73.4
중위수	4.0	4.0	60.0	30.0	5.0	75.0
표준편차	4.9	3.0	62.6	46.9	63.6	14.2
최저치	1	1	1	2	1	15
최고치	50	20	360	270	100	100

2) 중국에 오게 되는 상황

<표 IV-6>은 유학생들이 중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의 준비여부에 관한 응답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유학을 대비해 한국에 있을 때 언어나 중국문화 등에 대해 ‘매우 준비를 잘 했다’는 응답은 3.1%에 지나지 않고 ‘그런대로 준비했다’는 응답도 14.4%에 불과하다. 반면에, ‘별로 잘 준비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6.4%이고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무려 39.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조사자 가운데 중국에 유학 오기 전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5.6%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 등 영어권에 유학 가는 학생들의 경우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권에 유학을 가는 경우는 언어연수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TOEFL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중국어자격시험(HSK)을 보아야 하지만 중국에 유학 오는 상당수의 학생들은 한국에서 준비하기 보다는 일단 중국에 들어 와서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이므로 현재 중국 특히 북경에서 대학입시를 전담하는 입시종합반 학원이 많이 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표 IV-6> 중국 오기 전에 준비여부

준비여부	빈도(명)	백분율(%)
매우 준비를 잘했음	11	3.1
그런대로 준비했음	52	14.4
보통	61	16.9
별로 잘 준비하지 못했음	95	26.4
전혀 준비하지 못했음	141	39.2
계	360	100.0

<표 IV-7>은 유학생이 처음 중국에 올 때 누구와 같이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응답자의 다수인 43.5%가 혼자서 왔다고 대답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친구와 함께(12.5), 어머니와 함께(11.7%), 온 가족이 함께(11.4%) 및 아버지와 함께(7.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 어머니 및 ‘온 가족이 함께’의 경우를 합하면 30.6%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대학생 등 연령이 비교적 높은 유학생들의 경우는 혼자서 온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중고생들의 경우에는 처음에 유학 올 때 가족과 같이 온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중고생의 경우에도 혼자서, 친구 또는 유학원 사람들과 같이 온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7> 중국에 올 때 같이 온 사람

	빈도(명)	백분율(%)
혼자	156	43.5
친구	45	12.5
친척	25	7.0
아버지	27	7.5
어머니	42	11.7
온 가족이 같이	41	11.4
기타(유학원 등)	23	6.4
계	359	100.0

<표 IV-8>은 응답자가 유학을 결정하게 될 때 누구의 도움이나 조언을 듣

고 결정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부모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응답이 42.7%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응답이 39.3%를 나타내고 있어 이 두 경우가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그 외 친구, 친척, 형제자매, 선후배 등의 조언이 미미하게나마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학 결정의 계기에 대해서는 성별 및 학생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8> 유학결정의 중요한 계기

유학결정의 주체	빈도(명)	백분율(%)
스스로 결정	137	39.3
부모	149	42.7
형제자매	7	2.0
친척	11	3.2
친구	12	3.4
선후배	4	1.1
선생님	6	1.7
언론매체	3	.9
특별한 계기 없음	10	2.9
기타	9	2.6
계	348	100.0

<표 IV-9>는 성별 및 학생별로 유학결정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다르게 나타났다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유학결정의 계기를 본인, 부모 및 타인의 세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다. 먼저, 성별로 유학결정의 계기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영향(51.8%)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의외로 본인의 결정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에 유학 결정의 계기에 있어서 본인의 결정이 46.2%인데 반해 부모의 영향은 36.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인의 결정을 비교해 볼 때, 여학생의 경우는 46.2%를 나타내고 있으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34.5%에 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교별로 나누어 보면, 중고생의 경우에는 절대다수인 55.6%가 부모의 영향으로 유학이 결정된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본인이 결정했다는 응답비율도 28.6%에 이르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결정에 따라 유학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영향(36.0%) 및 타인의 도움(15.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타인의 조언이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비율이 15.8%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표 IV-9> 성별 학생별 유학결정의 중요한 계기

		유학결정의 계기			계	
		본인의 결정	부모의 결정	타인의 도움		
성별	남학생	58	87	23	168	$\chi^2=8.3$ P= 0.016
		34.5%	51.8%	13.7%	100.0%	
	여학생	79	62	30	171	
		46.2%	36.3%	17.5%	100.0%	
학생별	중고생	38	74	21	133	$\chi^2=14.8$ P= 0.001
		28.6%	55.6%	15.8%	100.0%	
	대학생	98	73	32	203	
		48.3%	36.0%	15.8%	100.0%	
계		136	147	53	336	
		40.5%	43.8%	15.8%	100.0%	

<표 IV-10>은 유학을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성별, 학생별 유학결정의 주체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학을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보다 넓은 세상을 배우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52.2%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에서 권해서’(12.2%), ‘부모님 직장을 따라서(10.%)’,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10.0%), ‘외국에서 살고 싶어서’(3.9%) 및 ‘주위의 친구들이 가니까’(3.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학을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성별로 세분해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집단의 경우 모두 ‘보다 넓은 세상을 배우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 비율은 여학생의 경우(55.9%)가 남학생의 경우(48.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집단 간에 더 큰 차이는 ‘주변에서 권해서’의 항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응답비율이 18.0%로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응답비율이 6.2%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앞의 <표 IV-9>에서 유학결정의 계기에 있어서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영향이 여학생의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학을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학생별로 세분해서 보면, 중고생의 경우 ‘주변에서 권해서’의 항목에서 대학생의 경우보다 그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대학생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살고 싶어서’ 및 ‘주위의 친구들이 가니까’의 항목에서 중고생의 경우보다 비율이 각각 조금씩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학생별로는 유학을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유학을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유학결정의 주체별로 세분해서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유학결정의 주체를 본인과 타인으로 나누어 보면, 두 집단에서 모두 ‘보다 넓은 세상을 배우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본인이 유학을 결정한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응답비율이 65.7%로서 타인이 결정한 경우의 43.4%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인이 결정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중요한 항목이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로서 그 응답비율이 12.4%를 나타내고 있으나, 타인이 유학에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주변해서 권해서’(17.0%)가 두 번째로 중요한 항목이 되고 있고 ‘부모님의 직장을 따라서’(15.6%)가 세 번째로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성별 학생별 및 유학결정의 주체별 유학을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

		유학을 오게 된 이유							계	
		부모님 직장을 따라서	보다 넓은 세상을 배우고 싶어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	외국에서 살고 싶어서	주위의 친구들이 가니까	주변에서 권해서	기타		
성별	남학생	9.8	48.6	10.4	1.6	3.8	18.0	7.7	100.0	$\chi^2 = 16.2$ P = .013
	여학생	10.2	55.9	9.6	6.2	3.4	6.2	8.5	100.0	
학생별	중고생	10.1	53.2	10.8	.7	1.4	14.4	9.4	100.0	$\chi^2 = 10.6$ P = .101
	대학생	9.7	51.6	9.7	6.0	5.1	10.6	7.4	100.0	
유학결정의 주체	본인	2.2	65.7	12.4	3.6	4.4	5.1	6.6	100.0	$\chi^2 = 34.3$ P = .000
	타인	15.6	43.4	8.0	4.2	3.3	17.0	8.5	100.0	
계		36	188	36	14	13	44	29	360	
		10.0	52.2	10.0	3.9	3.6	12.2	8.1	100.0	

위의 <표 IV-10>에서는 일반적으로 유학을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 주었으나 <표 IV-11>에서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왜 중국으로 오기로 결정했는지에 관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성별, 학생별 및 유학결정의 주체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이 대국이니까’라는 응답비율이 24.9%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국어를 전공함으로’(19.1%), ‘중국이 전망이 좋아서’(12.6%), ‘부모님 직장을 따라서’(13.1%), ‘주변에서 권해서’(11.4%), ‘중국이 좋아서’(10.0%), ‘이웃나라이니까 편해서’(3.4%), ‘물가가 싸니까’(3.1%) 및 ‘역사적으로 한국과 관계가 있어서’(2.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중국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성별로 세분해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중국에 유학 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중국이 대국이니까’에 응답비율이 30.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주변에서 권해

서'(15.6%), '중국이 전망이 좋아서'(14.5%) '부모님 직장을 따라서'(14.0%) 및 '중국이 좋아서'(8.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중국에 유학 온 중요한 이유가 남학생의 경우와 다르게 '중국어를 전공함으로'(31.4%)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학생에게 있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대국이니까'(19.4%), '부모님 직장을 따라서'(12.6%), '중국이 좋아서'(10.9%) 및 '중국이 전망이 좋아서'(10.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학생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항목인 '주변에서 권해서'가 여학생에게는 여섯 번째로 중요한 순서로 나타났다.

중국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학생별로 세분해서 보면, 앞의 <표 IV-10>에서 유학을 오게 된 일반적인 이유에서 학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매우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중고생의 경우에는 중국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중국이 대국이니까'에 대한 응답비율이 29.9%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주변에서 권해서'(16.8%), '중국이 전망이 좋아서'(16.1%), '부모님의 직장을 따라서'(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대학생의 경우에는 중국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중국어를 전공함으로'에 대한 응답비율이 26.8%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중국이 대국이니까'(21.6%), '중국이 좋아서'(13.6%), '부모님의 직장을 따라서'(11.7%) 및 '중국이 전망이 좋아서'(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유학결정의 주체별로 나누어 보아도 집단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먼저, 중국유학을 본인이 결정한 경우에는 '중국어를 전공함으로'가 29.1%로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이 대국이니까'(24.6%), '중국이 좋아서'(17.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인이 유학결정에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이와 전혀 다르게 중국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중국이 대국이니까'(24.9%), '부모님의 직장을 따라서'(19.6%) 및 '주변에서 권해서'(16.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1> 성별 학생별 및 유학결정의 주체별 중국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

		중국에 오게 된 이유									계	
		부모님 의 직장 따라서	중국어 대국어 니까	역사적 으로 관계가 있어서	물가가 싸니까	이웃나 라이니 까 편해서	중국어 를 전공함 으로	중국어 좋아서	주변에 서 권해서	중국어 전망이 좋아서		
성별	남학생	14.0	30.2	2.2	4.5	2.8	7.3	8.9	15.6	14.5	100.0	$\chi^2 = 41.0$ P = .000
	여학생	12.6	19.4	2.3	1.7	4.0	31.4	10.9	6.9	10.9	100.0	
학생별	중고생	15.3	29.9	2.9	3.6	3.6	7.3	4.4	16.8	16.1	100.0	$\chi^2 = 35.2$ P = .000
	대학생	11.7	21.6	1.9	2.8	3.3	26.8	13.6	8.0	10.3	100.0	
유학결 정의 주체	본인	4.5	24.6	2.2	2.2	3.7	29.1	17.9	3.7	11.9	100.0	$\chi^2 = 51.4$ P = .000
	타인	19.6	24.9	2.4	2.9	3.3	12.4	4.8	16.3	13.4	100.0	
계		46	87	8	11	12	67	35	40	44	350	
		13.1	24.9	2.3	3.1	3.4	19.1	10.0	11.4	12.6	100.0	

3) 유학생의 중국 생활실태

중국에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은 중국내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여기에서는 유학생들의 주거, 언어, 수업 및 기타 생활패턴 등에 관해서 알아보 고자 한다. 먼저, <표 IV-12>는 조사대상자가 현재 중국에서 누구와 같이 살 고 있는가에 대한 주거형태에 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인 룸메이트와 같이 살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40.1%로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혼자서 살고 있다는 응답이 21.2%로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친지(9.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에 있는 부모가 중국에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자기 자식을 부탁하여 같이 살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다음이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경우(8.4%), 온 가족이 같이(5.3%), 홈스테이(4.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홈스테이는 한 국에서 말하는 하숙의 형태이나 중국에서의 홈스테이는 대부분 한국에 있는 부모 대신 후견인의 역할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IV-13>에 보 면, 유학생이 아버지와 같이 사는 비율도 2.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 및 ‘온 가족이 함께’의 세 경우를 합하면 어떤 형태이든 유

학생이 가족과 같이 사는 비율이 15.9%에 이른다.

<표 IV-12> 조사대상자의 주거형태

주거형태	빈도(명)	백분율(%)
혼자	76	21.2
한국인 룸메이트	144	40.1
중국인 룸메이트	13	3.6
외국인 룸메이트	13	3.6
아버지	8	2.2
어머니	30	8.4
온가족이 함께	19	5.3
친지	34	9.5
중국인 주인	5	1.4
홈스테이	17	4.7
계	359	100.0

<표 IV-13>은 유학생이 중국어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가 여부를 학생별로 알아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9.9%가 중국어 사용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고 38.9%가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15.8%는 ‘어렵다’고 하고 있으며 2.5%는 중국어 사용이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다. 중국어 사용의 어려움 여부에 관한 문제는 학생별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어 사용에 있어서 중고생의 경우가 대학생의 경우보다 훨씬 어려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고생의 15.9%가 중국어 사용에 있어 전혀 어려움이 없으며 44.9%가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여 중고생의 60.8%는 언어사용에 별 문제가 없음을 나타내는데 반해 대학생은 중국어 구사에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48.8%에 지나지 않고 있다. 언어구사 능력만을 놓고 본다면, 외국어는 어린나이일수록 유리하다는 것이 중국의 경우에서도 입증된 셈이다.

<표 IV-13> 학생별 중국어 사용의 어려움 여부

학생	중국어 능력					계
	전혀 어려움 없음	별로 어려움 없음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중고생	22	62	36	17	1	138
	15.9%	44.9%	26.1%	12.3%	.7%	100.0%
대학생	13	76	81	39	8	217
	6.0%	35.0%	37.3%	18.0%	3.7%	100.0%
계	35	138	117	56	9	355
	9.9%	38.9%	33.0%	15.8%	2.5%	100.0%

$$\chi^2 = 18.5$$

$$P = 0.001$$

<표 IV-14>는 학생별 이성친구 유무 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26.4%는 이성친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성친구 유무문제에 있어서는 학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고생의 경우 응답자의 25%가 이성친구가 있고 대학생의 경우 이 비율은 27.3%로 나타나고 있어서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성친구 유무에 있어서 중고생과 대학생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일반 상식과는 다른 조금 특이한 일로 여겨진다.

<표 IV-14> 학생별 이성친구 유무 여부

학생	이성친구		계
	있음	없음	
중고생	34	102	136
	25.0%	75.0%	100.0%
대학생	59	157	216
	27.3%	72.7%	100.0%
계	93	259	352
	26.4%	73.6%	100.0%

$$\chi^2 = 0.23$$

$$P = 0.632$$

중국에 유학 온 학생들은 얼마나 열심히 수업에 임하는가? <표 IV-15>는 중국어능력별 수업 열중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 유학생의 7.1%는 본인이 매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고 8.9%는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14.8%는 별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으며 4.5%의 응답자는 전혀 공부에 대한 열심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수업에 대한 열중도는 중국어를 구사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을까? <표 IV-15>에 의하면, 중국어를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중국어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중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대체로 타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중국어 구사능력이 학생들의 수업열중도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표 IV-15> 중국어능력별 수업열중도

중국어능력	수업열중도					계
	매우 열심히	열심히	보통	열심히 하지 않음	전혀 열심히 없음	
어려움 없음	18	76	49	27	5	175
	10.3%	43.4%	28.0%	15.4%	2.9%	100.0%
보통	5	42	47	14	7	115
	4.3%	36.5%	40.9%	12.2%	6.1%	100.0%
어려움	2	19	26	11	4	62
	3.2%	30.6%	41.9%	17.7%	6.5%	100.0%
계	25	137	122	52	16	352
	7.1%	8.9%	34.7%	14.8%	4.5%	100.0%

$$\chi^2 = 14.8$$

$$P = 0.063$$

<표 IV-16>는 지난 1년간 학생들이 무단결석한 여부를 주거형태별 및 중국에 온 기간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36.3%가 지난 1년간 무단결석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 중국에 유학을 온 것이

소위 말하는 ‘도피유학’이 아니라면 처음 유학을 올 때 당연히 단단한 각오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수치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IV-16>에 의하면, 유학생들의 무단결석은 학생들의 주거형태 및 중국에 온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현재 중국에서 혼자 사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무단결석의 비율이 무려 49.3%에 이르고 있으나 가족과 같이 사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31.6%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무단결석은 중국에 온 기간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 온 기간이 2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무단결석의 비율이 28%에 지나지 않으나 2년 이상의 장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46.4%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 체류해서 무단결석할 확률이 비교적 낮은 경우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유학기간이 오래일수록 생활의 무로함이라든가 유학 초기에 가졌던 각오가 느슨해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게 되거나 무단결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IV-16> 주거형태별 및 중국에 온 기간별 무단결석

주거형태		무단결석		계	
		있음	없음		
동거 형태	가족과 동거	68.4%	31.6%	100.0%	$\chi^2 = 7.1$ $P = 0.029$
	타인과 동거	67.0%	33.0%	100.0%	
	혼자	50.7%	49.3%	100.0%	
중국에 온 기간	단기(2년 미만)	72.0%	28.0%	100.0%	$\chi^2 = 12.8$ $P = 0.000$
	장기(2년 이상)	53.6%	46.4%	100.0%	
계		225	128	353	
		63.7%	36.3%	100.0%	

<표 IV-17>는 학생별 음주 횟수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응답자의 23.9%는 1주일에 한 번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매일

술을 마신다는 응답도 1.4%로 나타나고 있는데 음주 횟수에 있어서는 학생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주일에 한 번 또는 두세 번 음주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학생의 경우가 중고생의 경우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술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대학생의 경우(47.9%)가 중고생의 경우(43.7%)보다 오히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중고생의 20.8%가 1주일에 한번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성년자인 중고생의 음주가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7> 학생별 음주 횟수

학생	음주 횟수					계
	매일	1주에 두세번	1주에 한번	한달에 한번	전혀 안 함	
중고생	2	5	21	48	59	135
	1.5%	3.7%	15.6%	35.6%	43.7%	100.0%
대학생	3	15	38	57	104	217
	1.4%	6.9%	17.5%	26.3%	47.9%	100.0%
계	5	20	59	105	163	352
	1.4%	5.7%	16.8%	29.8%	46.3%	100.0%

$\chi^2 = 4.4$ $P = 0.351$

<표 IV-18>는 학생별 흡연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자료 역시 음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생별로 나누어 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흡연에 있어서도 성인인 대학생과 미성년자인 중고생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좀 더 자세한 수치를 보면, 하루에 반 갑 이상 담배를 피우는 학생의 비율이 중고생의 경우(16.2%)가 대학생의 경우(13.1%)보다 오히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흡연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중고생의 경우(77.9%)가 대학생의 경우(83.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 유학을 온 중고생의 음주 및 흡연의 관행을 볼 때, 조기유학을 오는 학생들의 관리가 좀 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IV-18> 학생별 흡연 정도

학생	흡연 정도					계
	하루 한갑이상	하루 반갑	1주에 한갑	한달에 한갑	전혀 안 함	
중고생	6	16	6	2	106	136
	4.4%	11.8%	4.4%	1.5%	77.9%	100.0%
대학생	10	18	7	1	178	214
	4.7%	8.4%	3.3%	.5%	83.2%	100.0%
계	16	34	13	3	284	350
	4.6%	9.7%	3.7%	.9%	81.1%	100.0%

$$\chi^2 = 2.5$$

$$P = 0.640$$

<표 IV-19>는 중국에 유학중인 응답자가 졸업 후에 어느 나라에 남고자 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성별, 학생별, 유학결정의 주체별 및 중국체류기간별로 세분해서 살펴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중국에 남겠다는 응답비율이 34.7%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응답(30.1%) 및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응답(27.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졸업 후에 어느 나라에 남고자 하는가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중국에 남겠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에 어느 나라에 남고자 하는가는 학생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중고생의 절대 다수인 53.5%가 중국에 남겠다고 응답한 반면에 대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응답비율이 41.1%로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에 중국에 남겠다고 대답한 비율은 22.5%에 불과하고 중고생 가운데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작 13.1%에 지나지 않고 있다. 중고생의 절대 다수가 중국에 남겠다고 한 것은 중고생들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조기유학을 온 것이기 때문으로 보여 지고 있다.

한편, 졸업 후에 어느 나라에 남고자 하는가를 유학을 결정한 주체에 따라서 살펴보면, 본인이 유학을 결정한 경우에는 현재의 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응답비율이 40.6%로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타인의 영향으로 중국에 유학을 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졸업 후 중국에 남겠다는 응답비율이 39.1%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조금 의외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본인이 유학을 결정한 대상 중에는 대학생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유학을 결정한 경우에는 중고생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졸업 후에 어느 나라에 남고자 하는가를 중국체류기간별로 보면, 2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견이 36.4%로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고 2년 이상의 장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중국에 남겠다는 응답비율이 38.2%로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장기 체류자가운데 현재의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1.8%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성별/학생별/유학결정의 주체별/중국체류기간별 졸업후 남고자 하는 국가 (%)

학생		졸업후 남고자 하는 국가				계	
		중국	다른 나라	한국	미결정		
성별	남학생	40.3	27.3	22.2	10.2	100.0	$\chi^2=12.9$ P= 0.005
	여학생	30.5	27.6	37.4	4.6	100.0	
학생별	중고생	53.3	25.5	13.1	8.0	100.0	$\chi^2=44.7$ P= 0.000
	대학생	22.5	29.2	41.1	7.2	100.0	
유학결정	본인	30.8	22.6	40.6	6.0	100.0	$\chi^2=12.5$ P= 0.006
	타인	39.1	29.5	22.7	8.7	100.0	
중국체류 기간	단기	33.2	26.1	36.4	4.3	100.0	$\chi^2=12.2$ P= 0.007
	장기	38.2	29.1	21.8	10.9	100.0	
계		120	96	104	26	346	
		34.7	27.7	30.1	7.5	100.0	

4) 중국사회 적응실태

중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정과 이유로 중국에 오게 되었다. 그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오게 되었든간에 결심을 하고 일단 중국에 온 이후로는 중국사회에 잘 적응해서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중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및 그 해소방법, 외로움의 정도 및 만족도를 알아보고 또한 그들 스스로 유학생생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살펴 봄으로써 유학생들의 적응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표 IV-20>은 응답자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 있다. 먼저, 중국에 유학 온 학생들은 성적, 언어, 진로문제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들의 42.3%는 성적에 관해서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4.8%는 성적에 관해서 항상 스트레스를 느끼고 살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40.2%의 응답자는 숙제나 시험에 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문제에 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유학생들은 29.2%로서 다른 항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유학생들은 전반적인 진로문제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과반수인 51.9%가 진로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하고 있고 15.4%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스트레스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대학입시나 취업 등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항목에서의 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들의 57.6%가 대학입시나 취업 등에 관해 스트레스가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25%의 응답자는 이 문제가 항상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표 IV-20>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 정도	(%)				
	성적 스트레스	숙제나 시험	언어문제	진로문제	대학입시나 취업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거의 없음	9.0	5.6	10.4	5.1	5.6
별로 없음	12.6	16.3	26.1	11.0	9.3
보통	36.1	37.9	34.3	32.0	27.5
가끔 있음	27.5	26.7	20.2	36.5	32.6
항상 있음	14.8	13.5	9.0	15.4	2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IV-21>은 학생별, 주거형태별 및 중국체류기간별로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성적 스트레스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적 스트레스를 학생별로 나누어 보면, 중고생이 대학생보다 성적에 관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적에 관해서 대학생은 35.4%가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데 반해 중고생은 52.9%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이것은 중고생의 경우는 대학생의 경우보다 대학이라는 관문을 더 남겨놓고 있고 중고교의 성적이 진학과 밀접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주거형태별로 성적에 관한 스트레스를 보면 항목별로 명백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가족과 같이 동거하는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 성적에 관한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과 같이 동거하는 유학생의 경우 21.1%가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고 답하고 있는데 반해 혼자 사는 유학생의 경우는 11.8%가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고 하고 있고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는 4.9%만이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고 답하고 있다. 여기에서 타인은 한국인 룸메이트, 중국인 룸메이트 및 기타 외국인 룸메이트를 포함하고 있다. 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가족과 같이 살고 있을 경우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성적에 관한 스트레스도 가장 적은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타인과 같이 사는 경우가 혼자 사는 경우보다 성적에 관한 스트레스

가 더 높은 것은 룸메이트와의 경쟁심 등 견제 심리로 인해 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가 보여 진다.

체류기간별로 성적 스트레스를 비교해 보아도 분명한 차이가 발견된다. 단기체류의 경우 보다 장기체류의 경우에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 2년 미만 머물고 있는 유학생의 경우 35.3%만이 성적에 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2년 이상 체류 유학생의 경우 이 비율이 50%에 이르고 있다.

<표 IV-21> 학생별 주거형태별 및 중국체류기간별 성적 스트레스 (%)

주거형태		성적 스트레스					계	
		거의 없음	별로 없음	보통	가끔 있음	항상 있음		
학생별	중고생	8.7	10.1	28.3	36.2	16.7	100.0	$\chi^2=12.4$ P= 0.014
	대학생	8.8	14.4	41.4	21.4	14.0	100.0	
주거형태	가족과 동거	21.1	10.5	26.3	35.1	7.0	100.0	$\chi^2=24.6$ P= 0.002
	타인과 동거	4.9	13.9	36.3	26.5	18.4	100.0	
	혼자	11.8	9.2	43.4	25.0	10.5	100.0	
체류기간	단기	8.0	15.5	41.2	23.0	12.3	100.0	$\chi^2=10.3$ P= 0.035
	장기	10.1	9.5	30.4	32.1	17.9	100.0	
계		32	44	129	98	53	356	
		9.0	12.4	36.2	27.5	14.9	100.0	

<표 IV-22>는 학생별 언어문제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이다. 앞의 <표 IV-21>에서 밝혀졌듯이 언어문제는 다른 문제에 비해 유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생활하고 유학하기에 가장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언어습득이다. 언어문제 스트레스를 학생별로 나누어 보면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중고생의 14.5%는 언어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고 답하는 등 47.1%가 언어문제에 관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달리 대학생의 경우에는 29.5%만이 스트레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34.1%가 언어문제에

관해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고생 가운데 언어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에 지나지 않고 있다.

<표 IV-22> 학생별 언어문제 스트레스

학생	언어문제 스트레스					계
	거의 없음	별로 없음	보통	가끔 있음	항상 있음	
중고생	20	45	44	23	6	138
	14.5%	32.6%	31.9%	16.7%	4.3%	100.0%
대학생	16	47	78	48	25	214
	7.5%	22.0%	36.4%	22.4%	11.7%	100.0%
계	36	92	122	71	31	352
	10.2%	26.1%	34.7%	20.2%	8.8%	100.0%

$$\chi^2 = 14.7$$

$$P = 0.005$$

<표 IV-23>은 중국에 온 기간별로 진로문제에 관한 스트레스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기간별로 보면 2년 미만의 단기체류자 보다 2년 이상의 장기 체류 유학생이 진로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기체류 유학생은 46.6%가 진로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갖고 있으나 장기체류자는 무려 57.5%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기체류 유학생의 17.4%는 진로문제에 대해서 항상 스트레스를 느끼고 살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 오래 유학생이 머무를수록 장래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 이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중국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적응능력과 관계없이 한국 청소년의 중국 유학이 그리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V-23> 중국에 온 기간별 진로문제 스트레스

중국에 온 기간	진로문제 스트레스					계
	거의 없음	별로 없음	보통	가끔 있음	항상 있음	
단기(2년 미만)	6	23	71	62	25	187
	3.2%	12.3%	38.0%	33.2%	13.4%	100.0%
장기(2년 이상)	12	16	43	67	29	167
	7.2%	9.6%	25.7%	40.1%	17.4%	100.0%
계	18	39	114	129	54	354
	5.1%	11.0%	32.2%	36.4%	15.3%	100.0%

$$\chi^2 = 9.5$$

$$P = 0.048$$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중국에 유학 온 학생들은 성적, 언어 및 진로문제들에 관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안고 살고 있다. 그러면, 이들 유학생들은 어떻게 이러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가? <표 IV-24>는 응답자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 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잠을 잔다고 응답하는 유학생들이 27.3%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를 만난다(22.8%), 운다(13.5%), 술 담배를 한다(11.3%), 쇼핑을 한다(10.7%), 영화감상을 한다(8.2%), 독서를 한다(2.8%), 여행을 한다(2.2%) 및 폭력을 행사한다(0.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해소방법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울거나 쇼핑을 하는 비율은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의 경우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4>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스트레스 해소 방법	빈도(명)	백분율(%)
술, 담배	40	11.3
폭력 행사	3	.8
여행	9	2.5
독서	10	2.8
쇼핑	38	10.7
영화감상	29	8.2

스트레스 해소 방법	빈도(명)	백분율(%)
친구를 만남	81	22.8
잠을 잠	97	27.3
운다	48	13.5
계	355	100.0

<표 IV-25>는 유학생들이 유학생생활 가운데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으며 이를 동거형태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유학생들은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응답자들의 7.6%가 항상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고 있고 51.7%가 때때로 외롭다고 느끼고 있어 59.3%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과 같이 사는 유학생이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이 함께 있어도 이들의 과반수인 50.9%는 유학생생활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롭지 않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가족과 같이 사는 유학생의 경우 42.1%로 나타나고 있고 룸메이트 등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경우는 22.7% 그리고 혼자 사는 경우에는 20.0%에 지나지 않고 있다.

<표 IV-25> 동거형태별 외로움 여부

동거형태	외로움 여부					계
	항상 외로움	때때로 외로움	보통	별로 외롭지않음	전혀 외롭지않음	
가족과 동거	5	24	4	16	8	57
	8.8%	42.1%	7.0%	28.1%	14.0%	100.0%
타인과 동거	14	124	35	33	18	224
	6.3%	55.4%	15.6%	14.7%	8.0%	100.0%
혼자	8	36	16	9	6	75
	10.7%	48.0%	21.3%	12.0%	8.0%	100.0%
계	27	184	55	58	32	356
	7.6%	51.7%	15.4%	16.3%	9.0%	100.0%

$$\chi^2 = 15.6$$

$$P = 0.048$$

<표 IV-26>는 유학생들이 중국사회에서 얼마나 적응하고 있는가를 5점 척도의 질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유학생의 중국사회 적응정도를 성별, 학생별, 중국어능력별 및 중국체류기간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에 유학 온 학생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중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응답자의 14.7%는 중국사회에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고 50.3%는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해 전체응답자의 65%가 잘 적응하는 편임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별로 잘 못 적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3.4%이고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1%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들의 중국사회 적응정도는 성별, 중국어 능력별 및 중국체류기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유학생의 중국사회 적응정도를 성별로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학생 가운데 19.7%가 중국사회에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으나 여학생 가운데는 이 수치가 9.7%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비록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남학생가운데는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2.2% 있는 반면에 여학생 가운데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고생과 대학생을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는 대학생이 나이도 있고 경험도 더 많아 중고생보다 더 잘 적응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본 조사 결과 중국사회 적응에 있어서 이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중국사회 적응정도는 중국어 구사능력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사회에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중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없는 유학생의 경우에 22.4%로서 다른 경우의 유학생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없는 유학생의 경우 중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78.9%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비율은 중국어가 보통이라는 학생의 경우에 54.7%로 나타나고 있고 중국어 구

사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47.0%에 지나지 않고 있다.

중국사회 적응정도는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영향을 받는다. 중국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의 단기체류 유학생과 2년 이상의 장기체류 유학생을 비교해 보면, 장기체류자가 단기체류자에 비해 중국사회 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중국사회에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11.8%에 지나지 않으나 장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18.2%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사회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48.1%로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체류자의 경우에는 52.1%로 제시되어 있다.

<표 IV-26> 성별/학생별/중국어능력별/중국체류기간별 중국사회 적응정도 (%)

		중국사회 적응정도					계	
		매우 잘 적응	비교적 잘 적응	보통	별로 적응 못함	전혀 적응 못함		
성별	남학생	19.7	46.1	29.8	2.2	2.2	100.0	$\chi^2=12.7$ P= 0.013
	여학생	9.7	54.5	31.3	4.5	0	100.0	
학생별	중고생	12.6	51.9	31.9	2.2	1.5	100.0	$\chi^2=2.0$ P= 0.741
	대학생	15.8	49.3	29.8	4.2	.9	100.0	
중국어 능력	어려움 없음	22.4	56.5	18.8	1.8	.6	100.0	$\chi^2=37.8$ P= 0.000
	보통	6.8	47.9	40.2	3.4	1.7	100.0	
	어려움	7.6	39.4	43.9	7.6	1.5	100.0	
체류 기간	단기	11.8	48.1	34.2	5.3	.5	100.0	$\chi^2=10.0$ P= 0.040
	장기	18.2	52.1	26.7	1.2	1.8	100.0	
계		52	178	108	12	4	354	
		14.7	50.3	30.5	3.4	1.1	100.0	

<표 IV-27>은 유학생들이 중국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역시 5점 척도로 스스로 평가한 내용이며 유학생들의 중국생활 만족도를 성별, 학생별, 중국어능력별 및 중국체류기간별로 세분해서 살펴보고 있다. 중국사회 적응정도와 중국생활 만족도는 어느 정도 유사한 문항으로 보여 질 수 있기

는 하나 완벽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두 변수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지만, 중국사회에 적응했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생활에 만족했다고 동일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응답자의 6.8%는 현재의 중국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고 50.6%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다고 답해 전체적으로 57.4%의 응답자가 중국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전체응답자의 9.3%는 현재의 중국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중국생활 만족도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성별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현재의 중국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10.1%로서 여학생의 3.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다는 비율도 남학생의 경우 11.8%로서 여학생의 6.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의 경우와 달리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양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하나도 없는 반면에 남학생의 경우에는 비록 그 수치가 높지는 않지만 2.8%를 나타내고 있다. 학생별로 나누어 보면, 대학생의 경우 중국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8.8%로서 중고생의 3.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학생별로는 그 차이가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중국생활 만족도를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별로 나누어 보면, 중국어 구사능력이 보통이라는 응답자와 중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자 간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중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자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중국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8.2%로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중국생활에 비교적 만족한다는 비율도 60.0%로서 중국어 구사능력이 보통인 응답자의 41.9%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국생활의 만족도는 중국사회 적응정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유학생들이 중국에 체류한 체류기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중국에 2년 미만 체류한 단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중국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5.98%로 나타나고 있으나 2년 이상의 장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7.9%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중국생활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47.1%로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54.5%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7> 성별/학생별/중국어능력별/중국체류기간별 중국생활 만족도 (%)

		중국사회 적응정도					계	
		매우 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	별로 만족하지 못함	전혀 만족하지 못함		
성별	남학생	10.1	43.8	4.3	9.0	2.8	100.0	$\chi^2=14.7$ P= 0.005
	여학생	3.4	57.4	32.4	6.8	0	100.0	
학생별	중고생	3.0	54.1	33.3	6.7	3.0	100.0	$\chi^2=9.0$ P= 0.061
	대학생	8.8	48.4	33.5	8.8	.5	100.0	
중국어 능력	어려움 없음	8.2	60.0	26.5	3.5	1.8	100.0	$\chi^2=21.7$ P= 0.006
	보통	4.3	41.9	41.0	11.1	1.7	100.0	
	어려움	6.1	42.4	37.9	13.6	0	100.0	
체류기간	단기	5.9	47.1	33.7	12.8	.5	100.0	$\chi^2=15.6$ P= 0.004
	장기	7.9	54.5	32.7	2.4	2.4	100.0	
계		24	179	118	28	5	354	
		6.8	50.6	33.3	7.9	1.4	100.0	

<표 IV-28>은 유학생들이 중국에 유학 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국유학에 대한 자체평가를 중국어 능력별 및 중국유학 결정주체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에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의 70.0%는 중국에 유학 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유학 온 것을 잘 못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들이 중국에 유학 온 것에 대한 평가는 중국어 구사능력 및 중국유학 결정주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중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없는 유학생의 경우는 중국유학을 매우 잘 했다고 평가한 비율이 22.3%로서 다른 입장의 유학생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유학 오기를 비교적 잘 했다는 응답비율도 중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없는 유학생의 경우가 55.8%로서 다른 유학생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유학생의 경우는 중국어 구사능력이 보통이라는 유학생의 경우보다 중국에 유학 온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에서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학생들이 중국에 유학 온 것에 대한 평가는 중국유학을 올 때 누가 결정했는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본인 스스로 유학을 결정한 유학생의 경우가 타인의 영향을 받아 유학을 온 학생의 경우보다 중국에 유학 온 것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인이 유학을 결정한 유학생의 경우 중국에 유학 온 것을 매우 잘 했다고 평가한 비율이 21.5%로서 타인이 유학에 영향을 준 경우의 16.8%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중국 유학을 비교적 잘 했다는 비율도 본인 결정의 경우가 55.6%로서 타인이 영향을 준 경우의 50.0%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28> 중국어능력별 및 중국유학결정주체별 중국유학자체평가 (%)

		중국유학자체평가					계	
		매우 잘 했음	비교적 잘 했음	보통	비교적 잘 못 했음	매우 잘 못 했음		
중국어 능력	어려움 없음	23.3	55.8	17.4	2.9	.6	100.0	$\chi^2=25.1$ P= 0.001
	보통	11.3	46.1	37.4	4.3	.9	100.0	
	어려움	19.7	48.5	21.2	6.1	4.5	100.0	
중국유학결정	본인	21.5	55.6	20.0	.7	2.2	100.0	$\chi^2=10.2$ P= 0.037
	타인	16.8	50.0	27.4	5.3	.5	100.0	
계		66	181	87	14	5	353	
		18.7	51.3	24.6	4.0	1.4	100.0	

<표 IV-29>는 중국에 유학중인 응답자들이 “현재 중국에서 겪고 있는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주관식으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수업시간에 어려움을 포함해서 언어소통문제가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38명) 언급되었다. 중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어가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사항임이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고국,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집(한국)에 가고 싶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은 빈도(34명)를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로 높은 응답은 입시에 대한 부담감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31명)이 지적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인의 생활습관 등 중국문화에 대한 적응이 힘들다는 의견(29명)이다.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진로 선택의 폭이 좁다는 의견(26명)도 적지 않게 언급이 되고 있다. 이어서 자기 컨트롤이 힘들(13명), 교통문제(12명),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음(11명), 중국 친구를 깊게 사귀지 못함(9명) 및 사람관계가 어려움(8명)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총 43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표 IV-29> 중국에서 겪고 있는 가장 힘든 일 (주관식 응답)

번호	답변내용	답변 수
1	언어소통(수업시간에 어려움)문제	38
2	집에 가고 싶다. 고국,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34
3	입시에 대한 부담감. 공부스트레스가 너무 많음	31
4	중국인들의 생활, 습관 등 중국문화에 적응 힘들	29
5	진로선택의 폭이 좁다.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너무 많음	26
6	자기 컨트롤이 힘들	13
7	교통문제	12
8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음	11
9	중국친구 깊게 사귀지 못함 : 사상차이, 깊게 사귀기 힘들	9
10	사람관계가 어려움	8
11	북경환경이 안 좋아 어려움	6
12	중국에서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음	5
13	반찬이 입맛에 맞지 않음	5

번호	답변내용	답변 수
14	혼자 해결하는 능력 부족(비자, 처리 등)	5
15	보안문제	5
16	취업문 좋음. 급여문제	4
17	자금문제: 용돈을 받아쓰는 입장,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함	4
18	가족끼리의 유대감 단절	4
19	성적이 안 나와서 힘들	4
20	건강관리(의료 환경 낙후)	4
21	돈 관리 힘들	4
22	문화생활 어려움	3
23	한국과 차단된 느낌	3
24	욕구 불만	3
25	중국유학에 대한 회의감	3
26	후견인이 피곤하게 함	3
27	구속된 생활: 숙소의 자유로운 외출 제한(홈스테이 등)	3
28	단조로운 생활	3
29	자취하는 일이 힘들	3
30	좁은 대인관계	3
31	유학생끼리의 마찰	3
32	문화생활 어려움	3
33	중국 사람들의 일처리	3
34	여자 친구가 한국에 있어 보고 싶음	2
35	학교에서 선배들이 하는 행동	2
36	외국인 차별대우	2
37	비행기 값이 비싸 집에 가기 힘들	2
38	중국학생들과의 실력차이	2
39	졸업문제	2
40	집세/룸메이트와의 문제	2
41	비싼 학비	2
42	혼자 유학 오면 무조건 안 됨	1
43	물건 구입시 신뢰 할 수 없음	1

2. 재중국 한국유학생의 적응실태 - 초점집단 토론 결과

본 연구는 중국에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의 적응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두 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양적인 통계분석에 근거한 설문조사이고 또 하나는 조사대상자 3-5명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토론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는 초점집단 토론조사이다. 설문조사의 내용을 근거로 하는 양적인 통계분석은 다수의 응답자(본 연구에서는 360명)를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비교적 조사내용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양적인 분석만으로는 응답자들의 감정이나 태도 및 심층적인 내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유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을 선정하여 토론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한국유학생의 상황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다년간 한국유학생을 가르쳐 왔던 중국인교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토론조사를 실시하였다. 토론은 모두 본 연구자의 자택에서 이루어 졌고 토론시간은 최소 1시간 반에서 최고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1) 초점집단 토론 참여자

초점집단으로 선정된 6개 유학생 집단의 토론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1집단 (조기유학, 남자 고등학생):

A (남, 고1, 17세, 유학 1년6개월)

B (남, 고1, 16세, 유학 2년)

C (남, 고2, 16세, 유학 4년)

D (남, 고2, 18세, 유학 1년6개월)

2집단 (조기 유학, 여자 고등학생)

A (여, 고2, 18세, 유학 3년)

B (여, 고3, 18세, 유학 3년)

C (여, 고1, 17세, 유학 8개월)

D (여, 고1, 17세, 유학 1년9개월)

3집단 (여자, 청화대 대학생)

A (여, 24세, 유학 3년 6개월)

B (여, 24세, 유학 4년 6개월)

C (여, 21세, 유학10년)

4집단 (남자, 북경대 대학생)

A (남, 20세, 유학 5년)

B (남, 20세, 유학 4년)

C (남, 23세, 유학 2년 6개월)

D (남, 20세, 유학 4년 3개월)

E (남, 21세, 유학 4년)

5집단 (혼성, 대학생, 중국체류 2년 이하)

A (남, 26세, 유학 1년)

B (여, 22세, 유학1년)

C (남, 20세, 유학 1년 10개월)

D (남, 21세, 유학 2년)

6집단 (혼성, 어언대 대학생, 중국체류 2년 이상)

A (남, 26세, 중국유학 2년 6개월)

B (남, 28세, 중국유학 3년)

C (여, 25세, 중국유학 3년)

D (남, 28세, 중국유학 2년)

2) 중국유학 언제 누구와/두려움 여부

처음에 중국에 올 때 누구와 같이 왔는가는 처음으로 외국에 나갈 때의 생소함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토론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가운데 고등학생은 가족들과 같이 온 경우가 많았고 대학생은 혼자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고등학생 중에서도 남학생은 혼자 오거나 유학원을 통해서 온 경우가 많았고 여학생은 가족 중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오빠나 언니 등과 같이 온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아버지의 사업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같이 와서 계속 중국에 가족과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이후 부모가 떠나서 혼자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토론에 참여했던 학생들 대부분은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게 됨에도 별로 두려움이 없었다고 대답하고 있다. 단지, 일부 학생은 가족과 같이 왔다가 혼자 남은 경우에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웠던 경우는 유학원을 통해서 오게 된 몇몇의 학생들이 유학원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서 겪었던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다.

“저는 아빠랑 언니랑 같이 왔고 지금은 언니랑 같이 있고 무서웠던 것보다 엄마랑 떨어져 있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먹는거랑 엄마랑 같이 없는 것이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여학생)

“처음에 아빠가 오빠의 유학을 생각해서 엄마랑 같이 셋이서 왔거든요. 3년 전 쯤에 왔는데 올 때 유학원을 통해서 가방 2개 두 개 들고 왔어요. 유학원만 믿고 왔는데 유학원이 속이고 집도 속이고 돈도 훨씬 비싸게 구하고 동왕장(아파트)에 구해주고 그렇게 3개월 살다가 화청(아파트)도 알게 되고 이제는 안정이 되었어요. (사회자: 처음에 어려웠네?) 처음에 집을 열자마자 바퀴벌레도 많고 환경의 열악이 어려웠어요. 처음에 한국 같은 집을 생각하다가 중국 사람들 집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중국나라만 있다는 것만 알고 왔는데 이제 아니까 찾으러 다니고 한인교회도 다니고 한 3-4개월 지나니까 이제 안정이 좀 되었어요.” (고등학교, 여학생)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입시안하고 바로 유학원 통해서 왔어요. 근데 제가 돈을 냈 던 유학원이 너무 사기성이 짙었어요. 청화대에 학생들을

보내본 적도 없고 아무 경험이 없는 유학원이어서 자기네들도 시험 삼아 어언대랑 지질대에 학생들을 먼저 보내본 거예요. 자기네들은 경험이 많은 것처럼 설명하길래 곧장 등록해서 엄마랑 함께 왔는데 그 유학원이 거의 저를 버리다시피 갑자기 “너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작정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너무 무책임했죠.” (청화대, 여학생)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이 중국어였어요.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렵지가 않아서 재미있었고 나중에 학교를 휴학하고 언어 연수를 왔는데 외국 나간다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놀러 갔다 온다는 생각으로 왔어요. 군대도 놀러갔다 온다고 생각해서 중국에 올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오니까 어언대에 모아 놓아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언대, 남학생)

3) 중국유학계기/유학 온 이유

학생이 유학을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특히 중국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중국에 유학을 오게 결정한 계기는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토론에서 나온 대부분의 대답은 중국이 발전가능성이 있고 전망이 좋아서 등의 사회적 이유와 아버지 직장을 따라서 또는 중국어를 전공해서라는 개인적 이유 때문에 중국 유학을 오게 되었다고 대답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고등학교 가운데에서 한국에서 성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중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다는 소위 ‘도피유학’의 경우가 상당히 많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에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애들과 어울려 공부는 안하고 놀기만 하다 보니 성적도 떨어지고 해서 중국이 발전되니까 부모님과 상의해서 선택했어요.” (고등학교, 남학생)

“학교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게 되었고, 유학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해서 중국으로 유학 오는 것을 선택했어요.” (고등학교, 남학생)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성적이 계속 떨어졌어요. 한국에선 웬만한 등수가 아니고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도 없고 설령 대학 졸업을 했다 해도 대강 졸업만 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외국어를 배우기로 선택했어요. 학교에 흥미가 없어서 자퇴서를 낼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한국에 계속 있어 봐도 좋은 수가 없기도 하구, 아무래도 중국에 오면 외국어 하나라도 잘 배울 수 있으니 엄마랑 의논해서 오게 됐어요.” (고등학교, 남학생)

“처음에는 공부를 잘 했는데 점점 한국에서 성적이 떨어져서요. 엄마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데도 성적이 자꾸 떨어지니까 고등학교도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도피성으로 왔으나 우연한 기회로 오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여학생)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렇지 중국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전혀 문화 등에 관심이 없었고. 중국이 있다는 정도만 알았는데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요. 문화가 이렇게 떨어지는 줄 몰랐어요. 애들 옷 벗고 다니고 중국이 밤에는 멋있는데 낮에는 정말 더럽다고요. 전기를 막 틀잖아요. 그래서 밤은 멋있는데 아침에는 쓰레기가 있고 거지가 길바닥에 자고 얼마나 보기 싫은데요. 문화 자체가 너무 떨어지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국민성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줄 몰랐어요.” (고등학교, 여학생)

“중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주위에서들 말하니까 중국에서 유학하면 중국어 하나라도 확실히 하게 되고 취직하면 그래도 탄 사람보단 중국어 하나라도 잘 한다면 취직할 때 조금 더 가산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중국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청화대, 여학생)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를 한국에서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가야할 때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성적 나온 것을 보고 도저히 제 성적으로는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갈수 없을 거 같아서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여기저기서 자문 구하고 저 혼

자 스스로 알아 본 게 많아요. 가족들은 니가 원하는 대로 니가 하고 싶은
바면 능력되는 곳까지는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상황으로 봤을
때 중국이 가장 알맞은 거 같아서 북경으로 가게 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
다.” (북경대, 남학생)

“자퇴 이후 부모는 미국으로 가라고 했으나 막연한 반미감정으로 인해 미
국 유학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미국 유학 간 친구들의 잘못된 행태를 보고
유학생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서 부터 중국에 관한 책을 많이
접했고 막연히 중국을 좋아해서 중국에 왔는데 더구나 중국에 대해 말이 많
아서 오는 것에 힘이 되었고 원래 온 것은 중국문화에, 영화, 수호지 삼국지
등 문화 책에 관심이 많다 보니 스스로 흥미가 생겨서 중국에 왔습니다.”
(대학교, 남학생)

“유학에 생각이 없다가 누가 말을 하는데 중국어의 성조가 있어서 강하게
들렸고 연설을 하는데 멋있었고 성경을 중국어로 읽는 것을 보면서 강하게 인
상을 받아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더구나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구
가 10억이 넘고 그래서 공부해보려고 갑자기 남았습니다.” (대학교, 남학생)

4) 중국유학 사전준비여부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해 있고 또한 오랜 역사적 관계를 수
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에야 한국과 수교관계를 맺게 되어 우리나라
의 수교국 가운데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수교를 하게 된 나라에 속한다. 중
국이 사회주의체제를 표방하고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을 지원하여 한국군과
싸우는 등 최근의 역사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따라서 수교를 하기 전
에는 중국이 한국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였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수교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주의중국은
‘죽의 장막’으로 한국인에게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나라’로서 인식
되었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 놓여 있었으므로 중국유학을 위해서는 사전에
중국의 언어나 문화 등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필수적이어야 할 것으로 여

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6%가 중국에 유학을 오기 전에 한국에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대답하고 있다. 즉흥적으로 중국에 유학을 온 경우도 적지 않게 드러났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주위사람들이나 사설학원에서 성적으로 압박을 받으니 제가 중국으로 온다고 했고 결정하는데 이틀 걸렸어요. 결정하자마자 엄마한테 통보하고 부모님께서도 들으시고는 네가 선택한 것이면 중국에 가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오진 못했어요.”
(고등학교, 남학생)

“중앙대를 다니고 있는데 자퇴를 했고 지금은 어언대에 언어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휴가중에 자퇴를 했습니다. 관심이 없었는데 한달 반 정도의 여행이후 여행 중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익히게 되었는데 친구와 함께 5일 정도 북경이 있던 중에 공부하고 싶어서 여행을 멈추고 친구의 도움으로 학교에 등록하고 남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남학생)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렇지 중국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전혀 문화 등에 관심이 없었고. 중국이 있다는 정도만 알았는데----” (고등학교, 여학생)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안했어요. 근데 저는 일부러 안한 것도 있었어요. 제 앞에 중국에 온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분은 어디 대련으로 가셨는데 한국에서 풍습을 배워간 거랑 중국에 가서 본거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당부하시길 그냥 가서 부딪혀라. 아무것도 모르고 가라.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니하오’만 알고 딱 왔어요. 아무 것도 모르고----” (북경대, 남학생)

5) 현재 거주지역/주거형태

유학생이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는가는 유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듯이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 성적 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고 무단결석도 가장 적었으며 외로움도 가장 적

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조사에서 언급된 유학생들의 주거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미 설문조사에서 40%가 한국인 룸메이트와 같이 살고 있고 20%가 혼자서 살고 있으며 기타 가족, 친지, 중국인 주인, 홈스테이 등의 형태로 나타난 바 있다. 본 토론조사에서 특기할 것은 고등학교 학생 중에는 홈스테이를 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는 점이다. 중국에서의 홈스테이는 대부분 한국에 있는 부모가 중국에 살고 있는 친지들에게 부탁하여 후견인의 역할까지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홈스테이 하는데 언니 2명 대학생 언니와 4명에서 같이 살아요. 저는 일반 홈스테이가 아니고 대학생이 하는 홈스테이에요. 저는 전에는 아줌마들 하는데 있었거든요. 비용이 이전에는 3,000-4,000위안 이었는데 지역마다 다른데 대충 그래요. 요즈음은 한 달에 6,000위안정도이고 방하나 주고 밥해주고 관리해 주고 10시 까지 들어와 과외도 해 주고 학교에서 부르면 학교도 가고 후견인처럼 해 주는데--- 법적인 것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아줌마들은 보통 한 달에 6,000원인데 저는 주인이 대학생이므로 5,000원이예요. 다 챙겨주잖아요. 완전 엄마예요. 다 엄마끼리 친분이 있어요. 그 정도 참견하려면.” (고등학교, 여학생)

“아이들끼리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원래는 친했는데 같이 살면서 안 맞는 부분이 생기니까 싸우고 등 돌리고. 저도 기숙사 들어가기 전엔 친구랑 같이 살았는데 그 친구와 저는 같은 나이라서 그나마 나았고--- 부모님처럼 이해해 주고 하는 그런 가족관계가 아닌 우리는 그냥 동갑친구이니까 살아가면서 확실히 의견충돌은 생겨요. 그렇지만 저희 둘은 워낙 친하다보니 애기를 하며 풀면서 살았어요. 그렇지 않고 유학 와서 같은 학교니까 친한 친구가 아니라도 룸메이트가 돼서 같이 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럴 때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은 서로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으니 서로 간에 잘 모르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부딪히고 싸우다 보면 나중에 사이가 영영 틀어지게 되요.” (청화대, 여학생)

6) 중국어 수준

중국유학에서 가장 선행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중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단지 중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종류든 학위를 따야 하는 것인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면 학위 달성의 목적은 무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국에 유학 온 한국학생들의 언어 구사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토론조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중국에 온 기간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국에서 생활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 없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듣기는 매우 힘들어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듣기는 어느 정도 하는데 말하기가 어렵다는 대답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특히 많은 한국 학생들이 중국인과 교류하기 보다는 주로 한국인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중국인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어를 배운 것은 4년인데 중간에 휴학을 했었고 어려움이 많죠. 듣기보다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특히 심하게 말을 안 하는 편이고 처음 만날 때 사람을 낚을 가려서 더욱 어려워요. 한국 사람을 만나도 낚을 가리는데 중국사람 이니까 더 그렇고. 웬지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말을 잘못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봐 말을 안 하게 되었고요.” (어언대, 남학생)

“저도 듣는 건 들리는데 말하는 건 안 되요. 한국 애들이랑 많이 어울리게 되고 제가 사는 동네자체도 한국 사람이 많으니 학교이외엔 중국어를 쓸 기회가 많이 없을뿐더러 지금은 제가 국제반(외국인들만 있는 반)이어서 중국 말을 할 기회가 점점 적어져요.” (고등학교, 남학생)

“말하고 듣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여기 빨리 왔잖아요. 4-5년 있었는데. 그만큼은 못한다는 거예요. 중국 오래 있었는데 2-3년 온 애들과 비슷해요. 중국어 라는게 짧은 시간에 늘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꾸준히 노력을 더 하면 더 많이 늘텐데, 말하는 시간이 별로 없고 하니까 기간은 늘어나도 중국말이 늘 기회가 많이 없어요. 학교생활도 해야 하고 쫓기다 보니 혼

자 공부할시간이 부족한 거 같아요. 글 쓰는 것도 많이 써봐야 하는데...”
(북경대, 남학생)

“일상 언어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업시간에 어렵습니다. 약 20%정도 알아 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복습을 해야 50% 이해됩니다. 중국어 공부한지가 1년 8개월 되었습니다. 수업 용어가 어려워 중국어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HSK 고급(10급 정도)은 따야 50% 정도 알아들을 것 같아요. 중국 애들도 수업을 60% 정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대학교, 남학생)

7) 중국에서의 학습상황

중국에서의 유학생 관리제도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다르다. 많은 중국의 고등학교에서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중국인과 같이 공부시키지 않고 소위 ‘국제반’을 만들어서 외국인끼리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언어에 제약이 있는 외국 학생들을 중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시킬 때 서로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재 북경의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국제반(물론 가끔 다른 외국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국 학생임)에서 한국 학생끼리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는 장단점이 있으나 중국에 유학을 온 학생의 입장으로 보서는 중국 유학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제도로 보여 진다. 대학에서도 한국 학생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한국 학생들의 수업능력이 떨어지고 한국 학생들 끼리 어울리게 됨으로써 중국어 향상의 기회도 별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언어의 제약 때문에 수업 듣기를 포기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도 고등학교가 많잖아요. 각 학교들이 외국인 허가 받은 학교가 있고 허가 받지 못한 학교가 있어요. 외국인은 학비를 많이 받잖아요. 너도 나도 외국인 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학생들을 받아요. 그리고 애네 처럼 이미지 관리를 중시해서 국제부 관리를 해주는 학교가 있는 반면 어떤 학교들은 돈줄로만 생각하고 외국인들은 돈 봉이다. 돈만 받고 할 것만 하고 말 것

은 말고 관리를 안 하고 건물만 확 저버리고 그런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들은 돈만 받고 학교 나오든지 말든지 생각도 안하고. 그냥 졸업장은 줄게 하는 학교 도 많고 학교가 각양각색이에요. 정말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학교를 잘 찾아야 되요. 정말 좋은 학교는 잘 찾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로 학교가 없어요. 정말 대우받고 싶고 정말 공부하고 싶으면 국제학교를 가야 되요. 그래서 중국학교보다 국제학교를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학교들은 외국인들을 학생이라고 대하지 않고 돈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선진국에 가려고 해요 그런 것에 질려서--- 학교 제도가 학생들을 돈으로 생각하고 중국 애들은 철저히 관리하면서 외국학생들에게는 안하고--- 우리가 그냥 돈 이예요. (고등학교, 여학생)

“중국학생은 한 학기에 4,000위안 이예요. 저희가 중국반에 가려면 25,000위안 이예요. 학비만. 우리는 몇 배 예요. 우리는 돈줄이예요. 학교에 건물하나세우면 저‘저건 내거야.’ 이런 식으로 장난쳐요. 방학 때 가면은 하나씩 다 바뀌어져 있어요. 페인트칠해있고 우리가가면 화장실도 바뀌어 있고 뭐가 다 바뀌어요. 우리 돈으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 여학생)

“저희 학교는 외국인을 받아들인 지 2-3년 되었던 말 이예요. 그전에는 건물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잔디도 없었는데 잔디를 깔더니 다음해 이공대 주위에 학교가 없으니까 고등학생들이 이공대(북경 이공대 부속 고등학교)로 온 거예요. 갑자기 80명이 많아진 거예요. 1학기에 35,000원 정도예요. 건물이 막 생기는 거 예요. 우리보고 더럽히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돈으로 지은 것 하면서 반발심으로 더해요 관리는 안 해 주면서 돈만 받고. 이것은 우리 것이다 그래요. 한국 애들 원래 그러니까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것이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고등학교, 여학생)

“한국이랑 교육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한국에서는 너 해라 안하면 죽는다고 강압적으로 하죠. 주위에서 하니까 하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렇게 생

각하면 오산 이예요. 이 학교는 잘 잡아주니까 내가 공부가 잘 될 꺼야 하는데 이 말은 틀린 말 이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 잘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하는 학교에 가도 자신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되요. 악착같이 하면 과외 다해가면서 하면.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려면 애가 엄청 독해야 되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하하....” (고등학교, 여학생)

“저희 학교에서는 중국반에 50명반에 1명 정도 넣어 주어요. 사회자: 국제부와 중국인들은 따로 공부하고? 예체능만 같이 해요. 다른 학교는 3명도 넣어줘요. 저희 학교는 절대로 외국 애들이 중국 애들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되요. 조용히 살아야 되요. 그 애들 뒤편 놓으면 안 되요. 정말 말도 못하고 단정하고 말도 안하고 남자애들 중에 까불까불 하는 애들은 아예 넣어주지를 않아요. 저희는 많은 오빠들이 넣어달라고 했는데 넣어주지를 않아서 많이 학교를 옮겼어요. 1년 힘들게 공부하고 지금 다시 국제부에 와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학준비가 중국 반에서 공부를 하면 시험을 못 봐요. 국제부에서 보는 시험문제는 중국반 애들과 완전히 다르고 우리는 알고 그 애들은 많이 배우고 깊고 우리는 조금 배우고 중국반에 비하면 많이 적으니까 돌아오면 다시 대학 준비를 해야 되요.” (고등학교, 여학생)

“중국에서 진정으로 중국문화나 중국수업을 하려면 반에 한국 애들이 많이 있는 국제반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요. 왜냐하면 애들이 쉬는 시간에 한국말하고 같이 땡땡이 치고 한국 애들끼리 물리는 재미가 훨씬 커요. 자기 통제가 안되요. 그래서 아예 저처럼 놀 사람이 없으니까 중국 애들하고 놀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야 진정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저희 반에 한국인이 7명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고 2니까 대학시험에 나오는 역사 지리 수학 이런 것들만 듣지 체육 미술 시간되면 놀고 수학만 들었지 규정된 수업은 듣는데 그 나머지 수업은 불필요한 물리, 우리는 문과생이니까 보충수업은 땡땡이를 치고 우리는 관리가 잘 안되니까 밖에서 놀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여학생)

“학교에 들어가는 수는 고정되고 애들은 늘어나니까 정말 열심히 해요. 70%가 한국인이고 10%가 외국인이고 20%가 일본인 이예요. 중국 애들 시험 치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 대학 못가요. 저는 local 학교에서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중국인처럼 수업을 했어요. 수업을 알아 들었느냐고 물으시면요. 그때는 비교적 언어에 제한이 적은 것들은, 수학, 영어, 화학은 따라가고 역사, 지리는 처음에 어떻게 따라가? 그래서 처음에는 버렸지요. 그냥 잤어요. 영어시간은 일어나서 공부하고 수학시간은 일어나서 숙제하고 중국 애들과 똑같이 했는데 정치나 언어에 제한되는 것들은 공부를 못했어요. 과감히 버렸어요. 필리핀에 영어 연수 갔다 오고 고1 2학기에 들어갔어요.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당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은 듣다가 고2 때 이공대 학교(북경 이공대 부속 고등학교)로 옮겼어요. 거기서도 중국반에 들어갔어요. 저는 국제반에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2때 저희는 한국인들이 한반에 7명이었어요. 문과 이과인데 저는 문과반이고 저희학교가 이공대의 부속학교인 만큼 문과반이 많았어요. 문과반에 한국인들이 몰리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됐어요. 저는 중국에 꽤 오래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때쯤 되니까 처음에 들리지 않던 지리 역사에 들리더라고요. 지리 수업은 90% 정도 알아듣고 역사는 선생님이 하라는 필기라던가 집어주는 내용이 많이 들려요. 원래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 안 들리니까 흥미도 잃고 그래서 자고 실력이 안 늘고 그런데 중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점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국제반에 있는 애들은 말도 느리게 하고 그러나 중국반에 있던 애들은 중국 애들과 똑같이 수업을 했으니까 대학가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고등학교, 여학생)

“화학 같은 건 아예 포기 했고요. 어문이나 수학만 공부하고 역사도 역시 포기 했어요(썩썩한 미소).” (고등학교, 남학생)

“처음엔 매우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2학기에 반 인원 구성이 만족스럽지 않음으로 반분위기가 공부하는 환경으로 조성되지 않고 거의 전부 한국 학생이라 실망해서 서로가 반을 정말 잘못 만났더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수업의

흥미와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치는 방식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출석율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업이 점점 지루해지니까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이번학기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본과생이 아니고 언어연수이므로 개인적인 의지보다 주위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여학생)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매일 밤 10-11시에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다른 친구들처럼 억압 되었던 느낌은 안 들었는데 그냥 그 생활이 너무 지겨웠던지 대학생 되니까 그냥 책이 보기 싫은 거예요. 책 자체만 봐도 그냥 무조건 거부감이 생겼었어요. 원래 책을 안 좋아 했는데다가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보게 하니 대학생 되니 책을 안 보게 되는 역효과가 나는 거 같아요.” (북경대, 남학생)

8) 졸업 후의 희망

중국에 와 있는 한국유학생들이 현재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에 남기를 희망하는가는 개인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간의 유학생 생활을 얼마나 잘 했는가와도 관련이 있을 듯이 보인다. 토론에 참여한 유학생의 상당수는 중국에서 대학을 나온 후에 대부분 영어권 나라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는 군대에 가는 문제 때문에 일단 군대에 갔다 한국이나 중국이외의 다른 나라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부의 대학생들은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중국에 남아서 취직을 하거나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고3 이니까 대학교 4년 잡고 5년 정도 더 있을 예정이고 석사는 한국에서 하고 외국 갔으면 해요. 석사는 이곳이 마음에 안 들어요.” (고등학교, 여학생)

“저는 1년 반 정도 있으면 미국으로 갈 생각이고 중국이 질려버렸어요. 얼마 생각이 중국어와 영어를 같이 해야 효과가 있다고---” (고등학교, 여학생)

“저도 여기서 졸업 하면 한국 돌아가서 군대도 가야하고, 제가 워낙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 흥미도 없고, 북경에서도 재미가 없고 생활이 적응이 안 되서 북경 외 영국이나 미국 쪽으로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북경대, 남학생)

“졸업 후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물론 한국에서 구하고 중국으로 파견하면 괜찮을 것 같고 안 된다면 중국에서 찾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중국에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여언대, 남학생)

9) 친구관계

유학생생활에서 친구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친구들과는 같이 어울리면 유학생생활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것이고, 중국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언어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갖게 될 뿐 아니라 그만큼 빨리 중국문화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을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은 친한 중국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오히려 여고생들의 경우 중국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은 듯이 보여 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국 친구들하고는 일이 있어야 만나게 되나 한국 친구들과는 수시로 만나서 편하게 지내다고 이야기한다. 대체적으로 중국 친구들하고 깊이 있게 사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의견이다.

“중국반에 1년 있으면서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 건드리지 않아요. 말을 조심했어요. 남자애들이 정말 못해요. 벌근 해서 한국이 뭐가 어때서요. 우리나라 애국심이 심하대요. 한국에 대해 나쁘게 말하면 나도 기분 나쁘니까 나도 조심조심 말하다보니까 중국 애들이 먼저 다가왔어요. 중국 애들이 물어보고 빨리 친해졌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다가와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했어요. 중국친구들과 아직도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을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잘 지내고 그러나 다 잘 지 낼 수는 없고. 보면 인사는 다 하는데 여자친구는 3-4명 이고 한국친구는 많은데 이곳에서는 친구를 좀 골라가면서 사귀고 애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고등학교, 여학생)

“여긴 한국친구가 워낙 많아서 중국친구들이랑은 주로 어울리지 못해요. 학교엔 친구가 있긴 있는데 여기 북경 우다코라는 한국인 밀집지역에 한국인이 너무 많아서 중국인 친구와 어울릴 기회가 전혀 없어요.” (고등학교, 남학생)

“저는 침에 중국 왔을 땐 제가 외국인이니까 애들이 신기해하면서 관심을 갖구 그래줬는데 선생님도 유일한 외국인이라 잘해주니까 나중에는 애들이 열등감을 가졌는지 친해지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중 고등학교를 올라가도 저에게 관심만 좀 가질 뿐 저에게 자기네들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속내를 털어놓거나 그럴 만큼 친한 친구는 단한명도 없었어요.” (청화대, 여학생)

“중국 친구들은 한국 친구들과 좀 다른 거 같아요. 중국 친구들과 안지도 거의 3·4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 마음을 여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진 격이 있는 거 같고요. 한국 애들과는 우선 기숙사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허물없이 가깝게 지냅니다.”

(북경대, 남학생)

10) 음주 및 흡연

본 설문조사에서는 중국에 와 있는 한국유학생 가운데 24%가 1주일에 한번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9%의 응답자가 1주일에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각한 것은 미성년자인 중고생과 성인인 대학생의 음주 및 흡연 관행에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오차의 범위 내에서 중고생의 경우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론조사에서도 이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토론에 참여한 남자 고등학생들은 1명만 제외하고 모두 음주나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론에 참여한 여고생들은 모두 음주 및 흡연을 안 하고 있으나 주변 친구들은 대다수가 음주나 흡연을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담배도 펴요. 술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주위에 있는 대학교 다니는 형들이랑 간혹 마셔요. --- 부모님이 술이 센 편이시라--- (전원 웃음) 형들이랑 같

이 마시고 주시면 마시고 그리고 워낙 제가 주량이 세서 제가 형들을 다 챙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자제하면서 마셔요.” (고등학교, 남학생)

“여기 우다코에서 술 마시는 고등학생들 90프로라고하면 좀 심하지만 대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할거예요. 여긴 신분증 제도자체가 허술하니까 술 마시는 애들이 많은 편이에요.” (고등학교, 남학생)

“하는 애들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다해요. 얼굴이 다 삭았어요. 구석진 곳에서 담배 피요. 여자애들도 많아요. 저는 정말 담배를 싫어하잖아요. 여자애들도 안 피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피는 줄 알아요. 자신들이 좋아 보이지 않다는 것을 잘 몰라요. 자기 친구들이 막 피니까 그래요. 술은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먹어요. 구하기가 쉬워서. 한국에는 그래도 이만큼 자유롭지 않아요. 애들이 1차 라이온킹(식당), 2차 노래방, 3차 술집 이런 식이에요.” (고등학교, 여학생)

“생일파티하면 모여서 술 마시면서 생일파티해요. 마지막으로 술을 마셔요. 남학생 여학생 똑같이. 그런데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매일 매일 즐겨하는 애들이 있어요. 술 배가 있는 애들도 있고 한 학기 한번 주말만 되면 단장하고 나가는 애들도 있고 술 문화는 자유로워요.” (고등학교, 여학생)

“담배 경력은 10년이고, 금연한 지 6개월 되었습니다. 술이 맛이 있어서 술을 먹었습니다. 집에 양주를 쌓아놓고 자기 전에 규칙적으로 먹고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2-3잔 마시고 술을 매주 좋아합니다. 취하게는 먹지 않습니다. 건강상에 문제로 술을 끊었어요. 남자 사이에 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대학교, 남학생)

11) 유학생 주변의 일탈행동

유학생활동을 하다 보면 가족을 떠나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됨으로 여러 가지 비행에 연루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이것은 유학생 사이의

문제 만 뿐 아니라 현지인과의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시기심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 본 토론조사에서 나타난 바로는 유학생끼리 패싸움을 한다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도 나타나고 앞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중고생의 음주나 흡연 등의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남녀 유학생끼리의 동거 문제도 적잖게 지적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고등학생 간에 동거하는 경우도 이야기되고 있다. 또한, 별도로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는 유학생들과 중국 조선족들 간의 알력과 싸움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 제가 다녔던 한 학교에서 한국 여학생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는데 그 애가 학교를 떠나면서 학교에 술 마시고 나쁜 짓 하는 걸 아이들까지 다 일러서 그 아이와 싸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물건 같은 거 없어지는 건 종종 있어요.” (고등학교, 남학생)

“친구들 가운데 동거하는 학생들 많아요. 엄마 아빠 여기 안계시니까. 여자 친구가 있으면 자기 자취방에서 그냥 같이 지내게 되고 그렇게 해도 부모님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고등학교, 남학생)

“조선족이랑 한국 애들과는 사이가 안 좋아요. 왕징(한국인 집단주거지역) 쪽 가면 특히 심하고 여기서 행여 잘못하면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한테 칼 맞고 죽는 경우도 많아요. 이전에 아는 형 학원 다닐 때 자세한건 모르는데 중국 사람이 한국사람 칼로 찌르는 경우도 있었고, 왕징에선 한국 사람이 납치되어서 3일 뒤에 돌아왔는데 이미 죽어있었고 듣기론 장기가 없어져서 왔다는 사건을 들은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남학생)

“잘 모르겠는데 따로 공부 하다가 둘이 사귀었는데 좋아서 동거했어요. 부모님 모르세요. 고3인데. 외로우니까 무서워요. 여자애들이 혼자 공부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물도 시켜야지요. 이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가스조사라고 해서 문을 열어 주었는데 여자애들이 일 당했어요. 동왕장(아파트)도 9동

10동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아래 동은 안전해요. 그래서 많이 살아요. 동거하는 애들은 화칭(아파트)에 안 살아요. 다른데 가는데 남자애가 있으니 화칭 사는 애들도 있어 남자 친구가 의지가 되어요. 외롭다고 모든 걸 다 바쳐요. 빠지게 되니까 동거하게 되고. 동성은 도움이 돼요. 애기를 하면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데서 애기해요. 그러나 남자는 지켜주고 말 안 하고 끝까지 내편이 되어 줄 수 있고 내가 오라면 언제나 달려와요. 엄마 아빠처럼 해주는 거지요. 기둥이 되어주는 거지요. 돈이나 무엇이나 주어요. 남자애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해 주어요. 외로워서요. 공부만 하는 것이 힘들어요. 혼자 하는 것이 힘들어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클럽도 있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애들은 미쳐요.” (고등학교, 여학생)

“오토바이사고가 많고 죽은 애들도 있는데 의외로 많고 한 해에 몇 번 이런 얘기를 들어요. 간섭도 없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조선족과 싸움이 붙는 사고도 있는데 조선족은 자기들도 한국말 할 줄 아는데 봉급은 적게 받고 하니까 술을 먹고 가다가 시비를 걸어요. 조선족들과 몇 번 시비가 붙을 뻔했어요. 시비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비전(식당)에서 조선족깡패와 주인이 손님인 한국학생을 폭행하고 공안에서도 불러서 협박하고 그렇게 했대요.” (어언대, 남학생)

“저는 그때 시비 붙어서 싸운 게 생각나는데요. 이상하게 조선족 분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요. 학생들이 식당 앞에 밥을 먹고 나와서 모여 있으면. 특히 우범지대가 있어요. 어떤 술집과 한국식당 앞 공터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청화대, 여학생)

12) 유학생의 외로움

본 설문조사에서 중국에 온 한국유학생의 59%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응답자 가운데 8%는 항상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한국의 가족을 떠나 온 유학생들은 공부에 여념이 없고 또 그래야 하지만 생활 속에서 수시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특히 몸이 아플 때 그 외로움이 더 크다

고 고백하고 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성격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본 토론 조사에서는 너무 외로워서 운다는 학생도 있고 전혀 외롭지 않다는 학생도 있다. 대체로 남학생들은 별로 외롭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여학생들은 많이 외로워한다고 답하고 있다.

“처음부터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았어요. 엄마는 개방적이신데 내가 알아서 하겠지 하셨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공부 밖에 없고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외로움을 빨리 느껴요. 동성친구는 힘들 때 다 와 줄 수 없고요. 조금만 못해주면 꺾어요. 필요한 상황에서 해 줄 수 있는 만큼만 해줘요. 자기 살기 바쁘니까. 외로울 때는 b(옆의 친구)를 만나요. 생각도 같고 아줌마도 도와주어서--- 옛날에는 많이 울었지만 엄마 앞에서는 안 울어요. 지금은 참 아요. b에게 얘기하고 잊어버리려고 해요. 유학생살이 길어지니까 지치고 힘들지만 많이 버리지요.” (고등학교, 여학생)

“저도 C양과 비슷하게 외로움 안에 빠져들어요. 혼자 우울하게 계속 방안에 있어요. 하루 종일 자다가 영화보다 되풀이하고 내내 아무것도 안하고 쉬고, 밤엔 친구 찾아서 먹을 거 시켜먹고 거의 그린 식인 거 같아요.” (청화대, 여학생)

“아팠을 때 열이 39도가 되었을 때 막상 아프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주변에서 걱정을 하는데도 미안하기도 하고 여자 친구가 없을 때 아파요. 병원혼자 갈 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며 한국 가면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하면서...” (어언대, 남학생)

“저는 교회를 다녀서 외로움 느끼는 적은 없어요. 심심하면 사람들과 운동도 하고 뭐 먹으러 가고 외로움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북경대, 남학생)

13) 중국사회 적응도

본 설문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에 유학 온 학생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스스로 답하고 있다. 응답자의 14.7%는 중국사회에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고 50.3%는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해 전체응답자의 65%가 잘 적응하는 편임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별로 잘 못 적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3.4%이고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1%에 지나지 않고 있다. 토론조사에서는 토론 참여자들이 대체로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는 중국 사람들의 저급한 문화에 잘 적응이 안 되었으나 몇 년 살면서 점차 이곳 생활에 익숙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익숙해 졌음으로 적응이 되어 중국에 유학 온 것을 잘 했다고 자위를 하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중국에 온 것을 후회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중국사회에 잘 적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의 저급문화를 배우고 있는 현실이다.

“불편한 점은 없어요. (전원웃음) 교통질서도 남들은 화날 정도로 엉망이라는데 저에겐 편하고 좋아요. 저는 중국에 온 게 다 잘된 거 같고 좋아요.” (고등학교, 남학생)

“중국어가 잘 되어야 적응 잘하는 것 같잖아요. 지나가면 더럽고 냄새가 나서 욕이 나오지만 애들이 원래 저렇지 해요. 솔직히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이해는 되니까 나중에는 어떤 때 그 냄새가 그리워요.” (고등학교, 여학생)

“중국 사람들은 좋은 말로 하면 미적거리고 크게 막 화를 내면 그제서야 좀 바빠 움직여요. 좋은 얼굴로 말하면 말을 안 들어주고 막 얼굴 붉히고 큰 소리를 내면 처리를 해주는데 어떻게 매번 꼭 화를 내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러면 안 해주니까 그런 면들에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좋게 말할 때 웃으며 해주면 되는데. 더 웃긴 일어요. 제가 하루는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비를 주면 택시기사가 잔돈을 저에게 안 들고 다닌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학생들: 저희도 한 두 번이 아니예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저한테 말하기를요. 너한테 잔돈 내주면 나는 잔돈 없다고. 그런 말을 손님한테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면 중국이 좋다가도 정이 뚝뚝 떨어져요.” (청화대, 여학생)

“중국이 발전이 빠르다고들 하는데 솔직히 걸만 번지르르 하지 내실이 없어요. 특히나 중국인들은 서비스 정신이 너무 부족해요. 큰 식당을 가도 외국기업인 TGI 레스토랑을 가도 세계 어디에나 있는 똑 같은 기업이 다른 나라에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중국만 그렇게 서비스 교육을 안 시키는지 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중국 애들이 오히려 인종차별도 대게 심해요. 영어 쓰는 서양 애들한테는 친절하고 한국 애들한테는 괜한 열등의식이 있는지.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인데 현재 저희보다는 잘 사니까 그런 건지 몰라도 식당가도 때론 저희가 무시를 당해요.” (청화대, 여학생)

“중국은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요. 교통, 부동산. 택시기사의 불친절 등등. 민족 사상 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적응 하는 거죠.” (북경대, 남학생)

“이번에 저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은 일이 있었어요. 방 계약을 하면서 중국인들의 책임감 없는 일처리 때문에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됐어요. 부동산이랑 방주인이랑 얘기가 안 맞고, 저랑 또 얘기가 안 맞아서 무척 애를 먹었어요. 중국 와서 제가 성격이 좀 변했는데요. 한국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중국에선 이런 불합리한 일을 많이 겪다 보니 뭐든 확실히 알아보고 확실히 처리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하건 꼼꼼하게 해요. 저도 중국인들에게 손해 안 보려하고 만약 무슨 계약을 하면 끝까지 따져서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북경대, 남학생)

“한국 사람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실제로 사는 데는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중국문화에 빨리 적응한 편입니다.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음식도 잘 맛있어요. 외국인이라 당해야 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집을 구할 때도 말이 안 되어서 어려운데 주인이 무시했고 작은 일에서 큰일에 까지 짜증났어요. 지금은 적응이 되었습니다. 신호등도 지키지 않는 것이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든지, 여행 혹은 집을 구할 때 사기를 당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적응이 되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학교, 남학생)

“중국사회에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학생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없고 학업에 대해 토론을 하는 등이 없어서 중국문화에 대해 말하기가 어려워요. 생활하는 전반적인 것에 적응하는 듯합니다. 중국 음식에 대한 적응이 어렵습니다. 중국 애들은 일단 약속을 했다가도 먼저 전화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다고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한번 중국 애들과 한국 애들이 우리 집에 왔다가 다음 주에 다 같이 친구 집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전날 저녁에 내일 언제 올 거냐고 물으니까 중국 애들이 다 같이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말을 미리 해야지 했더니 그럴 수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중국 친구들과 약속 정하기가 어려워요. 약속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대학교, 여학생)

“중국 사람들은 중요시하는 것이 돈 돈인 것 같아요. 무엇을 해도 야진(보중금)이 필요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도 돈거래 하고 상당히 돈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생활에 적응 잘 했다고 생각해요. 잔돈을 줄 때 여기서는 던지는데 처음에는 욕을 했어요. 요즈음에는 나도 바닥에 던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 너무 적응을 잘하고, 쓰레기도 (분리수거 안 하고) 한꺼번에 버리고 한국 같으면 잘 안 되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어연대, 남학생)

“저는 중국생활이 한국생활보다 편해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도 되고, 횡단보도를 아무렇게나 건너도 되고.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이 싫었고 차도

뽕뽕거리고 중국 사람들과 자주 싸웠는데--- 그러면서 중국어를 배웠어요. 중국어 선생이 중국 사람들과 싸우라고 그러면 중국어가 정말 많이 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온지 꽤 되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데 아직도 싫은 것이 차를 몰 때 뽕뽕 거리는 거예요. 문화가 우리보다 떨어지니까. 그런데 저도 배우더라고요. 뽕뽕거릴 때 나도 비키지 않고 중국인처럼 천천히 가요. 적응을 잘하는 거죠.” (어언대, 남학생)

14) 중국 유학 만족도

유학생이 중국사회에 잘 적응하면 중국에 유학 온 것을 잘 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것이고, 적응이 잘 안 되면 중국에 온 것을 후회하면서 좌절하게 될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중국에 유학 온 것을 잘했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토론조사에서도 유학생들은 대체로 중국에 온 것을 잘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중국에서의 자기 생활 및 공부의 과정에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토론참여자 중에는 중국유학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 오기를 잘한 거 같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엉망이었을 거예요. 부모님이랑 떨어져있지만 대신 홈스테이하며 낯선 어른이 저를 통제시키고 있었어요. 학습 면에서 중국에 온 건 정말 잘한 거 같아요. 일단 한국에선 성적 때문에 자살하고--- 입시 제도도 자주 바뀌니까 방황하는데 중국에선 한국보단 편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 잘 선택한 거 같아요. 또 한국에 있는 공부 잘하는 애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학습 방면에서 우리보다 실력이 좋다고 하지만 중국어 하나는 제가 잡고 있으니까 나중을 보면 그런 방면에선 좋은 거 같아요.” (고등학교, 남학생)

“저는 안 좋은 거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공부를 더 안 해요. 한국에선 부모님들이 학원도 다니게 하고 통제시키시는데 여긴 좀 자유로우니까 여기 온 걸 좀 후회하고 있어요. 이제는 잘 해야죠.” (고등학교, 남학생)

“유학은 좋았는데 온 것을 후회했어요. 중국이 체계적인 것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실력이 쌓이지 않아서 매일 자고 그랬어요. 학생들은 다 공부를 잘 하고 싶고 지식이 높아지고 싶은데 이곳은 학생의 지식이 쌓아지는 것이 어려워요. 아쉬웠어요.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주변 환경이 안 되어서 아쉬워요. 공부가 체계적이지 않아요. (한국)민족사관학교에 다니는 애들 3개 국어씩 한다고 들었어요. 머리에 들은 것부터 박식하대요. 대학시험 볼 때 우리는 2년 걸릴 것이 그 애들은 3개월이면 된대요. 아빠도 이곳 애들은 지식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해요. 지식이 없어서 아쉬워요. 우리는 언어만 딱따구리 같이 하는 거예요. 내면이 차야 하는데 그것이 아쉬워서 그때 후회했어요. 신문을 봐 사회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언어 빼고는 정말 지식이 없어요. 경제 사회 등을 나누어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이 많아요. 외국어를 이곳에서 배우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내면의 실력 등을 체계적으로 못 배우니까 이곳은 배울 수가 없어요. 중국 애들은 체계적으로 배워 주는데---” (고등학교, 여학생)

“유학은 제가 결정한 것이니까 후회는 없는데 어언대 온 것이 후회가 되요. 본과 들어오고 나서 생활이 바뀌어 버리니까 연수 때는 중국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공부도 많이 해서 중국을 잘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과 들어가면 더 잘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여기오니 공부하는 것은 후회가 없으나 생활은 한국인들을 자주 만나니까 바꾸려고 해도 생각은 그렇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어언대, 남학생)

“사실 이 땅에 있을수록 중국이 싫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도 여기서 살다보면 중국 사람들 진짜 싫다 이래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옛 문화를 배울 것은 많았다고 보는데 솔직히 현대 지금 문화는 배울게 없어요. 배운다면 언어죠. 그리고 앞으로의 중국을 보고...” (청화대, 여학생)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것이 많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는 기억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학생회 활동도 했는데 한

국에 비해 부족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학 생활의 폭이 좁아서 문화의 단절을 느낍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언어를 잘하고 좀 더 돌아다니면 나아질 것입니다. 조금하계 입시만 바라고 대학을 들어가고 북경만 있어서 좁아지는 듯합니다. 휴학도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빨리 졸업하는 것이 길입니다. 더욱 다양한 대학 생활을 누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대학교, 남학생)

“타의로 왔지만 이곳에 온 것을 후회는 안하는데 생활하는 것은 후회해요. 같은 시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말하는 것이 진보가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후회가 되고 생활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온 것은 후회 안 해요.” (어연대, 남학생)

15) 유학생의 스트레스

유학생들은 성적, 학업 및 장래진로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더구나 모국어가 아닌 중국어를 새로 배워 나가면서 생활해야 하고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린 유학생들이 이것들을 감당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이들이 대부분 한국의 가족을 떠나서 혼자 유학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다. 설문조사에서도 유학생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실은 토론조사에서 더 절실히 언급되고 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가운데에서도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장래의 불확실성이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걸 여기선 못하니까 그게 스트레스예요. 한국에선 친구들과끼리 모여서 가까운 근교로 놀러도 잘 갔는데 여기선 그렇게 못하고, 여기 있으면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여자 친구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 저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전원 웃음) (고등학교, 남학생)

“장래에 대한 걱정 많죠. 커서 뭘 해야 하나. 학교 다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해서 살아야하나. 그러다 형이 또 가만히 있는 저에게 옆에서 신경을 건드리면 죽고 싶은 생각까지도 든 적 있어요. 이전에 제가 늦게 들어왔다고 부모님이랑 형이랑 저를 막 때렸는데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뛰어 내리려고도 했어요. 중국 와서 좀 나아졌는데 1년 반 전에 형이 여기로 와서 또 다시 스트레스를 받아요. 원래 멀리 살았는데 다른 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한국서 3년 정도 놀다가 여기 와서 대학 다니거든요.” (고등학교, 남학생)

“공부의 스트레스지요. 저는 실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실력이 안 되니까 남보다 2배 3배는 해야 하는데... (사회자: 중국어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 중국어가 도움은 주는데 공부 는 내가 해야지 그리고 나의 내면의 실력이 되어야 되지요. 중국어 잘 한다고 그게 시험을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학을 잘 못해요. 수학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종일 3-4시간 붙들고 앉아 있으며 역사 영어 볼 시간이 없어요. 새벽 2시 까지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해야 하는데 마음만 힘들고 체력은 딸리고--- 미래에 관한 것은 대학의 전 단계라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여학생)

“내 욕심만큼 결과가 없어서 스트레스가 컸어요. 그래도 회복이 되었어요. 솔직히 돈이 들어서 미안하고--- 스트레스는 가족들과 멀어져서 외로움이 있어요. 외로운 것이 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고--- 한국 애들보다 잘 되어야 하는데 돈도 정신도 감당한 것이 얼마인데. 오고 싶은 애들이 많은데 우리는 특권이니까. 비전에 대해 남들보다 잘되어야 하는데. 투자한 것이 얼마인데. 유학까지 왔으니까 그것이 특권인데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만큼 성장해야 하는데 남들의 눈도 그렇고 아버지의 체면도 그렇고 학교를 떨어지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고등학교, 여학생)

“스트레스가 뭐냐면.. 전공 책을 보다 보면 한국 책을 보면 쪽쪽 읽어 나갈 수 있는데 중국어로 된 걸 보면 습득하는 속도가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화가 좀 나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반성도 하고 또 논문 쓸 때 숙제 낼 때 글자 수 채운다고 하는 거 어렵고 또 다른 스트레스는 제 곁에 부모님이 안계시니까 여기 남자친구가 있음 의지하고 좋을 텐데... ‘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으니까 의지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며 참 좋아 보였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테니스를 치러 가죠. 근데 테니스를 치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전원 웃음) 그래서 테니스치고 사람들과 술 한 잔하고 와서 자고.. 그렇게 잊어요.”

(청화대, 여학생)

“장래문제예요. 친구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포기하고 와서 --- 아직도 졸업하려면 2년이 더 있어야 하는데 그 때 되면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많을 텐데... 이걸 나와서 좋은 일자리가 있을까 우려 되요. 스트레스가 오면 저는 말을 잘 안하는데 혼자 끙끙 앓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친구에게 술 먹자고 전화해요. 내이야기는 잘 안하고 친구를 만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잊으려고 노력하고 혼자 삭히는 편이에요.” (어언대, 남학생)

“저도 북경대서 유학하고 있는데, 북경대란 이름에 비해 제 능력이 안 되니 그런 면에서 스트레스가 많고요. 학과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외국어로 배우니 참 많이 힘들어요.

언어방면에서도 좀 더 유창하게 하고 싶은데 그 정도가 아니니까 스트레스 많아져요.” (북경대, 남학생)

16) 현재 중국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점

중국에서 나이 어린 유학생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한국의 유학생들이 처음 중국에 왔을 때 가장 먼저 겪었던 어려움은 문화차이에서 오는 충격이었다.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중국인들의 비정상적인 행위나 낮은 문화수준 등에 어린 학생들이 힘들어 했으나 앞에서 밝혀진 대

로 비교적 오랜 기간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적응해 오고 있다. 토론 참여자들은 한편으로는 중국사회의 문화를 이해도하고 한편으로는 그 속에 동화되어서 습관적으로 살아오고 있다고 야기하고 있다.

“처음에는 저 사람들 왜 저래 하며 중국 싫다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기도 하고 이해를 해요. 씻지 않는다 해도 더러워 하지만 건조하니까 그럴 수 있어. 우리처럼 생활여건이 되지 않구나 하면서요. 투덜대면 나도 싫어요. 중국에 왔으면 중국을 이해해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지 투덜거리면 뭐하냐고 스스로 납득을 시켜요. 중국 애들은 느리고 말하면서 트림하고 깜짝 놀랐어요. 표정이 안 돼요. 머리를 땅는데 감지 않고 비듬도 있고요. 어떤 여학생이 속옷을 검은색을 입어요. 겉에는 흰 교복을 입어요. 매일 보여요. 두 달 동안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브라를 안 한 애도 많아요. 가관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트림하고 비듬을 보아도 이제 아무렇지 않아요. 1년 동안 보니까 괴상한 행동하고 답답해도 웃으면서 이야기 하고 무시해요.” (고등학교, 여학생)

“이번에 저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은 일이 있었어요. 방 계약을 하면서 중국인들의 책임감 없는 일처리 때문에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됐어요. 부동산이랑 방주인이랑 애기가 안 맞고, 저랑 또 애기가 안 맞아서 무척 애를 먹었어요. 중국 와서 제가 성격이 좀 변했는데요. 한국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중국에선 이런 불합리한 일을 많이 겪다 보니 뭐든 확실히 알아보고 확실히 처리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하건 꼼꼼하게 해요. 저도 중국인들에게 손해 안 보려하고 만약 무슨 계약을 하면 끝까지 따져서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북경대, 남학생)

“공기와 물이 더러워서 좀 힘들어요.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몸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술과 불규칙적인 생활로 인해 위가 나빠요. 고기를 먹지 말고 야채만 먹어야 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중국말을 할수록 물건 값을 깎기가 어려워집니다. 택시를 탈 때 가짜 돈으로 받아서 손해를 보았는데 어떻게 중국 애한테 쓸까 생각 중입니다.” (대학교, 남학생)

“문화적인 것 때문에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우다코 거리에 나가도 답답해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답답해서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은 공부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없는데 이곳이 답답해요. 문화적인 차이로 한번 씩 갑갑합니다. (대학교, 남학생)

“중국 사람들은 좋은 말로 하면 미적거리고 크게 막 화를 내면 그제서야 좀 바빠 움직여요.

좋은 얼굴로 말하면 말을 안 들어주고 막 얼굴 붉히고 큰소리를 내면 처리를 해주는데 어떻게 매번 꼭 화를 내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러면 안 해주니까 그런 면들에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좋게 말할 때 웃으며 해주면 되는데....더 웃긴 일어요. 제가 하루는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비를 주니까 택시기사가 저에게 잔돈을 안 들고 다닌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학생들: 저희도 한 두 번이 아니예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저한테 말하기를요. 너한테 잔돈 내주면 나는 잔돈 없다고--- 그런 말을 손님한테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면 중국이 좋다가도 정이 뚝뚝 떨어져요.” (청화대, 여학생)

17) 조기유학 찬반

본 초점집단조사에서는 조기유학에 대한 찬반토론을 실시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유학생의 반수 가량은 고등학교 때부터 중국에 조기유학을 했기 때문에 조기유학을 경험한 이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가 앞으로 조기유학에 대비한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토론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조기유학에 찬성한 경우도 있으나 자기들의 경험에 비추어 대체로 조기유학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조기유학도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라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조기유학은 가능한 안 오는 게 좋아요. 한국에선 도피유학. 공부 못해서 간다는 의식이 있으니 한국 가면 기분이 안 좋아요.” (고등학교, 남학생)

“제 생각엔 중국으로 조기유학 오는 건 별루인거 같아요. 영어권은 모르겠는데 중국은 유혹의 손길이 너무 많아요. 영어권에선 놀게 되도 영어를 하면서 노는데 중국에선 놀면 중국 애들이랑 노는 걸 제 주위에선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또한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영어는 들으면 대충 스펠링은 받아쓰는데 중국어는 한자를 안 외우면 아예 쓸 수조차 없으니까 별루 추천 안하고 싶어요. 차라리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랑 오는 건 좋은 거 같아요.” (고등학교, 남학생)

“한국에서 학교생활을 못하고 온 애들은 그것을 매우 갈구해요. 나중에 너무 지쳐하고 힘들어해요. 한국에서 기초를 배우고 마치고 한국에서 기초를 다 했던 애들의 얘기이고 한국에서 밑바닥이던 애들은 어디에도 같아요. 한국에서 수학 영어 되면 역사를 해도 자기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 방법을 터득해서 오므로 공부해요. 중국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너무나 노는 여건이 많아서 체계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방법을 몰라서 못해요. 너무 일찍 오면 너무 놀게 되고 공부하는 체계가 잡히지 않고 그저 중국어 공부만 하는데 고등학교 체계가 잡히지 않은데서 언어를 습득한다 해도 한국애가 많고 그러면 그것마저도 놓칠 수가 있어요. 진짜 억울한 거예요.. 일찍 온 애들은 언어가 되는 대신 기초가 안 되어 있고, 제대로 와서 언어가 안 되는 대신 기초가 되어 있으면 유학이 성공한 것이고 학습이 안 되고 기초가 된 기초도 언어도 안 된 아이들은 너무 어리니까 힘들어요. 부모가 같이 안 오면. 그래서 중3에 와야 되요.” (고등학교, 여학생)

“진짜 성격 중요해요. 내가 아는 오빠는 잠실에서 1·2등 했대요. 중3 때에 와서 고1때 중국어 배우고 고2때 어영부영 논거예요. 친구 따라 다니다가 휩쓸리면서 일 년 끌었어요. 강남에서 1등 하던 애들도 연수 3년이 지나면

끝이야 엄마 아빠가 어떻게겠어요. 아직도 조금 방황하고 여자 친구 사귀고. 원래 여자를 몰랐는데 여기에 와서. 한국에서 잘하던 애들이 중국에 와서 그런 오빠들이 한 두 명이 아니에요. 일찍 온 애들은 일찍 놀고 담배 피우고 일찍 정신을 차려요. 늦게 와서 친구 잘못 만나서 망한 오빠들이 너무 많아요. 볼 때마다 안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격이 중요해요. 소극적이거나 사랑 받고 싶어 하는 애들은 안돼요. 소외감 많이 느끼는 애들은 여기 오면 안돼요. 노는 애들이 조금만 잘 해주면 금방 따라가요. 성격이 중요하고 소외감 느끼는 애들, 사랑 부족해도 안 되고 우유부단해도 안 되고요 소극적이어도 안돼요. 공부만 하던 애들 안돼요. 남자애들 정말 골 때려요. 여자 말 한마디에 여자애들한테 정신을 못 차려요. 흔들리고 자기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애들은 되요. 성격이 어떻든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요. 그런데 힘들어요.” (고등학교, 여학생)

“너무 어렸을 때는 아니라고 봐요. 선생님이 가르친 애중에 초등학교 때 왔는데 자신의 국어 실력만큼 늘어서 한국어도 중국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자기의 생각과 의지 자아가 잡히면 부모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데 혼자 오는 것은 반대예요.” (고등학교, 여학생)

“저 같은 경우는 좋았어요. 비록 제가 원해서 온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와서 이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요. 만약 한국에 있었으면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한국만 알 텐데 그런 점에서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땐 이상하게 한국서 중국으로 조기유학 오는 게 갑자기 유행이 됐어요.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유행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유학 와서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술 먹고 담배피고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온 애들과는 달랐어요. (학생 전원) 그래서 조기유학은 꼭 부모님과 같이 와야 해요.” (청화대, 여학생)

“어느 술집을 가도 다 한국 술집 사장님들이 아이들한테도 술을 팔아요. 한국 사람이 나빠요. 어떻게 같은 나라의 아이들에게 술집사장이라고 술을

팔아요. 애들끼리 가도 어느 술집에서건 다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밥 먹고 술을 먹는 문화가 있대요. 어떻게 어린 학생들이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셔요. 한국에선 절대 못하는데 여기 중국에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 구워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여기요 소주 한 병이요 이런 말을 한국에선 절대 안 되는데--- 여긴 너무 자유스러워요. 제가 아는 분이 대련에서 홈스테이를 운영 하시는데 이미 한국 자기 집에서 포기해서 보낸 아이들이라 홈스테이 하는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정말 고생이시래요. 성관계문제도 있고. 학교도 다 찢리고. 그래서 홈스테이 하시는 분이 이 아이를 못 맡겠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품에서 가르치고 돌봐야 하는데 그 홈스테이 하시는 분께 돈 더 줄 테니 우리 아이 그냥 중국에 있게 더 맡아달라고 그런대요. 그런 아이들 부모들이 더 비정하고 나빠요. 그래서 홈스테이 라는 곳에서 문제가 더 많다고들 하더라구요.” (청화대, 여학생)

“중국에 일찍 온 애들은 인간관계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친구랑 선배나 언니오빠들에게 대하는 게 당연히 다른 법인데 여기 일찍 온 애들은 위아래가 없어요. 어떤 애들은 아는 형이 충고하면 “나이 많은 게 자랑 이예요?”라고 말하는 그런 지경 이예요. 때로 같이 술을 마셔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지네끼리 어릴 적부터 자유롭게 막 술 먹고 논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행동도 너무 심해요. 사람과 사람이 지내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예의가 필요한 법인데 혼자 여기서 자유분방하게 살다보니 할 말도 구별 못하는 애들이 참 많아져요.” (청화대, 여학생)

“조기유학을 선택 했다 하면 제 생각엔 무조건 부모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 모두 동의) 만약 자기 생각이 좀 부족하면 부모님이 보듬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나이를 떠나서 저희 같은 대학생이라 해도 부모님 사랑은 필요하니까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 걸 떠나서 사랑이 뒤에 있어야 언어나 문화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북경대, 남학생)

“고등학교 때 와 봐야 중국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안 나오고 막연히 대학부터 시작하면 정말 더 모를 수 있어요. 왜 중국 애들이 화를 내는지, 중국 사람과 교류 할 때도 여러 가지 경우에서 이해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반면 조기 유학이 나쁜 점도 많죠. 예의도 없어지고 한국 친구들과 문화면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도 중국을 잘 알려면 항상 추천하지만 중국엔 고 1때 와라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와라. 제가 중국을 일찍 왔기 때문에 계속 보잖아요. 더구나 제 밑에 40명이 넘게 있었어요. ‘백성’에 만요. 꼬맹이도 다 있는데 그래도 중3 이랑 고1때 온 애들이 철도 약간 들었으니 자기 통제도 어느 정도 되고, 언어도 어른 보다 빨리 습득해요.”
(북경대, 남학생)

18) 후배들에 조언

마지막으로, 본 토론조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앞으로 중국에 유학 올 한국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할 수 있을가에 대한 조언을 해 주도록 기회를 주었다. 토론에서는 유학 오는 학생 본인의 단단한 각오와 목표를 세우는 문제에서부터 중국에서의 생활상 필요한 이야기 및 중국에 온 이상 중국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국 오려면 중학교 졸업하고 오는 게 제일 좋구요. 오기 전에 단 하나라도 자신이 최고로 잘하는 과목 하나쯤은 잡고 와야 한다는 점. 영어나 수학이나 중국 애들과 비교해서 확실히 잘 하는 걸 가져와야 무시 안 당하고 살아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남학생)

“여기 왔다면 한국 애를 안 만나던가, 아님 북경에 오지 말고 시골 같은 한국 사람들 없는 한적한 곳 특히 중국인 학교로 가서 언어라도 제대로 배우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고등학교, 남학생)

“일단 유학이 좋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애들. 자기가 오고 싶어서 공부 해보고 눈도 넓히면서 실력을 쌓을 애들이 오는 것이 좋고 부모 생각하면서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흥청망청하는 것 보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참을 수 있는 애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여학생)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은 중국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적응을 위해서 중요하고 중국 공부도 하게 되어 중국을 좋아하는 게 좋아요. 더러워도, 이해가 안 가도 나중에 우리보다 크니까 중국 무시하지 말고 진짜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좋아요.” (고등학교, 여학생)

“자기가 뭘 해서 뭐가 되겠다는 목표를 꼭 가져 와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분명한 마음가짐을 가져와야 탈선도 피할 수 있을 테니까.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잘 생각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청화대, 여학생)

“저도 중국말을 배우고 싶고 꼭 중국에 오고 싶은 애들만 왔으면 좋겠어요. 중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해요. 그냥 중국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얼떨결에 와선 난 한국 애니까 너희들보다 나으니까 라는 우월감만 가지고와서 중국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걸 보면 웬지 싫어요. 가급적 그런 생각은 버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청화대, 여학생)

“고등학생 경우 어느 고등학교를 가서 어떻게 공부할건지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서 공부 하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와야 하구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국 와서 별다른 생각 없이 중국어 공부나 하겠다는 생각은 안 될 거 같아요. 중국에 와서 어떤 방면에서 공부하고 싶은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 거라는 그런 계획을 확실히 잡고 와야 할 거 같아요.”

(북경대, 남학생)

“어디에 첫발을 들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전 중국 처음 올 때 북경이 아닌 지방에 가서 너무 좋았거든요. 또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너무 성심 성의껏 잘 도와주셔서 전 다행히도 첫발을 잘 디딘 거 같아요. 우선 그 첫발을 얼마나 잘 디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침 유학 오려면 저는 무조건 시골 한적한 지방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긴 나쁜데 빠지려 해도 그런 곳이 없고, 한국인이 거의 없는 시골에 가서 중국 애들이랑 교제하는 가운데 문화도 저절로 습득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학 입시를 목표로 온다면 지방 쪽엔 정보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무작정 시골에 있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므로, 방학 때나 아니면 북경에 연고지를 두고 확실한 정보를 챙기며 그에 맞게 자기 공부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북경대, 남학생)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살아보니까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중국친구들을 많이 만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말 배우는 것도 목적이지만 문화를 이해하려면 중국친구를 자주 만나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도록 교류를 했으면 해요.” (어언대, 남학생)

“지금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은 중국이 아직 우리보다 후진국이란 인식이 강해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왔으면 좋겠어요.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같은 유학인데 다른 나라에 가는 학생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중국 오면 여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할 생각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어언대, 여학생)

19) 중국인 교사들이 보는 한국유학생

중국에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조사와는 별도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북경의 한국인 밀집지역인 우다코에서 유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온 중국인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여기에 참여한 교사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중국인 교사 집단>

A(여자, 북경 출신, 32세, 중국어 강의 3년)

B(여자, 흑룡강성 출신, 35세, 중국어 강의 6년)

C(여자, 흑룡강성 출신, 32세, 중국어 강의 8년)

이들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급은 대체로 70-80%가 한국인이고 어떤 반은 학생 전원이 한국인인 경우도 있다. 우다코 지역의 중국어 학원에서 8년간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친 한 교사는 그간 자기에게 배운 한국 학생이 천명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한국학생과의 접촉이 많음으로 이들이 한국 학생들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먼저, 한국인 유학생들의 중국어 실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나이가 어릴수록 익히는 속도가 빠르다. 25 세 이하의 젊은이들은 자연스런 모방 아래 중국어를 쉽게 익힌다. 또한, 사고가 자유롭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미 자기 모국어의 언어습관과 사고가 강하게 굳어져 있어서 외국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렵다. 그리하여 나이들은 사람은 열독 면에선 어린아이들보다 이해가 빠르나, 실제적으로 중국인들과의 교류 능력 면에서는 어린아이들보다 발전의 한계가 있다. 비록 나이 많은 사람은 어린 학생들보다 피동적이 아니기는 하나 발음이나 억양 등등 똑같이 모방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A 교사)

“내가 느끼기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금새 수준이 늘지만 다 그렇지 않는다. 유학 온 자기 목표의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다. 목표가 뚜렷한 학생은 스스로 중국인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한국에 돌아가서도 중국어 교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중국어를 잘 익히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부류는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발음, 어법에 주의하지 않고 제 멋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꺼려 실력이 늘지 않는다.” (B 교사)

일반적으로 한국 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도 중국인교사들은 학생에 따라 다르다는 일반론을 이야기하면서도 한국 학생들이 수업에 많이 빠지며 중국생활에 익숙해지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 놓고 있다.

“나의 수업은 오전 8시에 시작하는데, 사실 한국인들은 아침 일찍 있는 수업엔 잘 안온다. 다음날 왜 수업에 안 왔는지 물어보면 전날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한다. 특히나 한국인 집중구인 여기 우다코나 왕징 길거리에는 늦은 시간일수록 한국인이 많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르다고 본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듯하다.” (B 교사)

“내가 느끼기엔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한다. 그 외에 피동적으로 부모님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유학을 온 경우의 아이들은 본인이 스스로 주동적으로 공부를 찾아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슈퍼를 가도 중국슈퍼를 가면 1원인데 한국슈퍼를 가면 2원이다. 그렇지만 목적의식이 없는 학생들은 중국말이 하기 싫어서 한국슈퍼에 가곤 하는 것을 간혹 본다. 그것은 자기의식 자기 목적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 다른 경우는, 회사에서 파견을 나왔거나 자기 스스로 창업을 하려고하면 자기 생존이 달렸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한다. 하지만 일부분의 학생들은 여전히 한국에서 살았던 그대로 한국 식당이나 한국 커피점 한국 술집을 드나든다. 여전히 한국에서 살던 식으로 살려고 한다. 한국술집이 아무리 비싸도 그런 곳만 찾는다. 생활습관과 자기 목표에 따라 공부 욕심도 달라지는 듯하다.” (A 교사)

중국인 교사들은 한국인유학생에 대한 인상은 비교적 좋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한국 학생들이 중국에서 생활하는 방식이나 중국인이나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유학 오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 지면서 조기유학을 오는 어린 학생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내가 수업을 막 시작 했을 땐 직장인이 많았고 그다음은 수교되고 나서 학생이 많았다. 지금 여기 오는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가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부모가 알아서 다 관리했던 아이들이 많다. 그런 학생들은 여기 와서도 공부를 주동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허나 지금은 또 다른 단계에 와 있다. 개성이 뚜렷하다. 어떤 학생은 자기 미래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 하고 어떤 학생은 놀기를 좋아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다 개개인의 소질과 목적의식에 따라 다른 것 같다.” (C 교사)

“내가 접촉하는 학생들 중에는 “중국이 싫다. 중국음식이 싫다”라는 사람을 많이 만나본다. 중국자체를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권유하길, 마음속으로부터 중국을 인정하고 중국 사람이 잘 안 씻고 거리가 더럽고 등등의 그런 사소한 것까지 인정해야 진정한 중국을 알 수 있고 중국어를 잘 할 수 있다고 말해준다. 정말 싫다면 얼른 부모님께 말을 해서 진정으로 본인이 가고 싶은 나라, 진정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A 교사)

“내 생각엔, 중국어를 잘 하려면 중국인들만이 사는 곳에서 진정으로 그들이 먹고 입고 하는 문화를 습득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기 베이징에 혼자 와서 학생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중국음식이나 중국전통이나 민족문화 등등 모든 것을 배격하고 여전히 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있다. 내가 강의를 막 시작했을 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심리 준비를 잘 하고 왔었다. 중국 미래의 발전을 미리 알고, 중국의 발전을 예견, 예측 하고 천천히 자연스레 중국을 습득해갔다. 하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다 오니까 그냥 학위만 받고 귀국하여 더 좋은 직장이나 얻으면 그만이다 해서 중국을 있는 자체로 다 인정하려 하지 않고 습득하지 않는다.” (C 교사)

토론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한국 유학생의 중국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에 관해서는 감탄할 정도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유학생들이 중국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이며 경제능력도 있다고 하면서도 언어의 한계 때문에 중국사회에 좀 더 도전적이지 못하고 편한 방법만을 찾고 있어서 그 만큼 중국사회에 빨리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여전히 내 생각엔 연령마다 다른 것 같다. 대학입시를 앞둔 20세 이전 학생들은 적응능력에서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소통 문제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 음식, 일상 생활면에서 어린 학생들의 적응능력은 강하지 못하다 . 또한 여권문제 비자연기문제 등 여러 가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보니 방을 구할 때도 한국말이 통하는 조선족 부동산을 찾아 한국인 집주인에 집을 구한다. 단독으로 찾는 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지 않는 점이 있지만 혼자 진정으로 중국사회에 적응하려 한다면 방을 구할 때도 중국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C 교사)

중국인 교사들은 한국 유학생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현상을 보면서 어린 학생들이 조기 유학으로 오는 것에 대해 경이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어린 학생들이 중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가지기를 권하면서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유학생이 어릴수록 부모가 함께 와서 생활을 보살펴 주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학생들은 일찍 눈을 뜬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어릴 적에는 엄마 품에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중국보다 개방적이 되었다. 한국아이들은 나이는 어려도 자기나라말도 할 줄 알고 여기 와서 외국어도 터득한다. 어릴수록 습득 능력은 좋다. 문제는 대학입시를 앞둔 청소년이다. 고1-고2 나이 때의 학생이 문제가 많다고 본다. 15 세 이하의 부

모가 같이 온 학생들에게는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7세에서 20살 이하의 학생은 문제가 많다. 부모 곁을 떠나 혼자 외국 생활에 접하면 혼란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 나이 때는 친구를 만나도 그 친구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조차 어렵다. 그래서 종교가 있다면 더 좋은 것 같다. 예를 들어 교회를닌다면 거기 계시는 어른 분들의 보살핌이 도움이 될 수 있다.”
(A 교사)

“어려서 유학 와서 좋은 점이라면 어릴 적부터 혼자 독립하여 언어를 배운다면 습득이 빨라서 좋다. 특히나 중국은 물가가 싸기 때문에 공부 방면에선 좋다고 본다. 과외나 학원수업을 적은 돈으로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한국보다 교육비가 싸기 때문에 여기서 영어 음악 이 모든 것을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런 점은 좋은 점인 반면 학생이 너무 어린 나이에 자기 가치관의 정립도 안 세워져 있을 때 여기 와서 갑자기 환경이 바뀌고 게다가 중국 학생들과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 점에선 걱정이다.” (B 교사)

“좋은 점은, 어려서 넓은 땅에 와서 시야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려서 배우는 외국어는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나 부모와 함께 온다면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님의 보호 아래 생활 할 수 있으므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다른 신경을 안 써도 된다. 16-18세 아이들이 부모 없이 혼자 온다면 아이들은 이미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들이 인생관이 아직 다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생각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외국에 혼자 왔다고 생각해보자. 외국에선 혼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가장 쉽게 언어 문제와 식사 문제 등의 문제이다. 갑자기 그런 생활상에 관련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어린 나이라면 부모와 함께 오길 권한다.” (C 교사)

마지막으로, 중국에 유학 온 한국인 유학생들이 중국사회에 잘 적응하여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중국인 교사로서

의 객관적 입장을 말해 달라는 요청에 여러 가지 유용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었다.

“여기서 유학하려면 우선 중국 사람과 중국 문화에 대한 마음을 열고 와야 하고, 목적성을 분명히 두고 와야 한다. 중국 옛말 중 ‘爱屋及乌’-사람을 사랑하여 그 집 지붕의 까마귀까지 좋아한다(아내가 귀여우면 처갓집 말뚝에다 대고 절을 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만이 중국에 대한 이해와 중국어의 발전이 따른다고 본다.” (A 교사)

“우선적으로, 자신의 모국을 사랑해야한다. 왜냐하면 한사람의 안 좋은 행동은 중국인에겐 한국 전체의 인상으로 굳어지게 된다. 그래서 작은 일에서도 개개인마다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는 중국을 사랑해야한다. 중국 문화와 중국의 빈궁까지도 보듬고 사랑할 때 스스로의 중국생활은 분명히 더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C 교사)

“나는 한국 아이들의 입장에서 말하고 싶다. 부모 없이 혼자 오면 생활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스트레스가 분명히 많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어학이라도 하고 와야 외국에 나오면 언어 소통 면에서 조금이나마 곤란을 덜 겪게 된다. 그리고 둘째로 목적의식이다. 만약 목적성 없이 무작정 유학을 왔을 때 어떤 힘든 일을 겪으면 쉽게 좌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왕 왔으면 다른 걱정이나 생각은 잠시 접고 무조건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본다.” (B 교사)

V. 결론

1. 요약
2. 성공적 중국유학을 위한 제언

V.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중국에 유학 온 한국청소년들의 규모를 추정해보고 이들이 현재 중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학습상황은 어떠한지 생활상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등에 대한 적응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일관성 있게 나타나 있지 않은 유학생수를 체계적으로 추정해서 현재 중국에 있는 한국유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현재 중국에 유학한 학생들을 그룹토의(Focus group discussion) 및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하여 이들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 및 적응실태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기초적 연구가 장차 중국에 있는 유학생 정책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중국의 기본교육제도; 2) 재중국 한국유학생의 현황; 3) 재중국 한국유학생 대상 교육기관의 종류 및 내용; 4) 재중국 한국유학생수의 파악; 5) 재중국 한국유학생의 적응실태.

본 연구를 실시함에 있어서 중국의 교육제도 및 유학현황에 관해서는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한국 유학생의 적응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방법과 초점집단연구(Focus Group Discussion)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설문조사의 연구대상은 북경에 있는 중국의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 및 중국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로 구분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응답자 총수는 360명이다. 한편, 6개의 유학생 집단을 선정하여 초점집단 토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학생들을 대하는 중국인들의 객관적인 시각을 파악해 보기 위해 중국어학원의 중국인 교사 3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토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다.

중국에 유학 가는 한국인 학생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국인 유학생 수는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실제 유학생 수는 통계에서 제시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의 자료에는 2004년 현재 중국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이 23,772명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북경에 있는 모 사설학원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같은 해에 유학생 39,246명과 연수생 48,256명 총 87,052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중국내에서 공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든 중국에 유학 가는 한국인 유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유학생들이 중국 대학에 입학하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체 유학생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경대의 입학상황을 보면, 2005년에 총 외국인 입학생 124명 가운데 한국인이 87명으로 70.1%를 차지하였고 2006년에는 총유학생 119명 가운데 85.7%인 102명의 한국인 유학생이 입학하였다. 인민대의 경우, 2005년에 외국인 입학생 총 250명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이 210명으로서 84.0%를 차지하였고 2006년에는 총유학생 339명 가운데 87.9%인 298명이 한국인 유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유학 온 한국청소년의 적응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50.8%가 남학생이고 49.2%가 여학생으로 선정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학교별 분포를 보면, 고등학생이 26.1%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대학입시를 목적으로 입시종합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25.3%), 대학생(20.2%) 및 어학연수생(13.2%)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유학생들이 한국에 있을 때 중국 유학을 대비해 언어나 중국문화 등에 대해 미리 준비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조사자 가운데 65.6%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응답을 했다. 유학생이 처음 중국에 올 때 누구와 같이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다수인 43.5%가 혼자서 왔다고 대답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친구와 함께(12.5), 어머니와 함께(11.7%),

온 가족이 함께(11.4%) 및 아버지와 함께(7.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학을 결정하게 될 때 누구의 도움이나 조언을 듣고 결정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부모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응답이 42.7%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응답이 39.3%를 나타내고 있다. 성별로 유학결정의 계기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의외로 본인의 결정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별로 나누어 보면, 중고생의 경우에는 다수인 55.6%가 부모의 영향으로 유학이 결정된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본인이 결정했다는 응답비율도 28.6%에 이르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결정에 따라 유학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48.3%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영향’ 및 ‘타인의 도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학을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보다 넓은 세상을 배우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52.2%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에서 권해서’, ‘부모님 직장을 따라서’,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외국에서 살고 싶어서’ 및 ‘주위의 친구들이 가니까’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유학을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성별로 세분해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학결정의 주체를 본인과 타인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도 역시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왜 중국으로 오기로 결정했는지에 관한 상황을 보면, ‘중국이 대국이니까’라는 응답비율이 24.9%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국어를 전공함으로’, ‘중국이 전망이 좋아서’, ‘부모님 직장을 따라서’, ‘주변에서 권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별, 학생별 및 유학결정의 주체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각 항목 간에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자가 현재 중국에서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는가에 대한 주거형태에 관한 질문에서는 한국인 룸메이트와 같이 살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40.1%로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혼자서 살고 있다는 응답이 21.2%로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친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온 가족이 같이’, ‘홈스테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학생이 중국어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가 여부를 보면, 응답자의 9.9%가 중국어 사용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고 38.9%가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15.8%는 ‘어렵다’고 하고 있으며 2.5%는 중국어 사용이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다. 중국어 사용의 어려움 여부에 관한 문제는 학생별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중국어 사용에 있어서 중고생의 경우가 대학생의 경우보다 훨씬 어려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업에 임하는가를 보면, 응답자의 7.1%는 본인이 매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고 8.9%는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14.8%는 별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으며 4.5%의 응답자는 전혀 공부에 대한 열심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한편, 응답자의 36.3%가 지난 1년간 무단결석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 유학생들의 무단결석은 학생들의 주거형태 및 중국에 온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 유학 온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정도를 보면, 전체응답자의 23.9%는 1주일에 한 번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생의 경우 20.8%가 1주일에 한번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흡연에 있어서도 음주에 있어서와 같이 성인인 대학생과 미성년자인 중고생간에 차이가 없으나 좀 더 자세한 수치를 보면, 담배를 피우는 학생의 비율이 중고생의 경우가 대학생의 경우보다 오히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흡연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중고생의 경우가 대학생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 유학중인 응답자가 졸업 후에 어느 나라에 남고자 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성별, 학생별, 유학결정의 주체별 및 중국체류기간별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중국에 남겠다는 응답비율이 34.7%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한국에 돌

아가겠다는 응답 및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응답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 유학 온 학생들은 성적, 언어, 진로문제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들의 42.3%는 성적에 관해서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40.2%의 응답자는 숙제나 시험에 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언어문제에 관해서는 29.2%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유학생들은 전반적인 진로문제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과반수인 51.9%가 진로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57.6%가 대학입시나 취업 등에 관해 스트레스가 있다고 답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유학생들은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응답자들의 7.6%가 항상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고 있고 51.7%가 때때로 외롭다고 느끼고 있어 59.3%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족과 같이 사는 유학생이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 유학 온 학생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스스로 답하고 있다. 응답자의 14.7%는 중국사회에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고 50.3%는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해 전체응답자의 65%가 잘 적응하는 편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들의 중국사회 적응정도는 성별, 중국어 능력별 및 중국체류기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응답자의 6.8%는 현재의 중국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고 50.6%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다고 답해 전체적으로 57.4%의 응답자가 중국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전체응답자의 9.3%는 현재의 중국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학생들의 중국사회 적응정도도 성별, 중국어 능력별 및 중국체류기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에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의 70.0%는 중국에 유학 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유학 온 것을 잘 못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

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들이 중국에 유학 온 것에 대한 평가는 중국어 구사능력 및 중국유학 결정주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유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으로 선정하여 토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년간 한국유학생을 가르쳐 왔던 중국인교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토론조사를 실시하였다. 토론시간은 최소 1시간 반에서 최고 3시간 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중국으로 유학 올 때의 상황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했던 학생들 대부분은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게 됨에도 별로 두려움이 없었다고 대답하고 있다. 단지, 일부 학생은 가족과 같이 왔다가 혼자 남은 경우에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웠던 경우는 유학원을 통해서 오게 된 몇몇의 학생들이 유학원의 처사에 대해서 겪었던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다.

학생이 유학을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한 토론에서 대부분의 대답은 중국이 발전가능성이 있고 전망이 좋아서 등의 사회적 이유와 아버지 직장을 따라서 또는 중국어를 전공해서라는 개인적 이유 때문에 중국유학을 오게 되었다고 대답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고등학생 가운데서 한국에서 성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중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다는 소위 ‘도피유학’의 경우가 상당히 많이 드러난 것이다.

중국에 유학 온 한국학생들의 언어 구사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토론조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중국에 온 기간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국에서 생활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듣기는 매우 힘들어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듣기는 어느 정도 하는데 말하기가 어렵다는 대답이 대부분이다.

현재 북경의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국제반(다른 외국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국 학생임)에서 한국 학생끼리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에서도 한국 학생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한국 학생들의 수업능력이 떨어지고 한국

학생들 끼리 어울리게 됨으로써 중국어 향상의 기회도 별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언어의 제약 때문에 수업 듣기를 포기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유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을 떠나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됨으로 여러 가지 비행에 연루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본 토론조사에서 나타난 바로는 유학생끼리 껄싸움을 한다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도 나타나고 중고생의 음주나 흡연 등의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남녀 유학생끼리의 동거 문제도 적잖게 지적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고등학생 간에 동거하는 경우도 이야기되고 있다. 또한, 별도로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는 유학생들과 중국 조선족들 간의 알력과 싸움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토론조사에서는 토론 참여자들이 대체로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는 중국 사람들의 저급한 문화에 잘 적응이 안 되었으나 몇 년 살면서 점차 이곳 생활에 익숙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익숙해 졌음으로 적응이 되어 중국에 유학 온 것을 잘 했다고 자위를 하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중국에 온 것을 후회하는 학생들도 있다. 한국의 유학생들이 처음 중국에 왔을 때 가장 먼저 겪었던 어려움은 문화차이에서 오는 충격이었다.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중국인들의 비상식적인 행위나 낮은 문화수준 등에 어린 학생들이 힘들어 했으나 비교적 오랜 기간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그 속에 동화되어서 습관적으로 살아오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본 초점집단조사에서는 조기유학에 대한 찬반토론을 실시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조기유학에 찬성한 경우도 있으나 자기들의 경험에 비추어 대체로 조기유학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조기유학도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라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토론에서는 유학 오는 학생들의 단단한 각오와 목표를 세우는 문제에서부터 중국에서의 생활상 필요한 이야기 및 중국에 온 이상 중국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국에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조사와는 별도로 한국

인 밀집지역인 우다코에서 유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온 중국인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토론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학생에 따라 다르다는 일반론을 이야기하면서도 한국 학생들이 수업에 많이 빠지며 중국생활에 익숙해지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 놓고 있다. 한국 유학생의 중국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에 관해서는 감탄할 정도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유학생들이 중국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이며 경제능력도 있다고 하면서도 언어의 한계 때문에 중국사회에 좀 더 도전적이지 못하고 편한 방법만을 찾고 있어서 그 만큼 중국사회에 빨리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중국인 교사들은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상이 비교적 좋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한국 학생들이 중국에서 생활하는 방식이나 중국인이나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유학 오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조기유학을 오는 어린 학생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인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이 조기 유학으로 오는 것에 대해 경이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어린 학생들이 중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비행·저지를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가지기를 권하면서,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유학생이 어릴수록 부모가 함께 와서 생활을 보살펴 주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2. 성공적 중국유학을 위한 제언

1) 유학준비의 과정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해 있고 또한 오랜 역사적 관계를 수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수교하기 이전의 사회주의 중국은 한국인에게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나라’로서 인식되었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 놓여 있었으므로 중국유학을 위해서는 사전에 중국의 언어나 문화 등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필수적이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의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중국에 유학을 오기 전에 한국에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대답하고 있다. 심지어는 토론조사의 과정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불과 며칠 만에 중국유학을 결정한 경우도 있었고, 도피성 조기유학의 경우도 상당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준비 없이 중국 유학을 감행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중국사회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국민의 생활수준이 아직 한국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화적 차이 때문에 사전에 중국문화나 풍습 등에 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오지 않을 경우에 심각한 문화충격을 느끼게 된다. 또한, 한국에서 중국어를 미리 공부하고 오지 않을 경우에 수업을 듣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토론조사의 과정에서 자주 제기되었다.

중국으로 유학을 결정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한국에서의 철저한 유학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학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물론 중국에 유학을 가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선행되는 속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조사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대부분이 후배들을 위한 제언에서 중국유학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조기유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에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대학방향 및 전공에 대한 진로가 분명히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공에 대한 계획 및 대학 졸업 후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설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중국에 오게 되는 상황

처음에 중국에 올 때 누구와 같이 왔는가는 어린 학생들이 처음으로 외국에 나갈 때의 생소함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처음 중국에 올 때 혼자서 온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릴수록 혼자서 중국에 오는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어려워서 중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

여 진다. 가급적이면 어린 유학생이 처음 중국에 오게 될 때 부모나 가족이 동행을 하여, 앞으로 중국에서 지내는 동안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국에 올 때 먼저 어느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 선택은 중국 유학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선택요소이고 시발점이다. 13억 인구와 한반도의 약 50배에 이르는 영토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와 색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주재원 자녀가 아닌 순수 유학을 위한 것이라면 어느 지역에서 유학생생활을 보낼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선택은 일반적으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 유학원 소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유학기간은 그 지역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경험이 된다. 유학기간을 통하여 축적된 중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학창시절의 친구들은 평생의 큰 자산이 된다.

지역선택에 있어서 예를 들어, 북경은 교육도시로서 명문학교가 많이 있고 각종 학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고 교육 및 생활에 필요한 여건들이 발달되어 있으며 학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북경에서의 유학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북경은 최대의 한인 밀집지역 이므로 한국 학생의 밀집은 탈선을 조장할 수 있고, 한국 학생만의 국제부운영은 학력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북경 이외의 지역을 선택한 부모들의 대부분이 북경은 한국학생이 많아서 중국어 공부에 도움이 안 되며 한국 학생들끼리 어울리면서 탈선할 수 있어서 지방으로 보낸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해당지역 학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학부모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유학생 특히 한국 유학생을 위한 시스템이 발달한 지역의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의 선택도 기본적으로 유학생이 유학을 결정하게 되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중국의 학습 환경

중국에서의 유학생 관리제도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다르다. 많은 중국的高中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의 언어제약을 고려해서 소위 ‘국제반’을 만들

어서 외국인끼리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북경의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국제반에서 한국 학생끼리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는 장단점이 있으나 중국에 유학을 온 학생의 입장으로 봐서는 중국 유학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제도로 보여 진다. 대학에서도 한국 학생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한국 학생들의 수업능력이 떨어지고 한국 학생들 끼리 어울리게 됨으로써 중국어 향상의 기회도 별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 언어의 제약 때문에 수업 듣기를 포기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유학생에게 학습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국에 조기유학생을 오는 학생들은 자기에 맞게 가장 바람직한 교육운영 시스템은 무엇일까를 고민하여 국제부 수업형태 및 운영주체를 잘 파악해야 한다. 어느 나라나 유학생은 언어과정 후 로칼반(현지 학생들과 같이 공부함)에서 공부한다. 그 나라의 언어로 수업을 따라가든 못 따라가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례이다. 정규적인 학과수업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배워가는 것이지 수업을 못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반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사,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고민해야 하며, 별도의 보충수업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현지 학생과 더불어 공부하며 유학생생활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조기유학은 당연히 로칼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힘들더라도 극복하고 따라가야 한다. 일단유학을 왔다면 아무리 힘든 공부라도 도전하고 극복해야 한다.

4) 중국사회 적응문제

언어나 생활습관이 다른 중국의 환경 하에서 유학생, 특히 어린 유학생들이 잘 적응해야하는 것은 유학생생활을 성공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중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가족을 떠나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됨으로 여러 가지 비행에 연루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이것은 유학생 사이의 문제

만 뿐 아니라 현지인과의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시기심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 특히, 심각한 것은 미성년자인 중고생과 성년인 대학생의 음주 및 흡연 관행에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중고생의 경우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토론조사에서는 토론 참여자들이 대체로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는 중국 사람들의 저급한 문화에 잘 적응이 안 되었으나 몇 년 살면서 점차 이곳 생활에 익숙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익숙해 졌음으로 적응이 되어 중국에 유학 온 것을 잘 했다고 자위를 하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중국에 온 것을 후회하는 학생들도 있다. 유학생들은 대체로 중국에 온 것을 잘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중국에서의 자기 생활 및 공부의 과정에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유학생들은 성적, 학업 및 장래진로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더구나 모국어가 아닌 중국어를 새로 배워 나가면서 생활해야 하고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린 유학생들이 이것들을 감당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이들이 대부분 한국의 가족을 떠나서 혼자 유학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유학 오는 학생들 모두 중국의 유학생생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자기관리가 이루어져야 것이다. 특히, 조기유학을 오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5) 조기유학문제

언어습득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기유학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초등학교 때 유학하면 원어민 수준의 중국어 능력을 구사할 확률이 높다. 중학교 때 유학은 완전한 원어민 수준의 중국어 구사능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고등학교 때의 유학은 언어습득 시기 면에서는 비교적 늦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초·중학교 시기에 비해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집중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좋은 결과를 얻는 학생들도 있다. 중국 명문대학 입학 가능성 측면에서만 보면, 어린 나이에 올수록 유리

할 것이다. 그러나, 졸업 후의 기업체 적응능력에서 보면, 중졸 이전의 조기 유학생의 가장 큰 단점은 한국사회 및 기업문화에 대한 적응이 취약하고 모국어 구사능력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 기반 중의 하나인 고등학교나 대학교 학연이 없어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본 초점집단조사에서는 조기유학에 대한 찬반토론을 실시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조기유학에 찬성한 경우도 있으나 자기들의 경험에 비추어 대체로 조기유학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 본 토론조사에서도 제시되었듯이 무방비로 방치된 조기유학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조기유학도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라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인 유학생을 가르쳐 온 중국인 교사들도 한국 유학생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져서 어린 학생들이 중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유학생이 어릴수록 부모가 함께 와서 생활을 보살펴 주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6) 정책적·사회적 대응방안

본 토론조사에서는 중국에 조기유학을 한 한국의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언급되었고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중고등학교에 유학 온 어린 학생들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기유학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사회적 대응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조기유학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조기유학의 성공과 실패 사례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학부모들에게 제공하여 학부모들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어 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많은 희생과 노력, 비용을 감수하면서 조기유학을 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일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가급적 무조건적인 조기유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득이 조기유학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사전

에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기유학 문제가 이제 사회·교육학적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상황에 이른 만큼 국가 수준에서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조기유학의 전반적인 문제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파악한 후에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홍보는 조기유학의 성공과 실패라는 내용의 세미나나 연구발표회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잘 알리고 또한 조기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집중적인 학습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전담하기 위해서 영리를 위주로 하는 사설기관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유학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도 유용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토론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국내외의 질 낮은 유학 알선업체들이 있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학 알선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하기 보다는 회사의 입장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올바른 선도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 처음 유학 올 때 유학원에서 주선해서 온 경우가 실제로 많았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질 낮은 유학알선업체에 대한 행정적 조치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유학생, 특히 조기유학생에 대한 숫자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에서는 각 학교를 통해서 유학생 동태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조기유학자에 대한 체계적인 숫자 파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유학생의 숫자 파악은 대사관에서도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일방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통계처리를 하는 수동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북경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의 대다수는 ‘우다코’라는 한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한국 유학생들이 관여되어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유학생문제를 전담하는 상담소를 설치하든가 이 지역에 장학사를 파견하여

유학생들의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상담,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부모가 동참하지 않은 조기유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절대적으로 요망된다.

현재 중학교 졸업 이전에 가는 조기유학은 법률상 불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교육에 대한 불만과 조기유학에 대한 욕구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가고, 실제로 정부가 강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못 가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조기유학자 수와 비용이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고 조기유학을 간 많은 학생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기유학은 주요한 교육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정부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조기유학 문제에 관여하고 해결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지연(2002). 학부모의 교육의식과 자녀 조기유학 선택, 이대대학원.
- 고광옥(2001). 조기유학생(이민학생)의 미국학교 적응사례,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유학이민)의 명암, 제1차 KEDI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 김성희(2002). “중국의 교육제도와 조선족 초등학교 음악교육현황.” 인천교대 교육논총 19집.
- 김재웅(2001). 우리나라 교육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와 대책, 새교육, 한국교육신문사.
- 김홍원(2005).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과 실태, 조기유학 : 국민의식과 실태, 한국교육개발원 제2차 교육정책포럼자료,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2005).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 규제순응도를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
- 김홍주(2001). 조기유학(유학이민)의 현황과 국민의식 분석,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유학이민)의 명암, 제1차 KEDI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 김희옥(1998). “중국의 교육제도와 중·한 교류에 관하여.” 교육과학연구.
- 변상신(2005). 중국조기유학가이드. 중국교육연구소.
- 북경청산학원. 중국대학 입시홍보자료. 2006.
- 엄명용(2002). 장기 분거가족의 전문직 남성문제: ‘기러기 아빠’,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0권 2호, 25-43.
- 조명덕(2002). 조기유학 붐의 원인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상과 인식, 제 26호 4호.
- 조혜영, 이경상, 최원기, Abelman(2005). 청소년의 조기유학 결정과정과 적응, 초국가적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혜영, 이경상, 최원기, Abelman(2005). 청소년의 조기유학 결정과정과 적응, 초국가적 가족관계 연구 워크샵.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양숙(2004). 비동거 가족경험-‘기러기 아빠’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부 록

- 부록 1 중국유학 한국 청소년의
적응실태 설문조사지
- 부록 2 초점집단토론 - 가이드라인
- 부록 3 중국유학 한국청소년 적응실태에
관한 Focus Group Discussion -
요약표
- 부록 4 초점집단토론(Focus Group
Discussion) - 토론내용

<부록 1> 중국유학 한국 청소년의 적응실태 설문조사지

□□□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이번에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의뢰를 받아 현재 중국에 유학하고 있는 한국 청소년들의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www.youthnet.re.kr)은 한국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국무총리 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 육성과 복지 정책 연구 및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오는 유학생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실태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본 연구는 중국에 유학한 청소년들의 적응실태를 잘 파악하여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사된 자료는 모두 통계로만 처리됨으로 개인적인 정보노출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익 기

중국인민대학 객좌교수

전화: 1355-221-9889

이메일: ikki@dgu.edu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란에 V 표시 하거나 기입하여 주세요.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__ ① 남자 _____ ② 여자

2. 학생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_____ 세

3. 학생은 북경에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4. (북경을 포함하여) 중국에 온 지는 총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5. 학생은 중국에 오기 전에 중국의 언어나 풍습 등에 대해 미리 준비를 했는지요?

_____ ① 매우 준비를 잘 했다 _____ ② 그런대로 준비를 잘 했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별로 잘 준비하지 못했다

_____ ⑤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

6. 학생은 처음 중국에 올 때 누구와 같이 왔습니까?

_____ ① 혼자 _____ ② 친구 _____ ③ 친척

_____ ④ 아버지 _____ ⑤ 어머니 _____ ⑥ 온 가족이 같이

_____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7. 학생은 현재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_____ ① 중학교(초중) _____ ② 고등학교(고중)

_____ ③ 국제학교(중학과정) _____ ④ 국제학교(고등학교과정)

_____ ⑤ 대학교 _____ ⑥ 학원(유학준비)

_____⑦ 어학연수학원 _____⑧ 기타(구체적으로,)

8. 학생이 현재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_____① 학교기숙사 _____② 왕징
_____③ 우다코 _____④ 학교인근아파트
_____⑤ 기타(구체적으로,)

9. 학생은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_____① 혼자 _____② 한국인 룸메이트
_____③ 중국인 룸메이트 _____④ 외국인 룸메이트
_____⑤ 아버지 _____⑥ 어머니
_____⑦ 온 가족이 같이 _____⑧ 친지 또는 친척
_____⑨ 중국인 주인 _____⑩ 기타 (구체적으로,)

9-1. (같이 사는 경우에만)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_____① 매우 잘 지내고 있다 _____②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다
_____③ 보통이다 _____④ 잘 못 지내고 있다
_____⑤ 같이 지내는데 문제가 많다

10. 부모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빈칸에 아래 번호 중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주세요.

10-1. 아버지 (아래 번호 중): _____번

10-2. 어머니 (아래 번호 중): _____번

- | | |
|------------------------------------|---------------|
| ①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하셨다 | ② 초등학교 중퇴·졸업 |
| ③ 중학교 중퇴·졸업 | ④ 고등학교 중퇴·졸업 |
| ⑤ 대학교 중퇴·졸업 | ⑥ 대학원 중퇴·졸업이상 |
| ⑦ 기타(구체적으로,) | |

11.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래 상자 안을 보고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적어 주세요. (아래 번호 중): _____번

- ① 전문기술 및 관련직(변호사, 예술가, 교수, 학자, 의사, 회계사 등)
- ② 행정 및 관리직(정부 3급 이상 공무원, 행정관리자, 기업체 임원·이사 등)
- ③ 사무 및 관련직(정부 행정 공무원, 기업체 사무직 종사자 등)
- ④ 자영업(9인 이하 소규모 장사 및 가족 종사자, 목공소 주인, 개인 택시 운전사 등)
- ⑤ 판매종사자(도·소매업 종사자, 보험 및 부동산 거래인, 외판원, 점원 등)
- ⑥ 서비스직 종사자(음식·숙박업 관리자 및 관련 종사자, 이발사, 미용사 등)
- ⑦ 농업, 어업, 임업
- ⑧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운수 및 단순 노무자
- ⑨ 가정주부 ⑩ 무직
-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2. 스스로 생각하기에 학생 가족의 생활수준은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 _____① 매우 높은 편이다 _____② 비교적 높은 편이다
 _____③ 보통이다 _____④ 비교적 낮은 편이다
 _____⑤ 매우 낮은 편이다

13. 학생의 한 달 평균 용돈은 어떻게 됩니까?

약 _____ 위안(인민비)

14. 현재 용돈은 충분합니까?

- _____① 아주 넉넉한 편이다 _____② 비교적 넉넉한 편이다
 _____③ 보통이다 _____④ 부족한 편이다
 _____⑤ 매우 부족하다

15. (숙박비를 포함해서) 학생의 한 달 평균 총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약 _____ 위안(인민비)

16. 학생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_____① 기독교 _____② 천주교 _____③ 불교
_____④ 이슬람교 _____⑤ 없음 _____⑥ 유교
_____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6-1. (교회 등) 종교단체 모임에는 얼마나 자주 참석 합니까?

_____① 일주일에 두번 이상 _____② 일주일에 한번
_____③ 2주일에 한번 _____④ 한달에 한번
_____⑤ 일년에 서너번 _____⑥ 일년에 한번
_____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_____⑧ 안 다님

16-2. 학생은 지금의 종교를 언제 처음 갖게 되었습니까?

_____① 한국에서 부터 시작 (_____ 년간)
_____② 중국에 와서 부터 시작 (_____ 년간)
_____③ 종교가 없다

17. 학생이 유학을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① 부모님의 직장을 따라서
_____② 보다 넓은 세상을 배우고 싶어서
_____③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하여
_____④ 외국에서 살고 싶어서
_____⑤ 주위의 친구들이 가니까
_____⑥ 주변에서 가라고 해서
_____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7-1. 학생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특히 중국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 ① 부모님의 직장을 따라서
 ____ ② 중국이 대국이니까
 ____ ③ 역사적으로 한국과 관계가 많으므로
 ____ ④ 물가가 싸니까
 ____ ⑤ 이웃 나라이니까 편해서
 ____ ⑥ 중국어를 전공함으로
 ____ ⑦ 중국이 좋아서
 ____ ⑧ 주변에서 가라고 해서
 ____ ⑨ 기타 (구체적으로,)

17-2. 학생이 유학을 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누구 때문입니까?

_____ 번

보기	1) 스스로 결정	2) 부모	3) 형제자매	4) 친척
	5) 친구	6) 선후배	7) 선생님	8) 언론매체
	9) 특별한 계기 없음 10) 기타(구체적으로,)			

18. 학생은 현재 장래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직업(창업포함)을 정해 놓으신 상태인가요?

- ____ ① 구체적으로 확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____ ②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대강 생각해 놓은 직업이 있다
 ____ ③ 아직 정해놓은 장래의 직업이 없다

19. 학생의 장래 희망직업은 무엇입니까? 희망하는 순서대로 2개까지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개밖에 없을 경우, 1개만 응답)

19-1. 가장 희망하는 직업 (_____)

19-2. 두번 째로 희망하는 직업 (_____)

20. 학생은 HSK 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급을 땀습니까?

_____ 1) 예 _____ 급 _____ 2) 아니오

21. 학생은 현재 중국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요?

_____ ① 전혀 어려움이 없다 _____ ② 별로 어려움이 없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어느 정도 불편하다

_____ ⑤ 매우 어렵다

22. 학생은 지난 1년 간 학교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요? 그리고 학교 수업이 학생의 성적향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22-1.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_____ ① 매우 열심히 한 편이다 _____ ② 열심히 한 편이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열심히 하지 않은 편이다

_____ ⑤ 전혀 열심히 하지 않았다

22-2. 학교 수업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_____ ① 매우 효과가 있었다 _____ ② 다소 효과가 있었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별로 효과가 없었다

_____ ⑤ 전혀 효과가 없었다

23. 학생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중국에 머무를 예정입니까?

_____ 년간

24. 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_____ ① 진학한다 _____ ② 취직한다

_____③ 다른 공부를 한다
 _____④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25. 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면 계속 중국에 남을 예정입니까?
 _____① 계속 중국에 남을 예정이다 _____② 다른 나라로 간다
 _____③ 한국에 돌아간다
 _____④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26. 학생이 하루 평균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루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27. 학생은 북경이외에 몇 군데나 여행을 했는지요?
 _____ 군데

28. 학생은 주로 누구와 함께 여가를 보냅니까?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아래
 보기에서 골라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27-1 . 평일: (_____)

27-2 . 휴일(토/일/공휴일): (_____)

보기	1) 혼자서	2) 이성친구(한국인)	3) 동성친구(한국인)
	4) 이성친구(외국인)	5) 동성친구(외국인)	6) 선후배
	7) 가족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9. 학생은 여가시간을 주로 어디에서 보냅니까?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아
 래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29-1. 평일: (_____)

29-2. 휴일(토/일/공휴일): (_____)

보기	1) 자기 집에서	2) 친구 집에서	3) 집근처 또는 동네주변에서
	4) 학교에서	5) 시내에서	6) 공원, 수련시설 등 야외에서
	7) 기타(구체적으로,)		

30. 학생은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면서 보내십니까? 평일과 휴일로 나눠 주로 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씩 표기해 주기 바랍니다. (1개밖에 없을 경우, 1개만 응답)

30-1 . 평일: 첫번째 () 두번째 ()

30-2 . 휴일: 첫번째 () 두번째 ()

보기	1) 텔레비전/라디오 청취	2) 신문/잡지 읽기	3) 비디오/DVD 감상
	4) 음악듣기(CD, MP3 등)	5) 컴퓨터 게임(CD)	6) 인터넷 채팅
	7) 영화/연극관람(극장)	8) 노래부르기(노래방)	9) 악기연주하기
	10) 독서	11) 산책	12) 등산
	13) 여행(관광 등)	14) 잡기(바둑, 화투)	15) 운동하기
	16) 스포츠관람	17) 사회봉사활동하기	18) 술마시기
	19) 특별한 활동없이 그냥 쉬	20) 기타(구체적으로,)	

31. 학생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합니까? 다음의 보기에서 하나씩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31-1 . 한국에 있는 가족/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전화를 합니까? _____

31-2 . 한국에 있는 가족/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이메일을 합니까? _____

보기	1) 매일	2) 일주일에 두세번	3) 일주일에 한번
	4) 한달에 한 두번	5) 두세달에 한번	6) 거의 안 한다
	7) 전혀 안 한다		

32.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매우 친한 친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매우 친한 친구란 평소에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으로서 학교친구, 동네친구 및 선후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친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질문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32-1 학생은 중국에 이성친구(남친/여친)가 있습니까?

_____ 1) 예 _____ 2) 아니오

32-2 (이성친구가 있다면) 한국인 입니까? 외국인 입니까?

_____1) 한국인 _____2) 중국인 _____3) 외국인

32-3. (이성친구 외에) 매우 친한 친구는 중국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_____ 명)

32-4. 그 친구들과과는 일주일에 몇 일 정도 만납니까? 아래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주세요.

32-4-1 1) 이성친구 ()

32-4-2 2) (이성친구 외에) 매우 친한 친구 ()

보기	1) 거의 매일	2) 2-3일에 한번정도	3) 일주일에 한번 정도
	4) 2-3주에 한번 정도	5) 한 달에 한번 정도	
	6) 몇 달에 한번 정도	7) 기타(구체적으로,)	

33. 학생은 술을 마시지요? 마신다면, 얼마나 자주 하지요?

_____ ① 매일 마신다 _____ ② 일주일에 두세번
_____ ③ 일주일에 한번 _____ ④ 한달에 한번 정도
_____ ⑤ 전혀 안 한다

34. 학생은 담배를 피우는지요? 피운다면, 얼마나 자주 피우는지요?

- _____① 하루에 한 갑 이상 _____② 하루에 반 갑 정도
 _____③ 일주일에 한 갑 정도 _____④ 한달에 한 갑 정도
 _____⑤ 전혀 안 한다

35. 학생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_____1) 보유하고 있다 _____2) 보유하고 있지 않다

35-1. 학생의 하루 평균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 시간 (_____) 분

36.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있습니까?

☞ 개인의 비밀은 보장되오니 숨김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_____없다	있다	_____회
2) 협박당하기	_____없다	있다	_____회
3)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_____없다	있다	_____회
4) 심하게 맞기(폭행)	_____없다	있다	_____회
5) 성폭행이나 성희롱 당하기	_____없다	있다	_____회
6) 돈이나 물건 강제로 빼앗기기	_____없다	있다	_____회

37.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개인의 비밀은 보장되오니 숨김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무단결석	___없다	있다	___회
2) 성관계 경험	___없다	있다	___회
3)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___없다	있다	___회
4) 패싸움	___없다	있다	___회
5)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___없다	있다	___회
6)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___없다	있다	___회
7) 남을 협박하기	___없다	있다	___회
8)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___없다	있다	___회
9)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	___없다	있다	___회

38. 학생은 때때로 외롭다고 느끼는지요?

- ___① 항상 외롭다고 생각한다 ___② 때때로 외롭다고 생각한다
 ___③ 그저 그렇다 ___④ 별로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___⑤ 전혀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9. 학생은 중국에 유학 온 것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매우 잘 했다고 생각한다 ___② 잘 한 것 같다
 ___③ 그저 그렇다 ___④ 잘 못 선택한 것 같다
 ___⑤ 매우 잘 못했다

40. 다음은 현재 학생의 학교생활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마다 해당 되는 곳에 표기해주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2)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	1	2	3	4	5
3) 학교 친구들과의 사이가 좋지 못한 편이다	1	2	3	4	5
4) 학교 선생님들과의 사이가 좋지 못한 편이다	1	2	3	4	5
5) 현재 다니는 학교는 진학에 유리하지 못하다	1	2	3	4	5
6) 다니는 학교는 나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	1	2	3	4	5

41. 다음 문항은 평소에 학생이 겪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 지 각 문항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기해 주십시오.

	그런 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2) 앞으로의 진로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3) 언어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4)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5)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42. 평소에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선택)

- _____ ① 술, 담배를 한다 _____ ② 폭력을 행사한다
 _____ ③ 여행을 한다 _____ ④ 독서를 한다
 _____ ⑤ 쇼핑을 한다 _____ ⑥ 영화를 본다
 _____ ⑦ 친구를 만난다 _____ ⑧ 잠을 잔다
 _____ ⑨ 기타(구체적으로,)

43. 학생은 스스로 현재 중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_____ ②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별로 잘 적응하지 못 한다
 _____ ⑤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44. 학생은 현재의 중국생활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해당 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 _____ ① 매우 만족한다 _____ ② 만족하는 편이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_____ ⑤ 전혀 만족하지 못 한다

45. 학생은 현재의 중국생활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될까요?

_____ 점

46. 현재 학생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왜 그런지 자유롭게 두 가지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첫째 _____

둘째 _____

<부록 2> 초점집단토론 - 가이드라인

중국유학 한국 청소년의 적응실태조사
(Focus group discussion)

<Focus group screening form>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__ ① 남자 ② 여자
2. 학생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_____ 세
3. 학생은 북경에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4. (북경을 포함하여) 중국에 온 지는 총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5. 학생은 현재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_____ ① 중학교(초중) _____ ② 고등학교(고중)
_____ ③ 국제학교(중학과정) _____ ④ 국제학교(고등학교과정)
_____ ⑤ 대학교 _____ ⑥ 학원(유학준비)
_____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6. 학생이 현재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_____ ① 학교기숙사 _____ ② 왕징 _____ ③ 우다코우
_____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7. 학생의 한 달 평균 용돈은 어떻게 됩니까?

약 _____ 원(인민비)

8. (숙박비를 포함해서) 학생의 한 달 평균 총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약 _____ 위안(인민비)

9. 학생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_____ ① 기독교 _____ ② 천주교 _____ ③ 불교
_____ ④ 이슬람교 _____ ⑤ 유교 _____ ⑥ 없음
_____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Focus group discussion 1 - 유학생 guideline>

1. 학생은 처음 중국에 올 때 언제, 누구와 같이 왔습니까?

2. 학생이 유학을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특히 중국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이 유학을 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누구(혹은 무엇)때문입니까?

3. 학생은 중국에 오기 전에 중국의 언어나 풍습 등에 대해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까?

4. 학생은 현재 어디에서,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잘 못 지내고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5. 학생은 현재 장래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직업(창업포함)을 정해 놓으신 상태인가요? 학생의 장래 희망직업은 무엇입니까?

6. 다음은 현재 학생이 처해있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건강상태,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 2)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까? 학교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 3) 학교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들과의 사이가 좋지 못한 편입니까?
 - 4) 현재 다니는 학교는 진학에 유리하지 못하거나 현재 다니는 학교가 학생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습니까?
7. 학생은 현재 중국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요? 중국어를 배운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8. 학생은 지난 1년 간 학교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요? 그리고 학교수업이 학생의 성적향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9. 학생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중국에 머무를 예정입니까? 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면 계속 중국에 남을 예정입니까?
10. 학생은 주로 누구와 함께 여가를 보냅니까?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면서 보내십니까? 여가시간을 주로 어디에서 보냅니까? 북경이외에 몇 군데나 여행을 했는지요?
11. 학생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합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전화를 합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이메일을 합니까?

12.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매우 친한 친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은 이성 친구가 있습니까? (이성친구가 있다면) 한국인 입니까? 외국인 입니까? (이성친구 외에) 매우 친한 친구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그 친구들과는 일주일에 몇 일 정도 만납니까? 그 친구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3. 학생은 술을 마시는지요? 마신다면,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요?
14. 학생은 담배를 피우는지요? 피운다면, 얼마나 자주 피우는지요?
15.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협박당하기,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심하게 맞기(폭행), 성폭행이나 성희롱 당하기, 돈이나 물건 강제로 빼앗기기 등)
16.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단 결석, 성관계 경험,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뺑뺑기),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 등)
17. 학생은 얼마나 자주 외롭다고 느끼는지요? 외로울 때는 어떻게 외로움을 달래는지요?
18. 학생은 스스로 현재 중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한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19. 학생은 중국에 유학온 것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20. 다음 문항은 평소에 학생이 겪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합니까?
21. 학생은 학생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2. 청소년의 조기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 현재 학생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왜 그런지 자유롭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Focus group discussion 2 - 汉语学校老师>

1. 你讲汉语多长时间（几年）？
2. 什么时候跟韩国人第一次见面？ 在哪见面？ 那个时候对韩国人的印象怎么样？
3. 有没有韩国的朋友？（有的话）几个朋友？
4. 现在在哪讲汉语？
5. 到现在有几个韩国学生讲汉语？
6. 现在你的班有几个韩国学生？韩国学生是百分之多小？
7. 你觉得一般的韩国学生的汉语水平怎么样？

8. 你觉得一般的韩国学生努力学习吗？
9. 一般的韩国学生的出席状况怎么样？
10. 你对韩国学生的印象怎么样？
11. 你觉得韩国留学生的适应能力怎么样？
12. 你觉得韩国学生有什么问题？
13. 请建议一下为了韩国留学生的成功

<부록 3> 중국유학 한국청소년 적응실태에 관한 Focus Group Discussion -요약표

구분	1집단 (4명) 남자 조기유학 고등학생	2집단 (4명) 여자 조기유학 고등학생	3집단 (3명) 여자 청화대 대학생	4집단 (5명) 남자 북경대 대학생	5집단 (4명) 혼성 대학생 (2년이하)	6집단 (4명) 혼성 어연대대학생 (2년이상)
성별/나이/중국 거주기간	A (남/고1/17세/유학 1년6개월) B (남/고1/16세/유학 2년) C (남/고2/16세/유학 4년) D (남/고2/18세/유학 1년6개월)	A (여, 고2, 18세, 유학 3년) B (여, 고3, 18세, 유학 3년) C (여, 고1, 17세, 유학 8개월) D (여, 고1, 17세, 유학 1년9개월)	A (여, 24세, 유학 3년 6개월) B (여, 24세, 유학 4년 6개월) C (여, 21세, 유학 10년)	A (남, 20세, 유학 5년) B (남, 20세, 유학 4년) C (남, 23세, 유학 2년 6개월) D (남, 20세, 유학 4년 3개월) E (남, 21세, 유학 4년)	A (남, 26세, 유학 1년) B (여, 22세, 유학 1년 10개월) C (남, 20세, 유학 1년 10개월) D (남, 21세, 유학 2년)	A (남, 26세, 중국유학 2년 6개월) B (남, 28세, 중국유학 3년) C (여, 25세, 중국유학 3년) D (남, 28세, 중국유학 2년)
중국유학 언제 누구와/두려움 유무	A 중3졸업후 유학원통해서 혼자옴 B 중2한학기마치고 친구와 옴 C 초등학교졸업후 혼자옴 D 2002년3월 혼자옴 친원:두려움 없었음	A 중2때 아버지와 언니와 함께옴/떠는것과 엄마와 떨어지는것에 대한 두려움 B 중 1 마친후 어머니와 오빠와 유학원 통해 옴 C 중 3때 처음엔 아빠와 현재는, 혼자 복권에/두려움 없었음 D 중2때혼자옴/과외선생님의 도움으로 두려움 없었음	A 고등학교 졸업후 먼저 유학온 친구 뒤따라옴 B 고등학교 졸업후 유학원통해서 옴 A,B 원해서 온것이라 두려움 없었음. C 초등학교 4학년때 가족과 다같이옴	A 2001년 8월 28일, 먼친척과 함께 옴 B 2002년 9월, 어학원 통해서 혼자 옴 C 2002년, 이는 친구와 옴 D 2002년 4월,아버지 사업으로 어머니님과 함께 옴 E 고등학교 졸업후 친진에 혼자 옴	A 혼자 B 대학 3학년 마치고 혼자 옴 C 재수하다 혼자 옴 D 18세 때 학교 자퇴후 혼자 옴	A,C,D 가족과 함께 B 혼자 옴

구분	1집단 (4명) 남자 조기유학 고등학생	2집단 (4명) 여자 조기유학 고등학생	3집단 (3명) 여자 청화대 대학생	4집단 (5명) 남자 북경대 대학생	5집단 (4명) 혼성 대학생 (2년이하)	6집단 (4명) 혼성 어인대학생 (2년이상)
중국유학계기/ 중요 이유	A 성적부진/부모님계안 B 성적부진/유학비 지림 C 어려서부터 화교학교다 D 성적부진/아시는분소개 음	A,B 중국의 발전을 봄 C 아버지가 중국에 계셨음/ 부모님권유 D 성적부진/어머님 권유	A 친공이 증문/파/미래를 위해 제 2외국어 공부 필요 B 중국이 미래가 있다는 어머니의 권유로 C 부모님 직장(아버님 -주 재원 출신)	A 중국 비건/친척의 권유 B 성적부진,대학진학어려움/혼자 결정 C 아버지께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셔서 D 중국비건 有/아버지 사업으로 가족이 다 오게 됨 E 부모님권유	A 중국여행중 중국어에 흥미 느낌 B 중국어 열풍 때문에 C 중국유학경비지림 D 미국 유학간 친구들의 잘못된 행태를 보고 영어권 유학 싶어짐&어려서부터 중국문화(영화,책)관심多	B 주외본들 권유/전공이 중국어 D 아버지권유 B,C,D 중국이 발전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의 비전 때문에 선택
언어풍습등 사전준비유무	A,B,D 준비없이음 C 어려서 화교학교에서 배움	전원: 준비없이 음	A,B 외국어고등학교출신이라 기본적인 준비 有 C 어릴적 아버지 직장으 로 갑자기 오게된 이유 로 별다른 준비못했음	A,C,D 준비없이 음 B 중국오기전 학원 2달다님 D 혼자 책보고 준비-도움 인되었음	A한달반정도의 중국여행으로 약간의 문화학습, 어휘준비없었음 B 교수,산배,인터넷 통해 정보수집,중국어는 학원에서 준비 C중국오기전 열심히 준비	B,C,D 별로 준비없이 왔음

구분	1집단 (4명) 남자 조기유학 고등학생	2집단 (4명) 여자 조기유학 고등학생	3집단 (3명) 여자 청화대 대학생	4집단 (5명) 남자 북경대 대학생	5집단 (4명) 혼성 대학생 (2년이하)	6집단 (4명) 혼성 어인대학생 (2년이상)
거주지역 / 누구와	A,B 홈스테이 C 친형과 홈스테이 D 아파트에서 혼자 자취	A 친인니와 함께 B 엄마와 오빠와 아파트 에서 생활 C 대학생과 홈스테이 D 수학 과외선생님과 홈 스테이 전원: 관계양호	전원: 청화대 기숙사에서 혼자 생활	A 오도구 아파트(동승원)/ 아는형과 친구와/관계양 호 B 오도구 아파트/혼자 C 오도구 아파트/친한 동 생과/관계양호 D 외국인 기숙사/한국인과 화교/관계양호 E 오도구 아파트(화창)/혼 자	A 오도구 아파트(동승원) 중국인 룸메이트와 B 오도구 아파트(동양장)/ 중국인 노부부와 /관계 양호 C 인민대학 근처 아파트/ 혼자 D 육도구 친구집에서	A 친구와 B 아파트에 혼자 C 친언니와 D 혼자
중국어 수준 / 학습기간	A 1년 6개월 B 2년 C 4년 D 1년 6개월 전원: 듣는것보다 말하기 어려움	A 수준 양호/3년 B 중국인과 함께 공부- 말 하는데 불편없음/3년 C 일상생활 불편 없을 정 도 D 처음엔 언어소통 힘들 었음-노력 후 발전있을	A C 생활언어 어려움 없 음, 전공수업듣기와 논 문제출시 중국어 사용 힘들 B HSK(한어수평고사)준비 시 작문과 구어과목의 고급중국어 사용 어려움	A 3-4개월되었을때 일상 용어거의해결 단,전공수 업 어려움 B,D 일상생활 지장없음 단,전공수업 어려움 C 모든면에서 어려움 E 듣고 말하는데 문제없 음 단,작문과 여러면에 서 정보 없음	A 2 학기째 공부중/생활언 어 문제없으나 구체적 내용전달 어려움 B 1년5개월일상용어엔 문 제없음 C 1년8개월일상용어 문제 없음, 수업내용어려움 D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 는 정도	A 2-3년공부/본인생각에 수준낮음 B 4년/듣기보다 말하기어 려움 C 3년/ 듣기보다 말하기어 려움 D 2년/듣기보다 말하기어 려움

구분	1집단 (4명) 남자 조기유학 고등학생	2집단 (4명) 여자 조기유학 고등학생	3집단 (3명) 여자 청화대 대학생	4집단 (5명) 남자 북경대 대학생	5집단 (4명) 혼성 대학생 (2년이하)	6집단 (4명) 혼성 어연대학생 (2년이상)
지나1년간본인 의학습정도/성 적향상/중국친 구에게 도움요청유무	A 임시주요과목(영,수,어문)에만 주력/스스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노력했음/후 진보없음 B 임시주요과목만주력/안 들리는 과목 포기 C 유학초기방황-학습에 주력 못했음, 현재 모르는 건 한국인선생에게 물어보며 학습/안들리는 과목 포기 D 외국인반으로 옮긴후 어느정도 진도 따라감	A 많은노력(중국고등학교에에선 공부를 많이 시킴)- 장학금 획득 B 대학문은 좁고 유학생은 많아서 많은노력요망-임시위주공부,노력후 효과유 C 초기에 노력 D 지난1년간: 노력안했음-현재 학교제도가 자리잡히면서 노력함 전원: 국제학교와 중국학교에 따라 학생 노력 또한 틀려짐	A,C 같음과 중국친구들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인끼리 공부 B 특정과목에 어려움/같은과 중국친구들이 도움안줌-돈주고 중국친구에게 전공과목 과의 받음	A 원래 책임이 싫어함/모르는건 중국친구에게 물어보며 학습 B 고교졸업후 해방감으로 공부 게을리했음/현재 노력중임 (AB 중국고등학교에서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므로 대화가면 해방감 생길 우려 多) C 중국인도움없이혼자공부 D중국교수님과 친구들과 적극 교류 E 예,복습 중요성인정/ 노력하러함	A 노력부족-언어연수라 성적부담없기때문 B 조기에 노력/학교보다 학원수업에 만족 C 중국친구들과 교류하며 공부에 충실/공부한만큼 성적 안나옴 D 공부만 하기보다 다른면에서의 경험 중요시함	A,B,C 한어과 전공이라 수업이 어렵다고 못느낌.. A 어려울때 푸다오통해 그때그때 학습 C 숙제버거움-중국친구에 물어볼 D 모르는 건 도서관에 있는 중국인에게 즉석에서 물어보며 학습
졸업후희망/중국지속거주정도	A 중국에서 대학입학후 한국 또는 다른나라로 편입희망 B,C 졸업후 영어사용권 나라에서 공부희망 C 4년 정도 중국서 거주 예정 D 현 대학입학만 목표	A 대학졸업까지 7년 예정 B 대학졸업까지 5년 예정 C 대학졸업까지 있을 예정 D 일년 반 뒤 미국유학계획	A 졸업까지 3년 거주 예정/중국,한국에서 석사 공부희망 B 졸업1년남음 / 귀국후취업희망 C 졸업3년남음 / 영어권연수희망	B 졸업후 군대감/중국에 돌아오지 않을계획 C 졸업 후 중국에서 취직 희망, 중국하더라도 관련된일 희망 D 졸업, 군대 후 중국에서 석,박사계획 E 졸업, 군대 후 한국이나 미국에서 공부계획	A 중의대 입학 예정- 6년간 공부 후 귀국 B 곧 귀국 후 일본유학예정 C 내년에 군대 계획-졸업까지 7년 그 뒤 다른나라로 유학계획 D 최소 5년 이상, 중국에 오래있고 싶음	A,B,C 졸업후 경력쌓기위해 중국에서의 취직 희망 D 귀국후 취직희망

구분	1집단 (4명) 남자 조기유학 고등학교생	2집단 (4명) 여자 조기유학 고등학교생	3집단 (3명) 여자 정화대 대학생	4집단 (5명) 남자 북경대 대학생	5집단 (4명) 혼성 대학생 (2년이하)	6집단 (4명) 혼성 어인대학생 (2년이상)
여가활동/누구와/무엇을	A 친구들과 음주거부즐김 B 친구들과 노래방,운동, 집에서 인터넷 C 집에서 쉰다 D 친구들과 어울림.운동	A,B 집에서,교회,친구들과 카페,만화방,노래방 C 시내구경,쇼핑 D 특별한 여가활동 없음	A,B 운동(테니스모임) C 집에서 인터넷,DVD영 화보기	A 운동(테니스모임),교회 활동, 북경여행, 주로 이상친구와 보냄 B 고등학교 동창과 과외 선생만남 C 평일:집에서 TV보기,독서,참/ 주말:친구들과 농구 D 운동, 음악 들기와 연주 E 운동(테니스 모임) 그 외 주로 혼자 보냄	A 한국에선 여행, 중국와 선친구만남,독서,인터넷, 교회활동 B 여행, TV보기, DVD영 화감상, 쇼핑, 친구들과 음주 C 산책, 이성친구만나기, 친구들과 피크닉 D 집에서 DVD영화감상	A 평일:집에서 휴식,친구 만남/주말:운동 B 평일:친구들과 당구게임 /주말:테니스 C 평일:여가없음/주말:여행,음주 즐김 D 평일:볼링/주말:음주,집에서 휴식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와 전화/ 메일 횟수	A 가족:자주 전화음/친구:본인이 전화함 B 가족: 일주일에 2-3번 전화통화 C 가족:한달에 한번 통화 D 가족:1-2주에 한번씩 통화/친구: 서로 연락 안함	A 엄마와는 매일전화 B 가족 모두 중국에/친구:인터넷 개인홈피 C 가족:연락뜸함/친구:인터넷 D 가족:용돈부칠때에만 연락	A 가족:1-2주에 전화통화 한번 정도/친구:인터넷 개인홈피 B 가족:매일,전화 번갈아 연락함 A,B:아버지와는 거의 연락 없음 C 가족:중국에 있음,자주 통화함/친구:인터넷 개인홈피	A 가족:간혹 전화/친구:인터넷으로 B 가족과는 자주 연락/친구들과는 안함 D 가족:일주일에 두세번/친구:인터넷 E 친구들과 인터넷,개인홈피로	A 가족:한달에 2-3번 전화/친구:인터넷 메신저 연락 B 가족:한달에 2-3번 전화/친구:1주에 2번정도 전화 C 어머니,3일에 한번 전화 아버지,일년에 한번/친구:인터넷으로 D 가족: 일주일에 한두번	A 가족:자주전화통화/친구:인터넷 B 가족:전화통화(가족,친구 모두두분인)이먼저연락 안함) C 친구: 전화 또는 개인홈피 D 가족:자주전화통화/친구:메신저로 연락

구분	1집단 (4명) 남자 조기유학 고등학교생	2집단 (4명) 여자 조기유학 고등학교생	3집단 (3명) 여자 청화대 대학생	4집단 (5명) 남자 북경대 대학생	5집단 (4명) 혼성 대학생 (2년이하)	6집단 (4명) 혼성 어인대학생 (2년이상)
외로움/ 헤소	A 한국친구들이 많이 그 리움/북경에 있는 친구 들과 모여서 논다 B 한국과 상해서 함께 지 냈던 친구들 그리움 C,D 외롭지않다	A 자주 느낌/친구만남 B,C 별로못느낌/친구나 선 배와 대화 D 많이 느낌/혼자 운다	A,B 간혹 느낌/혼자 DVD 영화보며 휴식, 친구 만남 C 항상 느낌/혼자 있거나 친구에게 전화	A 자주 느낌 D,E 외롭지않다 전원: 모든 문제는 운동으 로 푼다.	A 가끔 느낌/기도,성경책본, 친구만남 B 많이 무료함/잠을 잔다 C 한국에선 외로움 많이 느꼈는데 중국에서 좋 아짐 D 가끔느낌/음주, 폭식,운 동, 여행생각,친구만남	A 매일 외로움/친구와 가 법계 술한잔, 대화로 풀 B 아플때 많이 느낌 C 현재 이성친구가 있어 외로움 못느낌, 이성친 구없었을때 외로움을 해 소하려 여행을 떠났음 D 자주느낌.특히 아플때/ 한국에있는여자친구와 전화통화
중국사회 적응도	A 現 적응 잘함>이전 중국인들의 이기적인 모습 과 지적분한 모습에 적 응 힘들었음 B 중국법과 중국인의 사 고방식 이해 어려움 C 적응잘함>처음 중국왔 을때 방황하여 공부에 소홀했음 D 중국인의 일처리 이해 어려움	A 업악된학교생활,문화차 이. 택시기사 낮은지적 수준 A,D 중국인 시간개념 없 음에 많이 답답함 B 중국인 위생개념 부족 하여 적응힘듦 전원:중국인이 지저분하고 낮은 문화 수준,비상식 적인 행동에 격차를 많 이 느끼지만 적응하려 고 노력	A,B 중국인들의 일처리, 택시기사의 낮은지적수 준 적응 불가 C 중국인들의 그릇된 문 화의식& 중국인들의 잘 못된 시간개념에 맞은 충돌 겪음	A 중국인들의 책임감 없 는 일처리- 적응 안됨 B 적응도 양호 C 한국인 많아 적응에 어 려움없었음/중국인들의 교통질서무사- 적응 안됨 D 가치관 차이有, 현재 적 응됨 E 교통혼잡, 부동산행패, 택시기사 불친절- 현재 적응됨	A,C 한국인이 많아 진정 한 중국사회에 들어간 기회없었음. B 사는곳이 한국집중구라 어려움 없었음. 때로,외 국인이라 겪는 여러가 지 어려움 있었으나 현 제극복 D 모든게 좋고 흥미로움	A 택시기사들의 비문화적 행동에 적응 힘들었음. B,C 적응잘함 D교통질서적응어려웠음, 부동산계약시충돌났음. 방 뻔 때 아찔을들려주 지않으려는 중국사람 들의 비도덕적사고에 적응 힘들었음-현재 적 응되어감.

구분	1집단 (4명) 남자 조기유학 고등학교생	2집단 (4명) 여자 조기유학 고등학교생	3집단 (3명) 여자 청화대 대학생	4집단 (5명) 남자 북경대 대학생	5집단 (4명) 혼성 대학생 (2년이하)	6집단 (4명) 혼성 어언대대학생 (2년이상)
중국유학 만족도	A 중국어학습선택에 만족 B 유홍문화유족 많아 자기 통제 힘들- 중국유학후 회 C,D 중국에 음을 후회, 영어권으로 유학 원함	A,D 넓은세상을 볼수있는 지금 주어진 기회에 만족 단, 다른나라유학을 더 희망함 B 처음엔 후회-현재 대만 속 C 한국보다 장래가 보임	B 옛문화는 배울점이 많으나 현대문화엔 배울점 없음 단,중국어 공부 선택에는 만족 A,C 만족>중국어 공부 유용하다고 생각		A 유학선택만족 단, 스스로의 학습결과에 불만족 B 만족함, 특히 중국문화 체험에 흡족 C 아직 모르겠음 D 유학 생활은 놀면서도 얻는게 많다(중국친구에게 한국음식 해주며 많은것 듣고배움)/중국 어 실력은 늘었으나 여러 생활면에서 후회多	A 가족과 다함께 외서 좋고, 중국이 비전있기에 유학선택 만족함 B 유학결정만족 단, 생활면에서 스스로 불만족 C 유학결정만족 단, 학교선택에후회 D 유학선택만족 단, 언어발전없어 스스로에 대한 후회
스트레스/ 해소법	A 반복되는수험생의 일상/음주가무(다른해소법 못찾음) B 의미없고 특별할거없는 유학생활&이성친구없는스트레스쉬면서 음악감상 C 장래문제&함께유학은 진행과갈등/운동 D 장래문제, 낯선곳에서의 생활적응	전원: 불확실한 미래 A 부모와의 장래희망 충돌, 대학합격 B 성적, 부모와의 장래희망 충돌 C 언어문제 D 시험	A 학업스트레스>언어한계로 친공공부 진도느림/운동&친구와 음주, 대화 B 진로문제/운동&선배들에게 자문 C 사람과의 관계/혼자 보냄	A 장래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B 군대 C 학업,언어소통한계 D 학업 E 학업, 장래진로 대부분 운동으로 해소	A 학업 스트레스 B 우리나라 교육현실때문에 HSK 시험급수에 어쩔수없이 치증하게 됨 C 언어소통한계 D 건강 문제(음식, 물에 대한 스트레스)	A 학업스트레스/운동, 친구들과 음주, 대화 B 불확실한진로문제/선배들에게 조언구함. 친구들과 음주, 대화로 해소 C 장래문제/친구들과 음주, 대화 D 장래문제

구분	1집단 (4명) 남자 조기유학 고등학교생	2집단 (4명) 여자 조기유학 고등학교생	3집단 (3명) 여자 정화대 대학생	4집단 (5명) 남자 북경대 대학생	5집단 (4명) 혼성 대학생 (2년이하)	6집단 (4명) 혼성 어인대학생 (2년이상)
현 중국에서 겪는 가장 어려운점 / 이유	반복되는 일상,음주가무 외 다른불이문화없으므로 스 스로 통제하려움 B 의미없고 특별할거없는 유학생활 C 함께 유학은 친형과 갈등 D 낯선곳에서의 생활 적응	친원,중국인이 지쳐분하고 낮은 문화수준,비위생적인 생활패턴,택시기사의 불친 절과 비상식적인 행동에 격차를 많이 느낌	A,B 중국인들의 답답하고 무책임한 일처리(은행, 학교사무심) 택시기사 의 낮은지적수준 적 C 중국인들의 그릇된 문 화의식& 중국인들의 잘 못된 시간개념에 잦은 충돌		A 문화적 충돌& 중국인 일처리 답답함 C 공기나쁨, 물건살 때 사 기치려는 중국인과 충 돌 D 물고기 나뭇>건강관리 에 대한 어려움	C 교통 문제>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남학생들: 사기,중국인의 비문화적 행동에 어려 움있었으나 적응무척잘 함
조기유학찬반/ 이유	A,D 반대 B 너무 어리다면 반대 단, 부모님과 동행 한다면 조기유학 찬성 C 자기 통제 스스로 기능 한다면 찬성	A 부모와 동행한다면 찬성 B 찬성(부모없이도 자기 하기 나름) 특히,중3이 가장 적절-한국에서 중 2까지 수학,영어 기본 갖춘 후 유학해야 언어 습득에 매진가능 C 소극적,애정결핍,소외감 느끼는 자기 의지약한 아이는 조기유학 절대 반대 D 너무어리나니(초등학교) 절대 반대>모국어,중국 어 모두 실패우려	A,B 반대>쉽게 유혹에 빠질 위험, 한국문화와 멀어짐, 예의결여우려 C 개인경험토대로 찬성> 넓은세상을 일찍 볼수 있다는 유리함	A 고등학교때오길 권유> 문화 극복 어려움 있을 수 있으나, 언어습득 빠 르다 B 자기의식있다면 어려서 와도 무관 C 반대 D 조기유학을 원한다면 반드시 부모와 동행		

구분	1집단 (4명) 남자 조기유학 고등학생	2집단 (4명) 여자 조기유학 고등학생	3집단 (3명) 여자 청화대 대학생	4집단 (5명) 남자 북경대 대학생	5집단 (4명) 혼성 대학생 (2년이하)	6집단 (4명) 혼성 어연대학생 (2년이상)
후배들에 조언	A 홈스테이를 잘 구할것 (본인이 하기 힘든 통제 도와줍자기절제 반드시 필요, 중학교 졸업하고 올 것, 자신있게 잘하는 과목 장악 후 올것 B, C 자기 통제 의식 필요, 부모님(보호자)과 동행 -> 통제에 도움, 생활안정, 공부효과 좋음. 친구가려사귄 것. 한국친구만 만나는것 자체	A 유학에 대한 강한 의지와 인내심 B 중국을 무시말고, 진정으로 이해, 사랑할것 C 한국인이 적은 지방 선택 D 유학오면 쉽게 대하간다는 막연한 기대 버리고 충실히 공부	A 자기목표의식, 자기 내실 갖출것 B 자기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 C 중국에 대한 관심도 증오, 중국 무시하는 우월 의식 버릴것	A 어디서 공부할지 첫발을 잘 디딜 것, 중국대학입시가 목표라면 확실한 정보 필수 B,C,D 목표를확실히(확실한 진로선택과 같은 각오) E 한국인이 적은곳 선택, 영어공부에도 충실할 것		A 자기목표,중국에 대한 나쁜 인식버리고 배우는 마음가짐 중요 C 중국이 후진국이라는 생각과 무시하는 행동을 버릴것. D 중국문화이해,중국인과 적극교류

<부록 4> 초점집단토론(Focus Group Discussion) - 토론내용

Focus Group Discussion #1

(남자고등학생 집단)

시간: 2006년 10월 3일 16:00-18:00

장소: 김익기 교수 댁

사회: 김익기 교수

참석자: A (남자, 고등학교1학년, 만17세, 중국유학 1년6개월)

B (남자, 고등학생1학년, 만16세, 중국유학 2년)

C (남자, 고등학생2학년, 만16세, 중국유학 4년)

D (남자, 고등학교2학년, 만18세, 중국유학 1년6개월)

지금부터 중국 유학 한국 청소년의 적응실태에 관한 토론을 시작합니다.

- 중국에 언제 누구랑 왔으며 어린 나이에 유학을 와서 두려움은 없었는지요?

A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유학원 통해서 일행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두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B 2004년 9월에 친구랑 같이 왔어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마치고 맨 첨엔 중국광주로 갔다 그다음은 상해 마지막으로 북경으로 왔어요.

C 2002년 월드컵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혼자서 왔습니다.

사회자 : 너무 어릴 때 왔는데 소감은?

C 그냥 두려움은 없었고 마냥 재밌었어요.

D 2002년 3월에 아는 분 자체가 북경에 계셔서 소개로 오게 됐어요. 저도 혼자서 왔고요.

- 중국에 유학 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언지? 특히 중국을 택했던 계기가 있었나요?

A 한국에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애들과 어울려 공부는 안하고 놀기만 하다 보니 성적도 떨어지고 해서 중국이 발전되니까 부모님과 상의해서 선택했어요.

B 학교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게 됐고, 유학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해서 중국으로 유학 오는 것을 선택했어요.

사회: 누가 가라고 권유했거나 성적 외에 또 다른 특별한 계기는 없었어?

B 가까우니까 왔어요. 별다른 생각 없어요.

A 저는 강남 쪽에 살았는데 주위에서 압박을 심하게 해요. 이런 식으로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다그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으로 오게 됐어요.

C 저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중국에 보내려고 했어요. 부산엔 차이나타운이 있어서 유치원도 화교유치원을 다녔고 내내 그런 식으로 중국어를 접하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가라고 하셔서 왔어요. 어릴 적부터 화교학교를 다녔으니 중국 오는 것에 대한 아무 의심 없이 자연히---

D 저도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성적이 계속 떨어졌어요. 한국에선 웬만한 등수가 아니고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도 없고 설령 대학 졸업을 했다 해도 대강 졸업만 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외국어를 배우기로 선택했어요. 학교에 흥미가 없어서 자퇴서를 낼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한국에 계속 있어 봐도 좋은 수가 없기도 하구, 아무래도 중국에 오면 외국어 하나라도 잘 배울 수 있으니 엄마랑 의논해서 오게 됐어요.

- 중국에 오기 전에 중국의 언어나 문화나 풍습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를 미리 했거나 중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왔나요?

A 제가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주위사람들이나 사설학원에서 성적으로 압박을 받으니 제가 중국으로 온다고 했고 결정하는데 이틀 걸렸어요. 결정하자마자 엄마한테 통보하고 부모님께서도 들으시고는 니가 선택한 것이면 중국에 가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오진 못했어요.

사회자 : 결정하는데 이틀밖에 안 걸렸다니 참 대답하군.

B 저도 중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근데 할아버지께서 중국을 워낙 좋아하셔서 할아버지가 가라고 권유 하셨어요. 전 인구 많다는 것만 알고 다른 준비 없이 그냥 왔어요.

C 유치원을 화교유치원을 다녔고 초등학교 때도 중국어 과외는 계속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화나 풍습에 관해서는 많이 들었고 미리 중국어 공부도 오랫동안 한 셈이죠.

D 저는 중국어학원에서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왔고 문화풍습에 대한 공부 는 안했어요.

- 현재 중국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중국어를 배운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A 1년 반 정도 배웠고요. 저는 시골 산동성 태산 이라는 곳에서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한국 아이들이 백 명 정도가 넘게 있어서 중국어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저희는 또 한국선생님께 수업을 받아서 들리긴 하는데 회화는 안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일단은 입시위주이기 때문에 어문시간에는 무조건 시만 외우게 하고 HSK(중국어자격고사) 공부만 시켜서 중국어를 사용할 때 그다지 잘하는 편이 못 돼요.

B 2년 되었는데 듣는 건 쉬운데 말하는 건 힘들어요.

C 저는 듣는 거랑 말하는 건 되는데 쓰는 게 안돼요. 오래했는데도 쓰는 건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거 같아요.

D 저도 듣는 건 들리는데 말하는 건 안 되요. 한국 애들이랑 많이 어울리게 되고 제가 사는 동네자체도 한국 사람이 많으니 학교이외엔 중국어를 쓸 기회가 많이 없을뿐더러 지금은 제가 국제반(외국인들만 있는 반)이어서 중국말을 할 기회가 점점 적어져요.

- 어디에서 누구랑 살고 있고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잘 지내고 있는지, 혼자 사는지 아니면 누구랑 같이 사는지 현 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A 한국학사모라고 학부모들 모아서 불편한 사항 있으면 건의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 안의 회장님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거기서 홈스테이 하고 있어요.

사회자: 어려움은 없어?

A 네, 전혀 없어요.

B 저는 북사대(북경사범대학) 박사과정 준비하는 형이랑 사는데 사랑방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홈스테이해요

사회자: 홈스테이는 한 달에 얼마나 해? A: 한 달에 인민폐 5,000위안이에요.

B 저는 한 달에 6,000위안이에요.

A 필요한 거 있음 다 처리해주고 과외도 잡아주고 그래요.

C 존 홈스테이에서 친형이랑 같이 있어요. 형은 온지 얼마 안 됐어요. 일 년 반 정도. 형은 끝 방 쓰고 저랑 홈스테이 주인 동생이랑 한방 쓰고 있고요. 비용은 한 달에 4000위안 이고요.

D 저는 자취해요. 류다코 “칭평”이라는 1인식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한 달에 2800위안 이고요.

사회자: 그럼 혼자서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나? 직접 해먹나?

D 밥은 집에서 잘 안 먹고, 보통은 학원이 끝나면 12시라서 집에서 잠만 자요. 주말에도 거의 밖에 있으니까 집에 있을 땐 시켜먹고 사 먹고 해요.

- 지난 1년간 학교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요? 그리고 학교수업이 학생을 성적향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요?

A 국제학교 다닐 때는 효과가 바로바로 나왔는데, 국어는 습득이 빠르니까 효과가 빠르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그 이상 안 늘고, 그리고 합반이 됐는데 제 원래 수준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인 반으로 합반이 되어서 말하기도 공부하기도 싫어졌어요.

사회 :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어려움은 없나?

A 화학 같은 건 아예 포기 했고요. 어문이나 수학만 공부하고 역사도 역시 포기했어요(썩썩한 미소)

B 저도 안 들리는 건 포기하고 수학기랑 영어만 해요.

A 저는 이과를 지원했기에 역사 같은 건 버려두고 이과반 입시에 관련된 과목만 공부해요.

C 열심히 해도 수업 중 못 알아듣는 게 몇 과목 있어요. 제가 방향을 좀 했었고 지금은 학교 옮기고 나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단 중국어는 한자를 외워야하기 때문에 안 외우면 안 되요.

사회자: 모르면 중국 애들한테 도움을 받나? 아님 그냥 포기를 해?

A 전 과외 받아요.

B 저는 안 들려도 혼자 노력했어요. 그래도 안 들리지만요 (웃음)

C 들리긴 하는데 역사 같은 건 책을 펴도 이해가 안 되요. 그래서 한국선생님들께 물어보고 그렇게 공부하면 좀 이해가 되요.

D 중국 애들 반에서 6개월을 있었는데 하나도 못 알아 들었어요. 지금은 한국 애들이랑 수업을 하기 때문에 좀 진도도 천천히 나가고 지금은 수업할 때 들리긴 다 들려요.

- 앞으로 중국에 얼마나 더 있을 예정인지요? 졸업하고 계속 중국에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한지요?

- A 저는 중국에서 대학을 나온 다음에 한국으로 편입할 생각도 있고요. 아니면 중국어를 제 2외국어로 쓰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가서 더 공부하고 싶어요.
- B 저도 중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대학원이나 MBA 과정을 밟고 싶어요.
- C 북경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4년은 훨씬 더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로스쿨--- 그쪽 공부를 미국에서 더 하고 싶은데 우선은 부모님허락이 있어야하니까요.
- D 지금은 대학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계획은 대학가서 하려고요.

사회자: 여기서 대학 졸업하면 한국으로 돌아 갈 건가?

학생전원: 네

C 저 좋은 기회가 있는 곳으로 찾아서 가고 싶어요.

- 여가시간엔 누구랑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내는지요?

- A 노래방가거나 술집가거나 양꼬치 먹으로 가고 그렇게 보내요
- B 저는 노래방가거나 친구만나서 운동을 하거나 저랑 지금 같이 사는 선생님이 여기 오래계셨기 때문에 동호회를 나가시는데 따라가고 집에서 컴퓨터도 하고요.
- C 집에서 그냥 있어요. (전원 웃음)
- D 저는 남들이 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 안 하고 그래요. 유흥을 좋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는지, 전화나 이메일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요?

A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국제카드를 사서 전화하고 엄마께서 저에게 자주 전화해주세요.

B 집에는 일주일에 2-3번 전화해요.

C 저는 한 달에 한번 전화 해요. 대부분 부모님이 하세요. 전 안 해요.

D 저는 1-2주에 한 번 씩 전화통화 하구요. 전화 오는 횟수랑 가는 횟수랑 비슷한 거 같아요. 친구들이랑은 전화는 거의 안 해요

- 이성친구가 있나요? 그 외에 친한 친구는 얼마나 있고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요?

학생 전원 :여자인 친구는 많아요. (웃음)

사회자 : 친구 중에서 한국친구 중국친구들의 비율은 각각 얼마나 되고 또 친구들은 자주 만나는지 말해볼까?

A 중국친구는 없고 한국 친구들이랑은 일주일에 한번 씩 만나서 놀아요.

사회자 : 매일 만나나?

A 일주일에 한번만 만나요.

B 북경 온지 얼마 안 되서 한국친구도 중국친구도 없어요. 상해에선 많았는데 여기선 없어요.

사회자 : 중국친구들은 왜 없지?

A 제가 성격이 이상해서 수업시간에도 짝꿍이 건들면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자연스레 중국 애들과 멀어졌어요. 이전에 기숙사에 같이 지낼 땐 좀 친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사회자 : 학생이 의도적으로 멀어졌나?

A 의도적이진 않았고 어찌다보니 그렇게 됐어요.

B 학교에서 자주는 보는데 따로 만나서 놀진 않아요.

C 여긴 한국친구가 워낙 많아서 중국친구들이랑은 주로 어울리지 못해요. 학교엔 친구가 있긴 있는데 여기 북경 우다코라는 한국인 밀집지역에 한국인이 너무 많아서 중국인 친구와 어울릴 기회가 전혀 없어요.

사회자: 어울릴 생각을 안 하는 건가?

C 중국에서 관계가 중요하니까 친구가 있어야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간혹 일 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해요. (전원 웃음)

사회자 : 그건 친구라고 말 할수 없잖아.

C 그런 셈이죠. 필요 할 때만 찾는 친구, 간혹 문자로만 연락하는 정도---

D 저도 지금의 학교로 옮기고 나선 중국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반 자체가 국제반이라서 중국친구를 만날 기회가 전혀 없어요.

사회자: 여자 고등학생들과는 완전 대조적이네. 남학생들은 대부분 그런가?

전원: 남학생들은 여학생이랑 달라요. 대부분 남자아이들은 중국친구 없어요.

사회자: 남자들은 운동하면서 친구 되기도 쉽잖아, 왜 그렇게 만나려고 하지 않지?

D 남자들은 운동하면서 친해지는 거 맞는데요. 중국 애들은 우리들과 달라요. 운동중 서로 게임하는 것을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너무 과격하게 해요. 그냥 재밌게 하면서 친해지면 되는데 무조건 이기려고 하다 보니 자칫하다가는 다치게 되니 같이 운동도 안 하게 돼요. 다들 꺼리죠.

사회자: 중국 애들은 자네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 하는 거 같아?

A 저의 경우엔 학년을 낮춰서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동생들과 겨서 놀기도 그렇고 해서 우선은 제가 꺼려했기 때문에 중국 애들에게 저는 첫인상이 안 좋아서 지금은 중국친구가 아예 없어요.

C 근데 중국친구들은 순진한 면도 있어요. 우리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해서 멀리하다가도 운동회 갔을 때 반을 위해 열심히 뛰어 주면 반에서 영웅이 되기도 해요. 제가 이번에 참가해서 학교기록을 깼거든요. 다들 환호해주고--- 그러다보니 친해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 술 담배를 하나요?

C 술은 안 마셔요.

사회자: 나머지 세 명은 다 마시고?

A와 B와 D : 네.

A 담배도 펴요. 술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주위에 있는 대학교 다니는 형들이랑 간혹 마셔요.

B 술은 주면 마시구요 담배는 이전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C 담배랑 술은 체질적으로 안 되고 친형이 알면 심하게 혼나니까 안 해요

사회자: 형이 대학생인가?

C 네, 자기가 해봐서 안 좋은걸 아니까 저한테 못하게 하죠. (전원 웃음) 형
이랑 술자리를 가도 저는 체질적으로 못하니 음료수만 마시구요.

D 담배는 안하고 술은 간혹 마셔요

사회자 : 취하도록 마시나?

A 부모님이 술을 쉰 편이시라---(전원 웃음) 형들이랑 같이 마시면 주시면
마시고 그리고 워낙 제가 주량이 세서 제가 형들을 다 챙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자제하면서 마셔요.

D 저도 술은 마셔도 자제하면서 마셔요

사회자: 여기 우다코에서 술 마시는 고등학생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전원: 아마도 대부분이 고등학생일걸요.

A 여기 우다코에서 술 마시는 고등학생들 90프로라고하면 좀 심하지만 대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할거예요. 여긴 신분증 제도자체가 허술하니까 술
마시는 애들이 많은 편이에요.

- 여기 지내는 동안에 비행을 했거나 비행을 당했거나 주변에서 누가 당했거나 또는 사기. 협박 당하는 거 왕따 문제, 성관계 등등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본 적 있으면 말해봅시다.

A 이전 제가 다녔던 한 학교에서 한국 여학생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는데 그 애가 학교를 떠나면서 학교에 술 마시고 나쁜 짓 하는 걸 아이들까지 다 일러서 그 아이와 싸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물건 같은 거 없어지는 건 종종 있어요.

사회자: 그럼 동거하는 학생들이 있나? 여러분들 주위에?

C 친구들 가운데 동거하는 학생들 많아요. 엄마아빠 여기 안계시니까 여자 친구가 있으면 자기 자취방에서 그냥 같이 지내게 되고 그렇게 해도 부모

님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회자: 그런 학생들이 많은가?

D 형들 보면 부모님이랑 같이 온 경우가 별로 없는데, 고등학생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사람도 많으니 제 주위엔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거 같아요.

B 제가 상해있을 때인데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한국인과 중국인이 시비가 붙었어요. 그렇게 싸우다가 옆에 사람들까지 거들고 그러다 꽤싸움까지 되서 일이 커졌어요.

A 중국 애들은 잘 안 싸워요.

사회자: 내가 듣기론 한국인은 한국 사람들끼리 잘 싸우고 또 조선족이랑 관계가 안 좋단데?

C 조선족이랑 한국 애들과는 사이가 안 좋아요. 왕징(한국인 집단주거지역) 쪽 가면 특히 심하고 여기서 행여 잘못하면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한테 칼 맞고 죽는 경우도 많아요. 이전에 아는 형 학원 다닐 때 자세한건 모르는데 중국 사람이 한국사람 칼로 찌르는 경우도 있었고, 왕징에선 한국 사람이 납치되어서 3일 뒤에 돌아왔는데 이미 죽어있었고 듣기론 장기가 없어져서 왔다는 사건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회자: 성관계는 어떤가?

(전원 웃음)

D 잘 모르겠어요.

사회자: 본인이 아니라도 주위 친구들 얘기를 해보지.

D 제 친구들은 착해서 아직 그런 일은 없었어요.

사회자: 여기 주위에서 많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들어서 물어 보는 거야.

B 제가 본건 북경에 와서 입시 학원을 조금 다녔는데 학원 옆에 작은 빈관(여관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학원 다니는 고등학생들끼리 방을 잡아놓고 그런 경우는 봤어요.

- 유학 생활 중 얼마나 자주 외롭다고 느끼는지, 외로우면 어떻게 스스로 달래는지요?

A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사회자: 외로움은 어떻게 달래나?

A 밖으로 나가서 여기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요.

B 전 부모님도 보고 싶지만 친구들이 더 보고 싶어요. 부모님은 여기 간혹 오시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 싶고, 또 저는 상해에 있었으니까 상해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C D 저는 별루 안 외로워서 잘 모르겠어요.

사회자 : 남학생들은 여학생들과 다르네. 성격 차이인가? 다들 곳곳하네.

- 본인이 중국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생각하는지요?

A 중국 애들 이기적인 것도 이젠 적응 됐고, 중국 사람들 지저분한 것도 이제 다 적응 됐고--- 뭐 딱히 스트레스가 있다면 홈스테이를 하는 점에 있어서 한국과 다르게 통금시간이 있으니 그런 건 적응이 아직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아, 좋은 점은 저희 아파트에 아줌마들이랑 할머니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랑 친해져서 재밌는 일도 많아요.

B 중국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없고 중국 사람들과 안 마주치니 중국사회에 적응이라고 할 건 딱히 없는데 그래도 살면서 간혹 어려운 점이 있어요.

사회자 : 어떤 부분에서 어렵다는 건지? 예를 들어볼까?

B 중국 법 같은 게 한국이랑 많이 다르니까 좀 적응이 안 돼요. 중국 사람들 사고방식이 한국 사람들과 좀 다른 거도 있고요.

사회자 : 사는 방식이 달라서 내가 불편한 점이 무언가? 적응이 안 된다는 건 사는 게 답답하고 신경질 나고 그런 게 있다는 소리인데---

B 중국 사람들은 행동이 너무 느려요.

C 불편한 점은 없어요. (전원 웃음) 교통질서도 남들은 화날 정도로 엉망이라는 데 저에겐 편하고 좋아요. 저는 중국에 온 게 다 잘된 거 같고 좋아요.

D 저도 불편한 사항 없고 다만 일처리 같은 문제가 느리고 답답한 것은 느껴요.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은 제가 특별히 적응 못하는 건 없어요.

A 냄새나면 참으면 되고 친구랑 사이 안 좋으면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니까.

사회자: 여학생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네. 그럼 생활면에서 어려움을 얘기해볼까?

A 중국인들이 사기만 안치면 좋은데 그것도 익숙해요. 옷가게 가도 터무니없이 가격을 불러도 깎으면 되고요.

C 가격 깎는 맛에 살아요. (학생들 크게 웃음)

A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 오기를 잘한 거 같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엉망이었을 거예요.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지만 대신 홈스테이하며 낯선 어른이 저를 통제시키고 있어요. 학습 면에서 중국에 온건 정말 잘한 거 같아요. 일단 한국에선 성적 때문에 자살하고--- 입시 제도도 자주 바뀌니까 방향하는데 중국에선 한국 보단 편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 잘 선택한 거 같아요. 또 한국에 있는 공부 잘하는 애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학습 방면에서 우리보다 실력이 좋다고 하지만 중국어 하나는 제가 잡고 있으니 나중을 보면 그런 방면에선 좋은 거 같아요.

B 저는 안 좋은 거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공부를 더 안 해요. 한국에선 부모님들이 학원도 다니게 하고 통제시키시는데 여긴 좀 자유로우니까 여기 온 걸 좀 후회하고 있어요. 이제는 잘 해야죠.

C 어떻게 보면 잘 된거고--- 먼저 영어권을 다녀왔다가 중국을 왔음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어적으로는 회화는 다 되니까 잘된 거 같은데 또 다른 방면에서 보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땐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도 했는데 중국 와서 방향을 좀 했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많이 뒤쳐졌어요. 여기 오니 혼자 있고 친구들도 없고 다 형들이니 맘 편히 터놓고 말할 곳도 없고, 그래서 공부안하고 혼자 쓰다니고... 온 지 3개월부터 마음 못 잡고 내내 헤매다가 이제 좀 마음을 다 잡았어요. 정신 차린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웃음)

사회자: 3년 반 동안 공부를 안 하고 있다 이제 한 달 전부터 공부했다고?

(전원 웃음)

왜 그렇게 방향을 했나?

C 놀게 많으니까요. 여긴 다 놀 수 있는 유혹이 많으니까요. 영어권으로 갔으면 더 나을 뻔 했는데 중국 온 걸 조금 후회해요. 중국어보단 영어가 더 좋아 보이고. (전원 웃음)

D 한국에 있다는 것보단 나은 거 같아요. 영어권이 더 나을 뻔했지만 암튼 중국온건 한국에 있는 것보단 나은 거 같아요. 한국에선 압력이 심하니까 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에선 한국보다 그런 압력이 없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중국 온 것이 더 나은 거 같아요.

- 스트레스, 진로, 이성문제, 경제문제 등 혹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는지요?

A 맨 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매일 학교 다녀와서 과외하고 자고 그런 똑같은 일상에 대한 스트레스, 그거 빼면 스트레스는 없어요.

사회자 : 장래에 대한 염려나 스트레스는 없나 ?

A 전혀 없어요.

사회자: 따분하니까 그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나가서 술을 마시나?

A 집밖을 나오면 할게 술 먹고 노래방 가는 거 밖에 없으니까요.

B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걸 여기선 못하니까 그게 스트레스예요. 한국에선 친구들과끼리 모여서 가까운 근교로 놀러도 잘 갔는데 여기선 그렇게 못하고, 여기 있으면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여자 친구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 저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전원 웃음)

사회자: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갖고 있나?

B 특별한 방법 없이 그냥 음악 듣고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C 가끔씩 누가 열 받게 할 때 그냥 운동해요. 예를 들어 형이 옆에서 혼내거나 그럴 때요.

사회자 : 장래에 관해서 스트레스는 없어? 앞으로 내가 뭘 할 건지에 관한 거.

C 장래에 대한 걱정 많죠. 커서 뭘 해야 하나. 학교 다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해서 살아야하나 그러다 형이 또 가만히 있는 저에게 옆에서 신경을 건드리면 죽고 싶은 생각까지도 든 적 있어요. 이전에 제가 늦게 들어왔다고 부모님이랑 형이랑 저를 막 때렸는데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뛰어 내리려고도 했어요. 중국 와서 좀 나아졌는데 일 년 반 전에 형이 여기로 와서 또 다시 스트레스를 받아요. 원래 멀리 살았는데 다른 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한국서 3년 정도 놀다가 여기 와서 대학 다니거든요.

사회자: 형과 나이 차이는 얼마지 ?

C 나이 차이는 6살 차이에요.

D 중국을 좀 더 일찍 왔으면 공부를 더 잘 했을 거 라는 생각과 낯선 곳에서의 적응하려는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장래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 조기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조기유학은 가능한 안 오는 게 좋아요. 한국에선 도피유학. 공부 못해서 간다는 의식이 있으니 한국가면 기분이 안 좋아요.

사회자 : 조금 전 까지는 유학 오길 잘했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는데 말이 안 맞네?

A 개개인마다 다 다른데 홈스테이를 잘 구해야하거나 그렇지 않을 시엔 자기 절제가 잘 되어야 하는데 여긴 술도 막 팔고 가격도 싸니까 본인이 절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만 된다면 혼자 와서 공부하는 것은 좋은 일 같아요.

B 찬성하는 부분은, 본인이 절제해서 공부 잘 하면 아주 좋은데 굳이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 부모님과 떨어져있으니 스스로 통제가 안 되고 점점 주위 유혹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거 같아요.

사회자: 부모님과 같이 오면 조기유학이 좋다고 보는가?

B 그건 좋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와서 공부하면 좋아요. 효과도 좋고요.

C 뒤에서 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 유학생생활을 더 좋게 해 나 갈수 있어요. 어쨌든 그건 개인 적응력의 정도와 통제력의 정도가 어떠한의 차이

인거 같아요. 저는 중국에 적응을 잘했지만 공부를 안했어요.

사회자: 적응을 잘했는데 공부를 안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지?

C 사는 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제 스스로 공부를 안 한 거죠.

사회자: 생활면에선 적응을 잘했는데 공부를 안 했다면 공부에 관한한 적응이 안 된 거 아닌가?

C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공부를 안했던 거죠. 자기가 정신을 빨리 차린 사람이라면 조기유학을 봐도 상관없는 거 같아요.

D 제 생각엔 중국으로 조기유학 오는 건 별루인거 같아요. 영어권은 모르겠는데 중국은 유혹의 손길이 너무 많아요. 영어권에선 놀게 되도 영어를 하면서 노는데 중국에선 놀면 중국 애들이랑 노는 걸 제 주위에선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또한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영어는 들으면 대충 스펠링은 받아쓰는데 중국어는 한자를 안 외우면 아예 쓸 수조차 없으니깐 별루 추천 안하고 싶어요. 차라리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랑 오는 건 좋은 거 같아요.

B 저는 아주 어릴 때 온다는 건 반대예요. 문화적인 면에서 혼란스러운 거 같아요.

- 중국에서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A 오늘은 나가서 안 놀아야지 하면서 행동은 이미 나가있으니.. 맨 처음에 중국에 올 땐 공부를 이렇게 해야지 라는 각오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통제가 안 되서 그게 걱정 이예요.

B 올 때는 큰 맘을 가지고 왔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공부를 안 하게 되고 --- 그게 걱정 이예요.

C 지금 어려움은 공부밖에 없는 거 같아요. 공부가 잘 안 돼요.

사회자: 왜 공부가 안 돼?

C 저는 책상 앞에 10분을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책을 보는 게 무작정 짜증이 나는 거예요. 워낙 산만해서 그런 면도 있고요. 그걸 어릴 적부터 했

어야하는데 그런 습관이 저는 안 되어 있어요.

D 대학입시 그리고 언어소통이 어려운 점 빼곤 없는 거 같아요.

- 중국에 오는 후배들에게 내 경험에 비춰서 어떻게 준비하면 적응 잘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지 제안을 해 준다면?

A 중국 오려면 중학교 졸업하고 오는 게 제일 좋고요. 오기 전에 단 하나라도 자신이 최고로 잘하는 과목 하나쯤은 잡고 와야 한다는 점. 영어나 수학이나 중국 애들과 비교해서 확실히 잘 하는 걸 가져와야 무시 안 당하고 살아날 수 있어요.

B 중국에 와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A 여기 왔다면 한국 애를 안 만나던가, 아님 북경에 오지 말고 시골 같은 한국 사람들 없는 한적한곳 특히 중국인 학교로 가서 언어라도 제대로 배우는 게 좋은 거 같아요.

B 방금 A군 의견처럼 저도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주위에서 말렸어요. 중국 사람들하고만 있음 너무 외로워서 못 견디고 오히려 역효과 나서 한학기만 다니다가 도로 온다고 해서 시골가려다 북경으로 왔어요. 꼭 북경에 온다고 나쁘고 시골가야 좋다는 건 아니라고 봐요.

C 한국 애들은 한국 애들과 노는 걸 자제하고 웬 만하면 한국사람 많은 곳에 사는 건 안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없으면 또 문화적으로 적응을 못 할 거지만 되도록이면 한국 사람들과 안 놀아야 해요.

B 아니면 공부 잘하는 한국 친구들이랑 놀던가요. (웃음)

D 저는 무조건 중국에 유학 오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와서 언어 연수 할 때는 그때 한국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자연스레 접촉이 많아지면서 제가 그동안 해놓은 실력까지 점점 무너졌어요. 외로운 건 견디기 힘들겠지만 다시 시작 한다면 외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Focus Group Discussion #2

(고등학교, 여학생)

일시: 2006. 10.1 16:00 - 19:00

장소: 김익기 교수 택

사회: 김익기 교수

참석자: A (여자, 고등학생 2학년, 18세, 중국유학 3년)

B (여자, 고등학생 3학년, 18세, 중국유학 3년)

C (여자, 고등학생 1학년, 17세, 중국유학 8개월)

D (여자, 고등학생 1학년, 17세, 중국유학 1년 9개월)

사회자: 이제부터 북경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 생활 적응에 관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학생은 처음 중국에 올 때 언제 누구와 같이 왔습니까? 처음 올 때 두려움은 없었는지?

A 저는 아빠랑 언니랑 같이 왔고 지금은 언니랑 같이 있고 무서웠던 것보다 엄마랑 떨어져 있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먹는 거랑 엄마랑 같이 없는 것. 그것 빼면 한국에서도 힘들었으니까 공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2가지가 힘들었어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B 처음에 아빠가 오빠의 유학을 생각해서 엄마랑 같이 셋이서 왔거든요. 3년 전 쯤에 왔는데 올 때 유학원을 통해서 가방 2개 두 개 들고 왔어요. 유학원만 믿고 왔는데 유학원이 속이고 집도 속이고 돈도 훨씬 비싸게 구하고 동왕장(아파트)에 구해주고 그렇게 3개월 살다가 화칭(아파트)도 알게 되고 이제는 안정이 되었어요. (사회자: 처음에 어려웠네?) 처음에

집을 열자마자 바퀴벌레도 많고 환경의 열악이 어려웠어요. 처음에 한국 같은 집을 생각하다가 중국 사람들 집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중국나라만 있다는 것만 알고 왔는데 이제 아니까 찾으러 다니고 한인교회도 다니고 한 3-4개월 지나니까 이제 안정이 좀 되었어요.

C 아빠가 중국에 일 때문에 계셨거든요. 북경에 전에 유학을 한 적이 있어서 유학생이 많고 그래서 북경에 안 보내려고 지방에 보내셨거든요. 산동의 ‘위해’에서 아빠가 있었고 나는 후에 2개월 있었는데 올 때는 공부하러 왔는데 아빠는 가신 후에 너무 무서웠고 지방이니까 한국인이 없어서 심심해서 북경으로 왔어요.

D 전혀 생각이 없었고 선생을 만나서 그분이 중국유학을 했는데 내가 수학과외를 했어요. 그만두면서 중국이 뜬다니까 중국어를 배우려고 겨울방학에 2달 오려고 했는데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학교를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1년쯤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급하게 2주 만에 집을 구하고 선생님이 북경을 잘 알고 도와주어서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사회자: 넷 다 중학교 졸업하고 온 것인가?

B 중 1 마치고, 사회: 고 3이라고 하지 않았나? 월반했어요.

사회자: 월반 몇 번 했어? 한번 했어요. 온지 얼마 안됐잖아?

B 7개월 정도 필리핀에 어학연수 했어요.

사회: A는 고2인데?

A 중2 때 왔는데요. 그때 사스가 터져서 한 달 만에 가고 그때 만났는데 애는 중국에 있고 오지 않으려다가 시작한 것이니까 3개월 후에 다시 왔어요.

사회자: B는 언제?

B는 중 1마치고 왔는데 오빠는 중 3 마치고 왔는데 사스 때 옆에서 죽는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엄마가 죽으면 죽었지 이런 집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하는 아줌마, 엄마 과외선생이랑 나가지 않고 집에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했어요. 2달 동안 한참 뒤 중3때 졸업하고 영어공부하려고 필리핀에 7개월 갔어요.

사회자: C는 몇 학년 때 왔어?

C 중3 2학기 때 왔는데 출석 일자 맞추고 왔어요.

사회자: D는?

D 중 2학기 맞추고 겨울 방학 때.

사회자: 여기서 중3으로 들어왔나? 그래도 관계없나?

D 여기가 한 학기가 느리므로 9월이 학기 시작이니까 한 학기 언어연수하고 학기가 반년 느리니까---

- 학생이 유학을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특히 중국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이 유학을 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누구 혹은 무엇 때문입니까?

A 아빠는 사업으로 북경 이외에도 많은 곳을 다니다가 앞으로 중국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언니에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언니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엄마를 떠나기 싫었어요. 아빠는 여자기 때문에 언니와 힘이 되도록 같이 가고 아니면 혼자서 안 된다고 했어요. 언니는 가고 싶어 했고 저도 떠나기 전까지는 엄마를 떠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가 다른 나라 배운다는 생각에 오게 되었어요. 지금도 아빠가 중국에 왔다 갔다 하시니까 와서 보세요. 엄마만 못보고 열심히 공부하다보면 시간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B 1학년 말 쯤에 저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다가 아빠가 중국을 크게 보신 거예요. 커도 중국에서 커야겠다. 너희 시대에는 중국이 어떻게 변할 줄 모르겠다. 하시면서 굉장히 중국을 좋게 보신 거예요. 어떻게든지 중국을 보내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심하시고 뜬금없이 왔어요. 가라고 하시니까 왔지요.

사회자: 아빠의 명령으로?

B 명령이 아니라 우리는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피아노를 전공해서 처음에는 오기 싫어했죠. 보내주려면 불란서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피아노의 고장으로 보내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오빠가 가면 올 수 밖에 없어요.

C 아빠가 계셨고 중국을 좋아하셨어요. 우리나라에 사는 것을 좋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화가인데 미술제도가 여기가 훨씬 잘 되어 있어요. 한국을 싫어하시고 중국을 좋아하시고 발전할 거고 그래서 오빠를 보내려고 했는데 엄마가 아빠도 중국에 가 계시는데 오빠도 중국에 보내기 싫으셔서 망설이다가 때를 놓치고 저를 보내려고 하셨다. 89년생의 수능제도가 달라져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에 겁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난리이고 도망하려는 마음도 있어서.

D 선생님이 중국에 있다 하니까 여행으로 오려고 했는데 엄마가 유학 보낸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공부를 잘 했는데 점점 한국에서 성적이 떨어져서요. 엄마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데도 성적이 자꾸 떨어지니까 고등학교도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도피성으로 왔으나 우연한 기회로 오게 되었어요.

- 학생은 중국에 오기 전에 중국의 언어나 풍습 등에 대해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까?

C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렇지 중국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전혀 문화 등에 관심이 없었고. 중국이 있다는 정도만 알았는데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요. 문화가 이렇게 떨어지는 줄 몰랐어요. 애들 옷 벗고 다니고 중국이 밤에는 멋있는데 낮에는 정말 더럽다고요. 전기를 막 틀잖아요. 그래서 밤은 멋있는데 아침에는 쓰레기가 있고 거지가 길바닥에 자고 얼마나 보기 싫은데요. 문화 자체가 너무 떨어지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국민성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줄 몰랐어요.

B 이렇게 중국이란 나라가 있는 것만 알았어요.

A 학교 다닐 때 사회 선생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를 신문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중국은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래서 개네들은 차도 없대? 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었는데 와 보니까 자전거가 부딪치고 정말 이런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와 이렇게 떨어지는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사회자: 지금은 중국 좋아하지?

A 아니요. 좋아하지는 않고요.

- 학생은 현재 어디에서,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만약 잘 못 지내고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A 친언니와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B 엄마와 오빠와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사회자: 아버지는? 한국에 계세요.

C 홈스테이하는데 언니 2명 대학생 언니와 4명이서 같이 살아요. 저는 일반 홈스테이가 아니고 대학생이 하는 홈스테이에요. 저는 전에는 아줌마들 하는데 있었거든요. 비용이 이전에는 3,000-4,000위안 이었는데 지역마다 다른데 대충 그래요. 요즈음은 한 달에 6,000위안 정도이고 방하나 주고 밥해주고 관리해 주고 10시 까지 들어와 과외도 해 주고 학교에서 부르면 학교도 가고 후견인처럼 해 주는데--- 법적인 것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아줌마들은 보통 한 달에 6,000위안인데 저는 주인이 대학생이므로 5,000위안예요. 다 챙겨주잖아요. 완전 엄마예요. 다 엄마끼리 친분이 있어요. 그 정도 참견하려면---

D 저는 홈스테이 아닌데 한국에서부터 아는 사람이 엄마처럼 하거든요. 친구들이 돈을 주고 홈스테이 하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기 옮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선생님과 사는 데 안 맞을 때도 있지만 6개월 있을 때 어려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선생님이 예뻐 하시니까요. 사회자: 그럼 집값은 어떻게 하나? 집값은 내가 다 내고 선생님이 수학과 외 해주세요.

사회자: 선생님이 과외하시고? 집값을 다 내고 과외비도 내고?

C 네.

- 학생은 현재 중국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요? 중국어를 배운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A 사회자: 평상시 언어 쓰는데, 중국말 하는데? 저는 3년 되었는데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내가 밖으로 내돌면 실망하고 관리 못하잖아요. 처음
왔을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너무
많은 애들이 밀려오니까 경쟁이 심해지니까 압박감 때문에 열심히 했
어요. 부모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은 차이가 있어요. 과외선생을 구하는
것이나 엄마 있는 애들은 알아서 해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나는
스스로 해야 되고, 그러나 공부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B 중국어 3년 했는데 처음에는 local을 들어가서 전교에서 한국인이 저 혼자
였어요.

사회자: 어디에 있었어?

B 여기 옆에 쓰러져 가는 ‘싱치’라고요. 칸막이가 없는 화장실이 있는 문을
열면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면서 볼 일 봐요. 중3 때는 졸업장 때문에 좋
은 학교 가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있었으니까 전교생에 나 혼자예요. 온
애들이 중국인이라 외롭고 친구들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애들과
어울리게 되었어요. 중국인처럼 놀았고 말은 그때 확 늘어서 말하는 데는
불편한 것이 없어요.

C 중국어 잘 못하고 말이 불편한 것은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마는데 말은
적당히 췌 맞춰서 말하면 되니까 대강 알아듣게 할 수 있으니까 다 알아
들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사니까 어를 하는데 한국에서 보다 거부감이 없
으니까. 장사 하는 말도 똑같고 깎아주세요 하니까---

D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학원 공부 할 때만 말하고. 선생님이 있고
주변이 어른이니까 나이가 어리므로 틀리게 말해도 개의치 않아서 말이
늘었어요.

- 학생은 지난 1년간 학교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요? 그리고 학교수
업이 학생의 성적향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중국인 친구들의 도움
여부는?

A 저는 중국반에 약 1년 동안 있었어요. 북경에서 제일 좋은 학교예요. ‘북경사중’(북경사대부중)인데 그다음이 ‘북경사대부중’, ‘치마’, ‘인민부중’ 이렇게 있어요. 북경사중이 성적이 제일 좋은 애들 이에요. 국제부에서 말고 중국 애들 기준으로 볼 때요. 청화대랑 북대(북경대)를 많이 가요 대학 못가는 애들이 없어요. 다만 중점대학 말하자면 민족사관학교라 저희 학교에 서울 과학고 오빠들이랑 맨 날 외국 애들이 교환학생이 왔었어요. 저희 학교는 제가 1기생인데 학생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애들이 잘 했어요. HSK가 6-7급이고 저는 사스 때문에 한국 갔고 이미 피해보고 온 애인데 언니와 저와 또 한명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말 못하고 못 알아듣고 그때는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악착같이 공부를 했어요. 6개월 만에 바짝 올리고 나중에 느슨하게 하다가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성적이 엄청 아빠한테 가기 때문에 1등하면 학교에서 돈도 줘요. 안할 수가 없어요. 300-400위안(한화 45,000-50,000원)이나 그냥 줘요. 국제부에서 1등하면 상장 받고 선물 받고 돈도 받았어요. 다 엄마주고---

사회자: 그래서 1등 했어?

A 네. 애들이 정말 소수예요. 애들이 공부를 못하고 안 해요. 중국부의 중국 애들은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국제부는 공부를 안 해요.

사회자: 학교 안에서 국제부는 따로? 국제부 안에서 1등 한 것이라고?

A 예. 전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1등 하면 선생님들의 눈이 달라요. 공부로 애들을 거르거든요.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들이 가리는 습성이 있어요. 중급반에서 1년 정도 했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중국반에 50명반에 1명 정도 넣어 주어요.

사회자: 국제부와 중국인들은 따로 공부하고?

A 예체능만 같이 해요. 다른 학교는 3명도 넣어줘요. 저희 학교는 절대로 외국 애들이 중국 애들에게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조용히 살아야 되요. 그 애들 휘방 놓으면 안 돼요. 정말 말도 못하고 단정하고 말도 안하고 남자 애들 중에 까불까불 하는 애들은 아예 넣어주지를 않아요. 저희는 많은 오빠들이 넣어달라고 했는데 넣어주지를 않아서 많이 학교를 옮겼어요. 1

년 힘들게 공부하고 지금 다시 국제부에 와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학준비가 중국 반에서 공부를 하면 시험을 못 봐요. 국제부에서 보는 시험문제는 중국반 애들과 완전히 다르고 우리는 알고 그 애들은 많이 배우고 깊고 우리는 조금 배우고 중국반에 비하면 많이 적으니까 돌아오면 다시 대학 준비를 해야 되요. 사회과학을 해야 되요. 왜 갔냐하면 중국인들이 문화와 습성을 알 수 있고 외로움은 많이 있지만 말이 많이 늘어요. 수업이 힘들긴 하지만 말하기 듣기가 많이 늘고 중국인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말하면 그냥 해야 되요. 말대꾸는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복종이에요. 우리와 달라요. 문화적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려고 하고 얻는 것은 없지만 중국의 나라에 대해 알 수가 있어요. 중국 애들과는 시험이 달라요. 우리는 외국인 전형 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보면 쉽게 들어갈 대학을 어렵게 들어가는 것이 되요.

- B 학교에 들어가는 수는 고정되고 애들은 늘어나니까 정말 열심히 해요. 70%가 한국인이고 10%가 외국인이고 20%가 일본인 이에요. 중국 애들 시험 치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 대학 못가요. 저는 local 학교에서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중국인처럼 수업을 했어요. 수업을 알아들었느냐고 물으시면요. 그때는 비교적 언어에 제한이 적은 것들은, 수학, 영어, 화학은 따라가고 역사, 지리는 처음에 어떻게 따라가? 그래서 처음에는 버렸지요. 그냥 잤어요. 영어시간은 일어나서 공부하고 수 학시간은 일어나서 숙제하고 중국 애들과 똑같이 했는데 정치나 언어에 제한되는 것들은 공부를 못했어요. 과감히 버렸어요. 필리핀에 영어 연수 갔다 오고 고1 2학기에 들어갔어요.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당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은 듣다가 고2 때 이공대 학교(북경 이공대 부속 고등학교)로 옮겼어요. 거기서도 중국반에 들어갔어요. 저는 국제반에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2때 저희는 한국인들이 한반에 7명이었어요. 문과 이과인데 저는 문과반이고 저희학교가 이공대의 부속학교인 만큼 문과반이 많았어요. 문과반에 한국인들이 몰리

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됐어요. 저는 중국에 꽤 오래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때쯤 되니까 처음에 들리지 않던 지리 역사에 들리더라고요. 지리 수업은 90% 정도 알아듣고 역사는 선생님이 하라는 필기라던가 집어주는 내용이 많이 들려요. 원래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 안 들리니까 흥미도 잃고 그래서 자고 실력이 안 늘고 그런데 중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점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국제반에 있는 애들은 말도 느리게 하고 그러나 중국반에 있던 애들은 중국 애들과 똑같이 수업을 했으니까 대학가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저는 지금 고3인데 학원에서 입시 준비를 하는데 중국어가 안 되는 애들도 많아요. 저는 중국어 기초부분은 모르겠는데 열독 장문은 중국 애들과 같이 있으면서 수업을 거의 알아듣고 그런 면에서는 이익이 많죠.

C ‘위해’에서 2개월간 있다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열심히 했다가 보다 공부하는 양이 많았어요. 여기 와서 어언(언어)반을 들어갔는데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쉬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안했어요. 한 학기는 오전에는 어언반이고 오후는 국제반으로 가는데 국제반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오후를 거의 땡땡이를 거의 치고 그런 애들이 있고 2학년도 있고 같이 애들과 무단으로 조퇴를 하거나 끝나는 시간까지 놀고 끝나서는 집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B 저와 같은 학교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D 고2 때 중국 애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높고 이공대가 좋은 데거든요. 국제부가 생긴 지가 안 되고 자리가 안 잡혔어요. 저도 땡땡이를 많이 쳤어요. 지난 1년 동안 허점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번 학기부터 제대로 되었어요. 앞의 2학기 동안은 땡땡이 안친 사람이 없고 다 자고 다른 데는 ‘차반’(로칼반: 중국 학생반)에 잘 안 넣어주는데 우리 학교는 넣어 주었어요. 가서 다 못 알아 들으니까 자고 심했어요. 이번학기 부터는 차반에 안 넣어 주고 제대로 하라고 하니깐요. 어언반은 제대로 수업도 안하고---

C 어언반은 애들이 뭐라 그러면 애들의 맞추어서 흘러가고---

B 중국반에서 진정으로 중국문화나 중국수업을 하려면 반에 한국 애들이 많

이 있는 중국반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쉬는 시간에 한국말 하고 같이 땡땡이 치고 한국 애들끼리 물리는 재미가 훨씬 커요. 자기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저처럼 놀 사람이 없으니까 중국 애들 하고 놀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야 진정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저희반에 한국인이 7명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고 2니까 대학시험에 나오는 역사 지리 수학 이런 것들만 듣지 체육 미술 시간되면 놀고 수학만 들었지 규정된 수업은 듣는데 그 나머지 수업은 불필요한 물리, 우리는 문과생이니까 보충수업은 땡땡이를 치고 우리는 관리가 잘 안되니까 밖에서 놀고 그랬어요.

D 중국 애들도 한국 애들이니까 그러고 선생님들도 외국인 이니까 하고요. 중국 에는요 학생만 받으면 받았지 진짜 체계적인 관리는 안 해 줘요. 너네 공부하기 싫으면 말아라. **사회자: 중국 애들에게는 안 그러지?** 수업한번 빠져 봐요. 큰 일 나지요.

A 저희학교는 아파서 체육을 빠지고 싶으면 꼭 양호실에 가서 칭 티아오를 해야 돼요. 아파서 땀이 짙짙 도 제정신을 못 차려도 대신하면 안 돼요. 자기가 가서 직접 해야 돼요. 꼭 그래야 되고 애들의 땡땡이는 말도 안 되고요. 선생님한테 말대꾸는 더더욱 안 되고요. 저는 50명중에 한명이니까 있다 보니까 아파도 그랬고 땡 까면 다 걸리고 출석을 다 부르는 거예요. 선생이 다 찾아내요. 혼나요 제가 중국반에 들어갔을 때 국제부에서는 신경 안 써요. 중국선생들이 나한테 무어라 그러지. 이쪽에는 말하기가 그렇지. 그러면 힘들면 돌아와라 그래요. 신경을 끼칠 수가 없어요. 저희 국제부 선생들은 ‘북경사중’에서 북경에서 돈 좀 있고 힘 좀 있는 선생들이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는 좀 약하고 중국반 선생들은 --- 좋으시고 돈은 없지만, 저희 선생님들은 돈도 없고 발도 넓지 않고--- 뭘 많이 관련을 못하는 거지요 ‘사중’에 대해서. 저희는 중국반에서 하면 혼들려요. 애 네는 10월 1일 국경일에 1주일씩 놀러가잖아요? 저희 ‘사중’에서는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일 터지면 사중이 욕을 먹잖아요. 자기네 이미지가 깎인다고. ‘회문’, ‘예외2공중’, ‘상해’, ‘원난’, ‘후이린’ 다 놀러 가

는데 우린 못 놀러 가요. 국제부가 정말 못가요.

- B 중국에도 고등학교가 많잖아요. 각 학교들이 외국인 허가 받은 학교가 있고 허가 받지 못한 학교가 있어요. 외국인은 학비를 받으니까 많이 받잖아요. 너도 나도 외국인 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학생들을 받아요. 그리고 애네 처럼 이미지 관리를 중시해서 국제부 관리를 해주는 학교가 있는 반면 어떤 학교들은 돈줄로만 생각하고 외국인들은 돈 봉이다. 돈만 받고 할 것만 하고 말 것은 말고 관리를 안 하고 건물만 확 저버리고 그런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들은 돈만 받고 학교 나오든지 말든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졸업장은 줄게 하는 학교도 많고 학교가 다양각색이에요. 정말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학교를 잘 찾아야 되요. 정말 좋은 학교는 잘 찾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로 학교가 없어요. 정말 대우받고 싶고 정말 공부하고 싶으면 국제학교를 가야 되요. 그래서 중국학교보다 국제학교를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학교들은 외국인들을 학생이라고 대하지 않고 돈처럼 생각해요.

D 그래서 선진국에 가려고 해요 그런 것에 질려서---

- B. 학교 제도가 학생들을 돈으로 생각하고 중국 애들은 철저히 관리하면서 외국 학생들에게는 안하고---

D 우리가 그냥 돈 이에요.

사회자: 국제부는 관리해 줘?

A 관리해주지요. 그렇지만 체계적이라고 말도 못하죠.

- B 체계적인 학교 반면 안 체계적인 ‘회문’이라는 학교가 10년 되었어요. 중국학교 인데 그 안에 국제부 설립이 있어요. 국제부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강사진부터 1등급으로 학교관리도 먹는 것도 1등급으로 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저희 학교 ‘칭화부중’, ‘인민부중’, ‘북사부중’ 은 체제보다는 이미지 관리를 많이 하고요. 국제부 설립이 잘되는 곳은 ‘회문’이고요. ‘세중’은 국제학교이고요. 중국학교가 아니지. 중국학교 말고 국제학교만.
- D 좋은 학교 가도 노는 애들은 놀거든요. 마음 먹기 나름인데 안 좋은 학교 가면 더---

사회자: 체제자체가 그렇게 되었으면---

A 저희 학교 주변에는 조그만 학교들이 많아요. ‘139중’, 정말 들어 보지도 못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는 우리가 그냥 돈 이에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하고요. 문제 일으키려면 나가라고 하고요. 졸업장만 따려면 빨리 졸업하라고---

B 작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대학교 부속학교들도 그런데 많아요. 진짜 중국에서 제대로 된 체계적인 고등학교 찾으려면 4개, 5개 정도 힘들어요.

사회자: 학교는 이미 이름이 나 있잖아? 나있기야 하죠 애들이 졸업장이 필요하니까 학교를 찾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안하면 얻는 것은 없어요.

D 여기가 잘 된다더라 하고 갔지만 자신이 안하면---

B 한국이랑 교육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한국에서는 너 해라 안하면 죽는다고 강압적으로 하죠. 주위에서 하니까 하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 학교는 잘 잡아주니까 내가 공부가 잘 될 꺼야 하는데 이 말은 틀린 말 이에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 잘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하는 학교에 가도 자신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되요. 악착같이 하면 과외 다해가면서 하면.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려면 애가 엄청 독해야 되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하하---

A 그런 애들은 엄마도 극성이고 힘이 되요. 그런 애들은 남자애들이 많아요. 여자애들에게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자기공부만 하는 남자애들이예요.

B 자기가 무엇이 되겠다 하는 애들이 대학 가려고 준비하는 애들이 많지 중국 애들처럼 똑같이 하려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생각이 잡혀있어요 자기 대학 가려는 준비를 하는 것은 있어요. 중국반에 가서 미친 듯이 중국 애들을 따라 가려는 애들은 없어요. 중국반에서 잘하면 아무래도 대학가기가 쉬어요. 중국 반에서 그게 아무리 대학반과 관련이 없어도 인단 배워 놓으면 중국어 같은 것이 어감 같은 것 어디든 가서 열심히 하면 득이 되요.

사회자: 좋은 얘기 많이 듣네.

D 방학에 2개월 동안 선생님 생각에 그냥 하는 것만 하고 어학은 빼고 1년 동안 자고 처음 1개월 동안은 중국 애들에게 잘해보려고 말도 걸고 이름이 무어나고 그랬는데 이야기 할 것도 없다. 가수 누구 아나 등 이야기 할 것이 없으니까 차츰 멀어지고. 나도 자꾸 수업을 빠지니까 면목이 안 서지요. 반에서 멀어지고 1년은 버티니까 이번 학기에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를 옮기래요. 성적이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국제부 선생님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저는 선생님들이 중국에서 상식에 맞지 않으면---

C 애가 다 따져요. 국제학교에서 내가 대표로 따지니까 옮기라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옮겨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B 중국에서는 제 주장을 펴내고 이런 애는 안 돼요. 한국에서는 받아 주잖아요. 중국에서는 선생한테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하면 거의 안 돼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A 뭐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의견을 잘 내놓거든요. 그러면 중국반에서 너네 싫으면 가 그래요.

A 저의 학교는 아주 독해서 교장선생이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싫으면 가라고 그래요. 다른 학교는 중국반은 싸거든요. 저희 학교는 중국반이 비싸요. 중국반에 대한 자부심이 장난이 아니예요.

D 중국 애들은 콧대도 높고 장난이 아니예요.

A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밖에 나가면 ‘사중’을 쳐 주어요. 택시운전수도 ‘사중’이라고 하면 알아 조요. 그러면 우리는 뺄줄 해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닌데. 잘하는 것은 아닌데---

B 우리는 그냥 국제반인데, 하하--- 저희 학교는 체계적인 것 보다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저희들을 알아요. 우리가 개방적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선생님 개선해주세요’ 하면 개선해 줘요. 그런데 중국반은 그런 말

하나도 안 돼요. 싫으면 옮겨야 되요. ‘학교의 인식이 안 좋아, 화장실 문이 없어’ 그러면 달아줄 것도 아니면서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듯이 선생님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말하는 거예요.

A 실제로 우리 돈으로 갈 잼아요. 중국반은 한 학기에 4,000위안 이에요. 저희가 중국반에 가려면 25,000위안 이에요. 학비만. 우리는 몇 배 예요. 우리는 돈 줄 이에요. 학교에 건물 하나 세우면 ‘저건 내거야’ 이런 식으로 장난쳐요. 방학 때 가면 하나씩 다 바뀌어져 있어요. 페인트칠 해 있고 우리가 가면 화장실도 바뀌어 있고 뭐가 다 바뀌어요. 우리 돈으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B 저희 학교는 외국인을 받아들인 지 2-3년 되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건물이 무너지고 있었고 잔디도 없었는데. 잔디를 깔더니 다음해 이공대 주위에 학교가 없으니까 고등학생들이 이공대(북경 이공대 부속 고등학교)로 온 거예요. 갑자기 80명이 많아진 거예요. 1학기에 35,000위안 정도예요. 건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보고 더럽히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돈으로 지은 것 하면서 반발심으로 더해요. 관리는 안 해 주면서 돈만 받고. 이것은 우리 것이다 그래요. 한국 애들 원래 그러니까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것이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A 우리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학교가 국제부가 설립되면 주변이 바뀌어요.

- 학생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중국에 머무를 예정입니까? 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면 계속 중국에 남을 예정입니까?

A 대학을 여기서 가요. 한국이 힘들잖아요. 취업도 힘들고 대학가기도 힘들고. 이미 공부해야 되니까 앞으로 7년 정도 더 있을 예정이에요. 되도록 열심히 해서 채수하는 경우 없도록 성적이 밑바닥이고 그래서 동생들과

- 같이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열심히 해야지요.
- B 고3 이니까 대학교 4년 잡고 5년 정도 더 있을 예정이고 석사는 한국에서 하고 외국 갔으면 해요. 석사는 이곳이 마음에 안 들어요.
- C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떠나려고요.
- D 저도요. 저는 1년 반 정도 있으면 미국으로 갈 생각이예요. 중국이 질려버렸어요. 엄마 생각이 중국어와 영어가 같이 해야 효과가 있다고---

- 학생은 주로 누구와 함께 여가를 보냅니까?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면서 보내십니까? 여가시간을 주로 어디에서 보냅니까?

- B 여가는 노래방 밖에 갈 데가 없어요.
- A 저는 밖에는 잘 나가지 않는데 세계가 있잖아요. 공부하는 세계가 놀자판 즉 공부를 포기한 애들 있어요. 낮에는 자고 새벽에 출근하는 애들 엄청 많아요.

사회자: 고등학교 애들이?

- C 네. 고등학교 애들이 학교는 월수금만 가고 학원 가듯이 가요.
- A 마음이 가는대로 싸우고 여자들 사귀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많지만 그런 애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놀다 보면 쉬이게 되고 엄마 아빠도 없는데 “나 안 해 나 안 나가” 하기가 힘들어요. 아예 접촉을 끊어요. 질렸어요. 보는 것도 싫고 하는 것도 싫고 예전에 어렸을 때야 몰랐으니까 어렸으니까 그렇게 안 봤지만 이제는 나이도 있고 18세인데 자기가 능력껏 노는 것이지 누구한테 끌려 다니는 것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없어서 핑계될 것이 없어요. 끊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끊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끊었어요. 접촉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돈을 흥청흥청 쓰는 것보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 B 저는 고3이 되면서 모든 것을 끊었어요. 엄마가 “고3이 되었으니 인간관을 끊어라. 대학 가서 놀아라” 하시고. 또 여기는 좁아서 매일 붙어 있으니까 여기 공안(경찰)들도 다 만나고, 소문이 나면 다 퍼져요.

C 좁으니까 밤에 남자애랑 얘기 하고 있었는데 ‘둘이서 사귄다’라고 소문나고 돌이킬 수 없어요.

A 여기에 공부하는 애들 장난 아니예요. 부모는 알런지 모르지만 그런 애들 안 만나요. 동거하는 애들 많아요.

사회자: 고등학생이?

B 예. 저는 얼굴만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사회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지.

C 시내 ‘왕후장’이나 ‘시단’에 물건 보러가고 가요.

B 거기 택시비 많이 들어 못가요. 가끔 가요. 저녁에 얘기하고 노래방 가고 밤에 나와서 이야기 하고 정말 특별히 할 것 없어요.

- 학생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합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전화를 합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이메일을 합니까?

A 엄마와 매일 전화해요. 엄마가 떨어져 있으니까 익숙해져서 요즈음은 전화를 잘 안 해요. ‘엄마 그러지마’ 그러는데 엄마가 저를 많이 믿지요. 보여준 것도 있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므로 믿으시므로 전화를 끊고 계세요. 요즈음은 가끔 해요.

B 생활권이 중국이고 부모님도 중국에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연락할 필요가 없어요. 친구들과 사이로 연락하고

A 한국에 가면 한국 애들이 헬썹해 저요. 등급제 때문에 그것으로 선생들이 판단을 하니까 애들이 쫓아서 공부에 미친 것 같아요. 연락 잘 안 해요.

C 친구와 가끔 해요. 이제는 수신자 부담을 친구가 안 받고 전화요금이 친구가 많이 나왔어요. 10만 원 정도. 인터넷으로 이야기 하고 한국에 엄마가 의심하고 싸웠는데 지금은 연락을 잘 안하고 돈관계일 때만 연락하고 돈 보내줘 그러면 보내주고 엄마가 이제는 믿으니까 이제는 잘 연락 안 해요.

D 엄마가 냉정하시고 엄마와 처음부터 연락을 안했고 2달 이후에 연락했어요. 돈 부칠 때만 연락해요.

-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매우 친한 친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은 이성친구가 있습니까? 이성친구가 있다면, 한국인 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이성친구 외에 매우 친한 친구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그 친구들과는 일주일에 며칠 정도 만납니까? 또한 그 친구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ABCD 남자친구 없어요.

A 중국반에 1년 있으면서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 건드리지 않아요. 말을 조심했어요. 남자애들이 정말 못해요. 별근 해서 한국이 뭐가 어때서요. 우리나라 애국심이 심하대요. 한국에 대해 나쁘게 말하면 나도 기분 나쁘니까 나도 조심조심 말하다보니까 중국 애들이 먼저 다가왔어요. 중국 애들이 물어보고 빨리 친해졌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다가와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했어요. 중국친구들과 아직도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을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잘 지내고 그러나 다 잘 지낼 수는 없고. 보면 인사는 다 하는데 여자 친구는 3-4명 한국친구는 많은데 이곳에서는 친구를 좀 골라가면서 사귀고 애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런 길에 빠진 애들에게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신이 느낄 때까지 바라볼 수 밖에 없어요. 노는 애들과는 멀어지는 편이에요. 언니도 있고 그 길로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엄마에게 믿음을 주고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돌아가서 엄마랑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뭇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중국말 저는 열심히 해요.

B 중국친구들은 중3때 같이 있었는데 한국인이라 생각 안 해요. 졸업한 후에 반모임 등에 연락이 와요. 나와서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주말에도 놀러 가는데 나오라고 하는데 힘들어요. 중국 애들과 노는 것은 힘들어요. 종일 걷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야기 하는 것이 노는 것이므로 힘

들어요. 그래서 나가기 싫어요. 한국 애들은 재미있거든요. A. 피자 먹고 음료수 사먹고 하거든요. 걷는 게 놀이고 이야기 하는 게 노는 것이고 이상한 동물원 같은데 가고 냄새나는 데 가는 것이 노는 거예요. 인맥을 유지해야 하니까 가기는 해요. 연락이 오는데 중국인으로 간주되었고 주말에 연락이 와요.

A 얼마나 친하게 지냈으면--- 나는 정말 중국인이었다니까. 연락이 오면 ‘위망’(나는 바빠)하면서 교회 간다고 하면서 잘 지내요. 고등학교 친구도 가끔 연락오지만 한국 애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연락하는 애들이 적은데 중학교 친구 애들은 정말 친하게 지내요.

사회자: 북경대 남학생들도 여기서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인데 친구사귀가 어렵다고 하는데...

A 아니에요. 중국 애들이 밀어내지는 않아요.

사회자: 진짜 감정을 섞으면서 친해지기는 어렵다고 하던데?

A 선생님 홍보면서 감정이 섞였었는데 남자들은 농구도 하면서 더 친해지기 쉬운데 그 애들은 왜 그랬을까요? 하하---

B 말이 안통하기 때문에 한국인처럼 ‘나 힘들어. 기분이 안 좋은데’ 그렇게 하면 친구 되기 어려운데 중학교3때 한국 애들이 옆에 없었어요. 중국 애들이 웬만큼 중국어가 안 통해도 애들이 자신의 부모의 이혼문제, 남자친구 등 개인문제를 상담하면 친구라 생각하니까 한국인이어도 마음이 통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정말 친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들은 한국인들이 많다보니까 외롭지 않아서 그렇게 친한 중국친구는 없었어요. 일단 고국 애들이 있으면 친해지기는 어려워요.

C 애들과 이상한 것은 없어요. 그냥 대체적으로 친절하고 성의를 보여줘요. 알려주고 챙겨주고 그런 것을 해주고 하는데 한국은 신학기 때 얘기하면 친해지는데 애들은 정말 잡담이 없어요. 수업은 듣고 뒤에서 커피마시면서 잡담하는 애들이 있지만 거의 조용해요. 쉬는 시간에는 한국 애들은 3명 있고 옆 반에도 있어서 내가 그냥 나가요. 사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친한 애는 없어요. 한국 애들이 있으면 중국 애들과 사귀기가 쉽

지 않아요.

D 중학교 3학년 때 애들 중 가끔 ‘잘 해라. 학교 개학 했냐’ 하는 정도의 문자하는 애들은 3-4명 있는데 평소에 하는 것은 아니고 3달에 한번정도--- 인사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나 감정을 섞이기는 어려워요. 한국 애들이 밀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 학생은 술을 마시는지요? 마신다면, 얼마나 자주 마시는 지요? 담배는?

ABCD 우리는 하지 않으니까 당당해요.

사회자: 아니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A 애들이 술 담배 많이 해요.

C 차 타러 가면서 담배 하는 애들도 있고---

D 남자 애들은 거의 담배 많이 해요.

A 남자들은 담배 피는 것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듯해요

D 술 담배 하는 것은 한국 애들도 마찬가지로 인 것 같아요 다만 여기는 구하기가 더 쉬울 뿐이지요. 하는 애들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다 해요. 얼굴이 다 삭았어요. 구석진 곳에서 담배 피요. 여자애들도 많아요. 저는 정말 담배를 싫어하잖아요. 여자애들도 안 피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피는 줄 알아요. 자신들이 좋아 보이지 않다는 것을 잘 몰라요. 자기 친구들이 막 피니까 그래요. 술은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먹어요. 구하기가 쉬워서 한국에는 그래도 이만큼 자유롭지 않아요. 애들이 1차 라이온킹(식당), 2차 노래방, 3차 술집 이런 식이에요.

B 생일파티하면 모여서 술 마시면서 생일파티해요. 마지막으로 술을 마셔요. 남학생 여학생 똑같이. 그런데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매일 매일 즐겨하는 애들이 있어요. 술 배가 있는 애들도 있고 한 학기 한번 주말만 되면 단장하고 나가는 애들도 있고--- 술 문화는 자유로워요. 16살부터 술을 파니까 오빠들이 그냥 사는데 20살이지만 얼굴이 동안인데도 중국은 신경 안 써요. 중국 애들도 마찬가지로 중2부터 담배 피요. 중국도 술이

제한이 없어요. 낮에도 술을 마시는데 중국 애들도 중2부터 학교에서 밥 먹으면서 맥주를 먹기도 해요.

사회자: 내가 본 대학생(원)들은 남자들은 거의 마시는데 여학생들은 안마시더라고.

B 인민대 술 문화 장난 아니에요. 북경대, 청화대, 인민대는 중국에서 소수예요. 우리가 중국에서 본 보통 애들은 아마 10명 중에 1명 들어가잖아요. 그 애들은 보통 술과 담배를 피워요. 선생과 상관없어요. 학교 문 앞에서 담배 피고. 이미 선생도 다 아는데요.

- 학생 주변의 한국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비행에 대해서 들은 사례가 있으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C 오자마자 사기 당했어요.

D 동거하거나 나쁜 길로 빠지는 사람 보면 나쁜 사람 없거든요. 다만 너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A 저는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못 물어 보겠어요.

사회자: 더 자세히 얘기해 줄래? 동거친구에 대해서 들었던 케이스 등.

B 잘 모르겠는데 따로 공부 하다가 둘이 사귀었는데 좋아서 동거했어요. 부모님 모르게요. 고3인데. 외로우니까 무서워요. 여자애들이 혼자 공부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물도 시켜야지요. 이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가스조사라고 해서 문을 열어 주었는데 여자애들이 일 당했어요. 동왕장(아파트)도 9동 10동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아래 동은 안전해요. 그래서 많이 살아요. 동거하는 애들은 화청(아파트)에 안 살아요. 다른데 가는데 남자애가 있으니까 화청 사는 애들도 있어 남자 친구가 의지가 되어요. 외롭다고 모든 걸 다 바쳐요. 빠지게 되니까 동거하게 되고. 동성은 도움이 돼요. 얘기를 하면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데서 얘기해요. 그러나 남자는 지켜주고 말 안 하고 끝까지 내편이 되어 줄 수 있고 내가 오라면 언제나 달려와요. 엄마 아빠처럼 해주는 거지요. 기둥이 되어주는 거지요.

돈이나 무엇이나 주어요. 남자애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해 주어요. 외로워서요. 공부만 하는 것이 힘들어요. 혼자 하는 것이 힘들어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클럽도 있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애들은 미쳐요. 화청에 살면 나오라고 해요 바로 이곳에 왔다고 하면서 무슨 핑계를 대요. 공부한다고 하면서 거절하기는 어려워요.

B 엄마가 고3때는 인간관계를 정리해라 그러셔요. 부모가 있으면 전화를 끊는 등 엄마가 도움이 되요. 엄마가 없으면 자신의 의지로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사회자: C는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B 한국말 한다고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조선족이 제일 무섭고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예요. 중국 사람들은 착해요

C 중국에 오자마자 10,000위안을 잃어 버렸어요. 학교의 언니(한국인)와 친해져서 믿었는데 언니가 제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카드 안에 있는 비밀번호를 보고 언니가 찾아서 썼어요. 언니한테 의심 없이 물어봤어요. “무조건 공안에 연락할 거야”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공안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엄마도 와서 이해하라고 하면서 나중에 돈을 받았어요.

B 돈 사고는 10번은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수업료라고 그래요.

사회자: 그래서 수업료 얼마나 냈어?

B 저희 집은 많이 내었어요. 집세부터 야진(보증금) 뜯기고 엄마가 힘들었죠.

사회자: 얼마나?

B 잘 몰라요 한 300 들었나. 잘 몰라요. 하여튼 많이 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회자: 많은 것은 막연하니까 얼마정도? 돈 액수보다 횟수가 많았어요.

A 내가 당한 것은 없고 당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오빠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돈을 15만원이라도 당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기숙사에서 남자애가 돈을 훔친 거예요. 나는 1기생이고 선생님은 나와 돈독하니까 말했어요. 몇 명만 알고 돈은 찾았어요. 오빠들이 안 내놓으면 인생 종친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사기를 당했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D 저는 수업료 50위안 냈어요. 가짜 돈이에요. 나도 기념으로 보관하고 있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한국 사람을 뜯어먹는 것은 한국인, 조선족이에요. 무서워요. 아는 한국 사람이 무서워요. 조선족이 제일 무서워요.

- 학생은 얼마나 자주 외롭다고 느끼는지요? 외로울 때는 어떻게 외로움을 달래는지요?

A 처음부터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았어요. 엄마는 개방적이신데 내가 알아서 하겠지 하셨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공부밖에 없으니까요.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외로움을 빨리 느껴요. 동성친구는 힘들 때 다 와 줄 수 없고요 조금만 못해주면 꺾어요. 필요한 상황에서 해 줄 수 있는 만큼만 해 줘요. 자기 살기 바쁘니까. 외로울 때는 b(옆의 친구)를 만나요. 생각도 같고 아줌마도 도와 줘서. 옛날에는 많이 울었지만 엄마 앞에서는 안 울어요. 지금은 참아요. b에게 얘기하고 잊어버리려고 해요. 유학생생활이 길어지니까 지치고 힘들지만 많이 버리지요.

B 저는 외로움을 잘 안 타요. 엄마가 있고 나는 남자 친구가 훨씬 편해요.

C 남자친구를 많이 만나잖아요.

A 애는 오빠가 있는데 순진해서 다 남자가 자기 오빠인 줄 알고 있어요. 애 핸드폰번호는 다 남자친구예요. 사귀는 애가 많고. 야자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매일 남자한테 전화온대요.

B 저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니까 친구로 좋아요. 남자친구를 하루에 한 번 씩 만나요. 그냥 남자 애들과 만나요. 그러나 그냥 친구이에요.

C 우리와 너무 대조돼요.

B 저는 가족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 엄마한테 말하면 되고 마음 맞는 친구가 한두 명만 있으면 돼요.

C ‘위해’에 있을 때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한국 애들은 너무 어렸고 돌봐주어야 했어요. 거기는 너무 피곤했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북경에 와서

사기를 당하고 학교에 갔는데 어떤 오빠와 사귀었다가 없으니까 부모님 없어진 것처럼 그랬어요. 동성 친구가 있으니까 좋지만 의지하는 것은 남자친구와 달라요. 지금은 대학생 언니와 사니까 대화하고 이해를 받아요. 친구와 이야기 하면서---

D 저는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선생님이 도와주시니까 애들이 부러워하는데--- 처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요. 친구를 많이 만나는데 제 생각인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주변에 압박을 받아요. 그러다 요즈음 터졌어요. 요즈음 힘들어요. 방법을 아직 못 찾았어요. 혼자 엉엉 울었거든요. 기분이 안 좋고 이런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 학생은 현재 중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한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A 저는 성격이 꼼꼼하고 준비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 발전하면 좋겠어요. 중국 남자 애들이 옷 좀 벗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회자: 애들이 옷도 벗고 환경도 나쁘고 중국에서의 생활관계에서 불만스러운가?

A 신경을 쓰지 않아요. 중국이 발전을 하면 덕을 보잖아요. 중국이 잘 되어야 덕을 볼 수 있잖아요. 적응은 확실히 되었는데 앞으로 발전이 되어서 공부할 때 덜 힘들면 좋겠어요. 문화가 적응이 어렵지만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중국인들이 우리를 돈으로 안 보기를 바라요. 좀 체계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공안들도 외국인들에게 대충대충하고 엄청 기다려요. 저는 병원도 안가고 잘 있지만 매일 듣는 말이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20분이면 길잖아요. 나라가 작아서.

D 마샹(‘곧/바로’라는 뜻)이라 하는데 1시간 반이 더 걸려요.

A 한 번은 버스비가 아까워서 시단'까지 걸어갔는데 길을 물어 보니까 곧

나온다고 하는데 끝이 없어요. 거의 힘을 빼요.

B 중국 친구랑 같이 걸어가는데 글자를 맞추어보라고 하면서 걷게 하고 “재미있었지?” 해요.

A 한 학년이 시작되면 저희 학교에 북경 부시장이 오는데 계속 박수를 치라고 하면서 한 시간 반을 땡벌에서 설교하는데 의자를 갖고 내려오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사회자: 쓰러진 애들 없나?

A 중국 애들은 쓰러지지 않잖아요. 대학시험에 체육을 강조해요. 대학시험 보는데 체육 시험이 얼마 되어야 해요

B 중3때부터 7시 까지 학교 가서 6바퀴 돌아요. 나는 미친 듯이 뛰었는데 보니까 외국에는 안 뛰어도 되는 거예요. 너무 뛰어서 무릎에 부상을 당했어요.

사회자: 지금 잘 적응하고 있나?

A 처음에는 저 사람들 왜 저래 하며 중국 싫다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기도 하고 이해를 해요. 씻지 않는다 해도 더러워 하지만 건조하니까 그럴 수 있어. 우리처럼 생활여건이 되지 않구나 하면서요. 투덜대면 나도 싫어요. 중국에 왔으면 중국을 이해해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지 투덜거리면 뭐하냐고 스스로 납득을 시켜요. 중국 애들은 느리고 말하면서 트림하고 깜짝 놀랐어요. 표정이 안 돼요. 머리를 땅는데 감지 않고 비듬도 있고요. 어떤 여학생이 속옷을 검은색을 입어요. 겉에는 흰 교복을 입어요. 매일 보여요. 두 달 동안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브라를 안한 애도 많아요. 가관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트림하고 비듬을 보아도 이제 아무렇지 않아요. 1년 동안 보니까 괴상한 행동하고 답답해도 웃으면서 이야기 하고 무시해요. 융통성이 없는 것들을 보면 화를 내기보다 타이르다가 안 되면 포기해요. 말 바꾸기가 심해요. 말을 지키지만 학교 교장이 학생들을 보호하지만 이런 학교는 소수예요.

A 택시기사가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서로 가로 막다가 눈이 마주치면 싸워요. 자전거가 차와 같이 가다가 차를 가로막으면서 싸워요. 대로변에서

길을 막히게 해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시즈먼’에서 헤이처(사제차)를 탔는데 버스가 가로 막으면서 뺑뺑거리는데 그 아저씨가 웃어요.

C 중국어가 잘 되어야 적응 잘하는 것 같잖아요. 지나가면 더럽고 냄새가 나서 욕이 나오지만 애들이 원래 저렇지 해요. 솔직히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이해는 되니까 나중에는 어떤 때 그 냄새가 그리워요.

D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이해하려고 해요. 상식이 안 통할 때는 너무 어려워요. 억지 부리는 것이 정말 싫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고 싶어요. 말을 매일 바꿔요. 학교도 그래요. 시험을 보고 HSK 얼마를 받으면 중국반에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받고 입학했는데 다 했는데 다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따지면 난리가 나요. 말 많으니까 다른 학교로 옮겨라. 그리고 부모가 와서 압력이 들어오면 미안하다고 그래요. 꼭 앞에서 독촉을 해야 돼요.

A 우리 학교는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교장은 누가 자기 애들을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학교 선생이 말발이 세요.

- 학생은 중국에 유학 온 것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A 처음에는 많이 싫어했어요. 전부 싫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힘들므로--- 이곳에 온 것이 많은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니까 힘들지만 잘만 견디어서 돌아가면 좋을 것이라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 습관이 되었고 나중에는 외국에 가려고 해요.

B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중국에 보낸 것이 공지가 있다 해서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믿거든요. 한국은 죽자사자 해도 힘든데 중국은 자신이 노력하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가다보면 길은 계속 열리므로 중국에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해요. 피아노를 포기 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외국에서 일하는 것은 괜찮아요. 한국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제화 되고 있어서 유학 온 것이 좋아요.

- A 중국에 온 것이 한국이 싫어서 온 사람이 있어요.
- C 한국에서 한 것보다 노력을 안 해서 유학을 왜 왔나 했지만, 한국이 폭이 좁고 한국은 장래가 없으니까 지금은 여기가 좋다고 봐요. 서울대도 가기 어렵고 자신이 없고---
- D 경험을 쌓아 보겠다는 것이니까 큰 세상을 잘 왔어요.
- B 유학은 좋았는데 온 것을 후회했어요. 중국이 체계적인 것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실력이 쌓아지지 않아서 매일 자고 그랬어요. 학생들은 다 공부를 잘하고 싶고 지식이 높아지고 싶은데 이곳은 학생의 지식이 쌓아지는 것이 어려워요. 아쉬웠어요.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주변 환경이 안 되어서 아쉬워요. 공부가 체계적이지 않아요. 민족사관학교에 다니는 애들 3개 국어씩 한다고 들었어요. 머리에 들은 것부터 박식하대요. 대학시험 볼 때 우리는 2년 걸릴 것이 그 애들은 3개월이면 된대요. 아빠도 이곳 애들은 지식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해요. 지식이 없어서 아쉬워요. 우리는 언어만 딱따구리 같이 하는 거예요. 내면이 차야 하는데 그것이 아쉬워서 그때 후회했어요. 신문을 봐 사회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언어 빼고는 정말 지식이 없어요. 경제 사회 등을 나누어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이 많아요. 외국어를 이곳에서 배우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내면의 실력 등을 체계적으로 못 배우니까 이곳은 배울 수가 없어요. 중국 애들은 체계적으로 배워 주는데---

- 학생은 조기유학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A 부모가 오면 찬성 부모 안 오면 반대예요.
- B 조기유학은 시기가 중요해요. 몇도 모르고 오지 말아야 되요. 중3에 오면 되요. 자신의 국어 실력만큼 중국어가 늘어요. 너무 일찍 오면 기초를 다지지도 못해요. 북경대 시험 굉장히 어려워요. 수학 영어, 역사 중요해요.

한국에서 공부 잘하던 애들은 영어 수학의 기초가 잘 되어 있거든요. 와서 어학연수 하고 기초실력에 언어 같이 하면서 중국에 와서 다지는 식으로 공부하면 중1이나 2에 온 애들은 처음에 언어가 안 되니까 처음에 기초를 다 놓쳐요. 한국에서 수학 영어 되면 역사를 해도 자기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 방법을 터득해서 오므로 공부해요. 중국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너무나 노는 여건이 많아서 체계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방법을 몰라서 못해요. 너무 일찍 오면 너무 늦게 되고 공부하는 체계가 잡히지 않고 그저 중국어 공부만 하는데 고등학교 체계가 잡히지 않은 데서 언어를 습득한다 해도 한국애가 많고 그러면 그것마저도 놓칠 수가 있어요. 진짜 억울한 거예요. 나는 3년 일찍 왔는데 대학 들어가지 못하면 억울해요. 중3 끝나고 왔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요. 언어 6개월 하고 대학준비 2년 반 해야 되요. 일찍 온 애들은 언어가 되는 대신 기초가 안 되어 있고, 제대로 와서 언어가 안 되는 대신 기초가 되어 있으면 유학이 성공한 것이고 학습이 안 되고 기초도 언어도 안 된 아이들은 너무 어리니까 힘들어요. 부모가 같이 안 오면. 그래서 중3에 와야 되요.

- C 조기유학을 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의지가 있어야 해요. 엄마가 오빠를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빠가 적극적이지 않아요. 아빠가 유학을 해보셨기 때문에 망설였어요. 적극적이거나 잘 휩쓸리지 말고 의지가 있어야 되요. 진짜 성격 중요해요. 내가 아는 오빠는 잠실에서 1-2등 했대요. 중3 때에 와서 고1때 중국어 배우고 고2때 어영부영 논 거예요. 친구 따라 다니다가 휩쓸리면서 일 년 꼴렸어요. 강남에서 1등 하던 애들도 연수 3년이 지나면 끝이에요. 엄마 아빠가 어떻겠어요. 아직도 조금 방황하고 여자 친구 사귀고. 원래 여자를 몰랐는데 여기에 와서. 한국에서 잘하던 애들이 중국에 와서 그런 오빠들이 한 두 명이 아니에요. 일찍 온 애들은 일찍 놀고 담배 피우고 일찍 정신을 차려요. 늦게 와서 친구 잘못 만나서 망한 오빠들이 너무 많아요. 볼 때마다 안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격이 중요해요. 소극적이거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 애들은 안돼요. 소외

감 많이 느끼는 애들은 여기 오면 안돼요. 노는 애들이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따라가요. 성격이 중요하고 소외감 느끼는 애들, 사랑 부족해도 안 되고 우유부단해도 안 되고요 소극적이어도 안돼요. 공부만 하던 애들 안돼요. 남자애들 정말 골 때려요. 여자 말 한마디에 여자애들한테 정신을 못 차려요. 흔들려도 자기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애들은 되요. 성격이 어떻든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요. 그런데 힘들어요. 엄마들은 자기 아들이 잘 못 가는 것을 가만 안 뒀어요.

C 자기 성격에 맞게 해야 되요.

B 조기 유학은 좋아요. 하기 나름이죠.

D 너무 어렸을 때는 아니라고 봐요. 선생님이 가르친 애중에 초등학교 때 왔는데 자신의 국어 실력만큼 늘어서 한국어도 중국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자기의 생각과 의지 자아가 잡히면 부모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데 혼자 오는 것은 반대예요.

- 학생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요? 여러 가지 중에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또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지요?

ABCD 너무 많아요.

A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신방공부하고 싶은데 아빠는 의사가 되기를 원해요. 신방도 뻥이 있어야 하고 짧고 굵잖아요. 아빠는 힘들게 한 이상 길고 좋은 걸 얻고 갔으면 하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있었고 그것을 잃고 싶지 않은데 지금 유학 오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을 해서는 내세울 것 이 없잖아요. 방송국에서 서울대 고대 애들을 뽑을 텐데 글을 써야 하잖아요. 지금 글의 체계도 그렇고, 사회도 모르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미래의 전망에 불안하고 글을 써야하는데 잘 못쓰고 한국의 잘하는 애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걱정돼요.

B (A를 보면서)그건 네가 책에서 얻고 하는 거야. 한국도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책에서 읽고 신문을 읽고 한국은 달라.

A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아빠가 사업을 하니까 아빠의 결정에 신뢰해서 따르고 나도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해요. 아빠와 대화를 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해요. 한국은 매해 바뀌잖아요. 걱정이 많은 것은 엄마가 같이 온 애들은 달라요. 선생님들이 엄마가 없다고 아무렇게 볼까봐 걱정돼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도 염려해요. 내가 사귀는 것인데 말이 많아서 너무 싫어요. 그래서 관계를 끊다보니 외롭고 스스로 혼자 해야 하는 것이 어려워요. 벽을 쌓고 혼자 살수는 없잖아요. 언니는 더 순진해요. 언니가 조언을 해 주어요. 언니와 나는 여자라고 많이 보호했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해요. 철저해요. 앞으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불안해요. 아빠와 엄마와 상담해야 하는데 없어서 불안해요. 참고 있다가 방학에 한국에 가서 쏟아놓고--- 그래서 힘들어요. 상담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워요. 고민이 많지만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자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고민은 많지만 되도록이면 끊지요.

B 공부의 스트레스지요. 저는 실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실력이 안 되니까 남보다 2배 3배는 해야 하는데... (사회자: 중국어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 중국어가 도움은 주는데 공부는 내가 해야지 그리고 나의 내면의 실력이 되어야 되지요. 중국어 잘한다고 그게 시험을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학을 잘 못해요. 수학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종일 3-4시간 붙들고 앉아 있으며 역사 영어 볼 시간이 없어요. 새벽 2시 까지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해야 하는데 마음만 힘들고 체력은 딸리고. 미래에 관한 것은 대학의 전 단계라고 생각했어요. 청화대 영문과에 가고 싶은데 국제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기업에 일하는 것은 싫었어요. 엄마는 전문직을 하라고 했어요. 의사를 하라고 해서 중의(중국의학)하라고 하지만 저는 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부모가 틀린 것을 본적이 없어요.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갈등이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있어요. 중의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비전이 있든 없던 북경대에 가고 싶어요. 비전에 관한 갈등

으로 고민했고 공부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요. 북경대와 청화대 영어과를 생각하고 있어요. 대학 가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고민들이 그렇지요.

- C 저는 유학 왔으니까 중국어 이지요. 국제반에 학생이 20여명 있어요. 제가 제일 나중에 왔어요. 황금기에 왔는데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깔려 있고--- 한국에 있었으면 고민 하는 것 그런 것 있는데 이곳에서는 잘못 하는 것 같아요.

사회자: 그런 것이 뭐야?

- C 외모나 생각하는 것이 죄책감 같은 거예요. 네추럴하게 입고 다녀요. 애네들은 추리닝 입고 저는 청바지 입고---

- A 우리는 남들의 의식을 의지하지 않고 신경 켜어요.

- D 내 욕심만큼 결과가 없어서 스트레스가 컸어요. 그래도 회복이 되었어요. 솔직히 돈이 들어서 미안하고--- 스트레스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외로움이 있어요. 외로운 것이 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고--- 한국 애들보다 잘 되어야 하는데 돈도 정신도 감당한 것이 얼마인데. 오고 싶은 애들이 많은데 우리는 특권이니까. 비전에 대해 남들보다 잘 되어야 하는데. 투자한 것이 얼마인데. 유학까지 왔으니까 그것이 특권인데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만큼 성장해야 하는데 남들의 눈도 그렇고 아버지의 체면도 그렇고 학교를 떨어지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유학하다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노는 애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 통제가 안 되어서 그래요. 상황이 흘러가다보면 포기해요. 남들이 보는 것은 결과이니 결과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 B 아빠 주위 사람들이 누구 누구 하면서 잘된 이야기들을 하면 정말 스트레스예요. 너도 열심히 해라고 하면 그렇게 해 드려야하는데 공부는 안 따라줄 때---

- A 해야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이번에 역사공부를 하는데 3-4시간 했는데 잘 안되어 벼락치기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돌 것 같았어요.

- D 이들은 놀았어요. 시험 볼 때 스트레스 받으면서 놀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공부도 못하고 해요.

A 시험도 못 보고, 시험보기 전날 그냥 자요.

- 학생이 중국에 몇 년 살면서 새로 유학 오는 학생들에게 중국사회에 적응을 잘 하도록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일단 유학이 좋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애들. 자기가 오고 싶어서 공부해 보고 눈도 넓히면서 실력을 쌓을 애들이 오는 것이 좋고 부모 생각하면서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흥청망청하는 것 보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참을 수 있는 애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B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은 중국을 좋아 했으면 좋겠어요. 적응을 위해서 중요하고 중국공부도 하게 되게. 중국을 좋아하는 게 좋아요. 더러워도 이해가 안가도 나중에 우리보다 크니까 중국무시하지 말고 진짜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좋아요.

C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여태껏 보면 다른 지역보다 한국사람 없고 놀 것이 없는데가 중국어를 배우는데 좋아요. 여기 있는 사람보다 기간이 같아도 더 잘하는 사람이 많고 자기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한국 사람이 없고 놀 것이 별로 없으니까. 주위 사람 때문에 휩쓸려서는 오지 않는 것이 좋아요..

D 유학가면 대학 간다는 막연한 기대를 하지 말고 왔으면 좋겠어요. 유학가면 대학 쉽게 간다는 헛된 기대에 부풀지 말고 유학 가면 길이 열린다는 생각을 버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Focus Group Discussion #3

(청화대학, 여대생)

시간: 2006년 9월 25일 14시 -16시

장소: 김익기 교수 덕

사회: 김익기 교수

참석자: A (여자, 대학생, 24세, 중국유학 3년 반)

B (여자, 대학생, 24세, 중국유학 4년 반)

C (여자, 대학생, 21세, 중국유학 10년)

- 처음 중국에 올 때 언제 누구하고 같이 왔으며, 처음 올 때 두려움은 없었는지요?

A 보통은 유학원 통해서 오는데 저는 친구가 먼저 여기 와 있어서 그 친구 밑고 혼자 왔어요. 고등학교 동기라서 친구만 믿고 온 거구요. 거의 보름 동안 친구랑 계속 같이 있어서 그렇게 외로운 거 못 느끼고 적응 잘 했어요.

B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입시 안 하고 바로 유학원 통해서 왔어요. 근데 제가 돈을 냈던 유학원이 너무 사기성이 짙었어요. 청화대에 학생들을 보내본 적도 없고 아무 경험이 없는 유학원이어서 자기네들도 시험 삼아 어언대랑 지질대에 학생들을 먼저 보내본 거예요. 자기네들은 경험이 많은 것처럼 설명 하길래 곧장 등록해서 엄마랑 함께 왔는데 그 유학원이 거의 저를 버리다시피--- 갑자기 “너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작정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너무 무책임했죠. 근데 제 동창이 좀 아는 분이 많아서 다 대동해서 일을 처리했고 우예곡 절 끝에 청화대 어학반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회자: 침에 올 때 두렵지는 않았어?

B 설레임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왔어요.

A 저도 좋아서 왔어요. 오기 싫어서 온 게 아니라 저희가 원해서 온 거니까요.

사회자: C양은 십년 됐다고 했는데 처음에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

C 저는 아빠가 주재원이셨기 때문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릴 때 가족들과 다 같이 온 거죠. 지금은 주재원이 아니시고 개인사업 하세요.

- 중국에 유학을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고 왜 중국에 왔는지 그 다음에 중국에 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또 있었나요?

A 저는 고등학교 때 외국어고등학교 중문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일학년 때부터 중국에 오고 싶어 했어요. 그때 저랑 같이 과외 한 친구아버지가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 하셔서 아예 중국으로 가족전체가 이사를 가게 되어서 고1때 저랑 엄마랑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빠가 중간에서 말리셔서 결국 그때 못 오고 한국에서 대학을 갔고 대학 어문학부를 일 년 다니다 나중에 중문과로 바꾸었어요. 중국어를 원래 재밌어 했으니 처음에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왔다가 다시 한국 돌아가서 원래 다니던 중문과를 다시 가도 좋은데 했어요. 그런데, 중문 문학 이런 거 배우는 건 싫고 그래서 중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주위에서들 말하니까 중국에서 유학하면 중국어하나라도 확실히 하게 되고 취직하면 그래도 딴 사람보단 중국어 하나라도 잘 한다면 취직할 때 조금 더 가산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중국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B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기중 수시모집 이라는 게 생겼어요. 입시 전 고등학교 수업기간 중간에 미리 학생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군데 대학에 수시모집 원서를 넣었어요. 수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건 수능점수를 반영하는 수시가 있고요. 어떤 건 일 학기 때 입학 확정이 되어서 수능을 안 봐도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시입학을 목표로 계속 원서를 넣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문제는 수시를 준비하면 개인적으로 따로 입시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수시 합격을 위해 담임선생

님하고 계속 쉬지 않고 면담하고 원서 쓰고 자기소개서도 써야하고 논술 준비도 해야 하고--- 그때 성적도 많이 떨어짐을 느꼈고 제 집안에 우환도 있어서 수능공부를 하면서도 마음을 못 잡고 수능 백일 전까지도 방황하고 목적을 찾지 못했어요. 대학을 들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더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이런 생각 중에 엄마가 추천을 해주셨어요. 중국에 아시는 분도 없었는데 엄마가 그냥 중국을 가 보면 어떻겠냐고 제의를 하셔서 그때 제가 고3 여름 방학 때 제의를 받아들였으니 수능을 안보고 오게 된 셈이었어요.

C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냥 부모님 따라 온 거니까요.

- 중국에 오기 전에 중국의 언어나 문화나 풍습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를 미리 했거나 중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왔나요?

A 그냥 고등학교 때---

사회자: 고등학교 때 중문과였으니 언어는 준비 했을테고--- 그럼 중국어 한지 어언 7-8년 됐네?

A 저희 고등학교 3년 내내 똑 같은 내용을 배워요. 지금 제일 기초적인 301이라는 기본회화 책 같은 것만 1과에서 10과까지 3년 동안 반복해서 배우는 거 같아요. 뭐 과목은 다양해요. 듣기 작문 독해 등등 수업과목은 다른데 내용은 거의 다 같아요.

B 맞아요. 수업 중엔 대개 오늘의 날씨를 물어보거나 아무튼 거기서 거기인 기본적인 내용들만 배워요.

사회자 : 3년 동안 비슷한 수준의 내용만 배운다니.. 그럼 한국 선생들이 중국어를 강의할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강의할 선생이 부족 한 것 인가?

A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내용이 깊어지거나 어렵게 수업을 하면 고등학생들인데 흥미부터 떨어지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되잖아요.

사회자: 그래도 너무 내내 같은 내용이면 공부를 더 안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은가?

B 고등학교 라는 곳이 중국어 자체는 수능이랑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어는 국, 영, 수 같은 중요과목에 밀려서 정작 저희 전공인 중국어 수업면에선 부실한 부분이 많았어요. 흥미만 약간 붙여주고 끝내는 식이죠.

A 중문과에서 3년간 배워도 중국어 한마디 못하는 애들도 수두룩해요.

C 저는 아빠가 중국 오기 전 아주 기본적인 것만 조금 가르쳐 주었어요. 중국은 이런 나라다라고. 그리고 전 어렸으니 전적으로 아빠를 믿고 왔기 때문에 따로 준비는 없었어요.

- 지금 어디에서 누구랑 살고 있고,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잘 지내고 있는지, 혼자 사는지 아니면 누구랑 같이 사는지 현 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A 지금은 저희 셋 다 기숙사에 살고 있어요. 옆방이고 앞방 이런 식이죠.

사회: 부모님이 계신데 **C**양도 기숙사에 살아?

C 지금 부모님은 심천에 계시고 저만 대학 다니느라 북경에 왔어요.

A 아이들끼리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원래는 친했는데 같이 살면서 안 맞는 부분이 생기니까 싸우고 등 돌리고. 저도 기숙사 들어가기 전엔 친구랑 같이 살았는데 그 친구와 저는 같은 나이라서 그나마 나았고--- 부모님처럼 이해해 주고 하는 그런 가족관계가 아닌 우리는 그냥 동갑친구 이니까 살아가면서 확실히 의견충돌은 생겨요. 그렇지만 저희 둘은 워낙 친하다보니 얘기를 하며 풀면서 살았어요. 그렇지 않고 유학 와서 같은 학교니까 친한 친구가 아니라도 룸메이트가 돼서 같이 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럴 때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은 서로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으니 서로 간에 잘 모르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부딪히고 싸우다 보면 나중에 사이가 영영 틀어지게 되요.

B 근데 서로 충돌이 있으면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A 그러다 서로 등 돌리고---

B 특히 여자들끼리는 많아요. 같이 살아 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 하면서 당사자 없는 뒤에서 욕하고 다니고--- 알고 보면 조그만 일에 충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은 내 룸메이트가 돈을 내서 전기충전을 해야 하는 날인데 계속 내가 하게 되면 불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나 이차이가 있는 룸메이트라면 어린 사람 입장에서 불만도 생기고 사소한 거지만 여학생들 사이에선 그런 걸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게 많아요.

- 중국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요?

사회: 여기 있는 학생들은 중국어 배운지 7-8년 넘게 됐으니 어려움이 없겠지?

A 그래도 어렵죠. 자주 쓰는 말은 어려움이 없는데 만약에 수업시간에 발표 하라고 하면 아직도 두렵고 그렇죠.

B 저 지금 HSK 고급시험 수업 듣거든요. 제가 지금 작문이랑 말하기 수업만 듣는데요. 처 음으로 내공이 더 쌓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작문을 하면 구어랑 다르게 서 면으로 써야하니 제가 단어량이 너무 작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말은 그냥 하면 되지만 그래도 또 보통 말 하는 것 보다는 한 차원 높은 고급 중국어를 말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하는데 나의 중국어가 아직은 많은 부족함을 느껴요.

사회자: C양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왔으니 그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네.

C 저도 그냥 생활 하는 거엔 문제가 없는데 수업 할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수업 알아듣고 하는 건 어려움이 없는데 논문 같은 거 제출하라 그러면 어려워요.

전원 : 공부할 때 빼곤 생활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 지난 일 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열심히 하니까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공부할 때나 수업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럴 땐 중국학생들의 도움은 받는가?

A 저희는 중국 애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먼저 가서 부탁해 본 적은 없어요. 저희 과는 여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중국 여자에한테 도움을 청해서 자료를 받아오면 나머지 유학생들이 다 같이 돌려보고 그런 식이에요.

C 그래도 윗대랑 다르게 저희 지금 학년 중국 애들은 착해서 유학생들을 잘 도와줘요.

A 위에 학년은 안 그랬는데 이번 저희 친구들은 잘 도와주는 편이에요. 뭔가 정신적으로 친구관계를 맺는 건 아직은 어렵지만 수업 같은 건 잘 도와줘요.

B 저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문학을 잘 못해요. 전 웬지 언어학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고대 언어학을 들어야 했어요. 특히나 그 과목 선생님이 좀 이상하셨어요. 예를 들어, 한 일본애가 논문을 냈는데 세 번을 되돌려 보내는 바람에 그 아이는 학교를 다시 다녀야 했어요. 너무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선생님이시라, 특히 그 선생님 수업은 긴장이 돼서 수업시간에 이해 안 되는 건 중국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저희 반 중국 애들과 교류가 잘 안 됐어요. 수업 내용이라면 이 언어가 탄생하는데 명나라 때 엔 이렇게 탄생했고 그 언어를 분석하고 그런 수업이었는데 중국 애들이 물어봐도 모른 척 하길래 저희는 유학생 몇 명이 돈을 주고 한 중국 학생을 구해 과외를 받았어요. 마침 사범대학교 언어학 전공 석사연구생 이었어요. 매번 숙제를 내야 할 때마다 과외 받고 숙제 내기 전에 그 과외해주는 친구에게 점검받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 앞으로 중국에 얼마나 더 있을 예정인지요? 졸업하고 계속 중국에 있을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한지요?

A 저는 지금 학기 포함해서 3년 남았거든요. 이제 나이도 점점 먹어가니 저는 빨리 졸업해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는 공부를 더 해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박사까진 그렇

고 석사까지는 여건이 된다면 중국에서건 한국에 돌아가서건 공부를 더 해 보고 싶어요.

B 저는 졸업이 먼일이 아니라서--- 1년 뒤면 졸업하니깐요. 어찌하다보니 벌써 시간이 졸업하는 시기가 다가 왔더라구요. 아직 일 년 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일 년을 어떻게 보냄에 따라서 제 남은 인생, 직업 같은 것이 결정 될 거 같아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관건인데 얼른 중국어 자격증도 따고 영어도 해야 되고 회사에서 보는 시험도 준비해야하고 할 게 너무 많더라구요. 아무튼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취업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저는 공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관광 공사나 그런 곳은 아직 변수가 많아서 회사인턴도 해 보고 싶고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까요.

C 저도 졸업하려면 3년 남았으니까 여기서 졸업하고 영어를 더 공부하고 싶어서 영어권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러 가고 싶어요. 취직이 바로 안 될 거 같아서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 여가시간엔 누구랑 무얼 하며 어떻게 보내는지요?

A B 테니스 쳐요. 저희 둘 다 운동을 좋아 하니깐요.

C 전 항상 방에서 인터넷하고 다운받아서 드라마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는지요? 전화나 이메일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요?

A 거의 친구들과는 ‘싸이월드’라는 개인 홈페이지로 안부 물어보고 집안 식구들과는 전화 통화해요.

사회자: 전화통화는 어느 정도 자주해?

A 저요? 일주일에 한번 할까 말까 예요.(웃음) 제가 볼일 있으면 전화하고 엄마도 볼일 있으시면 전화하시고 어떤 때는 2주에 한번 할 때도 있어요.

사회자: 친구들이랑은 매일 연락하고?

A 아니요. 친구들이랑도 홈피 들어가서 사진보고 간혹 글 남기고 메신저에서 만나 채팅하고 그런 정도예요. 메신저로 전화를 대신하여 음성채팅도 하고 그래요.

B 저는 가족이랑은 메일도 보내고 엄마가 주말에 전화를 해주세요. 아빠랑은 잘 안 해요.

A 저도 아빠랑은 한 학기에 한 두 번 전화 할까 말까예요.

C 저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도 친구들과는 개인홈피로 연락 남겨요.

- 이성친구가 있나요? 그 외에 친한 친구는 얼마나 있고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요?

A 친한 친구는 옆에 있는 B양 거의 맨 날 만나요.(A B 웃음) 남자 친구 있는 사람은 여기서 B양 밖에 없어요.

B 네. 남자친구는 우리 셋 중에서 저 만 있어요.(웃음)

A 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사회자: 친한 친구들은 다 한국친구들인가? 중국친구들인가?

B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은 다 한국친구예요.

사회자: 중국친구들은 친하게 사귀기가 어려운가?

A 그게 좀--- 중국 친구들은 특히 민족의식이 너무 강하다고 해야 할까요? 친해졌다고 생각했다가 또 뭔가 모르는 거리를 두고 또 좀 더 다가갔다고 생각하면 또 멀어져있고---

B 네. 그래요. 그게 솔직히 언어 방면만의 문제는 아니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자애들은 너무 자존심이 쎈 애들이 많아요. 제일 친해지기 쉽다면 일본 애들. 근데 중국 애들은 다들 집안에 자기 하나로 자라나서 너무 자존심이 쎈 사람들이 많아서 좀처럼 친해지기 어려워요.

사회자: C양은 어려서부터 왔으니 다르지 않을까?

C 저도 이렇게 여기서 오래 있었지만 정말 친했다고 생각하는 중국 친구는 단 한명 밖에 없어요. 속 얘기까지 다 하는 친구는 거의 다 한국 친구들이고 그만큼 친한 중국 친구라고하면 중학교 때 친구 단 한명 있었어요.

사회자: 중국친구들과 친해지려는 생각이 있으며 또 노력은 하나?

A 생각도 하고 노력도 하죠. 그래서 더 의도적으로 친해지려고 해서 더 사귀는 것이 힘든 것인지도 몰라요.(B C 공감) 이상하게 중국 애들이랑은 좀 달라요. 다른 나라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달라요

C 저는 처음 중국 왔을 땐 제가 외국인이니까 애들이 신기해하면서 관심을 갖고 그래줬는데 선생님도 유일한 외국인이라 잘해주니까 나중에는 애들이 열등감을 가졌는지 친해지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중 고등학교를 올라가도 저에게 관심만 좀 가질 뿐 저에게 자기네들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속내를 털어놓거나 그럴 만큼 친한 친구는 단한명도 없었어요.

- 술 담배를 하나요?

A 술은 많이 먹는 편이죠. (전원 웃음)

B 테니스 모임 사람들과 좀 많이 마시는 편이구요. 그런 모임에서 이전엔 많이 마셨는데 요즘엔 그런 자리에서도 잘 안마시게 되고 평소엔 더군다나 요즘은 술자리를 가도 잘 안 마시게 되요.

사회: 담배는 안 피나?

전원 : 담배는 안 피요.

C 저는 쪽 ‘심천’에 살다 대학 때문에 북경에 온지 얼마 안 되서 아는 사람이 얼마 없어서 잘 안 먹게 되더라구요. 먹는 기회가 있으면 조금은 마시는 편이에요.

- 여기 지내는 동안에 비행을 했거나 비행을 당했거나 주변에서 누가 당했거나 또는 사기, 협박당하는 거, 성관계 등등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본 적 있으면 말해봅시다.

B 한국사람 대 한국사람 이요?

사회자: 경우에 따라선 한국사람 대 중국사람 일수도 있고, 특별히 생각나는 사례들 있으면 말해볼까?

B 글썄요. 저는 그때 시비 붙어서 싸운 게 생각나는데요. 이상하게 조선족 분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요. 학생들이 식당 앞에 밥을 먹고 나와서 모여 있으면. 특히 우범지대가 있어요. 어떤 술집과 한국식당 앞 공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회자: 조선족들이 시비를 걸어?

B 제 얼굴뼈에 금이 간 사건인데요. 유학생들끼리 그 쪽에 서 있는데 정장을 빼 입은 두 분이 그냥 시비를 거셨어요. 그날 아는 오빠 생일이어서 모임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도 술이 취해서 어딘가에서 나오면서 시비를 건 거예요. 다들 말렸는데 우리 중 어떤 사람이 그쪽에 휘말리게 되면서 그쪽서 세 명 정도가 어디선가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사회: 조선족들이?

B 예. 두 명은 정확히 조선족 이었어요. 욕도 했어요. 정확한 한국 발음이고. 나머지는 중국 사람인거 같아요. 그런 식으로 시비가 붙어 제가 옆에 있다 얼굴을 스쳐서 맞은 거예요.

사회자: 아니. 여자 학생들을 막 그렇게 때려?

B 아니요. 전 말리다가 그런 거구요. 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맞으니까 막다가 그 사람들한테 맞아서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방어를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 남자친구 머리를 때리려고 해서 가서 그 사람을 밀었는데 얼굴로 몽둥이가 스쳐서 얼굴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 외에도 시비 걸고 싸우는 건 많이 봤어요. 한국 애들끼리도 엄청 많이 싸워요. 월드컵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아서 경찰들이 많이 왔어요. 심지어는 술집이나 각 교회 목사님들께 설교할 때 감정 때문에 외국인들과 싸우지 않도록 말씀 전해 달라고 중국경찰들이 직접 와서 부탁한 일도 있대요.

- 유학생할 중 얼마나 자주 외롭다고 느끼는지, 외로우면 어떻게 스스로 달래는지요?

C 저는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이라 자주 외롭다고 느껴요.

사회자: 외로워지면 풀 수 있는 무슨 방도가 있나?

C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심천’에 남아있는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전화 하거나 그런 식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혼자서 외로움을 느껴요.

B 저도 C양과 비슷하게 외로움 안에 빠져들어요. 혼자 우울하게 계속 방안에 있어요. 하루 종일 자다가 영화보다 되풀이하고 내내 아무것도 안하고 쉬고, 밤엔 친구 찾아서 먹을 거 시켜먹고 거의 그런 식인 거 같아요.

A 다 들 뭐 비슷해요.

B 고등학교 때는 저는 혼자 막 괴로워하는 성격 이었는데 지금은 막 주위 친구들한테 짜증난다고 토로해요.

사회자: 그런 것을 중국 애들한테 얘기할 순 없겠지. 짜증난다고 토로하면서 편히 말하는 건 어려우니 감정상 아무래도 친구가 되는 건 한국 애들보다 어렵다는 거겠지? (전원 동의함)

- 본인이 중국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생각하는지요?

A 적응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다가도 중국에 막 짜증이 나고--- (학생들 전원 공감)

사회자: 무슨 일?

A 와 B 동시에 : 일처리요.

A 저번에 제가 기숙사 돈을 내는 일이 있었는데 6개월치를 한 번에 내는데 학교 방침이 바뀌어서 제가 은행카드로 학교수납부에서 지불을 했어요. 카드로 수납하고 영수증을 보면서 제가 계산한것이란 맞춰보니 가격이 다른 거예요. 700원 정도가 더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가서 말해보니 지금 취소할 순 없고 내일 다시 오라고 그래서 다시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방을 뺄 때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달라서 하니 안 된대요. 게다가 제가 방을 쓸 기간 그 날짜까지 틀린 거예요. 당신들이 잘못했으니 지금 처리

를 해달라고 하면 항상 다음에 오래요. 이상하게 중국 사람들은 좋은 말로 하면 미적거리고 크게 막 화를 내면 그제서야 좀 바빠 움직여요. 좋은 얼굴로 말하면 말을 안 들어주고 막 얼굴 붉히고 큰소리를 내면 처리를 해주는데 어떻게 매번 꼭 화를 내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러면 안 해주니까 그런 면들에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좋게 말할 때 웃으며 해주면 되는데. 더 웃긴 일어요. 제가 하루는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비를 주면 택시기사가 잔돈을 저에게 안 들고 다닌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학생들: 저희도 한 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저한테 말하기를요. 너한테 잔돈 내주면 나는 잔돈 없다고. 그런 말을 손님한테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면 중국이 좋다가도 정이 뚝뚝 떨어져요.

B 중국이 발전이 빠르다고들 하는데 솔직히 걸만 번지르르 하지 내실이 없어요. 특히나 중국인들은 서비스 정신이 너무 부족해요. 큰 식당을 가도 외국기업인 TGI 레스토랑을 가도 세계어디에나 있는데 똑 같은 기업이 다른 나라에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중국만 그렇게 서비스 교육을 안 시키는지 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중국 애들이 오히려 인종차별도 되게 심해요. 영어 쓰는 서양 애들한테는 친절하고 한국 애들한테는 괜한 열등의식이 있는지.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인데 현재 저희보다는 잘 사니까 그런 건지 몰라도 식당을 가도 때론 저희가 무시를 당해요.

C 저도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전 좀 다혈질성격이라서 택시기사 랑도 자주 싸우는 편이에요. 중국인들은 잔돈 내어 줄 때 돈을 던져주고 그런 것도 적응이 안 되서 막 싸우고--- 전 온지 오래 됐어도 그런 면에선 지금도 중국의 그런 면이 싫어요. 그런 건 적응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전원학생들 : 그런데 이제 자포자기예요. 아유. 에이. 그냥 넘겨요.

C 전 특히 중국의 마샹(중국어말: “곧/바로”라는 뜻)이라는 말과 정신이 너무 싫어요. 한 시간도 마샹이고 두 시간도 마샹이고. 시간 개념도 없고 너무 싫어요.

-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 유학 온 게 잘 했다고 생각되는지요?

B 사실 이 땅에 있을수록 중국이 싫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여기서 살다보면 중국 사람들 진짜 싫다 이래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옛 문화를 배울 것은 많았다고 보는데 솔직히 현대 지금 문화는 배울게 없어요. 배운다면 언어죠. 그리고 앞으로의 중국을 보고.

사회자: 개인적으로 만족하는지를 말해볼까?

B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만족해요

A 저도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으면 졸업은 했겠죠. 그래도 지금만큼 배우진 못했을 거 같아요. 여기 있으면서 생각도 틀려지고 부모님 밑에 있다 혼자 있으니 가족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잃은 거보다 얻은 거 많아요.

B 가족에 대한 거도 달라지고 친구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달라졌어요.

C 저도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지만 돌이켜 보면 여기 온 게 좋아요. 중국말을 배울 수 있었으니 저에겐 많은 이득이 됐어요.

- 진로, 이성문제, 경제문제 등 혹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는 무엇
지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는지요?

A 스트레스가 뭐냐면. 전공 책을 보다 보면 한국 책을 보면 쪽쪽 읽어 나갈 수 있는데 중국어로 된 걸 보면 습득하는 속도가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화가 좀 나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반성도 하고 또 논문 쓸 때 숙제 낼 때 글자 수 채운다고 하는 거 어렵고--- 또 다른 스트레스는 제 곁에 부모님이 안계시니까 여기 남자 친구가 있으면 의지하고 좋을 텐데--- ‘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으니까 의지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며 참 좋아보였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러 테니스를 치러 가죠. 근데 테니스를 치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전원 웃음) 그래서 테니스 치고 사람들과 술 한 잔하고 와서 자

고. 그렇게 잊어요.

B 저는 다행히 너무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서--- 서로 부모님들도 다 아세요. 제가 부모님께 믿음을 드리기 위해 일부러 소개시켜 드렸어요. 유학중인 딸이 남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걱정이 되실 수 있으니 부모님이 직접 어떤 사람인지 보셔야 안심 하실 거 같아 보여 드렸어요. 아무튼 남자친구가 있을 땐 의지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남자친구가 졸업해서 한국에 돌아갔고 현재 여기선 저 혼자 있으니 이제 진로문제가 제일 걱정 되요. 남자친구가 있어도 진로문제에선 도움이 안 됐을테고--- 그래서 테니스 모임 가서 진로문제를 많이 의논하고. 언니오빠들, 이미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사회자: 스트레스 받을 땐 선배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는 건가?

B 네. 근데 사람들마다 라이프스타일이 너무 다르니 물어보다 보면 다들 너무 달라서 또 그게 스트레스 받아요.(웃음)

사회자: C양은 어떤 스트레스? 남자친구 없는 스트레스도 있나?

C 제가 소심해서 사람들 사소한 말에 상처 많이 받고 외로움 잘 타서--- 진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자: 스트레스 있음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C 전 어떻게야 할지 몰라서 더 속상해요. 그럴 때면 혼자 짜증내요..

- 조기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C 저 같은 경우는 좋았어요. 비록 제가 원해서 온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와서 이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고 만약 한국에 있었으면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한국만 알 텐데 그런 점에서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땐 이상하게 한국서 중국으로 조기유학 오는 게 갑자기 유행이 됐어요.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유행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유학 와서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술 먹고 담배피고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온 애들과는 달랐어요. (학생 전원) 그래서

조기유학은 꼭 부모님과 같이 와야 해요.

사회: 두 사람은 조기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A 와 B :저희는 반대예요.

A 어느 술집을 가도 다 한국 술집 사장님들이 아이들한테도 술을 팔아요. 한국 사람이 나빠요. 어떻게 같은 나라의 아이들에게 술집사장이라고 술을 팔아요. 애들끼리 가도 어느 술집에서건 다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밥 먹고 술을 먹는 문화가 있대요. 어떻게 어린 학생들이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셔요. 한국에선 절대 못하는데 여기 중국에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 구워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여기요 소주 한 병이요 이런 말을 한국에선 절대 안 되는데--- 여긴 너무 자유스러워요. 제가 아는 분이 대련에서 홈스테이를 운영 하시는데 이미 한국 자기 집에서 포기해서 보낸 아이들이라 홈스테이 하는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정말 고생이 시래요. 성관계문제도 있고. 학교도 다 찢리고. 그래서 홈스테이 하시는 분이 이 아이를 못 맡겠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품에서 가르치고 돌봐야하는데 그 홈스테이 하시는 분께 돈 더 줄 테니 우리 아이 그냥 중국에 있게 더 맡아달라고 그런대요. 그런 아이들 부모들이 더 비정하고 나빠요. 그래서 홈스테이 라는 곳에서 문제가 더 많다고들 하더라구요.

A 길을 가다 보면 정말 어이없는 장면이 많아요. 너무도 어린아이들이 자연스레 술 먹고 길에서 담배 피고 있는 거 보면 화가 나요. 어린애들이 술 먹고 싸움하고 길에서 토하고 그런걸 보면. 저렇게 자기 의지도 없는 아이를 중국에 보내놓으면 어떡하란 말인지--- 물론 자기의식이 뚜렷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부모들이 등 떠밀어 온 거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죠.

B 중국이 그래요. .탈선이 멋져 보이는 게 유행이라고 생각 하나 봐요. 제 아는 아이가 13년을 여기서 살아서 오히려 한국말을 잘 못하고 중국 애들이랑만 어울리고 으스스대며 말하고 우리가 보면 그게 별것도 아닌데 중국아이들에게는 먹히는지. 아무튼 중국에 일찍 오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 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 A 제가 봤을 때 C양은 일찍 중국에 왔어요. 안 그렇거든요. 중국에 일찍 온 애들은 인간관계에서 아무 것도 몰라요. 친구랑 선배나 언니 오빠들에게 대하는 게 당연히 다른 법인데 여기 일찍 온 애들은 위아래가 없어요. 어떤 애들은 아는 형이 충고하면 “나이 많은 게 자랑 이에요?”라고 말하는 그런 지경 이에요. 때로 같이 술을 마셔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지네끼리 어릴 적부터 자유롭게 막 술 먹고 논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행동도 너무 심해요. 사람과 사람이 지내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예의가 필요한 법인데 혼자 여기서 자유분방하게 살다보니 할 말도 구별 못하는 애들이 참 많아져요. 자기 생각이 이러하다 해도 먼저 속으로 한번쯤은 생각해보고 말을 내뱉어야하는데 그냥 말부터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많이 주고---
- B 맞아요. 그래서 조기유학을 혼자 오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 중국에 앞으로도 새로 오는 학생들이 많을텐데, 본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여기 와서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나 제안을 말해 주세요.

- A 자기가 뭘 해서 뭐가 되겠다는 목표를 꼭 가져 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분명한 마음가짐을 가져 와야 탈선도 피할 수 있을 테니까.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잘 생각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 B 자신감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에서든 내 생활에 대한 자신감. 저는 흔들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전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자기 행동에 책임 질 수 있는 그런 걸 가져 왔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의지하려 하지 말고 책임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삶에 대한 자신감---
- C 저도 중국말을 배우고 싶고 꼭 중국에 오고 싶은 애들만 왔으면 좋겠어요. 중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해요. 그냥 중국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얼떨결에 외선 난 한국 애니까 너희들보다 나으니까 라는 우월감

만 가지고와서 중국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걸 보면 웬지 싫어요. 가급적 그런 생각은 버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A와 B : 맞아요. 그런 우월감으로 중국인들과 충돌도 많이 일으켜요.

사회자 : 그런 애들이 문제를 자주 일으키나?

C 만약 싸움이 나더라도 중국 사람 주제에 나랑 싸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B 그런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사치나 돈쓰는 것에 급급한 애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내실을 잘 채우고 왔으면 좋겠어요.

Focus group discussion #4

(북경대, 남학생)

시간: 2006년 09월 14일 16시 -18시

장소: 김익기 교수 덕

사회: 김익기 교수

참석자: A (남자, 대학생, 20세, 중국유학 5년)

B (남자, 대학생, 20세, 중국유학 4년)

C (남자, 대학생, 23세, 중국유학 2년6개월)

D (남자, 대학생, 20세, 중국유학 4년 3개월)

E (남자, 대학생, 21세, 중국유학 4년)

- 처음 중국에 올 때 언제 누구하고 같이 왔으며, 처음 올 때 두려움은 없었는지요?

D 저는 2002년 4월 아버지 사업이 ‘절강성’에서 시작하셔서 아버지 사업이 안정 된 후에 중국으로 부르셔서 어머니랑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C 저는 2002년도에 아는 친구랑 같이 먼저 어학연수를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회: 2002년? 그럼 4년 됐네?

C 네. 횡수로 4년입니다. 근데 다시 한국 가서 군대 갔다 왔습니다.

사회: 먼저 중국에 왔다가 군대 갔다가 다시 온 거네. 친구랑 같이 왔다고 ?

C 네.

B 저는 2002년도 9월에 저 혼자 오게 됐어요. 어학원 통해서 혼자 왔어요.

A 2001년 8월 28일 제 친척이 동아그룹 계시는 아시는 분을 통해서 왔어요. 그 사람 혼자 가기 뭇하다고 이모부가 저를 같이 가 보라고--- 전 친척이

랑 같이 왔어요. 먼 친척 뻘 되는 사람하고요.

사회: 처음에 올 때 그렇게 두렵거나 그러지 않았어?

D 갑자기 내린 결정 이라서요. 중국 애들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C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중국 무역을 하신지 오래 되었고, 게다가 저의 누나도 중국유학에 온 적 있어서 별 다른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B 저도 마찬가지로 어려움 없었습니다.

A 저는 딱 중간인 거 같아요. 저는 친구들이랑 중국이라면 빨간 거 생각하고 한편으로 그런 게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발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E 저는 고등학교 일학년 마치고 반년 있다가 혼자 아는 사람이 천진에 있어서 천진으로 혼자 왔고 어학연수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 중국에 유학을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고 왜 중국에 왔는지, 그 다음에 중국에 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또 있었나요?

D 중국에 아버님 사업이 있으셔서요. 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 같고요. 가족들이 같이 있을 수 있고 교육이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도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결정을 내린 거 같습니다.

사회: 지금 가족이 같이 있나?

D 아니요. ‘철강성’에 계십니다. 아버님 혼자 계셨다가 이제 다 같이 있게 된 겁니다.

C 저도 뭐 특별한 계기가 없고, 아버지가 중국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아버지 영향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중국 유학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했고 저희 누나도 중국으로 먼저 유학을 갔고 저도 그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B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를 한국에서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가야할 때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성적 나온 것을 보고 도저히 제 성적으로는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갈수 없을 거 같아서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여기저기서 자문 구하고 저 혼자 스스로 알아 본 게 많아요. 가족들은 니가 원하는 대로 니가 하고 싶은 바면 능력되는 곳까지는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상황으로 봤을 때 중국이 가장 알맞은 거 같아서 북경으로 가게 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볼 때 중국이 제일 좋다?

B 그런 것 보다는 한국이랑도 가깝고 미국 캐나다보단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A 저는 중국 지방 ‘백성’이란 곳에 있었어요. 지도로 보면 ‘흑룡강’과 가까운데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동아그룹 공장에 다니시는 분이 사업을 개척을 하는 단계라서. 맨 처음 그런 게 되게 두려웠어요. 정보가 하나도 없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려 해도 인터넷 정보는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맨 처음 많이 고생했어요. 특히 저는 외동 아들이라 부모님이 보내기 싫어했어요. 자꾸 이모부 쪽에서 “한국에 있으면 뭐하냐. 앞으로 중국이다”라고 계속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결정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E 저는 처음 이모님 권유로 오게 되었고 특별한 계기는 없었습니다.

- 중국에 오기 전에 중국의 언어나 문화나 풍습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를 미리 했거나 중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왔나요?

A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일부러 안한 것도 있었어요. 제 앞에 중국에 온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분 은 어디 대련으로 가셨는데 한국에서 풍습을 배워간 거랑 중국에 가서 본 거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당부하시길 그냥 가서 부딪혀라. 아무것도 모르고 가라.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니하오’만 알고 딱 왔어요. 아무 것도 모르고--- 중국어 공부도 전혀 안 하고. 그냥 학교수업을 곧바로 들어갔어요. 원래는 어학연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는 한국 사람이 딱 두 명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가서 그냥 바로 부딪혔어요.

B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두 달 정도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 다니면서 기본적인 발음정도 좀 배우고 풍습이나 그런 거 따로 공부한 거 없이 그냥 책 같은 거 사서 조금 보고 왔습니다.

C 저도 준비한 거 없었고요. 학원 한 두 달 다닌 거 밖에는---

D 네. 저도 아무 준비 없이 중국어를 더 준비하거나 연습한 거 없이 그냥 책만 많이 사왔습니다

E 전 집에서 혼자 책 사고 봤는데요. 도움이 안 되더라구요.

- 어디에서 누구랑 살고 있고,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잘 지내고 있는지, 혼자 사는지 아니면 누구랑 같이 사는지 현 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A 저는 아는 형이랑 한국서 5살부터 부모님끼리도 친한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오랜 친구랑 형이랑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집은 '동승원' 아파트입니다.

B 저는 '왕주양루'라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D 저는 혼자 '절강성'에 있다 혼자 올라오는 바람에 여건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몰랐어요. 그냥 학교 외국인 기숙사에 들어가서, 세 명이 각자 한방씩 쓰면서 살고 있고요. 한분은 한국 분이시고 또 한분은 캐나다 화교 분이신데 사이는 괜찮아요.

E 저는 '화칭'아파트 10동 1809호에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 중국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요?

A 말은 대개 빨리 늘었어요. 제가 있던 곳은 한국 사람이 없어서 저는 3-4개월 되었을 때 다 듣고 말했던 거 같아요. 그 다음부터 거의 그 수준으로 쭉욱 가는 거 같아요.

사회: 그럼 중국어 사용에 아무런 어려움 없겠네?

A 근데 교수님이 지향하시는 거 외에는 불편한 건 없어요. 수업 중 지향하시는 건 모자랄 때도 많아요. 강의 들을 때 중국 교수님 말씀이 너무 빠르고 다른 과목에선 안 그러는데 사회학과 과목은 듣고 있다 보면 집중력이 그냥 흐트러져 버려요. 아무래도 사회학과 과목은 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짧아 지더라고요.

B 듣고 말하는 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 같지는 않는데요. 쓰는 거 연습을 게을리 하다 보니까 논문을 쓰거나 작문은 확실히 막히더라고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교수님 말을 못 알아듣는 것 보단 사회학자체 용어나 내용자체가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교수님이 강의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건 집중하면서 계속 듣는데, 조금이라도 도중에 이상한 말이나 이해 못하는 말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막히니까 거기서부터 못 이어 나가는 거죠. 이 말이 대체 뭐가 계속 그 생각을 하다 보니 그때부터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C 저 같은 경우엔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보통생활에서도 어려움이 많아요.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렇다고 노력은 많이 안 하는 거 같아요.

사회: 부족한건 느끼는데 노력은 안한다?

D 저는 고등학교 때 중국아이들이랑 기숙사를 같이 썼던 덕분에 말이나 듣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역사과라서 교수님들이 옛 말들, 고문들 많이 쓰시니 거기서 막히고 저도 쓰는 것도 게을리 하다 보니 작문에서 막힙니다.

사회: 수업 듣는 게 어렵다?

D 네. 용어가 어려운거 같아요.

사회: 역사는 중국역사를 공부하나?

D 3학년 되어야 과가 나뉘지는데. 중국 역사 부분에서 옛날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어렵죠.

E 말하고 듣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여기 빨리 왔잖아요. 45년 있었는데. 그 만큼은 못한다는 거예요. 중국 오래 있었는데 2-3년 온 애들과 비슷해

저요. 중국어라는 게 짧은 시간에 늘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꾸준히 노력을 더 하면 더 많이 늘 텐데. 말하는 시간이 별로 없고 하니까 기간은 늘어나도 중국말이 늘 기회가 많이 없어요. 학교생활도 해야 하고 쫓기다 보니 혼자 공부할시간이 부족한 거 같아요. 글 쓰는 것도 많이 써 봐야 하는데---

B 네. 보통 2-3년 된 사람이나 4-5년 된 사람이나 비슷해요. 발음이 좋고 안 좋고의 차이 외엔 거의 말하는 수준이나 쓰는 단어량은 비슷한 거 같아요.

- 지난 일 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열심히 하니까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공부할 때나 수업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럴 땐 중국학생들의 도움은 받는가?

E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죠. 예를 들어 예습을 하고 가면 효과가 좋은데 그냥 가면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그냥 모르고 잘 못 따라가요. 수업 전 잠시 읽어보고 수업 끝나고도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 수업 들어 가면 기억에 남고 도움이 되는데---

사회: 그럼 어려울 때 중국 친구들이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기대하거나 그러는지?

E 유학생들끼리는 원래 도움을 주고 단합이 다 잘 되는데, 저는 중국 애들하고 많이 못 어울려요. 어울려 보려고 하는데 중국 애들이 맘을 안 열어 주고--- (전원 웃음)

사회: 중국 애들이 맘을 안 열어 ?

D 저는 유학생들하고 많이 안 어울렸어요. 그래서 중국 애들하고 많이 친해져서 자료도 나누고 특히 교수님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았었어요. 교수님들에게도 참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드리니까 교수님들이랑 중국 학생들이 다들 좋아 하더라고요.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니 다들 좋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공부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어요.

C 저 같은 경우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혼자 하

려해요.

사회: 독립정신이 강하군. 그럼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고?

C 네, 몰라도 그냥 넘어 가는 편이에요. 성격 탓이죠.

사회: 그럼 혼자 공부한 만큼은 효과가 있는 거 같은가?

C 그런 느낌도 없는 거 같아요. 하는데도 지금 제가 뭘 보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해야죠.

B 저는 워낙 대학교 일학년 생활을 엉망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만큼 점수가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 하고 워낙 억압되어 있었던 영향인지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니까---

사회: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은 복경에서 했나?

B 네, 고등학교 기숙사요. 수사대(수도사범대학) 부중이라고. 100퍼센트 기숙사 안에서만 생활 하다 보니 너무 거기서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대학 와서 해방감이 너무 지나치게 들다 보니까 침에 많이 놀았는데 지금은 자책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A 저 같은 경우엔 워낙 제가 책을 싫어해서요. 어려서부터 말하고 어울리는 건 되게 좋아 했는데 책을 싫어했어요. 저는 대부분 말로 하면서 중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고요. 근데 문제는 전 책을 다른 사람보다 덜 보다 보니까 아는 지식이 떨어지는 점. 또 시험 볼 때는 솔직히 책을 많이 읽는 것 보다는 중국어로 표현하라고 하는 게 많아서 책은 안 읽지만 말로 표현하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나마 성적이 나오는 편이구요.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매일 밤 10-11시에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다른 친구들처럼 억압되었던 느낌은 안 들었는데 그냥 그 생활이 너무 지겨웠던지 대학생 되니까 그냥 책이 보기 싫은 거예요..책 자체만 봐도 그냥 무조건 거부감이 생겼었어요. 원래 책을 안 좋아 했는데다가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보게 하니 대학생이 되어 책을 안 보게 되는 역효과가 나는 거 같아요.

사회: 중국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시키는가보지?

A 한국이랑 게임도 안 될 거예요. 여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어져요. 여

긴 한국처럼 학원 같은 문화는 전혀 없는데. 그냥 여긴 다 외동아들 외동 딸 이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억압을 시켜버리니까요. 특히 저희 학교는 더 그랬어요. 심지어 국경절 때도 허가받아야 집에 가고 그랬어요.

사회: 어느 고등학교였지?

A ‘백성’이라는 지방에 있는 ‘백성일중’이라는 곳입니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학교를 다 갔어요. 그래서인지 책을 아직도 싫어해요.

사회: 그럼 혹시 공부할 때 중국 친구들 도움 받기도 하나?

A 저는 지금 같은 학교에 있는 친한 중국 친구가 딱 한명 있고, 인민대 법학과에 같은 고등학교 나온 중국 친구가 있어요. 그 애는 두 달에 한 두 번 만나서 밥 먹는 정도이고, 대부분 우리 학교 친구한테 모르는 거 있을 물어 보고, 제가 또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있고요.

- 앞으로 중국에 얼마나 더 있을 예정인지요? 졸업하고 계속 중국에 있을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한지요?

E 졸업은 여기서 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희망사항은 한국이나 미국 쪽으로 가는 겁니다.

D 저는 중국역사전공이고 전 중국사를 공부 하고 싶거든요.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중국서 석 박사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C 저 같은 경우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정했는데 공부를 더 하게 되면 중국에서 더 할 거고, 취직을 한다 해도 중국에 있든지, 아님 한국에 가더라도 중국에 관련된 일을 할 거 같아요.

B 저도 여기서 졸업 하면 한국 돌아가서 군대도 가야하고, 제가 워낙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 흥미도 없고, 북경에서도 재미가 없고 생활이 적응이 안 되서 북경 외 영국 미국 쪽으로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사회: 북경대 사회학과, 북경대 하면 세계적인 대학인데 공지가 있을 거 아냐?

B 공지가 있지만, 그거야 제가 열심히 하고 안 하구에 따라 저에 대한 공지가 있지 그냥 제가 북경대 사회학과 나왔는데 그 안에서 제가 열심히 하지

않고 어영부영 졸업만 했다 하면 제 스스로에 대해 긍지를 못 느낄 거 같아요.

A 저는 오늘 긍지가 다 무너졌습니다.

사회 : 왜지?

A 저는 중국 애들이 천재라는 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중국 애들이 그렇게 똑똑한지 오늘 알게 됐어요. 오늘 영어수업을 같이 듣고 나서 ‘아...이게 나랑 다른 점이구나.’를 느꼈어요. 예를 들어, CNN 미국방송에서 캐스터가 5초 말한 것을 선생님이 시키면 중국 애들은 완전 목소리 톤까지 비슷하게 따라 해서 놀랐어요. 오늘 확실히 느낀 게 벽이 높구나. 그런데 그 벽을 허물기는 제 생각엔 한국인은 아직 불가능하구나. 정말 아무 것도 안하고 공부만 하면 모르겠는데 또 북경생활이 그렇지 않으니깐요.

사회: 근데 예를 들어 중국어를 하는 데는 당연히 벽이 있겠지. 개들한테 당연히 중국어가 모국어니까 근데 영어는 다 제 2외국어 아닌가? 중국 애들이나 한국 애들이나---

A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만큼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중국 애들보다 유학생들은 학교과정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학교도 유학생에겐 터치를 별로 안하고 향상 시키려고도 안하고 학점만 따라는 식이고 저희는 중국 애들과 달리 영어 수업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찾아 듣는 식이죠.

사회: 수업하는데 외국인들과 중국 애들과 차별이 있나?

A 수업하는 데는 전혀 없어요.

사회: 똑같이 수업 하고 똑같이 성적을 주나?

A 과목마다 다른데요. 선생님들 중에는 유학생들을 배려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유학생들에게 점수를 많이 줘야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시험 때 되면 한 달 전부터 압박감을 느끼고 나름대로 유학생들 정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아요. 공부도 나름대로 하는데 중국 애들과 언어에서부터 처지니까 만약에 점수 안주는 선생님을 만나는 경우에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자체가 워낙

점수가 짜니까 자기 스스로는 노력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좌절되죠.

사회: 그래도 무조건 유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하면 유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지 않을까? 같이 경쟁을 해야---

A 그런 부분도 있죠.

사회: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A 저도 맨 처음 북경대 올 때는 중국 애들과 같이 겨뤄야겠다고 들어 왔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언어의 벽이라는 걸 무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나름대로 중국 애들과 비교했을 때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걸 개발 시키는 게 훨씬 낫겠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냥 개네들만 무작정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선을 따라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다시 나눠서 노력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 여가 시간엔 누구랑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내는지요?

E 저는 테니스를 주로 많이 치고, 인터넷도 하고 가끔 책도 보고, 운동할 때 외엔 주로 혼자 지내는 편입니다

D 저도 운동 좋아하는 편이고요. 테니스 자주 쳐요. 그리고 음악 좋아해서 혼자 음악 듣고 혼자 노래하고 악기 다루고 그러면서 보냅니다.

C 저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농구 좋아해서 한국 친구들과 농구를 같이 하고요. 평일엔 집에서 TV를 보든가 책보다 자죠.

B 저는 매일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요. 가끔 시간 나면 중국인 친구들을 만나요. 제가 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그때 알았던 푸다오(과외) 선생님이나 고등학교 동창들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도 보고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사회: 중국 애들도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만나나 ?

A 네, 그게 북경에선 유일하게 고등학교 나온 애들만의 좋은 점인 거 같아요.

D 저는 집이 ‘절강성’ 이라서 방학 때 집에 가게 되면 그쪽 친구들이랑 연

락해서 자주 모이고 그래요.

사회: 중국에도 고등학교 동창을 중요시 여기네?

D 네. 중국친구들도 ‘관계’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 같아요.

A 저는 교회에 나가다 보니 여가시간에 대개 바빠요. 운동도 너무 좋아해서 토, 일요일은 운동이랑 교회에 거의 다 쓰고, 또 여자 친구 있어서 여자 친구랑 같이 놀고, 얼마 전부터 재미 붙인 게 있다면 북경을 돌아다니는 게 좋아졌어요. 북경에 이것저것 좋은 곳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여가 활동을 그런데 많이 쓰려고 해요.

사회: 대체적으로 여가 활동을 잘 섭렵하고 있군.

-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는지요. 전화나 이메일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요?

E 친구들과는 인터넷으로 ‘싸이월드’라는 홈페이지에 쪽지를 남기거나 메신저로 만나서 채팅을 하거나---

사회: 가족들하고는 얼마나 자주 연락해?

D 일주일에 두 세 번. 가족들이 중국에 계시지만 제가 전화를 자주 드리고요. 한국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전화 자주 하구요. 친구들 이랑도 인터넷으로 안부 전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C 저도 부모님이나 누나 같은 경우엔 자주 연락을 하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엔 서로 바쁘다 보니까 전혀 연락을 못하고 있죠.

B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는 인터넷으로 연락하고 부모님과 는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연락 하는 편이에요

사회: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하고는 이미 몇 년 전에 헤어졌을 텐데도 계속 연락이 안 끊기는 모양이군?

A 근데 여기 있다 보면 점점 한국에 있는 친구 숫자가 줄어드는 거 같아요.

- 이성친구가 있나요? 그 외에 친한 친구는 얼마나 있고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요?

E 저는 친한 친구들이 다 한국에 많은 편이구요. 중국에서는 같은 과 사람들과 같은 학교 친구들과 많이 친하고 이전에 수학 푸다오(과외) 했던 선생님과 가끔 만나 밥도 먹고---

사회: 이성 친구는 없어?

E 없어요.

D 저는 ‘절강성’에서는 한국 친구가 없었어요. 중국 친구들이 좀 있었고 북경에선 같은 과 친구들이 많고 아직 이성 친구는 없습니다.

C 저는 저희 학과 유학생들과 농구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저희 학교에는 친한 중국 친구는 없고, 중국어 과외해 준 중국인 친구랑 간혹 연락하고, 이성 친구는 없어요.

B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 했던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요. 힘든 일 있으면 간혹 술도 같이 마시고 그래요.

사회: 중국친구들과는 잘 어울리고 잘 만나나?

B 아니요. 중국 친구들은 한국 친구들과 좀 다른 거 같아요. 중국 친구들과 안지도 거의 3·4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 마음을 여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진 격이 있는 거 같아요. 한국 애들과는 우선 기숙사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허물없이 가깝게 지냅니다.

사회 : 일반적으로 중국 친구들과는 잘 섞이고 잘 지내기 힘든가?

A 지방에서 고등학교 다닐 땐 중국친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다 흩어지다 보니 여기로 온 중국친구는 3명 밖 이구요. 저는 오히려 중국 남자애들과는 말이 잘 안 통해요. 그게 중국 친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애들이 생각이 트이지 않았다고 해야 하나요? 그에 반해 중국 여자 아이들은 생각이 좀 트인 거 같아서 잘 지내게 되요. 그래서 오히려 전 남자보다는 여자 친구들이 말이 더 잘 통했어요. 그 외에 전 우리 학과 한국 사람들과 그리고 제 여자 친구랑 여자 친구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테니스 동아리 그리고 교회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 술 담배를 하나요?

E 담배는 안하구요. 술은 마시긴 하는데 많이 마시진 않아요.

D 저도 담배는 안하고 술은 가끔 모임 있을 때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C 담배는 안하구요. 술은 농구팀 하다 보니까 운동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해서 한번 모이면 많이 마시죠.

사회: 술 취하도록 많이 마시나 ?

C 제가 워낙 운동 좋아하고 사람 좋아해서 운동 끝나고 농구팀과 회식하는데 한번 마시면 많이 마시게 되는데 그런 기회는 한 달에 두 세 번 정도입니다.

사회: 대개 모임 때 마시고 피로울 때는 안마시나? 혼자서 피로운 일이 있다가 할 때?

B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잘 못하는데 술자리는 자주 가지는 편이에요. 담배는 이제 끊으려고 하고 있고요.

A 저는 술은 간혹 모임 자리 있음 마시고 담배는 안 피요.

- 여기 지내는 동안에 비행을 했거나 비행을 당했거나 주변에서 누가 당했거나 또는 사기. 협박당하는 거, 성관계 등등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본 적 있으면 말해봅시다.

B 비행이라 단정 짓기엔 사람마다 생각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남자라면 그걸 꼬옥 비행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단란주점을 간다거나 하는 정도---

A 여기 보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가라오케를 많이 가거든요. 근데 저는 기독교니까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아요.

B 그 외엔, 고등학교 때 중국 여자에게 빠져서 용돈 받으면 다 탕진하고 돈이 없으니 애들한테 돈 꾸고 그것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한국으로 가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사회: 그 중국 여자애들이라는 게 술집 다니는 그런 애들?

B 네. 다 그런 식이에요. 중국 여자들 뺏에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 경찰서 가서 자기가 강간당했다는 등등의 이유로 뺏을 놓는 거죠. 술을 마시자 해서 따라왔는데 나중에 중국 여자가 주장하기로는 자기는 마시기 싫었는데 한국 남자들이 억지로 마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 몸을 더듬었다 이런 식이죠.

사회 :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B 네. 그럼 경찰서에 가면 경찰이 그렇게 말한대요. 이 애들이랑 싸워봤자 도움 안 되니까 백 위안 정도 주고 끝내라고.

A 조선족이 연 부동산에 일을 맡겼는데 사기 당했다. 뭐 그런 일도 간혹 있습니다.

- 유학생할 중 얼마나 자주 외롭다고 느끼는지, 외로우면 어떻게 스스로 달래는지요?

E 저는 교회를 다녀서 외로움 느끼는 적은 없어요. 심심하면 사람들과 운동도 하고 뭐 먹으러 가고 외로움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D 저도 북경으로 와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니 외로울 새도 없어요. 정 외로우면 운동을 합니다.

사회: A군은 여자 친구가 있어서 안 외롭겠군?

A 그래도 외로울 때 많아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땐 항상 룸메이트들과 함께 있다 다 나가고 나면 갑자기 외로움을 느끼곤 해요.

- 중국사회에 적응정도는 어떠한가요? 잘 적응이 되는지. 안된다면 왜 그런지? 중국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중국 사람들과의 관계라면 방구할 때 물건 살 때 생활에 부딪히는 점에서 또는 교통질서를 지키는 문제 등등의 중국생활 전체 문제)

E 중국은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요. 교통, 부동산. 택시기사의 불친절 등등. 민족 사상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가보다 라고 생각하며 적응하는 거죠.

- D 가치관의 차이가 많아요. 일단 생활 습관이 달라 문화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죠. 하지만 그걸 배우려고 왔으니, 좋은 건 익히고 나쁜 건 버리고 스스로 노력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사회: 특별히 중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건 없나?

- D 솔직히 있는데 참으려고 노력하죠..

사회: 어떤 때 그런 걸 느끼나?

- D 물건 살 때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됐으며, 남에게 책임을 떠맡기려고 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면서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저는 안 그래야지 합니다.

- C 솔직히 여기선 중국말 하나도 몰라도 살 수 있을 만큼 한국 사람이 많고 한국 식당도 많아서 생활면에서 적응도는 말하기 어렵구요. 중국인들 무단 횡단하는 게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 B 저 같은 경우도 북경에서 오래 있다 보니 별 다른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 A 이번에 저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은 일이 있었어요. 방 계약을 하면서 중국인들의 책임감 없는 일처리 때문에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됐어요. 부동산이랑 방주인이랑 애기가 안 맞고, 저랑 또 애기가 안 맞아서 무척 애를 먹었어요. 중국 와서 제가 성격이 좀 변했는데요. 한국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중국에선 이런 불합리한 일을 많이 겪다 보니 뭐든 확실히 알아보고 확실히 처리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하건 꼼꼼하게 해요..저도 중국인들에게 손해 안 보려하고 만약 무슨 계약을 하면 끝까지 따져서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 진로, 이성문제, 경제문제 등 혹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는 무엇지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는지요?

- E 학생이니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요. 해소법은 없어요. 그냥 공부하는 수밖에요. 그거 말구는 이제 졸업하고 사회 나갈 걱정. 지금 2학년 마쳤는데 아직 확실히 길이 안보이니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갈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 D 저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저는 욕심이 많아요. 자기 자신에 부족함을 절실히 느낀다거나 더 앞서가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냥 공부하고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입니다.
- C 저도 북경대서 유학하고 있는데, 북경대란 이름에 비해 제 능력이 안 되니 그런 면에서 스트레스가 많고요. 학과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외국어로 배우니 참 많이 힘들어요. 언어방면에서도 좀 더 유창하게 하고 싶은데 그 정도가 아니니까 스트레스 많아져요.
- B 요즘 다른 스트레스는 없고 항상 가지고 있는 군대 문제나 장래 문제 군대만 생각하면 받는 스트레스가 심해져요.
- A 저는 앞으로의 방향을 못 잡아서 그게 스트레스 인거 같고요. 특히나 지금이 방황기 인거 같아요. 비록 제가 사회학과로 오긴 했지만 저는 호텔이나 리조트 쪽으로 너무 가고 싶은데 길이 아예 안 보여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제가 원하는 방면부분은 거의 다 미국 쪽에 있는데 여기 있으면서도 항상 느끼는 게 4년 동안 사회학과에서 공부해야 하는데 4년 동안 내가 얻는 게 뭐가? 선배들도 말하길 얻는 거라곤 정말 열심히 해서 얻는 건 겨우 북경대라는 곳을 졸업 했다는 거..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이랑 의논을 해 봤는데 집에선 졸업부터 하라는 주장이 시고--- 아무래도 장래가 가장 문제인 거 같아요.

- 조기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요?

- C 전 조기유학을 반대합니다. 제 주위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를 중국에서 나온 친구들인데 솔직히 저는 굳이 중국에까지 와서 고등학교를 나와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A 전 C군 의견과 다릅니다. 고등학교 때 와 봐야 중국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안 나오고 막연히 대학부터 시작하면 정말 더 모를 수 있어요. 왜 중국 애들이 화를 내는지, 중국 사람과 교류 할 때도 여러 가지 경우에서 이해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반면 조기 유학이 나쁜 점도 많죠. 예의도 없어지고 한국 친구들과 문화면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도 중국을 잘 알려면 항상 추천하지만 중국엔 고 1때 와라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와라. 제가 중국을 일찍 왔기 때문에 계속 보잖아요. 더구나 제 밑에 40명이 넘게 있었어요. ‘백성’에 만요. 꼬맹이도 다 있는데 그래도 중3 이랑 고1때 온 애들이 철도 약간 들었으니 자기 통제도 어느 정도 되고, 언어도 어른 보다 빨리 습득해요.

B 저는 A군과 다른 의견인데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 같아요. 대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본인만 올바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어리다고 자기가 이상한 곳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제 주위엔 중2, 중3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열심히 해서 북경대 가겠다는 등의 목표의식도 분명해요. 특히 그 애들은 거의 수재 급이죠. 중국 애들하고 중국말도 거의 똑같은 정도로 하고 모든 과목을 중국어로 다 배우니 수학이나 언어 모두 아주 잘 해요. 대신 한국과 동 떨어지는 느낌도 들고 한국에 있는 친구도 잃을 수 있는데 반면 어릴 때 와서 잘 하면 이득도 많은 거 같아요.

D 조기유학을 선택 했다 하면 제 생각엔 무조건 부모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 모두 동의) 만약 자기생각이 좀 부족하면 부모님이 보듬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이를 떠나서 저희 같은 대학생이라 해도 부모님 사랑은 필요하니까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 걸 떠나서 사랑이 뒤에 있어야 언어나 문화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A 정말 맞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오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들과 같이 있는 친구들 보면 옷 입는 것부터 먹을 거 다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모든 게 안정적이라 공부도 더 잘되는 거 같아요.

D 맞아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부모님이 같이 계셔서 그 점에서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 중국에 앞으로도 새로 오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본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여기 와서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나 제안을 말해주세요.

E 여긴 한국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되도록 한국인이 없는 곳으로 어학공부를 하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고요. 중국에 온다 할지라도 영어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 해요.

D 어디를 가건 어떤 상황이건 이겨내야 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컨트롤이 제일 필요한 거 같아요. 유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여가는 뭘로 보낼지 자신이 확실히 좋아하는 것을 정하고 왔음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어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굳은 각오와 진로를 확실히 정해서 오는 게 중요 한 거 같아요.

C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부모님 권유로 온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와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 한 거 같습니다.

B 고등학생 경우 어느 고등학교를 가서 어떻게 공부할건 지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서 공부 하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와야 하구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국 와서 별다른 생각 없이 중국어 공부나 하겠다는 생각은 안 될 거 같아요. 중국에 와서 어떤 방면에서 공부하고 싶은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 거라는 그런 계획을 확실히 잡고 와야 할 거 같아요.

A 어디에 첫발을 들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전 중국 처음 올 때 북경이 아닌 지방에 가서 너무 좋았거든요. 또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너무 성심 성의껏 잘 도와주셔서 전 다행히도 첫발을 잘 디딘 거 같아요. 우선 그 첫발을 얼마나 잘 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침 유학 오려면 저는 무조건 유학은 시골 한적한 지방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긴 나쁜데 빠지려 해도 그런 곳이 없고, 한국인이 거의 없는 시골에 가서 중국 애들이랑 교제하는 가운데 문화도 저절로 습득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학 입시를 목표로 온다면 지방 쪽엔 정보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무작정 시골에 있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므로, 방학 때나 아니면 북경에 연고지를 두고 확실한 정보를 챙기며 그에 맞게 자기 공부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Focus Group Discussion #5

(혼성대학생, 중국 유학 2년 이하)

시 간: 2006. 7. 10 14:00 - 15:30

장 소: 김익기 교수 집

사회자 : 김익기 교수

참석자 : A (남, 대학생, 26세, 중국유학 1년)

B (여, 대학생, 22세, 중국유학 1년 5개월)

C (남, 대학생, 20세, 중국유학 1년 10개월)

D (남, 대학생, 21세, 중국유학 2년)

사회자: 이제부터 중국에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의 적응실태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학생은 처음 중국에 올 때 언제 누구와 같이 왔습니까?

A 저는 작년에 중국에 여행 왔다가 중국어에 흥미를 느껴서 여행 중에 눌러 앉았어요.

B 저는 처음에는 일본어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입학 당시 중국어 열풍으로 인해서 중문과에 입학하면서 유학을 생각했고 3학년 마치고 휴학이후 어학연수를 오게 되었습니다. 온 지 1년 5개월 되었고 혼자 왔어요.

D 저는 18살에 왔는데 학교 자퇴 후 부모님께서 미국 유학을 가라고 권유했으나, 그 경비를 가지고 중국으로 왔고 처음에는 ‘니하오’ 정도 만 중국어를 알았고 한자도 몰랐습니다. 와서 회화를 했어요.

C 저는 한국에서 중문과에 들어갔는데 중국어에 자신이 없어 다시 재수하다

가 한국에서 중국대학 커리큘럼을 보고 친구들과 2개월 중국어 공부하고 같이 중국에 왔습니다. 중국 대학으로 들어가려고 1년 여 준비하고 각자 대학에 들어갔고 온지는 1년 8개월 되었습니다.

- 학생이 유학을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중국에 온 이유는 무엇이고 유학을 온 계기는 누구 때문입니까?

D 자퇴 이후 부모는 미국으로 가라고 했으나 막연한 반미감정으로 인해 미국 유학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미국 유학 간 친구들의 잘못된 행태를 보고 유학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서 부터 중국에 관한 책을 많이 접했고 막연히 중국을 좋아해서 중국에 왔는데 더구나 중국에 대해 말이 많아서 오는 것에 힘이 되었고 원래 온 것은 중국문화에, 영화, 수호지 삼국지 등 문화 책에 관심이 많다 보니 스스로 흥미가 생겨서 중국에 왔습니다.

B 솔직히 중국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중국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중국어를 선택한 이상 언어를 배우는 것이 기본인데 학교에서는 정치 문화 등을 배웠으나 언어를 배운 것은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언어를 배울 수 없었고 학원이 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미 중문과를 선택한 것은 유학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왔어요. 중문과를 선택하면서 언어는 기본이므로 스스로 결정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A 유학에 생각이 없다가 누가 말을 하는데 중국어의 성조가 있어서 강하게 들렸고 연설을 하는데 멋있었고 성경을 중국어로 읽는 것을 보면서 강하게 인상을 받아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더구나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10억이 넘고 그래서 공부해보려고 갑자기 남았습니다.

C 수능 마치고 재수 준비하면서 재수한다고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것이 나에게도 좋은가 생각하다가 주위의 학원이 있어서 우연히 팜플렛을 보다가 유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유학은 학비가 많이 들고 갈 형

편이 안 되었습니다. 중국유학은 형편이 되고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좁은 한국에 있는 것 보다 마침 중국이 가격이 싸서 택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에 비해서 중국어를 두 달 공부하다 보니 중국인과 말이 되고 배울 만해서 3달 되면서 중국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 학생은 중국에 오기 전에 중국의 언어나 풍습 등에 대해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까?

B 유학을 준비하는 데 준비는 필요해요. 선배, 교수님을 통한 정보를 수집했고, 생활과 풍습은 알고 있었고 어느 학교를 결정하고서 학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고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학과 공부를 통해 배웠고 상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어는 학원을 통해 기본적인 실력을 쌓았어요. 학교 휴학하고 북사대(북경사범대학)에 있다가 ‘지구촌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D 군대 제대하고 왔습니다. 대학은 등록기간이 지나서 한국학생이 거의 없는 대학에 등록을 했고 9월부터 다니기로 했습니다. 대학은 재경대학이고 처음에는 니하오 정도만 알고 왔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친구를 사귀었고 전혀 준비가 없었습니다.

C 인민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A 중앙대를 다니고 있는데 자퇴를 했고 지금은 어언대에서 언어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휴가 중에 자퇴를 했습니다. 관심이 없었는데 한달 반 정도의 여행이후 여행 중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익히게 되었는데 친구와 함께 5일 정도 북경이 있던 중에 공부하고 싶어서 여행을 멈추고 친구의 도움으로 학교에 등록하고 남게 되었습니다.

C 중국에 올까 할 때부터 중국어를 공부해서 주위에 유학을 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준비 안하고 왔다가 그냥 온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오기 전 하루에 7시간씩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집에 와서 중국에 관한 책을 많이 접했습니다. 이곳에 와서는 입시준비를 했습니다. 중국

어 때문에 고생은 별로 안 했습니다. 5-6개월 만에 HSK 6급을 획득했습니다.

- 학생은 현재 어디에서,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잘 못 지내고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 A 우다코 동승원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중국인 룸메이트인데 생활 패턴이 틀려 잘 만나지는 못하지만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없습니다. 만나면 영어로 주로 대화하고 그 친구는 밤 늦게 와서 늦게 나가고 나는 자고 있고 일찍 나오므로 만나서 대화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B 중국인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와 중국인 남학생과 함께 동왕장(아파트)에서 삽니다. 들어간 목적은 중국인과 접하고 싶어서 부동산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집의 어떠한에 관계없이 구했습니다. 학원수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 중국인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이 끝나고 시간이 많아도 교류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사니까 만두를 주시기도 해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어요. 내 친구는 주인과 사이가 나빠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 C 중국 온 이후로 계속 혼자 지내고 학원에 다닐 때는 학원에서 주는 기숙사 같은데 있었습니다. 각 방을 썼는데 학원 친구들과 다녔습니다. 이후로는 혼자 학교 근처의 원룸에서 지내고 인민대 서문 쪽 이제 돈이 없어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 D ‘육도구’에서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북경에 있을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계기로 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친한 친구라 얹혀 살아도 관계에 문제없고 재미있게 잘 있습니다. 중국인과 산다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서로 친구가 될 때에 도움이 됩니다.

- 학생은 현재 장래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직업을 정해 놓으신 상태인가요?
학생의 장래 희망직업은 무엇입니까?

A 중앙대에서 영어를 전공했지만 중국어 배우면서 중의학을 준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B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계획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은 한국 돌아가서 일본어를 더 배우려고 계획 중입니다. 졸업 후에 일본 유학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이나 부모와 진로 이야기할 때면 가끔 불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결론은 직업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를 생각하면 조금해집니다.

C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었어요. 중국어과를 가면서 선생의 꿈은 접었는데 아직은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경영학 전공, MBA를 하고 싶은데 집안사정으로 바로 회사를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장남이라 사회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1년 정도 어학연수는 하고 회사를 다니고 직업을 정해야 합니다.

D 사업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든 무역이든지 한 가지를 한정 짓는 것 보다 다방면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2003년도에 와서 가이드도 하고 부동산과 여행사를 차렸습니다. 일들을 통해 돈을 벌어서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군대 갔다가 다시 중국에 왔습니다. 2001년에 중국에 왔습니다. 지금도 일을 할 생각이고 일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가 쉽습니다.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생각이고 끝나면 부모님은 미국으로 가라고 합니다. 공부를 더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학생은 현재 중국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요? 중국어를 배운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D 그 전에 푸다오(과외) 경험, 발음이 좋지 않다고 했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어에 서투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못해도 위축하지 않아

요. 당당한 자신감 그래서 언어가 빨리 늘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나는데 성조가 잘 안 맞는데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C 일상 언어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업시간에 어렵습니다. 약 20%정도 알아 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복습을 해야 50% 이해됩니다. 중국어 공부한지가 1년 8개월 되었습니다.

수업 용어가 어려워 중국어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HSK 고급 (10급 정도)은 따야 50% 정도 알아들을 것 같아요. 중국 애들도 수업을 60% 정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B 일상용어는 문제없어요, 1년이 되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관 (습관)용어를 배워서 실제로 중국인들과 대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어는 만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통해 더 많은 것 들을 배우고 사용하다 보니 우리가 배우는 것과 실제 쓰는 언어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안 이후로 중국인다운 중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불편함이 없지만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 두 학기를 공부했는데 언어 사용에 불편함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점은 내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함이 제일 답답합니다. 진보도 느리고 애매한 것을 요구 할 때 중국어로 하지 못하고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서 쓸 때도 있어서 답답합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전달이 어렵습니다.

- 학생은 지난 1년간 학교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요? 그리고 학교수업이 학생을 성적향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D 예전의 학교에서의 경험을 보면 교수님들과의 관계가 잘 형성됨으로 인해 수업을 잘 참여하진 않았지만 성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온 공부하는 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학생으로서 학교수업에 뒤

떨어지지 않게 하고 다른 면으로 경험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만 바라보는 것이 우스워요. 나의 청춘을 공부만 하지 않고 늘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학교에만 충실하게 하는 것 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C 정공법으로 수업하는데 주력하고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옵니다. 결석하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 수업하는데 어렵습니다. 책이 두껍고 복습하는데 1시간에 6장 정도 나가는데 남들처럼 놀고 싶고 시험 때 만 할까 하기도 하는데. 유학생들 보면 대책 없이 사는 사람도 많아서 어떻게 살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학생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TV만 보는 경우도 있고 시험 때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내 스타일로 힘들지만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합니다. 시험 때는 중국인과 친해져요. 자료나 중요한 것을 주기도 하고 중국 친구들이 시험기간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한국인에게 긍정적입니다.

B 처음엔 매우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2학기에 반 인원 구성이 만족스럽지 않음으로 반 분위기가 공부하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거의 전부 한국 학생이라 실망했고, 서로가 반을 정말 잘못 만났더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수업의 흥미와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치는 방식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출석율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업이 점점 지루해지니까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이번 학기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본과생이 아니고 언어연수이므로 개인적인 의지보다 주위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사대는 선생님이 연구생이 많아서 많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 보입니다. 학원수업은 100% 만족스러웠고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A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언어 연수라 성적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공부를 대충 하게 됩니다. 공부하려는 개인적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 학생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중국에 머무를 예정입니까? 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면 계속 중국에 남을 예정입니까?

- A 중의(중국의학)대 입학 준비 입학하게 되면 6년 이상 머무를 예정입니다. 그 뒤로는 중국에 있지 않을 듯합니다.
- B 이번 주에 귀국하고 일본에 유학 갈 생각이 있습니다. 나중에 중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만약 기회가 있다면 몇 년 후가 되면 오고 싶을 것입니다.
- C 내년엔 군대 가고 군대 다녀 온 이후 다시 와서 졸업하고 나면 7년쯤 될 것입니다. 중국에는 있지 않고 한국에 있던지 다른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 D 중국에서 오래 살고 싶고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다시 중국에 올 건데 최소한 5년 이상 머무를 예정입니다. 이 나라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 학생은 주로 누구와 함께 여가를 보냅니까?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면서 보내십니까? 여가시간을 주로 어디에서 보냅니까? 북경이외에 몇 군데나 여행을 했는지요?

- D 전에는 술을 즐겨 마셨습니다. 지금은 술을 끊고 여가로는 집에서 DVD를 즐겨 봅니다. 여행을 갔던 곳은 동부의 '남경', '상해', '소주', '해남도', '광주', '심천', '홍콩'에 갔었고 남경에서 살았고 '단둥', '심양'에서도 살았습니다. 추억이 있어서 자꾸 놀러 갑니다. 여행은 가고 싶을 때 조금씩 갑니다. 한국적으로 문화생활을 할 수 있지만 중국식으로 여행을 하면 반 정도 듭니다. 중국이라 생각하면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 C 여행은 '내몽고', '천진', '다통'에 갔고 학교에 매여 있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적고 일이 생겨서 한국에도 가고 여가시간에는 산책하고 여자 친구와 돌아다니고 친구들과 피크닉도 가고 그러나 평일은 학교에 가고 집에서 놀입니다. 한국은 돌아다녀도 재미가 있는데 여기는 돌아

- 다녀도 재미가 없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이곳은 다 평지라 맥이 빠져요.
- B 여행은 ‘내몽고’, ‘운남’, ‘사천성’ 15일 동안 ‘상해’, ‘황산’, ‘항주’, ‘천진’에 친구가 있어서 5번쯤 갔습니다. 여가시간에 TV 보기, DVD, 쇼핑을 합니다. 무료할 때도 있습니다. 우다코는 질리는 동네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평일에 공부하느라 올해는 시험이 끝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가 무료하니까 DVD를 샀습니다. 우다코는 한국식당이 많고 중국식당이 적어서 별로 이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점점 질리는 동네가 우다코라고 친구들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술 마시는 것이 좋았지만 중국에서는 기회도 없었고 그러나 학원에 와서 동우들과 선생과 함께 마십니다.
- A 원래는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평소에는 친구 만나고 책보고 인터넷, 교회 생활 중국에서는 여행을 하자 않았고 여름방학에 동남아를 다녔습니다. 평소에 가끔씩 무료하다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 학생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합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전화를 합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이메일을 합니까?

- A 전화는 한 달에 2-3번 정도, 친구들은 자주 ‘메신저’로 연락합니다.
- B 처음 기숙사생활 할 때는 한 달에 2-3번 정도, 외주하면서부터는 부모가 1주일에 2번 정도 연락하고 지금은 한 달에 2-3번 정도 합니다. 친구들은 연락이 잦습니다. 친구에게는 1주일에 1-3번 정도 합니다. 부모는 걱정을 해서 전화하고 무료하면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 C 어머니는 3일에 1번 아버지는 일 년에 1번, 처음에는 전화를 했는데 요즘은 친구들과는 온라인상에서 가끔 합니다. 저번에는 힘들어서 술 마시고 한국에 자주 했는데 요즘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 D 처음엔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돈 떨어지면 연락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전화회수가 정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의무감으로 하고 전화요금 세일이 있을 때는 자주 했으나 요즘은 일주일에 1-2번

정도 합니다.

-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매우 친한 친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은 이성친구가 있습니까? 이성친구가 있다면, 한국인 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이성친구 외에 매우 친한 친구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그 친구들과는 일주일에 며칠 정도 만납니까? 또한 그 친구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여자 친구 있습니다, 친구들 많은 편입니다. 관계도 좋습니다. 외국 친구들과는 친밀도는 떨어지고 가끔 밥 먹고 놀 때 같이 있는 정도예요.

B 문제는 없고 같은 과에서 같이 와서 가끔 만나는데 친한 친구들은 한국에 가서 학원에서 언니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가면 제주도라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C 친구가 적지는 않는데 특히 깊이 사귀는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같은 학교 다니는 정도 시험 때는 내가 자료가 많아서 연락이 많은데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친한 친구는 거의 매일 만납니다. 주말에는 술도 먹고.

D 친구에 경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이 사는 친구처럼 몇 만 원 정도의 돈도 줄 수 있는 사이도 있고 사람들을 단계로 나눕니다. 관계에서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 학생은 술을 마시는지요? 마신다면,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요? 담배는요?

D 담배 경력은 10년이고, 금연한 지 6개월 되었습니다. 술이 맛이 있어서 술을 먹었습니다. 집에 양주를 쌓아놓고 자기 전에 규칙적으로 먹고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2-3잔 마시고 술을 매주 좋아합니다. 취하게는 먹지 않습니다. 건강상에 문제로 술을 끊었어요. 남자 사이에 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예요.

- C 담배는 피워 본 적 없어요. 술은 중학교 때 부터 마셨지만 적당히 마셨어요. 북경에 와서는 오히려 많이 줄입니다. 이곳에서 술을 취한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친한 친구들과 가끔 마십니다.
- A 술, 담배 전혀 하지 않았고, 술자리를 즐기지도 않았어요.
- B 한국보다 술을 덜했고 이곳에서는 그렇게 마시지 않습니다.

- 학생은 얼마나 자주 외롭다고 느끼는지요? 외로울 때는 어떻게 외로움을 달래는지요?

- A 가끔 외로움을 느낍니다. 기도하거나 성경책을 보고 친구들과 만나고---
- B 다른 사람에 비해 외로운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외롭다기보다 무료하다고 느낍니다. 외로워서 한국에 가고 싶은 적은 없습니다. 많이 외로울 때는 잠을 잡니다.
- C 한국에서는 많이 우울했으나 우울증이 있었는데 생활이 단조로우니까 중국에서 많이 회복 되었고 여자 친구와 헤어져서 그 때는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고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도 한국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이 떨어져 살았고 집에서 말도 한마디 이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화도 매일 하니까 관계도 친해졌습니다.
- D 외로울 때는 술 마시거나 폭식, 운동하고 다양합니다. 나름대로 외로워지고 싶어 해요. 외로워지면 혼자 술을 마시거나 혼자 여행을 갑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있기도 하고---

- 학생은 현재 중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한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A 중국사회에 적응한다는 말이 웃기고 왜냐하면 중국사회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 있는 유학생 문화에 적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는데 한번 씩은 가끔 중국인가 생각합니다.

- B 한국 사람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실제로 사는 데는 어려운 점은 없습니
다. 중국문화에 빨리 적응한 편입니다.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음식도 잘 맛있어요. 외국인이라 당해야 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집을 구
할 때도 말이 안 되어서 어려운데 주인이 무시했고 작은 일에서 큰일에
까지 짜증났어요. 지금은 적응이 되었습니다. 신호등도 지키지 않는 것이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든지, 여행 혹은 집을 구할 때 사기를
당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적응이 되고 어렵게 느껴지
지 않습니다.
- C 중국사회에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학생
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없고 학업에 대해 토론을 하는 등이 없어서 중국
문화에 대해 말하기가 어려워요. 생활하는 전반적인 것에 적응하는 듯합
니다. 중국 음식에 대한 적응이 어렵습니다. 중국 애들은 일단 약속을 했
다가도 먼저 전화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다고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
다. 한번 중국 애들과 한국 애들이 우리 집에 왔다가 다음 주에 다 같이
친구 집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전날 저녁에 내일 언제 올
거냐고 물으니깐 중국 애들이 다 같이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말을 미리
해야지 했더니 그럴 수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중국 친구들과 약속 정하
기가 어려워요. 약속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 D 처음부터 좋았습니다. 무단행동도 좋았고 ‘단동’은 중앙선이 없어도 사고
가 잘 안 납니다. 나름대로 중국 문화에 대해 너무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사스’ 때도 중국에서 중국 친구들과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인터넷 카페
에서 독특한 음식을 먹는 코너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문화에 대한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중국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한국 친구
들과의 모임이나 모두 재미있습니다. 이곳은 문화가 재미있고 좋습니다.

- 학생은 중국에 유학 온 것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B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알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중

국문화를 통해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언어도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이곳에 와서 중국문화를 통해 많이 배우고 갑니다.

A 온 것을 잘 한 것 같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어요.

C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것이 많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는 기억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학생회 활동도 했는데 한국에 비해 부족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학 생활의 폭이 좁아서 문화의 단절을 느낍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언어를 잘하고 좀 더 돌아다니면 나아질 것입니다. 조금하게 입시만 바라고 대학을 들어가고 복경만 있어서 좁아지는 듯합니다. 휴학도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빨리 졸업하는 것이 길입니다. 더욱 다양한 대학 생활을 누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D 후회도 많아요. 아쉬운 점, 다양한 곳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너무 반복적으로 갔던 곳을 갔습니다. 연수에 대한 것 보다 사업의 기회를 잡지 못한 것 즉 생각을 했는데 실현을 하지 않은 것 등이 후회가 됩니다. 후회 보다는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흥미롭고 대학기준이 간단했는데 중국어를 여러 경험을 통해 하다 보니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학업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재미있고 중국인이 재미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을 만나면서 내 돈을 쓰기 보다 그들이 쓰게 하고 우리나라에 오면 내가 쓴다는 생각으로 만났는데 만일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면 집에서 한국요리를 해 주면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한국인이 실수하는 것 등에 대해서 듣다 보면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놀면서 생활하니까 재미있습니다.

- 현재 학생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왜 그런지 자유롭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B 다른 한국인들이 HSK를 다 공부하기 때문에 나도 텅달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상황이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C 언어상의 문제, 좀 더 나은 실력을 쌓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잘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학교 친구들과의 대화가 너무 뻘해서 재미가 없어요. 중국신문도 보고 중국어를 더 해야겠습니다. 중국이 정말 공기가 나쁩니다. 원래 게임할 때 졸지 않는데 여기서 게임 하다가 졸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사기 치는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D 공기와 물이 더러워서 좀 힘들어요.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몸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술과 불규칙적인 생활로 인해 위가 나빠요. 고기를 먹지 말고 야채만 먹어야 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국말을 할수록 물건 값을 깎기가 어려워집니다. 택시를 탈 때 가짜 돈으로 받아서 손해를 보았는데 어떻게 중국 애한테 쓸까 생각 중입니다.

A 문화적인 것 때문에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우다코 거리에 나가도 답답해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답답해서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은 공부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없는데 이곳이 답답해요. 문화적인 차이로 한번 씩 갑갑합니다.

사회자: 장시간 토론조사에 응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Focus Group Discussion #6

(어언대, 중국 유학 2년 이상)

일 시: 2006. 9. 28 18:40 - 20:00

장 소: 김익기 교수 댁

사 회: 김익기 교수

참석자: A (남자, 대학생, 26세, 중국유학 2년 6개월)

B (남자, 대학생, 28세, 중국유학 3년)

C (여자, 대학생, 25세, 중국유학 3년)

D (남자, 대학생, 28세, 중국유학 2년)

사회자: 이제부터 어언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생활 적응에 관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학생은 처음 중국에 올 때 언제 누구와 같이 왔습니까? 처음 올 때 두려움은 없었는지?

C 처음에 친언니와 함께 왔어요. 처음에 중국어를 몰랐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처음에 안 좋은 일도 많았어요. 유학원을 통해서 연수를 왔고 곧 바로 온 것이 아니고 연수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중국이 좋아지게 되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므로 생활이 약간 어려웠으나 주변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어요.

D 형이 어언대를 졸업하고 장사를 해서 형 때문에 왔고 처음에 와서 언어가 안 되니까 북경에 있는 형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지금은 형이 없어요.

B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이 중국어였어요.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렵지가 않아서 재미있었고 나중에 학교를 휴학하고 언어 연수를 왔는데 외국 나간다

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놀러 갔다 온다는 생각으로 왔어요. 군대도 놀러갔다 온다고 생각해서 중국에 올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오니까 어언대에 모아 놓아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A 처음 오게 된 계기는 아버지가 중국에서 직장을 10여년 다니시니까 아버지 때문에 왔어요.

사회자: 지금도 북경에 계신가?

A 지금 천진에 계세요. 아버지를 통해서 왔고 군 생활을 마치고 와서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 학생이 유학을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중국에 온 이유는 무엇이고 유학을 온 계기는 누구 때문입니까?

B 배운 것이 중국어였고 그때 듣기로는 중국이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깐--- 그리고 유학을 한 사람이 있었고 아버지 친구나 자제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곳에서 회사에서 보냈고 주재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배워두면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사회자: 우리 여학생은 중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

C 3학년 휴강을 하고 언니가 중국에 오고 싶다고 해서 나도 중국에 대해 생각했는데 한국말 잘하는 중국친구가 너도 가면 좋을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때 TV에서 중국에 대해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큰 나라에 오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D 나는 반 타의 반 자의로 왔고 중국이 발전가능성이 있고 비전이 많을 것 같아서요. 나는 중국어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일본어를 공부해서 처음에는 갈등을 많이 했어요. 막상 중국에 오니까 공부하면서 잘 왔다 생각해요.

사회자: 타의 반은 무엇인가?

D 아버지가 일본에 원래 있었는데 용돈을 안 보내 준다고 해서요. 처음에는 싫었는데 이제는 잘 했다고 생각해요.

- 학생은 중국에 오기 전에 중국의 언어나 풍습 등에 대해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까?

B 오기 3달 전에 학원을 끈었는데 잘 안 갔고 아르바트를 해서 무작정 왔어요. 사회자: 별로 준비없이 왔나? 네

C 보름 정도 준비하고 3학년 다니다가 왔어요.

사회자: 대부분 준비를 별로 하지 않고 왔네. 미국 가는 학생들은 준비를 많이 하는데 중국 오는 학생들은 그동안 토론을 해봐도 별로 준비를 한 애들이 없어. 중국이 쉽다고 해서 그런가?

D 별로---

- 학생은 현재 어디에서,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잘 못 지내고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C 친언니랑 살고 있어요.

D 형이랑 있다가 형이 한국에 가고 지금 혼자 있어요.

A 동갑내기 친구랑 살고 있는데 이번학기부터 살고 있고 같은 학교 학생이에요. 각자 생활은 따로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B 지금 동왕장에 혼자 살고 있어요.

사회자: 동왕장예? 그럼 문제가 없네. 혼자 살고 있으니까.

- 학생은 현재 중국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요? 중국어를 배운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B 배운 것은 4년인데 중간에 휴학을 했었고 어려움이 많죠. 듣기보다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특히 심하게 말을 안 하는 편이고 처음 만날 때 사람을 낮을 가려서 더욱 어려워요. 한국 사람을 만나도 낮을 가리는

데 중국사람 이니까 더 그렇고. 웬지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말을 잘 못하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말을 안 하게 되었고요.

A 원래 내성적인데 어디 가서 과묵하고 싶고 속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스스로 말을 배우고 싶어서 일부로 말을 더 많이 하고 친구를 더 사귀려고 했어요. 2년 반 3년 정도 배웠는데도 한참 멀었고 어떨 때는 답답해요.

C 듣는 것은 어느 정도 되나 말하는 것이 잘 안 되면 답답하기도 하고 중국친구를 만나면 서슴없이 하는데 낯선 사람들과 말하려면 실수 할까봐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잘 말을 안 해요.

D 저 같은 경우는 방학 때 한국에 가므로 굉장히 타격이 심하더라구요. 언어 배울 때는 실제적으로는 1년이 되고 기간은 2년이 되었지만 듣기는 많이 늘었는데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법과 어순이 틀리고 문법도 틀리고 고쳐야 하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 학생은 지난 1년간 학교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요? 그리고 학교수업이 학생을 성적향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B 저 같은 경우는 유학생 위주로 수업을 해서 어려운 단어나 문법을 잘 안 쓰고 학교에서 쉽게 쉽게 설명해서 수업에 어려움 없어요.

사회자: 수업은 별 어려움이 없고?

C 수업은 별 문제가 없는데 숙제 내주시는데 혼자 버거움이 있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숙제 해갖고 가면 친구들이 고쳐주고 그런 식으로.

사회자: 중국친구들이?

C 네. 못 만나거든요. 중국친구들은 전화가 매일 와요 멀리서. 그래서 전화로 불러주면 전화로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요.

D 수업을 그렇게 어렵다고 못 느끼는데요. 숙제는 혼자 버거우므로 도서관 등에서 중국인을 붙잡고 물어 봐요.

사회자: 모르는 중국학생한테?

C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시험 때만---

사회자: 그러면 잘 도와 줘 모르는 친구도?

C 외국인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연락처 받기도 하는데
--- 지속적이어야 하는데 일회성 만남이라 아쉬워요.

사회자: 중국친구 있나? 중국친구 많지?

A 많이는 없고 2명 정도 있어요.

A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모르거나 수업에 관해서 숙제를 하거나 작문을 할 때는 제가 미안해서 그런지 중국인에게 부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구체적으로 푸다오를 구한다든지 해서 저도 일회용으로 잠깐 만나서 돈 주고 그렇게---

사회자: 북경대 학생들은 전공이 사회, 역사라 수업듣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언어이므로 듣기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들리는데. 다르네. 근본적으로.

- 학생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중국에 머무를 예정입니까? 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면 계속 중국에 남을 예정입니까?

A 졸업 후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물론 한국에서 구하고 중국으로 파견하면 괜찮을 것 같고, 안 된다면 중국에서 찾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중국에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B 졸업하면 한국에 갈 생각은 없는데, 아니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가겠지만 보수가 적어도 이곳에서---

사회자: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중국에서 구한다고 하는데 어디가 직장잡기가 더 쉬운가?

A 한국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C 졸업 후에 중국에서---

사회자: 다 중국생활이 좋은가 보네. 중국에 남겠다는 것을 보니까

B 아무래도 경력 쌓는 것이---

사회자: 경력 쌓는 것이 필요하니까?

C 나중에 한국 가서--- 경력을 위해서라도 중국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D 한국에서 찾고 아직은 모르겠고 제가 제 일을 하게 될지 다른 일을 하게 될지 구체적인 확실한 계획은 아직 없어요.

- 학생은 주로 누구와 함께 여가를 보냅니까?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면서 보내십니까? 여가시간을 주로 어디에서 보냅니까? 북경이외에 몇 군데나 여행을 했는지요?

A 평일에 여가시간이 나면 운동이나 책을 보는 것이 좋은데 실제로 생활은 그렇지 않고요. 약간 게으르고 집에서 허무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어요. 신세 한탄도 하고.

사회자: 테니스를 주기적으로 치잖아?

A 여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테니스를 치는 것밖에는.

사회자: B는 테니스 외에 다른 여가가?

B 예전에 청화대 사람들과 당구를 쳤어요.

사회자: 당구는 얼마 쳐?

B 한 300정도 치는데 당구치고 저녁에 밥 먹고 술 먹고 헤어지는 데 그런 생활이 오래 되었는데 저번 학기에 끝났어요. 요즈음은 주말에 테니스를 치고 친구와 함께 간단하게 저녁 먹고 술 마시는 그런 생활이요.

C 평일은 시간이 없어요. 숙제가 많아서 주말에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여행도 가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해서 친구 가끔 만나서 술도 먹고---

D 1-2학년 때는 볼링을 많이 쳤고 집에 있어 소요하는 시간이 많고 주말에는 가끔 술 마시고,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 학생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합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전화를 합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이메일을 합니까?

C 한국에서 전화를 자주하고 친구들이 한국에서 전화를 하고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은 ‘싸이’를 사용해요.

D 전화를 많이 쓰고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회자: 친구들하고 자주하고? 가족하고는 주로?

D 가족은 전화로 해요.

B 누나와는 ‘메신저’로 부모와는 전화를 해요. 평시에 전화를 잘 하지 않고 오는 것만 받아요.

A 가족과는 자주합니다.

사회자: 아버지가 천진에 계신다고 했지? 아버지만 계신가?

A 가족이 다 천진에 계십니다. 한국의 친척이나 친구와는 아주 가끔 합니다. 나머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매우 친한 친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은 이성친구가 있습니까? 이성친구가 있다면, 한국인 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이성친구 외에 매우 친한 친구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그 친구들과는 일주일에 며칠 정도 만납니까? 또한 그 친구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있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하하. 지금 없습니다. 중국 와서 한 번도 없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일반친구 중국친구가 많지 않나?

A 중국친구는 많지 않고 그것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알게 되었고 마음에 드는 교포친구도 있고요. 가끔 연락하고 교포 친구 등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직접적으로는 연락하는 친구는 한명이 있어요. 우연치 않게 알게 되었고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사회자: 그전에 들어보니까 중국친구와 사귀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저번에
북경대 학생들은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도 사귀기가 어렵다
고 하던데? 여기는 대학 때 왔으니까 또 어떻게 다른가? B는 어떤
가? 여자친구 있어?

B 아직 여자 친구 없어요. 예전에는 중국 애들과 친구를 사귀려고 했는데
지금은 푸다오가 많으니까 돈으로 사귀게 되니까 쉽게 친구로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중국 애들은 오히려 영어를 배우려고 영어 잘하는 서양
애들을 만나려고 해요. 한국 애들 중에 영어를 잘하는 애들에게는 친하려
고 해요.

C 저는 남자친구가 있고 중국에서 만난 중국 친구는 4명이고 연수했던 북경
외곽지역의 친구들이예요. 순진한 애들이고 착하더라고요. 서양 애들과는
친해져야겠다는 그런 것이 없어요. 어언대 여자 애들은 남자 애들과 사
귀려 하고 말을 시키면 한마디로 딱딱 자르고, 한국 남자애들을 엄청 좋
아해요 서양 남자애들 여자애들은 다 좋아하는데 영어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동양여자애들에게는 관심이 별로인 것 같아요. 아쉬워요. 중국 여자
애들이 드라마 때문인지 한국남자가 최고래요. 소개시켜 달라고 그런 친
구가 많았어요. 제 친구들 중 한국 여자애가 영국에서 유학하다 왔는데
말을 좋아하고 생각이 띄었는데 직장 다니는 애들을 주로 만났어요. 그래
서 소개를 시켜주면 직장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얼
마를 쓰냐 무얼 할 건가 등을 물어서 지속적인 관계가 되지 않아서 저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D 여자친구가 한국에 있어요. 푸다오와 전에 만났었는데 지금은 중국친구와
자주 만나지 않아요.

사회자: 이곳은 별로 관계가 나쁘지 않은가보네. 지난번에 여기에서 고등학
교 나온 북경대 학생들은 친구를 사귀려고 해도 깊이 사귀기가 어
렵다고 하던데. 여기는 깊이가 없어서 피상적으로 만나서 그런가?

C 친해지기가 어려운데 처음에는 사귀기가 힘들어요. 일단 사귀면 한국친구
보다 더 깊은데요. 한번 사귀면 더 좋던데요.

- 학생은 술을 마시는지요? 마신다면,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요? 담배는?

A 저번 학기에는 자주 했으나 개인적으로 결심한 것이 있어서 담배는 많이 안 피우는데--- 술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친구와 함께 해요.

B 자주 마시고 술을 좋아하고 담배는 끊었다기 보다 안 핀 적이 두 번 있는데 그중에 지금 두 번째 시도하고 있어요.

사회자: 술은 매일 마시나?

B 술은 매일은 아니고 자주 마셔요. 맥주 한잔 정도는. 회식 때 항상 많이 마시니까 주변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요.

A 보기에겐 내가 더 많이 마실 것 같은데 형이 2배 3배 정도 더 마셔요.

C 저는 자주 마시지 않으나 주말 금요일 등에 학교 끝나면 동생들이 연락이 오고 술 마시는 분위기가 좋아요. 같이 어울리고 진심들이 오고 가므로 좋아요.

D 2학년까지는 마셨으나 3학년이후로 술이 땡기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좋아서 많이 마시지 않아요. 분위기를 좋아해요.

- 학생 주변의 한국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비행에 대해서 들은 사례가 있으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C 저번 학기에 들었는데 동거가 심하데요. 수업시간 중 휴식시간에 들었는데 동거하는 남학생이 술을 마시고 여학생을 폭행을 했데요. 그런 인간이 있는가 했는데 다음에 다시 손잡고 다시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사람이 엄청 많대요.

D 제가 사고 친 것을 본적은 없어요. 이야기를 들은 것이예요. 2학년 때 알던 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좋아했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 성격이 변하는데 여자 친구랑 길을 가다가 중국인과 시비를 붙어서 치고 받고 하다가 공안이 와서 나중에 합의금을 물은 적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B 여기에는 오토바이 사고가 많고 죽은 애들도 있는데 의외로 많은데 한해

에 몇 번 이런 얘기를 들어요. 간섭도 없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조선족과 싸움이 붙는 사고도 있는데 조선족은 보기에 자기들도 한국말 할 줄 아는데 봉급은 적게 받고 하니까 술을 먹고 가다가 시비를 걸어요. 조선족들과 몇 번 시비가 붙을 뻔했는데 시비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비전(식당)에서 조선족강패와 주인이 손님인 한국학생을 폭행하고 공안에 서도 불러서 협박하고 그렇게 했대요.

- A 오토바이문제가 많고 어린애들(중고등학생)도 많이 타고 다녀요. 부모와 온 애들도 있지만 애들끼리 온 애들이 술을 마시고 가기도 하고 저번 학기에 들었는데 저와 동갑짜리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 학생은 얼마나 자주 외롭다고 느끼는지요? 외로울 때는 어떻게 외로움을 달래는지요?

- D 외로우면 여자 친구에게 전화해요. 요즘에 외로울 때가 많아요. 가을이라 그런지. 그런 때는 술을 마시거나 그래요. 아플 때가 더 외로워요. 학교를 가야하고 챙겨줄 사람이 없고 그럴 때는 한국에 가고 싶다고 생각해요.

사회자: 여기는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텐데?

- C 저는 남자친구가 있으니까요. 허나 저번 학기에 외로움이 많았어요. 언니가 같이 있다 보니까 자주 싸워요. 싸우고 나면 언니가 꼭 집에 전화를 해요. 언니도 어언대 같이 다니는데요. 엄마가 전화가 와서 언니를 못살게 구냐고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 내가 여기 와서 뭐하는 거야?” 하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때 당시 언니는 남자 친구가 있었고 나는 없었어요. 참지 못하고 나가서 친한 언니와 함께 술을 먹고 방학 때는 중국에 있었는데 외로우면 무조건 여행을 떠나요. 베낭지고 떠나요.

- B 아팠을 때 열이 39도가 되었을 때 막상 아프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주변에서 걱정을 하는데도 미안하기도 하고 여자 친구가 없을 때 아

파요. 병원 혼자 갈 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며 한국 가면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하면서.

A 저는 밤마다 외롭습니다. 하하.

사회자: 그럼 달래는 방법이 있어?

A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요. 아무한테 그날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술을 가볍게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래요.

- 학생은 현재 중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한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사람과의 관계, 교통문제, 거래문제 마찰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내가 잘 적응하고 있는 지?

B 중국 사람들은 중요시하는 것이 돈 돈인 것 같아요. 무엇을 해도 야진(보 증금)이 필요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도 돈거래 하고 상당히 돈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생활에 적응 잘 했다고 생각해요. 잔돈을 줄 때 여기서는 던지는데 처음에는 욱을 했어요. 요즈음에는 나도 바닥에 던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 너무 적응을 잘하고, 쓰레기도 (분리수거 안 하고) 한 꺼번에 버리고 한국 같으면 잘 안 되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C 저는 중국생활이 한국생활보다 편해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도 되고, 횡단보도를 아무렇게나 건너도 되고.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이 싫었고 차도 뺑뺑거리고 중국 사람들과 자주 싸웠는데. 그러면서 중국어를 배웠어요. 중국어 선생이 중국 사람들과 싸우라고 그러면 중국어가 정말 많이 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온 지 꽤 되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아직도 싫은 것이 차를 몰 때 뺑뺑 거리는 거예요. 문화가 우리보다 떨어지니까. 그런데 저도 배우더라고요. 뺑뺑거릴 때 나도 비키지 않고 중국인처럼 천천히 가요. 적응을 잘하는 거죠.

D 처음에는 교통이 적응이 어려웠어요. 지금은 편해요 신호 안 지키고. 그러다 한국에서 적응이 안돼요. 여기에서 방계약시 가장 많이 싸웠어요. 냉

장고, 소파 등을 바꾸어 달라면 대화가 어렵고. 그러면 나가라 그래요. 방을 뺄 때 쯤 어떻게든지 야진(보증금)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그것이 지금 가장 안 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은 성향을 아니까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A 알면서도 아직도 중국인과 싸웁니다.

사회자: 특히 무엇에 관해서 싸워?

A 기본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을 때요. 택시기사들이 뻔히 아는 길인데 돌아갈 때 택시기사들과 싸우고--- 돈이 걸려 있을 때 중국인과 싸워요. 특히 택시 타면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사회자: 택시기사들과 싸울 때 겁나지 않나?

C 저는 막무가내로 덤빌 때는 덤벼요.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걸 무서워해요. 외국 사람이라고 속이고 그러면 당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열 받아서 막 그러면 막무가내로 막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막무가내 스타일을 무서워해요. 그러면, “알았다. 알았다. 네가 이겼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 몇 번 봤어요. 어두울 때는 싸우고 나서 무서워서 호텔에 와서 방문 잠그고 그랬어요.

- 학생은 중국에 유학 온 것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B 유학을 오기는 잘 왔는데 생활은 잘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딱 말하기가--- 배우는 것은 하나라도 더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나중에라도 쓸 일이 있으니까 잘 왔다고 생각해요.

C 유학은 제가 결정한 것이니까 후회는 없는데 어언대 온 것이 후회가 돼요. 본과 들어오고 나서 생활이 바뀌어 버리니까. 연수 때는 중국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공부도 많이 해서 중국을 잘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과 들어가면 더 잘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여기오니 공부하는 것은 후회가 없으나 생활은 한국인들을 자주 만나니까 바꾸려고 해도 생각은 그렇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D 타의로 왔지만 이곳에 온 것을 후회는 안하는데 생활하는 것은 후회해요. 같은 시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말하는 것이 진보가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후회가 되고 생활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온 것은 후회 안 해요.

A 저는 가족과 같이 와서 좋고 희망이 있을 것도 같아요.

- 학생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요? 여러 가지 중에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또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지요?

A 제가 몰랐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삭히고 고민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공을 때리면서 풀고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풀고. 그중에서 학업에 관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B 저는 장래문제가 걱정이예요. 이전에는 “나이가 어렸으니까 공부만 하면 되지” 했는데 지금 친구들이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는데 사는 것을 힘들어하더라고요. 내가 여기를 졸업해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좋은 이야기는 많이 듣고 왔는데. “내가 하면 잘 될까?” 그런 생각이 들면 술 한 잔 하고 누나나 형들을 만나면서 해소되기도 해요.

C 장래문제예요. 친구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포기하고 와서 아직도 졸업하려면 2년이 더 있어야 하는데 그 때 되면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많을 텐데--- 이걸 나와서 좋은 일자리가 있을까 우려 돼요. 스트레스가 오면 저는 말을 잘 안하는데 혼자 끙끙 앓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친구에게 술 먹자고 전화해요. 내 이야기는 잘 안하고 친구를 만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잊으려고 노력하고 혼자 삭히는 편이에요.

D 나이를 먹다보니까 장래문제가 걱정이고 막상 왔는데 졸업하면 써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앞으로 어떨지 확신이 없어요. 나중에 이걸 할지 다른 것을 하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요.

- 현재 학생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왜 그런지 자유롭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C 교통문제가 어려워요. 버스를 잘 이용 못 하니까 주로 택시를 이용하는데 좀 그래요. 가까울 때 헤이커(사제차)를 타요. 멀리 갈 때는 가끔요.

- 학생이 중국에 몇 년 살면서 새로 유학 오는 학생들에게 중국사회에 적응을 잘 하도록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C 지금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은 중국이 아직 우리보다 후진국이란 인식이 강해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왔으면 좋겠어요.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같은 유학인데 다른 나라에 가는 학생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중국 오면 여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할 생각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D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살아보니까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중국친구들을 많이 만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말 배우는 것도 목적이지만 문화를 이해하려면 중국친구를 자주 만나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도록 교류를 했으면 해요.

B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정해 놓고 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기 오는 학생들 보면 도피유학을 하러 오는 애들 상당히 많은데 그런 친구들도 확신을 갖고 한가지라고 확실하게 했으면---

A 중국에 대한 인식이 젊은 애들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중국을 안 좋게 보지 말고 배우는 마음가짐을 갖고 스스로 강한 마음을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자기 생활은 자기가 해 나가면서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것이니까요.

Focus Group Discussion #7

(중국인 교사 집단)

시 간: 2006년 10월 7일 오전 10시-12시

장 소: 김익기 교수 댁

사 회 : 김익기 교수

참석자: A (여자, 북경 출신, 만32세, 중국어 강의 경력 3년)

B (여자, 흑룡강 출신, 만35세, 중국어 강의 경력 6년)

C (여자, 흑룡강 출신, 만28세, 중국어 강의 경력 8년)

- 언제 처음 한국인 유학생을 만나보았는지요?

A 99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처음 유학생을 만나보았다. 그때 우리 반에는 여러 나라 학생이 많았는데 그중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이 제일 많았다. 그것이 나의 한국 유학생과의 첫 접촉 이었다.

사회 : 한국 사람에 대한 인상은 어떠했나요?

A 인상은 좋았다. 한국인들을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대부분 스스로 언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시험을 치룬다. 게다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학생들의 집안 사정은 대부분이 부유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B 저는 96 년도 고향 흑룡강 에서 북경으로 왔을 때, 내방 옆에 미국계 한국인이 살았는데 한국 사람들의 저녁모임에 초대해주었다. 그것이 한국 사람과의 첫 대면 이었다.

C 98 년도 중국어 한어를 가르칠 때 처음 만났다. 그때는 창업을 하려고 중국으로 온 한국인이나 직장에서 파견되어 온 성인 직장인이 많았고 유학생은 비교적 적었다. 창업이나 직장으로 인해 온 사람들은 주동적으로 공부에 임했고, 자기 일을 위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다.

- 한국인 친구가 있는가요? 있다면 몇 명 있는가요?

A 한 두 명 된다. 대부분 학생이고, 특히 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같은 종교의 학생을 만나면 비교적 빨리 친해진다. 그렇지만 진정 사적으로 교류하는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나도 가정이 있고 돌봐야 할 아이도 있고 그 친구들도 자기 생활이 있기 때문에 학생 때처럼 아무 일 없어도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함께 노는 친구는 없다. 하지만 도울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편이다.

B 깊은 관계인 한국인 친구는 없다.

C 나 역시도 학생 외에 친구처럼 만나는 한국인은 없다.

- 한어 학원에서 각각 무슨 과목을 가르치나요?

A 301 기초 한어 반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수업에선 한어 해석방법을 가르친다.

B 발음수업을 가르친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중급 한어 구어를 가르칠 예정이다.

C 나는 뉴스 듣기 수업을 강의한다.

-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한국유학생을 가르쳤나요?

전원: 확실히 잘 모르겠다.

사회: 몇 백 명 되나요? 예를 들어 C선생님은 8년 중 얼마나 많은지 기억하시나요?

C 너무 많다. 8년 중 대략 천명은 훨씬 넘을 것이다.

B 사실 우리 학원의 학생들의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기억을 정확하게 못한다. 단기 연수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고정된 시간을 두고 다니는 학생보다는 몇 주, 몇 달만 듣다 그만 두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른다.

- 지금 각 선생님의 반에 한국 학생은 몇 명인지요? 한국유학생 비율은 대략 얼마인지요?

A 지금 내가 가르치는 반 총 8명인데 다 한국인이다. 301 기초 한어 수업반은 총 20명중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한국인이다.

B 8시 수업엔 50프로가 한국 학생이고 나머지는 러시아, 일본 학생 등등 있다. 10시에는 한국인 학생이 없다. 오후 1시 수업엔 70프로가 한국인이다.

C 나의 반도 70-80 프로가 거의 다 한국인이다.

- 한국유학생의 일반적 한어 실력(수준)은 어떻습니까?

A 나이가 어릴수록 익히는 속도가 빠르다. 25 세 이하의 젊은이들은 자연스런 모방 아래 중국어를 쉽게 익힌다. 또한, 사고가 자유롭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미 자기 모국어의 언어습관과 사고가 강하게 굳어져 있어서 외국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렵다. 그리하여 나이 들은 사람은 열독 면에선 어린아이들보다 이해가 빠르나, 실제적으로 중국인들과의 교류 상의 능력 면에서는 어린아이들보다 발전의 한계가 있다. 비록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학생들보다 피동적이 아니기는 하나 발음이나 억양 등등 똑같이 모방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B 내가 느끼기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금세 수준이 늘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 유학 온 자기 목표의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다. 목표가 뚜렷한 학생은 스스로 중국인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한국에 돌아가서도 중국어 교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중국어를 잘 익히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부류는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발음, 어법에 주의하지 않고 제 멋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꺼려

실력이 늘지 않는다.

C 나의 수업은 듣기이다. 듣기의 특성은 근면함과 연관이 크다. 어법에선 한국인들의 실력이 우수하나, 듣기는 다른 나라 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출발한다. 그렇지만 유럽이나 일본사람들이 듣기실력이 훨씬 좋다. 내 생각에 한국 학생들의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어떤 학생은 한국에서도 좋은 학습의 습관 아래, 좋은 학력을 배경으로 하고 온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에서의 학습상태나 습관이 중국 와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 일반적으로 한국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C 우리 학원 6층에는 자습실이 있다. 대부분 한국학생들은 다 거기서 공부한다. 나라마다 어느 정도 학업습관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한국인의 학습 특성은 이렇게 좀 특수하다. 유럽인이나 다른 나라사람들은 커피점이나 거리에 다 있다. 어떤 점에선 도서관이나 자습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근면하다고 볼 수 있지만, 외국어를 공부하는 점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좀 더 도전적이라고 본다.

B 나의 수업은 오전 8시에 시작하는데, 사실 한국인들은 아침 일찍 있는 수업엔 잘 안 온다. 다음날 왜 수업에 안 왔는지 물어보면 전날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한다. 특히 한국인 집중구인 여기 우다코나 왕징 길거리에는 늦은 시간일수록 한국인이 많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르다고 본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듯하다.

A 내가 느끼기엔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한다. 그 외에 피동적으로 부모님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유학을 온 경우의 아이들은 본인이 스스로 주동적으로 공부를 찾아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슈퍼를 가도 중국슈퍼를 가면 1위안인데 한국슈퍼를 가면 2위안이다. 그렇지만 목적의식이 없는 학생들은 중국말이 하기 싫어서 한국슈퍼에 가곤 하는 곳을 간혹 본다. 그것은 자기의식 자기 목적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 다른 경우는, 회사에서 파견을 나왔거나 자기 스스로 창업을 하려고하면 자기 생존이 달렸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한다. 하지만 일부분의 학생들은 여전히 한국에서 살았던 그대로 한국식당이나 한국 커피점 한국 술집을 드나든다. 여전히 한국에서 살던 식으로 살려고 한다. 한국 술집이 아무리 비싸도 그런 곳만 찾는다. 생활습관과 자기 목표에 따라 공부 욕심도 달라지는 듯하다.

- 한국 학생들에 대한 인상을 말해볼까요?

- A 정말 예의적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 아이들을 보면 정말 생활면에서 만족스럽고 근면하다. 반면 어떤 학생들은 중국을 싫어하지만 떠나지는 못한다. 부모님의 강압적 요구에 왔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도 어쩔 수 없다. 낮에는 자고 밤에 술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많다. 그건 한국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국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외국 나가면 똑같은 현상을 보인다.
- C 이전엔 직장인이 많았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많다. 내가 봤을 때, 2000년도 이전에 유학 온 학생들의 소질이 높았다고 생각한다.

사회: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요?

- C 한중교류가 92년도에 수교되었다. 그때는 사실상 중국유학이 유행이 아니었다. 그저 삼성 현대 등 대기업사람들이 파견되어 오거나 아니면 교류가 되면서 개인이 무역을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사람들의 의식수준은 높았다. 지금은 무작정 중국에 와서 아무 목표 없이 요즘 너도나도 중국 유학을 하니까 하는 식으로 중국에 온 학생이 너무도 많다. 그렇게 온 학생들의 소질을 보장 할 수 없다.
- A 사실상 유학을 오는 학생들의 연령이 낮아졌다. 혼자 방을 구하고 혼자 밥을 해먹고 그런 점에 있어서 참 기특하다. 그렇지만 가족의 통제를 벗어나서 생활한다. 자칫하면 나쁜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노릇이다. 여기 오는 어린 아이들은 자기나라가 돈이 있고 자기 집에 돈이 있어서 유학을 왔다. 진정 자신이 공부를 위해서 다른 선진국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가

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경우와 다르다. 그렇기에 지금 오는 어린아이들은 경제면에서나 여러 가지 의식면에서도 문제가 조금씩 있다고 본다. 그것은 혼자 아이를 보낸 부모님 영향이 큰 것 같다. HSK(중국어자격고사) 급수만을 아이들에게서 원하는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

사회: 수업시간에는 어떠한가요?

B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점이 많다. 문화도 이전으로 올라가보면 같은 유교 사상에서 발전했다. 지금 한국은 무척이나 개방적이고 여자들은 주동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인이나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수업시간에 비교했을 때 예의적이기는 하나 가슴속에 둔 말을 표현 하려고 하지 않는다.

- 매 학생마다 다를 것인데요. 한국 학생들에 대한 인상이 변함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B 학생마다 다르다.

C 내가 수업을 막 시작 했을 땐 직장인이 많았고 그다음은 수교되고 나서 학생이 많았다.

지금 여기 오는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가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하나 부터 열까지 일일이 부모가 알아서 다 관리했던 아이들이 많다. 그런 학생들은 여기 와서도 공부를 주동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허나 지금은 또 다른 단계에 와 있다. 개성이 뚜렷하다. 어떤 학생은 자기 미래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 하고 어떤 학생은 놀기를 좋아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다 개개인의 소질과 목적의식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사회 : 한국학생에 대한 인상에 대해 변화가 있었나요?

A 난 아니다. 다 개성 있다. 내가 접촉하는 학생들 중에는 “중국이 싫다. 중국음식이 싫다.”라는 사람을 많이 만나본다. 중국자체를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권유하길, 마음속으로부터 중국을 인정하

고 중국 사람이 잘 안 씻고 거리가 더럽고 등등의 그런 사소한 것까지 인정해야 진정한 중국을 알 수 있고 중국어를 잘 할 수 있다고 말해준다. 정말 싫다면 얼른 부모님께 말을 해서 진정으로 본인이 가고 싶은 나라, 진정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 처음 선생님이 본 인상과 많이 변했나요?

C 내가 듣기론 중국에 50만 명 한국인이 있다고 들었다. 중국 옛 속담 중 “그 고장에 가면 그 고장 풍속을 따라야 하다”라는 말이 있다. 한민족은 역사상 비교적 표류적이었다. 심지어 러시아 내몽고까지도 한민족의 역사 흔적이 묻어있다. 내가 생각 할 땐, 이전 한국인은 한국의 진정한 의식을 잘 보존하고 세계 어디를 가던 한국문화를 잘 퍼뜨리고 계다가 그 나라 전통에 잘 맞추어 생활할 줄 알았던 민족이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잘 모른다. 어떤 전통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지 어떤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잘 모른 채 그저 편리함을 위해 한국인은 반드시 왕징(한국인 집중구)에 살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중국문화와 중국 사람들을 배격한다.

내 생각엔, 중국어를 잘 하려면 중국인들만이 사는 곳에서 진정으로 그들이 먹고 입고 하는 문화를 습득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기 베이징에 혼자 와서 학생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중국음식이나 중국전통이나 민족문화 등등 모든 것을 배격하고 여전히 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있다.

내가 강의를 막 시작했을 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심리 준비를 잘 하고 있었다. 중국 미래의 발전을 미리 알고, 중국의 발전을 예견, 예측하고 천천히 자연스레 중국을 습득해갔다. 하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다 오니까 그냥 학위만 받고 귀국하여 더 좋은 직장이나 얻으면 그만이다 해서 중국을 있는 자체로 다 인정하려 하지 않고 습득하지 않는다.

A 생활 습관 문제라고 본다. 그건 유럽을 가건 미국을 가건 다 똑같다. 여기서도 러시아인들은 러시아인들끼리 모여 있고 일본인들도 일본인끼리 만나고 사람마다 다 같다. 한국아이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보니 굳이 함께 어울리려면 한국 식당이나 한국 술집을 찾는 것이다.

B 매 학생마다 다르다보니 인상의 변화는 별루 없다.

- 한국유학생의 적응능력은 비교적 강한 편인가요?

A 정말 대단하다. 기숙사에서 안 사는 청소년들은 스스로 혼자서 여러 번의 이사를 해 가며 유학생살을 하는 것을 본다. 내가 봤을 땐, 중국인보다 한국인들의 경제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C 여전히 내 생각엔 연령마다 다른 것 같다. 대학입시를 앞둔 20세 이전 학생들은 적응능력에서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소통 문제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음식, 일상생활면에서 어린 학생들의 적응능력은 강하지 못하다. 또한, 여권문제 비자연기문제 등 여러 가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보니 방을 구할 때도 한국말이 통하는 조선족 부동산을 찾아 한국인 집주인에게 집을 구한다. 단독으로 찾는 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지 않는 점이 있지만 혼자 진정으로 중국사회에 적응하려 한다면 방을 구할 때도 중국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학생과 중국학생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B 중국인은 대학에 올라가서 정말 더 열심히 공부 한다. 이전에 들었는데 한국인들은 고등학교 때는 죽기 살기로 공부하다가 막상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공부에 대한 긴장을 푼다고 들었다.

사회: 중국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반드시 기숙사에서 산다고 들었습니다. 한국학생들은 꼭 그렇지 않는데요. 그러한 학습 환경과도 차이가 있다고 보나요?

B 그렇다. 학습 환경이 학교 안이라 무척이나 열심히 한다. 학교 안에서의 생활은 간단하고 소박 할 수밖에 없다. 학교 안에서 공부하고 학교 안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중국학생과 달리 한국학생들은 가정환경부터 다

르다. 안전한 곳에서 살려다보니 혼자서 밖에서 비싼 아파트에서 살게 되고 밥도 한국인 입맛에 맞추다 보니 중국음식보다 값비싼 한국 식당 음식을 찾게 되는 것 같다.

- C 한국학생들은 중국학생보다 우세한 점이 있다. 한국 비자는 중국과 달리 유럽 등 다른 나라를 갈 때 무비자라도 갈수 있다. 그렇게 자주 외국 문물을 접하다 보니 중국 학생보다 세상을 보는 시야와 생각이 자연히 넓어진다. 생활 질적인 면에서도 중국보다 우수해서 중국 학생들은 학교 기숙사 한 방에 6명이 살고 공동 화장실 공동 욕실을 쓰는데 반면 한국인들은 대부분 여기 와서도 혼자 아파트를 구해 단독 공간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 예를 들어, 음악, 예술, 영화 방면에서 개인 스스로 접촉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중국인들은 50 -70 프로는 그런 문화생활을 느낄 수없이 자랐다. 그런 교양적인 면에서도 한국학생들은 많이 누리고 자라왔기 때문에 중국학생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빈곤한 중국대학생들이 전체 학교 학생 수의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중국인 학생에게도 크게 우세한 점이 있긴 하다. “수많은 난관을 스스로 돌파 하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전엔 대학에 100분의 1 퍼센트 만이 대학에 들어갔다. 지금은 나아졌어도 100분의 12퍼센트만이 대학에 들어간다. 한국과는 완전 다르다. 그래서 중국인은 꾸준히 근면하게 공부하고 매우 특별나게 똑똑한 사람만이 대학을 갈 수 있기에 중국인들에게는 대학입학이 정말로 진귀한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대학을 가면 학생 모두가 그 소중한 기회를 확실히 장악해서 공부를 한다.

- A 한국인들의 경제 수준이 중국인들보다 높다. 경제수준이 높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도 좀 더 좋은 것을 찾는 것 이라고 본다. 중국인들은 학교서 산다. 설령 그 학생이 돈이 있다 해도 중국인들은 개인이 방을 얻고 사는 건 거의 없다. 모두 같은 조건에서 공부를 시키기 때문이다. 그건 나라마다 제도가 다른 것이다. 한국인들도 아껴서 열심히 유학생생활에 임하는 학생도 많다. 대다수가 유학생생활에서 많은 것을 얻어서 돌아가길 바란다.

사실 대부분 아이들은 어려움에 닥쳐도 외국에 혼자서 누군가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인들끼리 모이는 것 일 수도 있다.

- 한국유학생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존재하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A 한국 학생들은 일찍 눈을 뜬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어릴 적에는 엄마 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중국보다 개방적이 되었다. 한국아이들은 나이는 어려도 자기 나라말도 할 줄 알고 여기 와서 외국어도 터득한다. 어릴수록 습득 능력은 좋다. 문제는 대학입시를 앞둔 청소년이다. 고1-고2 나이 때의 학생이 문제가 많다고 본다. 15 세 이하의 부모가 같이 온 학생들에게는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7세에서 20살 이하의 학생은 문제가 많다. 부모 곁을 떠나 혼자 외국 생활에 접하면 혼란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 나이 때는 친구를 만나도 그 친구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조차 어렵다. 그래서 종교가 있다면 더 좋은 것 같다.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닌다면 거기 계시는 어른 분들의 보살핌이 도움이 될 수 있다.

B 어려서 유학 와서 좋은 점이라면 어릴 적부터 혼자 독립하여 언어를 배운다면 습득이 빨라서 좋다. 특히나 중국은 물가가 싸기 때문에 공부 방면에선 좋다고 본다. 과외나 학원수업을 적은 돈으로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한국보다 교육비가 싸기 때문에 여기서 영어 음악 이 모든 것을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런 점은 좋은 점인데 반면 학생이 너무 어린나이에 자기 가치관의 정립도 안 세워져 있을 때 여기 와서 갑자기 환경이 바뀌고 게다가 중국 학생들과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 점에선 걱정이다.

C 좋은 점은, 어려서 넓은 땅에 와서 시야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려서 배우는 외국어는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나 부모와 함께 온다면,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님의 보호 아래 생활 할 수 있으므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다른 신경을 안 써도 된다. 16-18세 아이들이 부모 없이 혼자 온다면 아이들은 이미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인생관이 아직 다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생각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외국에 혼자 왔다고 생각해보자. 외국에선 혼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가장 쉽게 언어 문제와 식사 문제 등의 문제이다. 갑자기 그런 생활상에 관련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혼란스러워 질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어린 나이라면 부모와 함께 오길 권한다.

B 모든 것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혼자 생활하기엔 외국이란 곳은 분명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비뚤어 질수도 있다.

- 한국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은 점이나 스스로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C 내 생각에 한국학생들의 문제는 우다코 등의 한국 학생 집중구에서는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중국아이들도 미국 호주 캐나다 등등 세계 각지에서 유학을 한다. 그런 아이들 역시도 자기 집에 돈이 있기 때문에 공부에 몰두하지 않고 자기 생활의 즐거움만을 추구한다. 그것은 한국 아이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아이들도 다 비슷하다. 외국 아이들도 부모 통제 없이 혼자 유학을 가면 파티를 열고 동거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청소년 때 인생관이 성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이이지만 이때 부모를 떠나 통제 없이 생활하게 된다면 누구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B 여기 한국아이들이 집중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여기가 집중지역이라 그런 경우를 많이 볼뿐이다

A 내가 외국에 있을 때 본 바로는 중국아이들도 어리지만 아주 비싼 차를 사거나 엉망으로 생활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건 한국인뿐만 아니라 어린나이에 혼자 보내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린나이에 부모를 떠나 혼자 유학을 하게 되면 술을 마시고 매일 파티를 열고 오히려 외국아이들이 더 심하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꼭 부모가 여건이 안 된다면 아이 옆에서 대신 보살펴 주는 사람이라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C 이걸 전 세계 아이들의 문제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도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이들을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부모 마음은 누구나 같다. 하지만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반드시 대학에 보내려는 부모 욕심에서 비롯해 어린 나이인데도 다른 나라로 유학을 보냄으로 해서 역효과가 더 나는 것 같다.

- 듣기론 중국 학생은 한국학생을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학생들은 북경 와서 많은 돈을 쓰며 사치 등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각자 의견을 말해 주세요.

B 그것은 생활 차이이다. 밤 문화를 즐기는 어떤 학생들은 때론 술을 먹고 난 후 함부로 행동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오토바이를 큰소리 내면서 타고 다녀 중국 이웃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한국인들은 혼자 외출 하지 않고 친구들과 여럿이서 어울려 논다. 어른들의 통제가 없고 하니 친구들끼리 술에 취해 길에서 시끄럽게 하니 당연 주위 중국인들에게 인상이 특별히 좋을 순 없다. 특히 한국인 집중구에선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런 이유로 어떤 이들에겐 한국학생들에 대한 인상이 안 좋지만 모든 학생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 한국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유학생활동을 위해 제안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한국 학생 중에는 적응도가 높은 학생도 있고 또는 준비 없이 무작정 와서 힘들어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중국유학생활동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 제안을 해주세요)

A 중국문화 이해 여기서 유학하려면 우선 중국 사람과 중국 문화에 대한 마음을 열고 와야 하고, 목적성을 분명히 두고 와야 한다. 중국 옛말 중 “爱

屋及乌” -사람을 사랑하여 그 집 지붕의 까마귀까지 좋아한다(아내가 귀여우면 처갓집 말뚝에다 대고 절을 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만이 중국에 대한 이해와 중국어의 발전이 따른다고 본다.

C 우선적으로, 자신의 모국을 사랑해야한다. 왜냐하면 한사람의 안 좋은 행동은 중국인에겐 한국 전체의 인상으로 굳어지게 된다. 그래서 작은 일에서도 개개인마다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는 중국을 사랑해야 한다. 중국 문화와 중국의 빈궁까지도 보듬고 사랑할 때 스스로의 중국생활은 분명히 더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B 나는 한국 아이들의 입장에서 말하고 싶다. 부모 없이 혼자 오면 생활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스트레스가 분명히 많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어학이라도 하고 와야 외국에 나오면 언어 소통 면에서 조금이나마 곤란을 덜 겪게 된다. 그리고 둘째로 목적의식이다. 만약 목적성 없이 무작정 유학을 왔을 때 어떤 힘든 일을 겪으면 쉽게 좌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왕 왔으면 다른 걱정이나 생각은 잠시 접고 무조건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본다.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6-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V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김기현
06-R01-1 청소년의 선호직업 및 직업가치 특성에 관한 연구 / 이경상·강영배
06-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현·유성렬
06-R01-3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응답패턴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현·민수홍
06-R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 : 결과부분 측정 지표 검증 /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
06-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 조사 I : 청소년 발달 종합지표 /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
06-R03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양계민·오승근·권두승·전명기·조대연
06-R04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 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
06-R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 최창욱·박영균·김진호·임성택·전성민
06-R05-1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용교·천정웅·안경순
06-R05-2 청소년 보호권 현황과 지표개발 / 황옥경·정준미
06-R05-3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중섭·박해석
06-R05-4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 강현아
06-R06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비교연구 / 오해섭·De-Ping Lu·Kazuhiko Fuwa
06-R07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 성운숙·박한우
06-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국내외 청소년 정보화 정책연구 / 이혜연·조정문·김아미
06-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청소년의 온라인 생활과 학업적응 현황 / 장근영·남주희
06-R09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 윤철경·조흥식·김향초·이규미·우정자
06-R10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 김경준·김지혜·류명화·정익중
06-R11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 서정아·권해수·정찬석·김귀랑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김은정·손승영·이기재·박현주 (자체번호 06-R1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 장혜경 · 홍승아 · 김혜영 (자체번호 06-R12-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일본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와타나베
히데끼 · 마츠다 시게끼 · 무꾸오 아사코 · 배지혜 (자체번호 06-R1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미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김재은 ·
김상학 (자체번호 06-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독일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서병문 ·
안드레아스헤네커 · 제스퍼 코글린 (자체번호 06-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6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최연혁 ·
피터 스트랜브링크 (자체번호 06-R12-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이춘화 · 윤옥경 · 조아미
(자체번호 06-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2 가정 ·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은경 ·
홍영오 (자체번호 06-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3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영지 · 방은령 ·
박정선 (자체번호 06-R13-2)

■ 수시과제

- 06-R14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실태 및 변화 / 김기현 · 이경상
- 06-R15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 / 강병철 · 김지혜
- 06-R16 중국유학 한국청소년의 규모추정과 적응실태연구 / 김익기
- 06-R17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인간관계: 이동전화와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 / 류춘렬
- 06-R1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환경 모델개발 / 김호순 · 황진구 · 한도희 · 김종훈
- 06-R19 청소년 법의식 평가척도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김신영 · 신동준
- 06-R20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의 중요성 / 고숙희 · 김영희 · 서동희
- 06-R21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조사 / 김현철
- 06-R22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최인재

■ ISSUE PAPER

- 06-IP0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태와 발전 방향 / 김영호
- 06-IP02 외국의 청소년근로보호정책 연구 - 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을 중심으로 / 김문섭
- 06-IP03 한국 청소년의 젠더 차이와 성차별 : 현황과 과제 / 손승영
- 06-IP04 사이버 상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 윤리지수 개발 · 평가 / 김성벽
- 06-IP05 청소년의 휴대전화 문제행동 현황과 과제 / 성윤숙

■ 영역과제

- 06-R25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권 확보방안 연구 / 최창욱 · 조혜영
- 06-R26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 성운숙 · 이혜연 · 이창호
- 06-R27 제10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 · 김경준 · 이춘화 · 김귀랑
- 06-R28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1차) 평가 / 김현철 · 백해정
- 06-R29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2차) 평가 / 김현철 · 백해정
- 06-R30 청소년 문화갈등 분석 및 세대간 문화소통 방안 / 박영균 · 박영신 · 김의철
- 06-R31 2006년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김신영 · 임지연
- 06-R32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김영지
- 06-R33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모형정립과 교류협력 모델개발 / 오해섭 · 이민희
- 06-R34 2006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만족도 조사연구 / 김은정
- 06-R35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천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이민희 · 오해섭 · 이장현 · 신순갑
- 06-R36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연구 / 이춘화 · 서정아
- 06-R37 2006년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 이민희 · 김경준 · 최창욱 · 황진구 · 성운숙 · 오승근 · 양계민
- 06-R38 2006년 청소년 백서 / 김현철 · 김기현
- 06-R39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영역사업(과제 :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 김기현 · 임지연
- 06-R40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 김기현 · 장근영
- 06-R41 청소년활동 참가 실태조사 연구 / 장근영 · 김기현
- 06-R42 제1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 · 김경준 · 이춘화 · 김귀랑
- 06-R43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 윤철경 · 김경준 · 박병식 · 정익중
- 06-R44 청소년행복 · 역량 지수 개발연구 / 김신영 · 이경상 · 백해정
- 06-R45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연구 / 임지연 · 김신영 · 김기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6-S01 「위기청소년 지역사회보호 현황진단 및 발전방안」 (6.17)
- 06-S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연구 workshop : 결과 부문 지표의 이론적/경험적 타당도 검증」 (6.21)
- 06-S03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중간발표 워크숍」 (6.23)
- 06-S04 「주요선진국의 가족정책 특성과 한국의 정책과제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협동연구기관 중간발표 워크숍 (6.29)
- 06-S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7.7~8)
- 06-S06 「청소년의 가족내 사회화과정 -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 5개국 비교」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8.2~5)

- 06-S07 「청소년 유형별 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8.14)
06-S08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8.17)
06-S09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 한국·중국·일본 3개국 비교」 (8.18)
06-S10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9.6~9.8)
06-S11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8.22)
06-S12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현황 및 발전방안」 (9.9)
06-S13 「청소년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최종발표 워크숍」 (10.10)
06-S14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최종발표 워크숍」 (10.19)
06-S15 「청소년과 미디어」 (11.10)
06-S16 「한국청소년행복지수」 (11.15)
06-S17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24)
06-S18 「청소년 활동관련 정책과 뉴 패러다임」 (12.6)
06-S19 「경영목표 · 혁신 직원 워크숍 및 청소년정책개발 · 연구를 위한 산 · 학 · 연 정책협의회」
(12.14~12.16)

■ 연구수행 자료집

- 06-M01 2005 연구보고서 요약집 / 연구기획팀
06-M02 2006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06-M03 2006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 연구기획팀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1호 (통권 제43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2호 (통권 제44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연구보고 06-R16

중국 유학 한국청소년의 규모추정과 적응실태

인 쇄 2006년 12월 7일

발 행 2006년 12월 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크리홍보(주) 전화 (02)737-537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제·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635-0(93330)